

고구려발해학회 2014년 정기학술대회

고구려발해학회 2014년 국제학술대회

고구려 세계유산 10년 국제학술대회
고구려 유산의 현황과 활용 그리고 전망

고구려 세계유산 10년 국제학술대회

고구려 유산의 현황과 활용 그리고 전망



오녀산성



환도산성과 산성하교분군

고구려 유산의 현황과 활용 그리고 전망

高句麗渤海學會

高句麗渤海學會

일시 | 2014년 7월 4일 금요일 10시~18시

장소 | 한성백제박물관 강당

주최 | 고구려발해학회

주관 | 고구려발해학회 · 한성백제박물관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고구려 세계유산 10년 국제학술대회

고구려 유산의 현황과 활용 그리고 전망

일 시 | 2014년 7월 4일 금요일 10시~18시

장 소 | 한성백제박물관 강당

주 최 | 고구려발해학회

주 관 | 고구려발해학회 · 한성백제박물관

후 원 | 동북아역사재단

세부일정

일시	발표 및 내용	비고
10:00~10:15	개회사 공석구(고구려발해학회 회장) 환영사 이인숙(한성백제박물관 관장)	
10:15~10:45	주제 중국 고구려 세계유산의 현황과 활용 발표 조법중(우석대학교) 토론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10:45~11:15	주제 고구려 도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발표 양시은(서울대학교박물관) 토론 양정석(수원대학교)	
11:15~12:00	주제 고구려왕릉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발표 東 潮(일본 도쿠시마대학) 토론 백승옥(부산박물관) 통역 주홍규(영남대학교)	진행사회 금경숙(동북아역사재단)
12:00~13:30	점심	
13:30~14:00	주제 세계문화유산-고구려벽화고분의 현황과 과제 발표 전호태(울산대학교) 토론 정호섭(한성대학교)	
14:00~14:45	주제 광개토왕비 발견 초기 탁본작업과 연구 발표 耿鐵華(중국 통화사법학원) 토론 고광의(동북아역사재단) 통역 조우연(인하대학교)	
14:45~15:15	주제 남한지역 고구려유적 연구현황과 과제 발표 최종택(고려대학교) 토론 심광주(토지주택박물관)	
15:15~15:40	휴식 및 장내 정리	
15:40~18:00	종합토론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하일식(연세대학교) 지병목(국립고궁박물관)	토론좌장 서영수(단국대학교)
18:00~18:10	폐회사 공석구(고구려발해학회 회장)	
18:30~20:30	만찬	

목 차

조법종 (우석대학교)

중국 고구려 세계유산의 현황과 활용 - 박물관 및 기념 조형물을 중심으로 -	5
토론문(김현숙).....	34

양시은 (서울대학교박물관)

고구려 도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	37
토론문(양정석).....	68

東潮 (日本 徳島大学)

高句麗王陵研究の現況と課題	71
번역 고구려왕릉 연구의 현황과 과제(주홍규).....	95
토론문(백승욱).....	111

전호태 (울산대학교)

세계문화유산 - 고구려벽화고분의 현황과 과제	115
토론문(정호섭).....	135

耿铁华 (中国 通化师范大学)

好太王碑发现初期的捶拓与研究	137
번역 광개토왕비 발견 초기 탁본작업과 연구(조우연).....	171
토론문(고광의).....	225

최종택 (고려대학교)

남한지역 고구려유적 연구현황과 과제	231
토론문(심광주).....	261

중국 고구려 세계유산의 현황과 활용
-박물관 및 기념 조형물을 중심으로-

조법중 우석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서언

2004년 중국은 길림성 및 요녕성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고구려 유적에 대한 대대적 정비 를 통해 북한과 동시에 고구려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이 후 중국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관련 시설 및 공간을 신축하고 특 히, 문화관광 공간을 연결시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세계문화 유산 지역에서 새롭게 건축된 시설은 환인지역의 五女山城 博物館과 집안지역의 고구려 전문 박물관으로 개관한 集安新博物館이 대표적인 공간이다. 이와 함께 각종 관광시설 및 상품판매장 등 문화관광 관련 시설들이 환인 특히, 집안지역에 급증하여 고구려세계유산의 현실적 활용이 부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중국 고구려 세계문화유산의 현황과 관련시설 특히, 박물관등 전시 내용과 문화 관광시설 등에 대한 정리와 검토를 통해 세계문화유산 지정의 의미와 현실적 내용에 대한 파악과 중국의 정치적 역사해석문제인 동북공정문제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자 한다.

I. 중국 고구려 세계유산 목록과 내용

1. 고구려 세계유산 목록

고구려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원래 북한이 2000년 신청해 2003년 27회 세계유산 위원회 파리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측의 문제제기로 인해 보완, 2004년 7월 1일 거행된 28회 세계유산위원회 蘇州회의에서 동시에 등재되었다.

북한의 고구려 문화유산의 공식 명칭은 '고구려 고분군'(Complex of Koguryo Tombs)으로 5개 지역 고분 63기(벽화고분 16기 포함)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시 △동명왕릉 주변 고분군(15기/ 벽화고분 3기) △호남리 사신총 주변 고분(34기/ 벽화고분 1기) △덕화리 고분군(3기/벽화고분 1기) △강서삼묘(3기/벽화고분 2기) △독립고분(8기/벽 화고분 8기) 등으로 나뉜다.

번호	북한 고분군	고분이름	고분갯수	벽화무덤	
1	평양시 역포구역 동명왕릉과 진파리고분군	진파리 1-15호무덤	15기	3기 (진파리 1, 4, 10호) *동명왕릉=진파리10호	
2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사신무덤과 주변고분군	사신무덤, 호남리 1-16호무덤, 금실 무덤, 토포리큰무덤, 토포리 1-15호 무덤	34기	1기 (호남리 사신무덤)	
3	평안 대동지구 덕화리고분군	덕화리 1·2·3호무덤	3기	2기 (덕화리 1, 2호)	
4	평남 남포시 고분군	강서구역	강서세무덤, 덕흥리무덤, 약수리무 덤, 수산리무덤	6기	5기(강서작은무덤 제외)
		용강구역	용강큰무덤, 쌍기둥무덤	2기	2기
5	황해남도 안악지역	안악 1·2·3호무덤	3기	3기	
총계			63기	(16기)	

한편, 중국의 고구려문화유산의 공식명칭은 高句麗王城, 王陵及 貴族墓葬(Capital Cities and Tombs of the Ancient Koguryo Kingdom)이다.

왕성 3곳: 五女山城, 國內城, 丸都山城. 왕릉 14곳 및 귀족묘 26기이다.

왕릉 : 麻線0626号墓, 千秋墓, 西大墓, 麻線2100号墓, 麻線2378号墓, 七星山0211号墓, 七星山0871号墓, 太王陵及好太王碑, 臨江墓, 禹山0992号墓, 將軍墳及1号陪葬墓.

귀족묘 : 角抵墓, 舞蹈墓, 馬槽墓, 王字墓, 环紋墓, 冉牟墓, 散蓮花墓, 長川2号墓, 長川4号墓, 長川1号墓, 禹山3319号墓, 五盔墳1号墓, 五盔墳2号墓, 五盔墳3号墓, 五盔墳4号墓, 五盔墳5号墓, 四神墓, 禹山2112号墓, 四盔墳1号墓, 四盔墳2号墓, 四盔墳3号墓, 四盔墳4号墓, 兄墓, 弟墓, 折天井墓, 龜甲墓. 其中42處在集安境內.

A. 고구려의 수도와 광개토태왕비					
번호	이름	기간	위치	규모	유적
1	오녀산성 (흡본성)	첫수도 전37-후3년	요령성 환인현	남북 600m, 동서 200m	성터, 주거지, 병영, 초소터, 왕궁터, 우물
2	국내성	둘째 수도 3-427년	길림성 집안시	동벽 555m, 서벽 665m, 남벽 750m, 북벽 715m /총둘레 2,686m	
3	환도산성	한때 수도	길림성 집안시	둘레 6,951m	
4	광개토태왕비	414년 건립	길림성 집안시	높이 6.39m	글자 1775자

B-1. 고구려의 왕릉과 귀족무덤: 왕릉 13기, 귀족무덤 26기(벽화무덤 17기 포함)					
번호	이름	정리번호	규모	무덤형식	벽화유무
왕릉 1	마선구 626호	MM 0626	40×40×7m	특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2	천추무덤	MM 1000	60×60×9m	특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3	서대묘	MM 0500	55×55×7m	특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4	마선구 2100호	MM 2100	39×39×6m	특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5	마선구 2378호	50×22×2.5m	50×22×2.5m	특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6	칠성산 0211호	QM 0211	35×35×5.5m	특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7	칠성산 0871호	QM 0871	35×35×5.5m	특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8	태왕릉	YM 0541	66×66×14.8m	특대형 계단적석 석실묘	
9	임강무덤	YM 0043	70×60×4.5m	특대형 계단적석 석실묘	
10	우산 2110호	YM 2110	66×38×7m	특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11	우산 992호	YM 0992	38×38×6m	특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12	장군총	YM 0001	31×30×12m	특대형 계단적석 석실묘	
13	장군총탈린무덤	YM 0002	10×10×3.5m	특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B-2. 고구려의 왕릉과 귀족무덤: 귀족무덤 26기(벽화무덤 17기 포함)					
번호	이름	정리번호	규모	무덤형식	벽화
1	씨름무덤	YM 0457	15×13×5m	대형 봉토석실 벽화묘	벽화 1
2	춤무덤	YM 0458	13×13×5m	대형 봉토석실 벽화묘	벽화 2
3	말구유무덤	YM 1894	16×16×8m	대형 봉토석실 벽화묘	벽화 3
4	왕(王)자무덤	SM 0332	16×16×4.2m	대형 봉토석실 벽화묘	벽화 4
5	고리무늬무덤	XM 0033	16×16×5m	대형 봉토석실 벽화묘	벽화 5
6	염모무덤	YM 0001	18×16×5m	대형 봉토석실 벽화묘	벽화 6
7	산연화무덤	YM 0211	7×7×2m	봉토석실 벽화묘	벽화 7
8	장천2호무덤	JCM 002	둘레 143×6m	대형 봉토석실 벽화묘	벽화 8
9	장천4호무덤	JCM 004	둘레 60×3m	봉토석실 벽화묘	벽화 9
10	장천1호무덤	JCM 001	00×00×00m	대형 봉토석실 벽화묘	벽화 10
11	우산 3319호	YM 3319	20×20×1.5m	대형 계단적석 석실벽화묘	벽화 11
12	다섯무덤 1호	YM 2101	25×25×8m	특대형 봉토 석실벽화묘	벽화 12
13	다섯무덤 2호	YM 2102	55×55×20m	특대형 봉토석실묘	
14	다섯무덤 3호	YM 2103	35×35×15m	특대형 봉토석실묘	
15	다섯무덤 4호	YM 2104	30×30×10m	특대형 봉토 석실 벽화묘	벽화 13
16	다섯무덤 5호	YM 2105	25×25×8m	특대형 봉토 석실 벽화묘	벽화 14
17	사신무덤	YM 2113	25×25×8m	특대형 봉토 석실 벽화묘	벽화 15
18	네무덤 1호	YM 2106	25×25×8m	특대형 봉토석실묘	
19	네무덤 2호	YM 2107	25×25×8m	특대형 봉토석실묘	
20	네무덤 3호	YM 2108	25×25×8m	특대형 봉토석실묘	
21	네무덤 4호	YM 2109	30×30×8m	특대형 봉토석실묘	
22	우산 2112호	YM 2112	15×15×1m	계단 적석 석광묘	
23	꺾인천장무덤	SM 1298	20×20×6.5m	대형 계단적석 석실벽화묘	벽화 16
24	형무덤	SM 0635	18×18×5.6m	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25	아우무덤	SM 0636	20×20×5.7m	대형 계단적석 석광묘	
26	거북등껍데기무덤	SM 1304	18×18×7m	대형 봉토 석실벽화묘	벽화 17

2. 중국지역 고구려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가치(제안내용)

국내성은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이후에 보조 수도의 역할을 했던 도시이다. 환도산성에는 대규모 왕궁 터와 무덤 37기를 비롯한 유적들이 남아 있다. 몇몇 무덤에서는 볼 수 있는 정교한 천장은 기둥 없이 지탱하는 널찍한 지붕 형태이며 무거운 돌이나 흙무더기를 운반해 올린 것으로 고구려 문화의 위대한 천재성이 잘 나타난 예이다.

이 유적지는 사라진 고구려 문명이 남긴 특별한 발자취이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이들 도시는 산악 지대에 자리 잡은 도시의 초기 예로 이후 주변 문화는 이를 본보기로 삼았다. 특히 중요한 유적인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王陵碑)에는 한자 비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를 통해 고구려가 중국 언어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무덤 벽화에서 보이는 예술적 기량과 독특한 양식에도 역시 다른 문화의 영향이 나타나 있다. 국내성과 환도산성의 도시 체계는 이후 고구려의 수도 건설에 영향을 끼쳤으며, 고구려 무덤들은 적석총과 봉토분 건축 발전상의 뛰어난 예이다. 국내성과 환도산성은 전체적인 배치와 구조면에서 동북아시아의 중세 도시들 가운데 최고 걸작으로 지금은 사라졌으나 웅장한 고구려 문명의 증거임을 알 수 있다. 이 도시들은 초기와 중기 고구려(1-5세기)의 수도로 평원에 있는 도시와 산악 지대에 있는 도시가 상호 보완하며 수도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후에는 보조 수도의 역할을 수행했던 국내성은 돌 성벽이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평지 도시 유적지이다. 환도산성에는 대규모 왕궁 터와 무덤 37기를 비롯한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 몇몇 무덤에 있는 정교한 천장은 기둥 없이 지탱하는 널찍한 지붕 형태로 무거운 돌이나 흙무더기를 운반해 올린 것이다. 합리적으로 설계된 이 산악 도시는 자연 환경과 인간 창조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이다. 이 밖에도 산으로 둘러싸인 통거우(通溝) 평야에는 7,000여 기의 고구려 무덤이 있는데 이들 중 많은 무덤에는 세련된 벽화가 그려져 있다. 특히 장수왕릉(長壽王陵)과 태왕릉(太王陵)으로 대표되는 10개의 거대한 고구려 왕릉은 고구려 문화가 건축학적 예술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루었음을 나타내는 전형이다. 태왕릉 서쪽에 있는 광개토대왕릉비에 새겨진 한자 비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구려의 글귀이다.

역사적 배경 및 보존; 지방 권력이며 씨족으로 출발한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첫 번째 수도인 오녀산성을 건설했다. 30년 후에는 국내성으로 천도했고, 427년에는 다시 현재 북

한의 수도인 평양으로 천도했다. 국내성은 197년에 일어난 권력 다툼으로 파괴되었고, 209년에 환도산성이 세워졌다. 국내성과 환도산성은 수백 년 동안 고구려의 경제 정치 문화 중심지였는데, 이 두 도시는 전쟁으로 파괴되었다가 복구되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평양 천도 이후에는 국내성은 보조 수도의 역할을 수행했다. 오랫동안 버려졌던 이 유적지는 1902년 현재의 지안 현이 세워진 후에 복구되었으며, 환도성의 잔해들은 1999년과 2002년에 복구되었다. 이들은 20세기 후반에 보호 기념물로 지정되어 1983년에 모든 거주민들은 새로 세워진 환도성을 떠나갔다. 현재 세상에 알려진 무덤 수천 기의 첫 발굴 작업은 2차 세계 대전 중인 일본 점령기에 시작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 유적지를 중요하게 여겨 보호, 연구, 보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I. 환인지역

1. 오녀산산성 고구려유지박물관(五女山山城高句麗遺址博物館)

오녀산성 고구려유지박물관은 오녀산성 및 환인 일대 고구려유물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관으로 건축규모는 3369㎡로 2003년 설계가 시작되어 2008년 5월 1일 정식 개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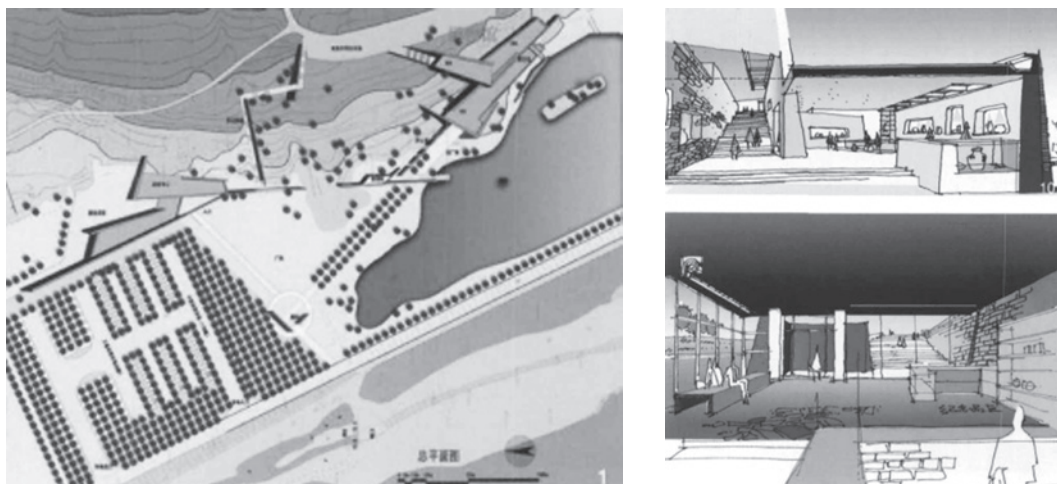


그림 1 오녀산 산성 고구려유지박물관 외부 및 실내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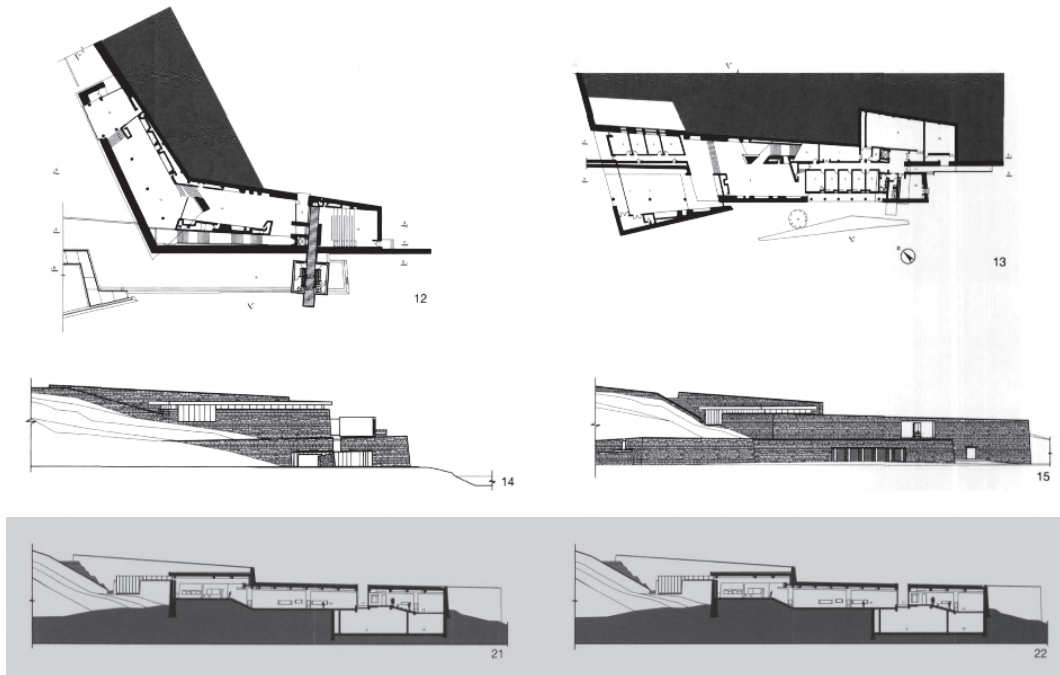


그림 2 오녀산성 고구려박물관 공간배치내용

박물관 설계는 중국건축설계연구원의 張男, 崔愷 건축사가 진행하였다. 설계박물관의 위치는 오녀산 아래 渾江지류인 哈達河口 저수지 옆을 선정하였다. 박물관은 오녀산성의 고구려문화를 반영한 적석문화를 상징화하여 靑石을 사용해 성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내부공간은 전시공간을 계단으로 연결해 등산의 분위기를 연출해 설계하였음이 강조되었다.¹⁾ 공간구성은 1층 주전시공간은 서청, 제1부분, 영상실, 제2부분, 3D영상, 기획전시실로 구성되었고 1~2층 계단연결, 2층은 제3부분 모형 재현부분 요, 금, 현대전시공간으로 나뉜다.

박물관 내부 전시 내용은 환인지역의 청동기문화와 중국 전국시대문화를 소개하고 고구려 초기 및 전기 문화양상을 고분과 관련유적 및 유물상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張男, 崔愷, 遼寧五女山山城高句麗遺址博物館工程記畧, 時代建築, 2009年 1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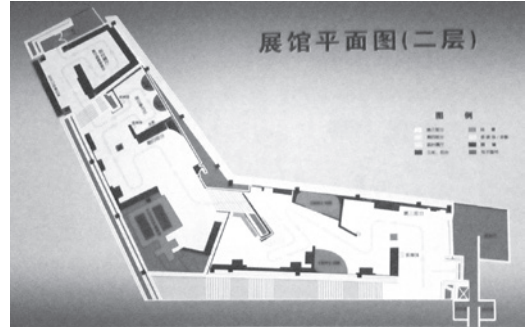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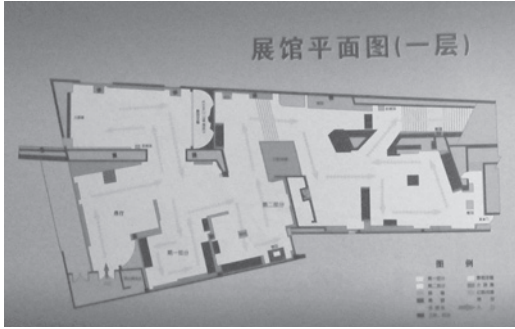


그림 3 오녀산성 고구려박물관 공간배치내용



그림 4 오녀산성 고구려박물관 내외부 모습

2. 환인 오녀산 명칭 및 조형물

오녀산은 요녕성 本溪市 桓仁 滿族自治縣 동북 8km 渾江西北岸에 위치한 고구려 주몽의 첫 도읍 흘승골성의 현재적 표현이다. 오녀산성은 장방형으로 주봉 높이는 해발824m, 남북 길이 1,500m, 동서 300m, 절벽의 고도 200여 m에 달하는 공간이다.

오녀산의 원래 이름은 紇升骨城, 卒本城, 忽本, 合羅城, 五龍山, 五老山, 郁靈山, 于郎山, 五余山 등의 이름으로 전해졌다.²⁾ 특히, 고구려의 첫 도읍이란 점에서 이곳은 중국사서에 나타난 紇升骨城, 또는 卒本城, 그리고 광개토태왕릉비문에 나타난 忽本 등 고구려 첫 수도에 걸맞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그런데 중국 환인시에서는 이들 이름과는 관계없는 唐나라 시기의 五女 관련 전설을 원용하여 ‘五女山’이란 명칭으로 고구려의 첫 도읍 명칭을 왜곡하여 부르고 있다.³⁾ 즉, 고구려 건국과는 관계 없는 당나라 시대에 다섯 여자



그림 5 환인시에서 본 주몽의 도읍지 흘승골성, 현재는 오녀산으로 불리고 있다.

2) 《魏書》, 《唐史》, 《明實錄》, 《清史稿》, 《辭海》, 《奉天通志》, 《中國名山大辭典》.

3) 菊田貞二, 山上次男, 1925, 《東三省古迹遺離》 正篇 p.203

“桓仁縣北十五里, 有五女山. 相傳唐朝有五女踞山爲伍. 山高千仞, 兩峰對峙, 形勢雄險. 第一峰成平圓形, 內圍巨石, 分東西二門, 爲天然石城, 可容萬人, ……”

가 이 산성에 거주하였다는 전설에 근거하여 오녀산이라 이름하고 도시 광장에도 오녀동상을 만들어 고구려의 역사성과는 전혀 관계 없는 상징조형물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타지역의 경우 건국자의 동상이나 관련 상황을 기념 동상으로 만들었던 사실과는 배치되는 사례로서 고구려 발상지로서의 환인의 성격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부각치 않고 당나라 때 실체도 확인되지 않은 전설상의 여인들을 부각하여 중국적 역사 전통을 살리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그림 6 환인시 교차로에 설립된 오녀동상

박물관 전시조형물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새로 조성된 박물관상가옆에 조성된 고구려시조비이다. 이 비석은 2007년 설치된 이래 박물관내부에 게시되었던 ‘고구려시조비문’을 새겨 놓을 예정이었던 비석으로 현재는 이수부분에 올려 놓았던 겸양상을 박물관 정문으로 옮기고 새로 이수 부분에 용과 삼족오상을 설치하는 등 변화가 있다.

이 비는 높이 12.7m로 흑옥석 사각비신과백옥 사각양 비수가 결합되어 2006년 8월에 완성되었다. 시조비는 한백옥석으로 조각되었는데 비의 머리부분에 중국고대전설 가운데 북방의 뿔이 4개 달린(四角) 형태의 양을 조형의 근거로 삼았다.(산양의 사각과 면양의 사각을 참고하고 당시 고구려가 북방민족으로 동북구역에 산간지역이 많음을 감안하여 산양의 사각으로 묘사)

비석머리의 조형물인 양은 자연 순박하고, 고개를 들고 바라보며 자태는 풍만하고 건장하여 중국고대서한시기 중화민족북방고구려민족의 웅대한 시대풍모를 잘 드러내고 있다.⁴⁾

고구려시조비의 내용을 북방민족 신화와 연결된 사각양으로 묘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고구려역사 왜곡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4) <http://www.yahqq.com/blog/blog.asp?blogid=1345&viewid=2887>



그림 7 오녀산성박물관 외부에 설치된 고구려 시조비

한편, 2010년에는 박물관 외부 상단 대형 기념품센터 건축현장 맞은편에 위치한 고구려 시조비에 제호를 각석하여 이수 부분에 위치하였던 산양 모습을 떼어내 박물관 앞으로 옮기고 대신 새로운 이수인 용모양과 삼족오를 조합한 상징물로 교체하여 “고구려시조비”라는 내용으로 재설치하였다.

고구려가 중국 高夷族의 후손이며 중원의 소수민족으로 중국내 고구려 정권을 주몽이 세웠다는 내용이 돌에 새겨져 고착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산양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고구려를 고이족의 후손임을 암시적으로 표현하여 고구려가 중국내 소수민족중의 하나인 북방민족이며 주나라시기부터 이미 고구려의 선조인 고이족이 중원민족에게 복속되어 있었다는 식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설명문 내용을 보면

“**赚羊**은 4가닥의 뿔을 달고 있는 양으로 고대 북방의 양이다.《逸周書》에 기원전 1035년 주성왕의 성주대회시 고이가 공헌품으로 중원에 바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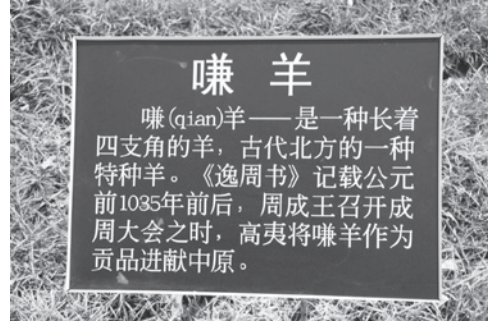


그림 8 오녀산성박물관 외부의 산양 조형물

라고 되어 있다.

일주서의 실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逸周書》王會解 “北方台，正東高夷兼羊. 兼羊者，羊而四角.

”注：“高夷，東北夷高句驪.”關於高夷即后來高句麗⁵⁾

사료에 언급된 高夷에 대해 후세 학자들이 고구려로 세주를 달고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중국학계에서는 고이와 고구려를 연결지어 고구려가 고이후손이라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미 이 논의는 국내학계의 비판과 문제점 지적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산양조형물과 관련설명문은 고구려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동물로서 고구려 민족과 전혀 관계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문제이다.

Ⅲ. 집안시 시민광장, 집안시박물관

2004년 고구려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후 길림성 유일의 세계문화유산도시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사문화 공간을 구축하고 있다. 즉, 世界遺產地, 中國优秀旅游城市, 歷史文化名城, 生態示范區, 中國十大邊疆重鎮, 中國書法之鄉, 中國人參之鄉 등 집

5) 《東北通史》上册第77, 78頁, 社會科學戰線出版社)

안시의 성격을 확대발전시켜 문화관광사업에 매진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계획은 특히, 고구려유적을 중심으로 관련 공간을 새로 건설하고 체계적으로 확대하면서 다양한 공간이 만들어 졌다.

한편 집안고구려유적은 중국의 “國家AAAA級景區”로 지정되어 있는 공간으로 집안시에 서는 특히, 이들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과 결합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삼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⁶⁾ 특히, 중국의 수학여행과 연결지는 이용계획을 비롯하여 전국적 관광자원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⁷⁾

또한 圖書館,博物館과 三廳지역 즉, 鴨綠江濱江風貌區,高句麗故宮遺址公園,通溝河生態風情區를 핵심 발전 거점으로 삼아 집안시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大型音舞詩畫《夢縈高句麗》과 大型旅游綜藝節目인 《塞外江南集安行》등 축제와 종합예술무대를 기획 진행하고 있다.

향후 高句麗王家園林을 조성하고 好太王碑雕刻竹簡,手工刻紙高句麗二十八代王,高句麗壁畫모사도 등 200여 종의 高句麗文化旅游產品을 개발하였다. 또한 “香港城一條街”, “燒烤一條街”, “高麗火盆一條街”, “鴨綠江鯉魚村” 등 관광음식거리를 조성해 다양한 관광산업 진흥을 주도하고 있다.

1. 집안시청광장 태양조상과 열주 내용

신축된 집안시청과 광장사이에 상징적인 조형물로 자리하고 있는 태양조상은 삼족오를 현대적으로 재현하고 이를 태양조로 부르며 기단 4면에 태양조에 대한 설명과 고구려의 사회생활상을 한대화상석 이미지로 새겨놓았다.

6) 李亞麗, 2005 李悅崢. 世界遺產高句麗鴨綠江畔古名城—集安市旅游業發展初探[J]. 國土与自然資源研究, 2005, (4)

呂琳璐. 2006, 社區參與与世界遺產旅游發展問題研究—以吉林省集安市世界遺產旅游區爲個案[D]. 長春: 吉林農業大學.

耿鐵華, 2007, 高句麗文化遺產的保護与傳承[J]; 通化師範學院學報; 2007年03期

韓福今. 2009, 集安市高句麗遺址保護与城市建設, 旅游開發的協調發展[J]. 江蘇城市規劃, 2009, (1)

許偉民. 2010, 集安市旅游市場發展戰略研究[D]. 長春: 長春理工大學, 2010

陳玲玲, 孫克勤, 集安市世界遺產旅游發展現狀及對策分析, 資源開發与市场 2012 28(02).

7) 朱尖, 2013, 高句麗世界文化遺產發展修學旅游研究, 《通化師範學院學報》2013年 07期.



그림 9 삼족오(태양조)상 모습과 설명 내용

설명 원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太陽鳥

太陽鳥亦稱三足鳥 中國古代傳說中的天帝之子 高句麗古墓壁畫中多次出現 三足鳥形象說明高句麗民族同中原民族一樣對太陽鳥充滿崇敬和愛戴 中華各民族歷史上太陽鳥永遠是光照大地的太陽神

이 내용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마지막 문장으로 삼족오를 고구려와 중원민족이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원민족과 함께 고구려민족은 중화민족이며 중화민족 역사속에 태양조신앙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다.

즉, 삼족오로 표현된 태양관련신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중국민족이 된다는 일방적 논리를 대표적인 상징 조형물에 새겨 동북공정 논리를 일반 중국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그림 10 고구려민속풍정 3 부역조리도, 우경, 타작도

또한 우측 화상석 형태의 고구려 사회생활상을 묘사한 내용 중에는 고구려 벽화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농경모습 특히, 타작모습과 소를 이용한 우경 이미지의 모습을 근거없이 부조하여 고구려 사회가 기본적으로 중원과 같은 농경민족적 성격의 존재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후면과 좌측면의 형상이 기본적으로 고분벽화 내용을 원용해 가무기악도와 수렵도, 각저,예불도 부엌 조리도 등을 묘사한 것에 비해 전혀 근거가 없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고구려 사회의 모습을 중국적 이미지로 왜곡한 모습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형적인 고구려 역사 왜곡의 모습이자 고구려 역사를 중국사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 역사 왜곡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의되는 내용이다.

2. 집안시청광장 고구려역사 열주조형물

집안시청광장 중앙에 위치한 태양조(삼족오) 조형물 뒤에 고구려의 초중기 역사 가운데 핵심적 사항을 9장면으로 묘사하고 마지막 10번째 열주에 세계문화유산임을 강조하여 고구려 역사를 개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각 열주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剖卵降世 生而有聖德 :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시니 나면서부터 성스러운 덕이 있으셨다.

열주1에 묘사된 역사사실은 주몽 탄생을 모티브로 삼아 표현하고 있다. 광개토왕릉비문을 활용하여 제목을 붙였고 삼족오+알을 깨고 나오는 주몽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다.⁸⁾ 이 내용은 광개토왕릉비문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묘사된 장면은 삼족오로 상징된 일신과 하백의 딸 유화의 중간에 위치된 알을 깨고 나오는 아이의 이미지로 주몽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 11 주몽의 탄생

8) 柳花 …… 幽閉於室中 爲日所炤 引身避之 日影又逐而炤之 因而有孕 生一卵 大如五升許 …… 置於暖處 有一男兒 破殼而出 骨表英奇 《三國史記》 13 高句麗本紀 1 始祖 東明聖王

② 連葭浮龜朱蒙創基 : 갈대가 이어지고 거북이 떠올라(피난하여) 주몽이 나라의 기틀을 세웠다.

열주2에 묘사된 역사사실은 주몽의 부여 탈출 과정시 신비로운 도강설화와 건국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묘사 장면은 물고기, 거북이 떠올라 강을 건넌 장면⁹⁾이다. 그런데 주몽을 돕는 동물묘사내용 가운데 거북과 함께 용이 묘사되고 있다. 이는 도강 관련 신화의 내용속에는 등장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내용 또한 고구려 역사에 중국 문화의 상징적 존재인 용을 추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왜곡된 내용이다.



그림 12 주몽의 피난과 고구려 건국

③ 遷都國內 築尉那巖城 : 국내로 천도하고 위나암성을 쌓다.

열주 3에 묘사된 내용은 유리왕 22년의 국내성 천도와 위나암산성(환도산성)의 축성사실 묘사이다.¹⁰⁾ 현재의 집안시지역으로 수도를 천도한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고 고구려 2대 수도로서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한 부분이다. 전체적 묘사내용은 수레모습과 행렬이동모습 등 천도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3 유리왕의 국내 천도

9) 朱蒙乃與鳥伊-摩離-陝父等三人爲友(鳥 下文及遺事並作鳥) 行至淹漚水(一名蓋斯水 在今鴨綠東北) 欲渡無梁 恐爲追兵所迫 告水曰 我是天帝子 河伯外孫 今日逃走 追者垂及如何 於是 魚鼈浮出成橋 朱蒙得渡 魚鼈乃解 追騎不得渡 《三國史記》 13 高句麗本紀 1 始祖 東明聖王

10) 二十二年 冬十月 王遷都於國內 築尉那巖城 《三國史記》 13 高句麗本紀 1 始祖 琉璃明王



그림 14 열주 4

④ 鯉魚退兵 求屬玄菟 :잉어를 이용해 군대를 물리치고 현도에 속하기를 구하다.

열주4에 묘사된 내용은 고구려 3대왕 대무신왕 11년 요동태수가 고구려를 공격하고 장기간 위나암성에서 농성할 때 한나라 군대가 성안 연못 잉어 활용 퇴군시킨 사실¹¹⁾과 신대왕 4년 현도공격에 ‘屬玄菟’한 사실을 부각시켜 고구려가 한군현 특히, 현도군에 신속한 것으로 묘사한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묘사장면은 잉어현상장면과 玄菟郡城을 묘사해 고구려가 중국군현에 신속하였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중국측에서 고구려역사의 시작이 현도와의 관계에서 진행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묘사내용이 특히, 중국측에서 강조된 내용이라고 파악된다.

11) 11年 秋七月 漢遼東太守 將兵來伐 …… 入尉邦巖城 固守數旬 漢兵圍不解 王以力盡兵疲謂豆智曰 勢不能守 爲之奈何 豆智曰 漢人謂我巖石之地 無水泉 是以 長圍以待吾人之困 宜取池中鯉魚 包以水草 兼旨酒若干 致犒漢軍 …… 遂引退
《三國史記》14 高句麗本紀 2 始祖 大武神王

⑤ 恩澤洽于皇天 威武振被四海 : (광개토왕의)은택이 하늘 가득하고 위용은 사해를 덮으셨도다.

열주5에 묘사된 역사사실은 광개토왕의 사방개척을 묘사하고 있다. 광개토왕릉비문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묘사장면은 광개토왕기마인물상을 부조하여 사방으로 영역을 확장한 광개토왕을 부각하고 있다. 묘사된 기마인물상은 안타깝게도 위진남북조 시기 중국 기마인물도상과 매우 유사하며 인물상 이미지가 전형적인 중국인 무사상을 하고 있어 광개토왕의 인상이 중국인으로 각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15 열주 5

⑥ 碑書漢隸 彪炳千秋萬歲 : 비문의 서체는 한나라 隸書體이고 千秋萬歲의 문구를 사용하였다.

열주 6의 내용은 집안 즉, 고구려 국내 성지역에서 발견된 금석문 가운데 광개토왕릉비문은 한나라 예서체의 특성을 보여주고 천추총에서 발견된 명문와당에서는 ‘千秋萬歲’라는 길상구가 활용되어있음을 강조하여 결국 고구려의 문서기록과 기록 문자가 중국한자문화에 포섭되어 있음을

강조한 내용이다. 또한, 열주 묘사내용중에는 광개토왕릉비문의 내용과 함께, 천추만세전돌 명문과 특히, 모두루묘지 내용을 함께 묘사하여 비문, 전돌, 묘지문 등을 모두 소개하였다. 이는 고구려의 한자문화를 강조하여 고구려가 문화적으로 중원문화내용을 수용하여 유지하였음을 부각함으로 중국문화의 외연에 속함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림 16 열주6에 묘사된 광개토왕릉비, 모두루묘지, 천추만세전돌

그림 17 모두루묘지문 일부



그림 18 각저와 백희모습 열주



그림 19 각저총 씨름 및 장천1호분 백희도

⑦ 田獵山林 角抵百戲 : 산간속에서 사냥하며 씨름과 각종 교예를 즐긴다.

열주⑦에 묘사된 내용은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을 묘사한 것으로 각종 고분에 나타난 수렵도와 각저 즉 씨름 모습을 강조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특히, 각저총에 나타난 씨름¹²⁾ 및 수렵 모습은 고구려의 대표적 유희, 오락적 성격의 내용

12) 전호태, 1996, <고구려 각저총 벽화 연구>, 《美術資料》 57. 國立中央博物館.

이며 장천 1호분에 묘사된 백희기악도는 서역에서 수용된 고구려의 대표적 오락문화로서¹³⁾ 고구려 사회의 연희적 성격의 대표 내용으로 사회생활사적 성격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⑧ 其民喜歌舞 善藏釀 : (고구려 백성들은)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며 술담그기를 잘 한다.

열주 8의 내용은 앞서 열주 7과 함께 고구려 사회생활상을 부각한 것으로 고구려의 대표적 문화 특성인 飲酒歌舞를 즐기는 고구려적 특성을 잘 나타낸 부분이다. 즉, 삼국지 고구려전에 기록된 “其民喜歌舞, 國中邑落, 暮夜男女羣聚, 相就歌戲 …… 其人絜清自喜, 喜藏釀”¹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다.

묘사장면은 주악과 무용도 등으로 생활사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그림 20 열주 8

⑨ 三教合一 崇尚蓮花

열주 9에 나타난 내용은 고구려의 종교문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고구려사회에 불교와 유교 및 도교 등 중국에서 전래된 종교문화가 만연되어 있음을 강조한 내용이다. 묘사된 내용을 보면 장천 1호분에 나타난 禮佛圖¹⁵⁾와 감신총 벽화에 나타난 도교의 西王母 모습¹⁶⁾, 집안 오회분 4호묘에 등장하는 八卦圖¹⁷⁾를 활용하여 고구려사회에 불교, 도교, 유교문화가 고르게 존재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원왕조로부터 수용한 불교, 도교 및 유교문화가 고

13) 전덕재, 2006, <한국 고대 서역문화의 수용에 대한 고찰 - 百戲·歌舞의 수용을 중심으로 ->, 《역사와 경계》 58, 부산경남사학회.

14) 《三國志》魏書30 高句麗

15) 文明大, 1991, <長川1號墓 佛像禮拜圖壁畫와 佛像의 始源問題>, 《先史와 古代》 1, 한국고대학회.

16) 전호태, 1997, <고구려 감신총벽화의 서왕모>, 《한국고대사연구》 11, 한국고대사연구회.

17) 金一權, 1996,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 관념 체계 연구>, 《震檀學報》 82, 震檀學會.



그림 21 열주 9

구려 사회에 유지되어 중원과 동일한 종교문화를 유지하였음을 부각하여 중국적 문화체계로 포용됨을 강조하려는 내용이다. 또한 각종 벽화에 중요 소재로 등장하는 연꽃을 부각하여 집안광장의 연꽃 조형물과 연결시키고 있다.

⑩ 世界遺産 文運綿長



그림 22 열주 10

열주 10의 내용은 2004년 집안 고구려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실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고구려를 대표하는 일신과 월신의 모습, 고구려 무사의 모습 등을 못하여 고구려가 천손신앙을 표출하였으며 군사적으로 강한 국가라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집안시의 역사문화적 성격을 집약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집안시청 신청사광장에 새롭게 조성된 집안시청광장공원의 태양조를 중심으로 좌우로 5개씩 10개의 열주에 표현된 고구려의 대표적 역사사건을 제목과 관련 이미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열주내용	역사사건	활용 성격, 이미지
1	剖卵降世 生而有聖德	주몽의 탄생	
2	連葭浮龜 朱蒙創基	주몽의 건국	
3	遷都國內 築尉那巖城	국내천도	
4	鯉魚退兵 求屬玄菟	현도신속	중국에 고구려가 속한다는 역사적 근거 제시목적
5	恩澤洽于皇天 威武振被四海	광개토왕 대외확장	
6	碑書漢隸 彪炳千秋萬歲	한자 문화부각	광개토왕릉비, 모두루묘지, 천추만세전돌 등 활용 한자문화권 부각
7	田獵山林 角抵百戲	고구려 수렵, 백희문화	
8	其民喜歌舞 善藏釀	선음주가무	
9	三教合一 崇尚蓮花	삼교 : 불교, 유교, 도교 강조	집안광장상징 연꽃이미지 신축집안박물관 팔각형이미지 차용
10	世界遺產 文運綿長	세계문화유산부각	중국 고구려문화=세계문화유산부각

IV. 집안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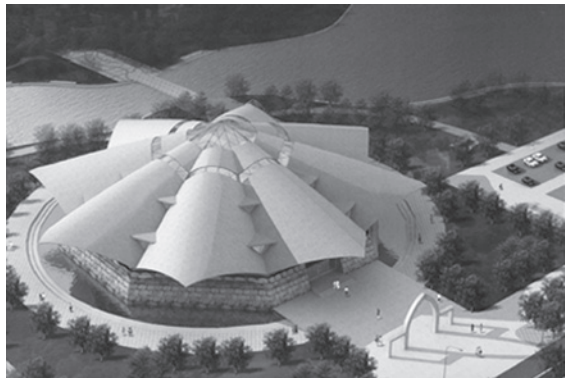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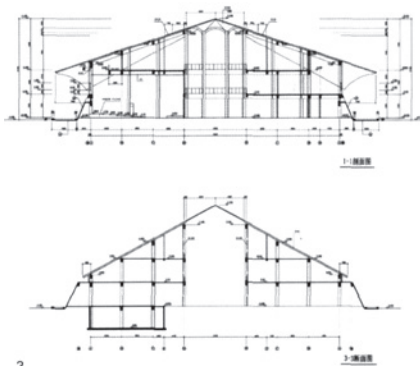


그림 23 집안박물관 투시도 및 조감도



그림 24 2009년 완성 집안시박물관 외관, 2013년 5월 7일 공개

집안박물관은 기존 박물관을 폐관하고 2009년 개관 예정으로 건물 및 전시 내용을 완공하였다. 실제 개관은 2013년 5월 “集安市高句麗文物展示中心(集安博物館)”으로 재개관하였다.

위치는 집안시 建設街와 云水路가 만나는 蓮花湖畔으로 점유면적13120㎡, 건축면적: 6459㎡, 전시면적 2954㎡의 공간이다. 이는 중국의 저명한 건축사인 中國工程院 齊康院士가 설계한 것이다.

건축층수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총고도 21.25m이다. 특징적인 것은 건축형상이 팔각형 팔엽련화로서 집안시에서 부각하는 고구려 유교문화 상징인 오희분 4호묘의 팔괘도 그림과 연화문양을 결합한 내용이다. 이는 중국의 風水理念과 고구려인들이 蓮花를 좋아한 사실 및 石文化를 숭상한 전통을 반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¹⁸⁾ 고구려의 상징성을 중국적 종교문화의 상징인 팔괘와 불교의 연화문양으로 대치하여 고구려의 원형적 종교성과 상징성을 제거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전시내용물에 대한 한국측의 반발을 염려하여 2년째 미개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자료에 나타난 박물관의 내부공간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박물관의 기본 컨셉은 설계를 맡은 齊康院士가 蓮花紋 瓦當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八瓣蓮花’를 건축의 기본형으로 하고 건축 저부는 高句麗古城牆을 상징한 석축 성벽을 조형화하여 고구려 역사를 상징화하였다.¹⁹⁾

<集安市 新博物館 개요>

1층 : 박물관 문물국 판공소,

400~500人 대형 회의실, 2개 소회의실 일부는 임시전시실

건축면적 : 2700㎡, 보고청 면적620㎡, 2개 소회의실 면적182㎡, 임시전시공간 면적109㎡.

2층 : 博物館展廳

建築面積爲1740㎡.

3층 : 博物館庫房 文物維護工作室,

建築面積870㎡.

18) 吉林日報, 2013. 5. 7. 集安高句麗文物展示中心正式開放.

19) 양정, 2008, 집안시신박물관, 건축여문화 2008. 11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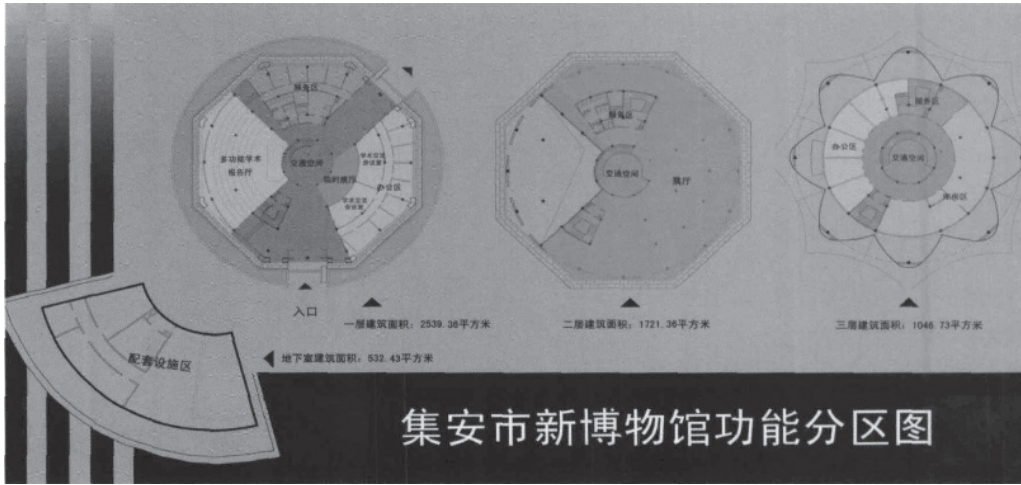


그림 25 집안시 신박물관공간구획도

집안박물관에는 高句麗시기 문물 1,027여 건이 6부분으로 나뉘어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고구려가 집안지역에 도읍한 이후 집안시기의 건축특색, 생산생활, 군사수준, 문화예술, 종교신앙 등 정황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다. 집안시 신박물관은 중국 및 아시아 최대의 고구려전문 박물관 목표로 하고 집안시 문화중심 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집안박물관은 吉林省愛國主義教育基地로서 학생 및 노인에게는 무료입장을 시켜 중국국가주의 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내용상 주목되는 것은 제1전시실을 고구려를 “한당고국(漢唐古國)”으로 표현하고 있음. 또한 ‘전언(前言)’은 “한무제가 고구려인이 모여 사는 곳에 고구려현을 설치해 현토군 관할 아래에 뒀다”고 표현. 또한 제1전시실 설명 패널에는 “고구려는 중국 중앙 역대왕조로부터 책봉을 받았고 멸망 후에는 유민들이 한족과 기타민족으로 융합됐다”고 적었다. 또 “고구려는 건국 후 (한나라) 현토군에 속하기를 원했고 부단히 중원왕조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 중원왕조는 고구려에 조복의책(朝服衣책 관원의 예복 및 옷과 두건으로 중원왕조가 속국에 내리는 것)을 내렸다”고 쓰여 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고분 벽화인 ‘수렵도’ 옆에는 한나라 고분에서 발견된 ‘수렵도’를 아무 설명 없이 나란히 걸어 뒀다. 당나라의 시인 이백(李白)이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고구려 춤을 보고 지었다는 내용의 시 ‘고구려’도 소개한다. 조공 책봉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만을 추려내 연표로 정리해 뒀다. 고구려의 성립 발전 멸망 등 전 과정에서 고구려와 중국 중원세력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관련성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26 집안박물관의 전시 내용

제1전시실 한 구석에 놓인 디지털 설명기계 속에서만 “고구려가 조선반도(한반도)로 들어가 조선역사상 중요한 역할을 했고, 조선 전통문화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을 뿐이다.

1, 2층으로 나뉘진 박물관은 △토기와 석기 등을 전시한 한당고국(漢唐古國) △요동에서의 국가 발전을 소개하는 웅거요동(雄據遼東) △생활 유물을 전시하는 산지민풍(山地民風) △병장기를 전시하는 금과철마(金戈鐵馬)²⁰⁾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 및 유물 등을 전시하는 상장유풍(喪葬遺風) △광개토대왕비와 관련한 유물을 전시한 호태왕비(好太王碑) 등 6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유물은 모두 1,000여 점이다.²¹⁾

이상과 같은 내용과 설명에서 부각되었던 집안박물관의 구성은 고구려의 역사문화의 정수를 중심으로 사회생활과 문화생활등 새롭게 전시한 내용도 주목된다.

고구려를 한당고국으로 설명하여 동북공정적 해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점은 유의된다.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장군총 등 고구려고분의 구조등에 대해 특수영상자료를 통해 공간구조설명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고구려 복식등을 재현해 전시한 것 등 다양한 전시연출을 위한 노력이 보인다.

한편 중앙 홀은 원래는 광개토왕릉비 복제품을 중앙에 전시하고 집안시 문화전시의 핵심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현재는 2012년 발견된 집안고구려비를 중앙에 전시하고 있다.



그림 27 집안박물관의 전시 모습

20) 이 표현은 《新五代史》李襲吉傳에 나오는 “金戈鐵馬，蹂踐于明時를 인용한 것으로 무장한 군인의 위용을 표현한 것.

21) 동아일보 2013년 4월 26일, “집안박물관은 동북공정 박물관?”.

V. 국내성 정비

중국은 2004년 국내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기존 북쪽 성벽에 서쪽 성벽을 정비해 국내성의 원형성 확보를 진행하였다. 최근까지 남벽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남은 동벽의 일부를 정비하여 전체 성벽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최근 정비된 성벽구간 중 동벽-남벽 모서리에는 집안에서 발굴된 유물을 상징화한 조형물들을 배치하여 성벽 일부를 공원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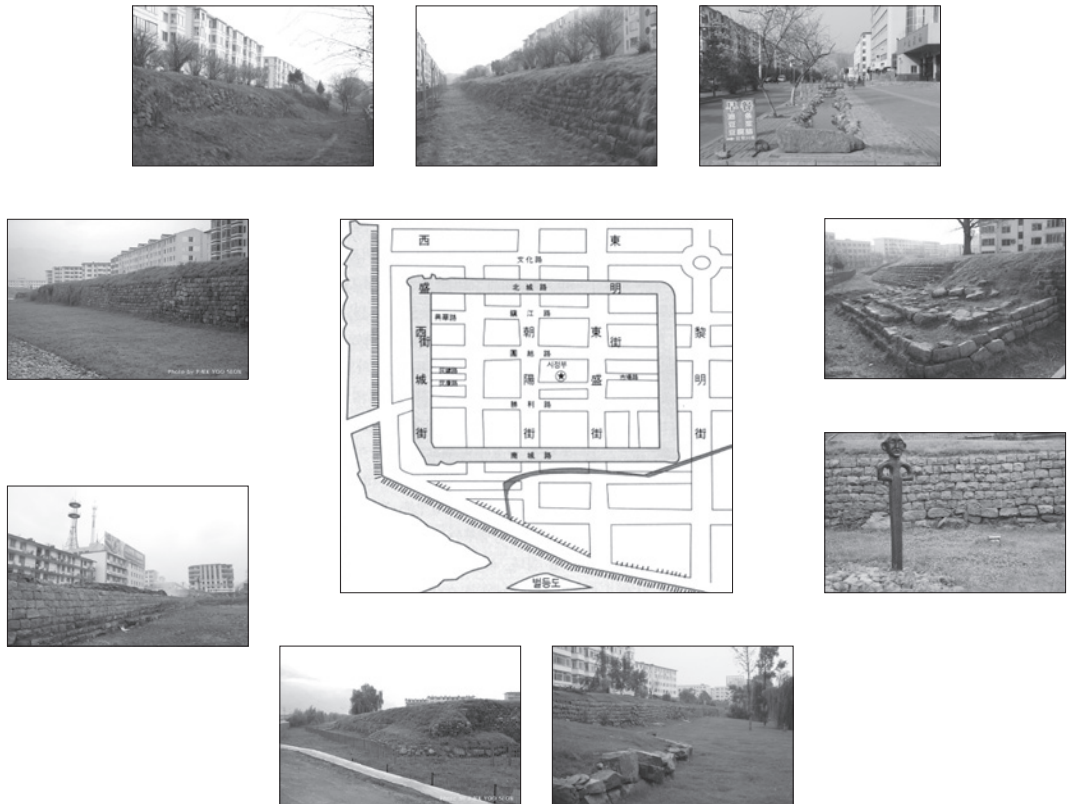


그림 28 국내성 정비내용

결론

중국은 2004년 고구려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이래 집안과 환인을 중심으로 관련 역사공간을 마련하여 세계문화유산도시로서의 성격과 의미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유적정비와 함께 관련 박물관, 공원 및 문화관광시설을 확대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파급된 문화관광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의 고구려유적은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보호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관련 유적들에 대한 엄중한 관리는 유적의 보존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들 유산에 속하지 못한 유적은 방치되고 있는 느낌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 비 지정유적에 대한 관리와 정비 역시 시급히 필요하다.

한편, 고구려 세계유산 관련 공간은 고구려역사를 중국 역사범주로 포함시키기 위한 동북공정 논리와 연결되어 이를 대중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박물관 전시내용과 관련 시설물, 조형물에 동북공정 논리가 추가되거나 강조되고 있다. 또한 박물관을 애국교육기지로 선정하여 동북공정 논리가 포함된 교육 내용이 박물관의 전시내용과 패널내용에 반영되어 중국의 자라나는 세대에게 교육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즉, 2009년부터 중국의 중요 박물관을 애국교육기지로 지정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개관하고 있어 이 같은 중국적 역사인식과 공간인식을 홍보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환인지역의 경우 고구려의 흥승골성을 당나라시기 전설인 오녀전설과 연결시킨 오녀산성 명칭 및 관련 조형물을 세워 고구려의 역사상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고이족과 연결된 검양상등 고구려역사상과는 연결되지 않는 조형물을 만들어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집안지역의 고구려 관련 형상물중 주목되는 것은 집안시청광장에 새로 조영한 조형물로 삼족오를 태양조라 하여 중국신화에 나오는 삼족오가 고구려에서 신성물로 인식된 것이 같은 문화적 범주에 속하는 증거라는 표현과 고구려역사상을 10개의 기둥조형물로 표현하였는데 중국과의 관계, 신속 등이 부각된 표현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013년 개관한 집안 고구려박물관은 최근 발견된 집안 고구려비를 중앙 홀에 전시하여 중국적 비형식을 갖춘 고구려비를 전시함으로써 중국과의 관련성을 부각하고 있는 점도 유의된다.

향후 고구려관련 역사 및 관광공간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상황에서 이같은 역사의 정치적 해석 결과물이 부각되는 상황은 한중우호를 위해 지양되어야 한다고 파악된다.

토론 | “중국 고구려 세계유산의 현황과 활용
- 박물관 및 기념 조형물을 중심으로-” 토론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2004년 길림성 집안시와 요녕성 환인시의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중국에서는 관련 유적지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이때의 작업 결과물로 발굴보고서 네 권이 발간되었다. 집안시와 환인시의 개방을 전후하여 많은 조사 작업이 이루어졌고 관련 보고서의 발표와 연구논문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개별 유적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 작업과 그 결과보고서의 신속한 발간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아무튼 이 발굴보고서들로 인해 그간 중국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고구려 유적에 대한 새로운 학술 정보들이 많이 제공되었고, 그에 힘입어 고구려 유적 유물에 대한 연구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런 한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환인의 오녀산성과 집안시의 국내성, 환도산성 및 광개토태왕비와 태왕릉, 장군총을 비롯한 왕릉급 고분 등이 관광지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발굴 작업 결과 출토된 유물들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유물들을 전시하기 위한 박물관을 새로 만들게 되었다. 환인의 오녀산성 박물관과 집안의 고구려박물관이 그것이다.

박물관 건립과 유적지 정비 작업은 고구려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목적 외에 동북진흥전략이라는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이 되었고, 중국내 자동차 보급 및 소득 향상과 맞물리면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환인과 집안시의 고구려유적지는 주변 지역민 뿐 아니라 중국 내 원거리 주민들까지 찾아오는 유명 관광지 중의 하나로 되었다. 두 지역 중에서도 특히 집안시의 경우 역사유적지를 관광산업화한 성공 모델로 지목될 정도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

19세기 이래 본격적으로 발전해온 근대 박물관은 민족 및 국민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 정신교육의 공간'으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역사유적지도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박물관과 역사유적지들은 자국 중심, 자민족 중심 역사인식에 기반하여 조성되고 내용물이 채워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근거사료에 바탕한 객관적인 역사사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즉 고구려유적지와 관

런 박물관 및 고구려사를 모티브로 한 조형물 등에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 담겨야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조법종교수님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현지의 고구려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는 그렇지 않은 면이 있는 듯하다. 이런 점에서 조교수님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발표내용이 일반 학술논문과 다르므로 궁금한 것 위주로 발표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한다.

먼저, 발표 제목이 <중국 고구려 세계유산의 현황과 활용>이므로 고구려 유적의 현황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아 의아함을 느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금년으로 10년이 되었으므로 해당 유적지들의 현상에 변화가 발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대해 파악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고구려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구성과 그들에 대한 유적 안내인들의 설명 내용이 어떤지 궁금하다. 또한 2004년 이래 유적 설명 등에 변화가 있는지-예컨대 중국학계의 학설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발표자께서 파악하신 것이 있다면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집안시 시청 앞의 기념 조형물인 열주에 새겨진 조각들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정리해주셔서 계도된 바가 많았는데, 이처럼 역사내용을 모티브로 한 조각들이 혹 발해 유적지에도 조성되어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에 대한 내용을 혹 파악하고 계신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구려 도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

양시은 서울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도성(都城, capital city)은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위치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를 의미한다. 도성에는 왕이 평상시 거주하는 궁성(궁궐)과 관청(관부), 종묘(宗廟), 사직(社稷), 시장 등이 갖추어져 있는데, 해당 도시를 둘러싼 성곽 자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중국의 고대 도성은 통상적으로 왕 또는 제후들이 머무르는 궁을 보호하는 내성(內城)과 도성 내 거주민들의 집락 등을 둘러싼 외곽(外郭)으로 구성된 방형의 큰 성곽도시의 형태이지만, 큰 산과 깊은 계곡이 많은 고구려에서는 왕궁과 관청이 소재한 평지성과 유사시 방어를 위한 산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고구려에서는 6세기 후반의 長安城 단계에서야 비로소 도시를 방어하는 성곽을 갖춘 전형적인 도성이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구려의 도읍에서 왕이 머물렀던 성곽을 도성으로 판단하고 관련 논지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물론 도성의 범주 내에는 왕릉과 같은 묘역도 포함되어야 하겠으나, 그럴 경우 범위가 너무 넓어지므로 일단은 성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UNESCO는 2004년 중국과 북한의 고구려 유적을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중국에서는 “고구려의 도성들과 무덤들(Capital Cities and Tombs of the Ancient Koguryo Kingdom)”이, 북한에서는 “고구려 무덤군(Complex of Koguryo Tombs)”이 각각 등재되었다. 중국 경내의 桓仁 五女山城, 集安 國內城과 丸都山城은 고구려 도성 유적으로 인정받아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북한 경내의 평양 고구려 도성 유적은 고구려 멸망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개축되거나 현상이 변경된 관계로 고구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는 못하였다.

고구려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10년을 맞이하여, 본 논문에서는 고구려 도성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여러 쟁점 사항 중에서 고고학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고구려 도성 조사 및 연구 현황

고구려 도성에 대한 첫 번째 고고학적인 조사는 20세기 전반기에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鳥居龍藏(1914)은 1912년에 만주 일대를 답사하면서 五女山城을 국내성으로, 산성자산성을 환도성으로 비정하였다. 關野貞(1914a, 1914b)은 1913년에 집안 일대를 답사하면서 당시 輯安縣城(通溝城)의 성벽 아랫부분에 고구려 국내성의 성벽이 남아있음을 지적하였고, 산성자산성의 경우에는 약측도를 통해 인근 지형과 성곽, 그리고 산성하고분군 등을 표시하였다. 關野貞은 또한 통구성을 국내성으로, 산성자산성을 위나암성으로 비정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그가 평양 일대를 조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도성 체제가 평지성과 산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그리고 통구성과 산성자산성이 세트르 국내성을 이루고 있었으며, 위나암성은 산성자산성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밖에도 1918년에는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위원회에 소속된 黑板勝美 또한 광개토태왕비, 국내성, 산성자산성 등을 조사한 바 있다(朝鮮總督府 1919). 1910년대만 하더라도 만주 지역 내 고구려 유적은 이와 같이 현황 조사가 중심이었으나, 만주국이 성립된 1932년 이후부터는 일본인에 의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1935년에는 日滿文化協會와 滿洲國 文教部の 후원으로 池內宏, 梅原末治, 黒田源次, 三上次男 등이 중심이 되어 집안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고구려 도성과 주요 고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2권의 『通溝』(1938, 1940) 보고서로 간행되었다.

평양 내 고구려 유적은 일찍부터 조사되었으나, 성곽 유적이 아닌 벽화 고분과 같은 고분이 중심이 되었다.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도성 내 성곽 유적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평양부립박물관장이던 小泉顯夫가 중심이 되었다. 1935년에는 小泉顯夫(1986)가 평양 장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토루로 추정되는 성벽을 절개하여 성벽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내성과 중성의 성문지도 조사하였다. 만수대에서는 주춧돌 등을 포함한 고구려 시기의 건축유구를 확인하였다. 1938년에는 米田美代治와 함께 청암리토성을 조사하였는데, 토성의 중앙부에서 절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小泉顯夫 1986).

1950년대 이후에는 중국과 북한에서 각각 고구려 유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각국에서도 도성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북한에서는 1958년의 안학궁과 대성산성 조사를 시작으로, 1970년대 평양성 조사에 이르기까지, 평양 내 고구려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다. 당시의 조사 내용

은 『대성산의 고구려유적』(1973)과 『고구려 평양성』(1978) 보고서를 통해 공개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청암동토성에 대한 발굴조사도 이루어졌으나(남일룡·김경찬 1998), 성벽과 일부 지점에 대한 소규모 조사에 그치고 말았다.

비교적 일찍부터 고구려 도성 유적에 관심을 가진 북한 학계에서는 전기 평양성을 안학궁과 대성산성으로, 후기 평양성을 장안성으로 비정한 이후, 해당 견해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도성 유적에 대한 추가 조사나 새로운 연구 성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어, 평양 도성의 성격에 대한 논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고구려연구재단이 2005년대 중반에 북한의 협조를 받아 『평양일대 고구려유적』(2005)과 『고구려 안학궁 조사보고서』(2006) 등을 발간하면서, 대략적인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최근 다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현재로써는 협력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나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간접적으로 延邊大學의 학술조사 팀을 통해 북측 조선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북한 내 고구려 유적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촬영한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재정리한 『평양 지역 고구려도성 유적』(2013)이 있다.

중국에서 고구려 도성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고구려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2000년대 이후에서야 촉발되었다. 1950년대에는 東北博物館(현 遼寧省博物館) 文物工作隊가 1956년에 五女山城을, 輯安縣 文化課가 1958년에 國內城과 丸都山城을 대략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李樂營·李淑英 2006). 1966년부터 1976년까지는 文化大革命의 시기로 거의 대부분의 유적 조사가 중단되었으나, 70년대 후반에는 부분적이지만 하고성자성과 국내성이 시굴조사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는 중국 동북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당시의 성과는 각 지역 『文物志』에 간략하게나마 게재되어 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은 고구려 도성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五女山城, 國內城, 丸都山城 등을 대대적으로 발굴조사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각 유적에 대한 개별 보고서를 발간(2004년)하였다. 각 보고서에는 발굴조사 내용과 출토 유물이 기존과는 달리 비교적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어, 도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종합해보면 고구려 도성에 대한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세기 초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 고구려 도성의 위치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해방 이후 중국과 북한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卒本은 桓仁 지역, 國內城과 丸都山城은 集安 지역, 平壤과 長安城은 평양 지역이었음이 밝혀짐에 따라 도성의 위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도성의 축조 및 활용 시기, 성격, 그리고 천도 시기와 문헌 기록과의 연결 등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개별 고구려 도성과 관련한 중요 쟁점들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Ⅲ. 주요 쟁점 검토

1. 문헌에 나타난 고구려 도성

고구려 도성은 기본적으로 도읍의 위치에 따라 桓仁, 集安, 평양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겠으나, 문헌기록에는 보다 많은 고구려 도성 및 천도 기사가 확인된다.

우선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 나타난 고구려 천도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①卒本(沸流水; 기원전 37년 동명왕 즉위년), ②國內(尉那巖; 3년 유리왕 22년 천도), ③丸都(209년 산상왕 13년 천도), ④平壤 東黃城(343년 고국원왕 13년 천도), ⑤平壤(427년 장수왕 15년 천도), ⑥長安城(586년 평원왕 28년 천도)으로 나타난다.

반면 『三國史記』 地理志에는 고구려의 도성을 ①卒本(紇升骨城; 기원전 37년 주몽; 40년간 수도), ②國內城(尉那巖城 또는 不耐城; 기원후 3년 유리왕 22년 천도; 425년간 수도), ③平壤城(427년 장수왕 15년 천도; 156년간 수도), ④長安城(586년 평원왕 28년 천도; 668년 보장왕 27년까지 83년간 수도)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밖에 『三國志』 魏書 東夷傳 高句麗條에도 國內 천도와 관련된 내용이 전한다. 기사에 따르면 公孫氏가 建安년간(196~219년)에 고구려를 공격하여 수도(國)을 파괴하였고, 이후 伊夷模가 更作新國 하였다는 것이다¹⁾.

문헌기록에 따른 고구려의 천도 문제는 특히 고구려 초기 왕계와 『三國史記』 초기 기사의 신빙성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하다(여호규 2005). 이와 관련된 역사학계의 여러 논의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주로 고고학적인 검토가 가능한 주제만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1) 建安中, 公孫康出軍擊之, 破其國, 焚燒邑落.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涓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詣康降, 還住沸流水. 降胡亦叛伊夷模, 伊夷模更作新國, 今日所在是也. 拔奇遂往遼東, 有子留句麗國, 今古雛加駁位居是也. 其後復擊玄菟, 玄菟與遼東合擊, 大破之

2. 卒本 도성의 위치 비정

卒本 도성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우선 <廣開土王碑>에는 ‘비류곡 흘본 서쪽 산 위에 성을 쌓아 도읍으로 삼았다²⁾’는 내용이, 『魏書』高句麗傳에는 ‘흘승골성에 이르러 마침내 자리를 잡았다³⁾’라고 하였다. 또한 『三國史記』高句麗本紀 동명왕 즉위년(기원전 37년) 기사에는 ‘졸본천에 이르러, 그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산하가 험하고 견고한 것을 보고 마침내 도읍하려고 하였으나,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었으므로 일단 갈대를 엮어 비류수 위에 살았다⁴⁾’, 그리고 4년 뒤에는 ‘가을 7월에 성곽과 궁실을 지었다⁵⁾’라는 내용이 전한다.

고구려의 첫 번째 도성인 卒本은 대체로 지금의 遼寧省 桓仁縣 일대로 비정된다. 桓仁 지역은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渾江과 그 지류를 따라 넓은 들판이 펼쳐있다. 현재 桓仁 일대에는 평지성인 下古城子土城과 산성인 五女山城을 비롯하여 渾江을 따라 高力墓子古墳群, 望江樓古墳群, 上古城子古墳群 등 고구려 이른 시기의 주요 적석총들이 분포한다. 무기단 적석총과 기단 적석총 등과 같은 이른 시기 적석총의 대규모 군집과 함께 성곽이 존재하는 곳은 고구려 영역 내에서 桓仁和 集安 지역 밖에 없는데, 광개토태왕비가 소재한 集安이 國內城 지역이므로 桓仁 일대가 卒本일 수밖에 없다.

卒本 도성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여러 연구가 있었다. 魏存成(1985)이나 王綿厚(2002)는 紇升骨城을 五女山城으로, 卒本 평지성을 下古城子土城으로 비정하였다. 반면, 紇升骨城이 五女山城이라는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廣開土王碑>에 나타난 卒本の 위치를 근거로 富爾江과 渾江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한 喇哈城을 평지 도성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王從安·紀飛 2004, 田中俊明 1998). 또 五女山城의 동쪽, 대규모 고구려 고분군이 존재하는 高力墓子村 부근의 수몰지구를 卒本으로 보기도 한다(梁志龍 2008, 양시은 2013b). 그 외에도 紇升骨城을 下古城子城으로, 卒本은 桓仁 일대 평지를 총괄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보거나(耿鐵華 2001), 卒本을 부이강과 혼강의 합류 지역으로, 그리고 尉那巖城을 五女山城으로 보는 견해(노태돈 2012)도 있다.

2) 於沸流谷 忽本西城 山上而建都

3) 朱蒙至紇升骨城遂居焉

4) 魏書云『至紇升骨城 觀其土壤肥美 山河險固 遂欲都焉 而未遑作宮室 但結廬於沸流水上居之

5) 秋七月 營作城郭宮室



그림 1 桓仁 일대 주요 고구려 유적 분포도

桓仁 지역에서 그동안 고구려 도성으로 거론된 유적은 五女山城, 下古城子城, 喇哈城이다.

우선 桓仁 시가지에서 동북쪽으로 약 8.5km 떨어진 五女山城은 험준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남북 길이 600m, 동서 너비 110~200m의 넓은 정상부를 가진 해발 806m의 五女산에 위치한다. 遼寧省 文物考古研究所가 중심이 되어 1996~1999년과 2003년에 4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遼寧省 文物考古研究所 2004). 전체 성벽은 총 길이 4,574m인데, 대부분은 자연 절벽을 그대로 성벽으로 사용하였고, 돌로 축조한 곳은 남벽과 동벽의 남단으로 565m에 불과하다. 그 중 1호 대형건물지는 6칸 규모의 초석 건물로, 길이 13.8m, 너비 6~7.2m이다. 건물지 내부에서 五銖錢과 大泉五十錢 등이 출토되어 고구려 전기에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산성에서는 고구려 전기에 해당하는 평면 형태 원형 내지는 장방형의 수혈주거지도 발견되었는데, 주거지 내에서는 온돌이 아닌 노지나 부뚜막 시설만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출토 유물로는 잔석립이 일부 혼입되고 손으로 제작한 심발 계통의 토기(삼도 2:①, ②)와 철기(鐵錘, 鐵鏟) 등이 있다. 현재까지의 고고학적인 조사 결과와 문헌기록을 종합해보면, 五女山城은 山上에 도읍하였다는 <廣開土王碑>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곳이므로, 『魏書』에 전하는 紇升骨城일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산성은 도성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졸본 지역의 평지에 별도의 거점 또는 도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桓仁 일대에서는 2개의 평지성(下古城子城, 喇哈城)이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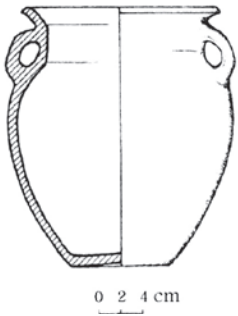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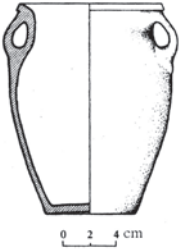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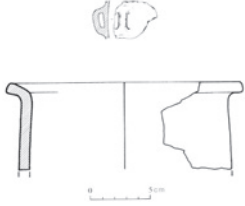
제3문화층 (전기)			
	①심발 (五女山城 47호 건물지)	②심발 (五女山城 57호 건물지)	③심발 (下古城子城 H1 수혈)

그림 2 五女山城과 下古城子城 출토 고구려 전기 토기(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먼저 渾江 상류의 富爾江 합류 지점에 위치한 喇哈城은 한 변의 길이가 200m 가량인 평면 방형의 석축 평지성이다. 五女山城과는 동쪽으로 약 12km 가량 떨어져 있다. 유적은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되었지만, 갈수기에는 성벽이 지면에 드러나기도 한다. 1909년에 간행된 『懷仁縣志』에 성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고, 2003년에는 桓仁縣 文物管理所에 의해 성벽 일부가 조사되었다. 고구려 전기 도성의 또 다른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하지만(王從安·紀飛 2004),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석축을 성벽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주변에서 채집된 기와편이 모두 근래의 것이라는 견해(梁志龍 2008)도 있어, 현재로서는 추가 논의가 불가능하다.

桓仁 시가지에서 서북쪽으로 3km 떨어진 下古城子土城은 五女山城과는 약 10km 떨어져 있으며, 토성에서 북쪽으로 1.5km 가량 떨어진 인접 지점에는 上古城子古墳群이 분포한다. 1998년도 조사(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에 따르면, 유적의 훼손이 심하지만 원래는 평면 형태 장방형의 토성으로, 성벽의 전체 둘레는 1km 내외로 추정된다. 당시 서벽을 절개하여 조사한 결과, 성벽은 흙을 다져 축조하였고, 단면은 사다리꼴 형태로, 기저부 폭은 15.2m, 상단부 폭은 8.4m, 잔고는 1.4m이다. 남벽 아래에서는 성벽 축조 이전에 만들어진 수혈(H1)이 발견되었는데(삽도 3), 그 내부에서는 중위 대상파수와 심발형 토기 등 고구려 전기로 편년되는 토기들이 출토되었다(삽도 2:③). 이러한 시굴조사 결과는 그동안 下古城子城이 漢代 토성을 재할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魏存成(1985)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성 내에서는 고구려 전기로 편년되는 심발 계통의 토기와 중기로 편년되는 시루, 동이 및 귀면와당 1점이 보고된 바 있다(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 編纂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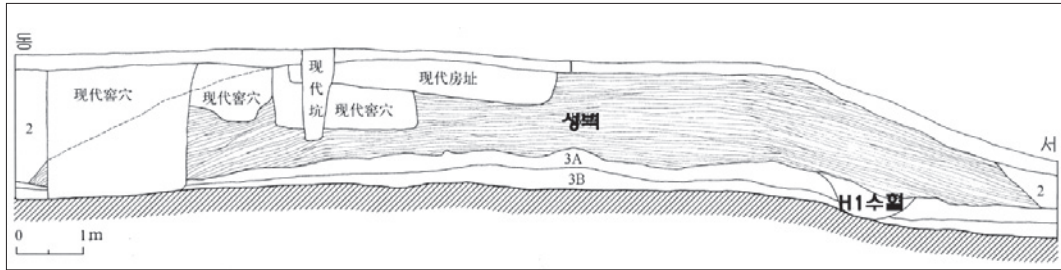


그림 3 下古城子城 남벽 층위도(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도3 재편집)

을 1990). 그러나 와당 1점을 제외하면 토성 내외에서 아직까지 추가로 고구려 기와가 발견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토성 내에 기와건물지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五女山城이 紇升骨城이라면, 忽本の 서쪽 산 위에 도읍을 세웠다는 <廣開土王碑>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五女山城의 서쪽에 위치한 下古城子城은 卒本의 평지 도성이었을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下古城子城 내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시기와 성격을 파악하기 쉽지 않으나, 토성과 바로 인접한 上古城子古墳群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해볼 수 있다.

上古城子古墳群은 1960년대에는 200여기의 적석층이 있었다고 하나, 1988년 조사 당시에는 27기의 고분만이 확인되었다. 고분군의 동남쪽 모서리에서 무기단적석층도 발견되지만, 대다수는 기단적석층이다. 계단식적석층이 확인되지 않았고 2006년 발굴조사 한 HSM4 고분에서 니질 회색 태토에 점열문 또는 중호문과 점열문 등이 시문된 토기가 출토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분군의 조영연대를 3~4세기로 판단하기도 한다(梁振晶 2008). 上古城子古墳群을 조영한 주체 세력은 고분군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축조된 下古城子城에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성 보다 먼저 축조된 성벽 하단부 수혈에서 심발형 토기를 비롯한 고구려 전기 토기가 출토되어, 下古城子土城은 고구려 초기 보다는 좀 더 늦은 시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양시은 2013b). 이와 관련하여 李新全(李新全·梁志龍·王俊輝 2004)은 下古城子城을 소노부가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梁志龍(2008)은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기사를 토대로 유리왕 3년(기원전 17년)에 鶻川에 축조한 離宮으로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卒本의 평지 도성은 어디였을까? 桓仁 지역이 고구려의 초기 도읍인 卒本이었다면, 그 주변에 이른 시기의 대규모 고분군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桓仁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고분군은 高力墓子古墳群으로, 현재는 댐으로 인해 수몰되었다. 고분

군에서 서북쪽으로 약 6km 떨어진 강 건너편에는 五女山城이 위치한다. 高力墓子古墳群은 1950년대 중후반과 1994년에 발굴되었는데, 1956년 조사 당시에는 240여기의 고분이 확인되었고, 고분군 남단으로 대형 적석총 70~80여기가 집중분포 했다고 한다. 고분군은 다수의 적석총과 소수의 봉토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적석총은 무기단적석총, 기단적석총 및 계단적석총의 형식이 모두 확인되었다(萬欣·梁志龍 1998). 적석총에서는 회전대를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제작한 심발과 초창기 형태의 호가 출토되어, 고분군이 고구려 초기 단계부터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桓仁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고분군의 조영 기간도 가장 길고, 또 대형 적석총도 다수 확인된다는 점에서 高力墓子古墳群은 인근의 五女山城과 함께 고구려 초기 도읍을 구성하였을 가능성이 크다(양시은 2013b).

『三國史記』高句麗本紀에는 卒本에서 도읍을 옮긴 이후에도 新大王 3년(167년)부터 榮留王 2년(619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고구려 왕이 卒本에 있는 始祖廟에서 제사를 지낸 기록이 존재한다⁶⁾. 卒本은 고구려 건국지로서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고구려 국가 성립기간 동안 중앙 정부의 꾸준한 관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舊唐書』에는 고구려에서는 ‘오직 사찰·신묘 및 왕궁·관청만이 기와를 쓴다’⁷⁾고 기록하고 있어, 始祖廟 역시 기와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五女山城이나 下古城子城에서는 기와 건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卒本 지역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나 중요도를 고려할 때, 桓仁 일에서 고구려 기와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와 건물지가 발견되는 유적이 고구려의 평지 거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高力墓子村 일대가 桓仁댐으로 인해 수몰되어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

6) ① 新大王 三年(167), ② 故國川王 二年(180), ③ 東川王 二年(228), ④ 中川王 十三年(260), ⑤ 故國原王 二年(332), ⑥ 安臧王 三年(521), ⑦ 平原王 二年(560), ⑧ 榮留王 二年(619)

7) 唯佛寺·神廟及王宮·官府乃用瓦(『舊唐書』列傳 東夷 高麗)

3. 國內로의 천도

『三國史記』高句麗本紀에는 유리왕 22년(기원후 3년)에는 ‘겨울 10월에 왕은 국내로 천도하고, 위나암성을 쌓았다⁸⁾’는 기록이 전하고 있는데, 魏存成(1985)을 비롯한 중국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해당 기사와 『三國史記』地理志를 근거로 당시 卒本에서 國內 지역으로 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천도 시점에 대한 논란은 일단 제쳐두고, 여러 왕릉과 평지성인 國內城과 산성인 丸都城(山城子山城)이 소재한 集安 지역은 고고학적인 자료로 볼 때, 고구려 중기 도성으로 활용된 곳임에는 분명하다. 集安은 通溝盆地로 압록강 중류 일대에서 가장 넓은 곳이기도 하다. 남쪽으로는 압록강이, 서쪽으로는 通溝河가 흐르고 있어 자연 해자를 이루며, 북쪽으로는 老嶺山脈이 자연 방어벽을 형성하고 있다.

『三國史記』에는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기 이전까지 國內 천도와 관련한 여러 기록이 남아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琉璃王 22년(기원후 3년)에는 國內로 천도한 이후, 山上王 2년(198년)에는 丸都城을 쌓았으며⁹⁾, 13년(209년)에는 丸都로 도읍을 옮겼다¹⁰⁾. 246년 魏나라 毋丘儉의 침입으로 인해 丸都城이 점령당하자, 東川王 21년(247년)에는 平壤城을 쌓고 백성과 종묘 및 사직을 옮겼다¹¹⁾. 또 故國原王 12년(342년)에는 다시 丸都城을 수리하고 國內城을 쌓았으며, 같은 해 8월 丸都城으로 옮겨 거처하였다¹²⁾. 그리고 故國原王 13년(343년) 7월에는 거처를 平壤 東黃城으로 옮겼다¹³⁾. 이러한 천도 기사는 2세기 말에서 3세기 전반기에 고구려의 수도가 두 번이나 함락되면서 일어난 복잡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듯 하다.

한편, 『三國志』魏書에서는 公孫氏가 建安년간(196~219년)에 고구려를 공격하여 수도(國)를 파괴하였고, 이후 伊夷模가 ‘更作新國’하였다는 기사가 전한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사는 『三國史記』高句麗本紀의 故國川王 卽位條(189년)와 山上王 卽位條(197년)에 각각 기재되어 있다. 그렇지만 建安년간을 고려할 때, 산상왕대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

8) 王遷都於國內 築尉那巖城

9) 春二月 築丸都城

10) 王移都於丸都

11) 王以丸都城經亂 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

12) 春二月 修葺丸都城 又築國內城 秋八月 移居丸都城

13) 秋七月 移居平壤東黃城

다. 『三國志』 기사에는, 왕위에 즉위하지 못한 拔寄가 公孫康에게 투항했다가 沸流水 일대로 돌아왔고, 이에 伊夷模가 ‘更作新國’ 한 곳이 244년 卍丘儉이 침입했을 당시의 도성(今日所在)이라는 내용이 전한다. 해당 기사는 通溝분지 일대의 小板盆嶺(小板石嶺)에서 1906년에 曹魏의 卍丘儉이 남긴 <卍丘儉紀功碑>가 발견되어(鳥居龍藏 1914), 고고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田中俊明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 연구자들은 해당 기사의 ‘新國’을 도성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卒本에서 國內(丸都)로의 천도가 유리왕대가 아닌 산상왕대에 행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東潮·田中俊明 1995).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 연구자들은 대부분 ‘更作新國’을 集安 도성 지역 내에서 丸都城으로 궁성을 옮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魏存成 1985, 耿鐵華 2004, 여호규 2005).

현재까지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3세기대 이후부터는 集安 지역이 도성으로 활용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그 이전 시기의 國內 또는 國內 尉那巖城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사실 國內城은 문헌에서 고국원왕 12년(342년)의 축성 기사 이후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國內 尉那巖城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현재 集安 지역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성은 평지 성인 國內城과 산성인 丸都山城 뿐이며, 그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성곽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후술하겠지만 國內城의 석축 성벽 아래에서 漢代의 토성이 있다는 주장(集安縣文物保管所 1984)은 일단 신빙성이 없다. 많은 중국인 연구자들은 尉那巖城을 丸都城(山城子山城)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魏存成 1985, 耿鐵華 2004, 李新全 2009), 고구려가 유리왕대에 集安 지역으로 천도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호규(2005)는 尉那巖城이 丸都城으로 연결될 만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國內로의 천도 시기는 國內 중심의 방위 관념이 확립되는 태조왕대의 1세기 중후반으로, 그리고 중심지는 通溝盆地 서쪽의 麻線溝 일대로 비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集安 일대에서 1~2세기대에 해당하는 고구려 도성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짓기 어렵다.

한편,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大武神王 11년(28년) 기사에는 漢의 군대를 맞아 尉那巖城에서 농성한 기사가 전한다. 문헌에는 尉那巖城이 산성 내에서 물이 전혀 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질 만큼 지세가 험한 바위산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¹⁴⁾. 문헌에 나타난 산성의 지

14) 秋七月 漢遼東太守將兵來伐…憑險出奇 破之必矣…王然之 入尉那巖城 固守數旬…漢人謂我巖石之地 無水泉 是以長圍 以待吾人之困 宜取池中鯉魚 包以水草 兼旨酒若干 致漢軍…漢將謂城內有水 不可猝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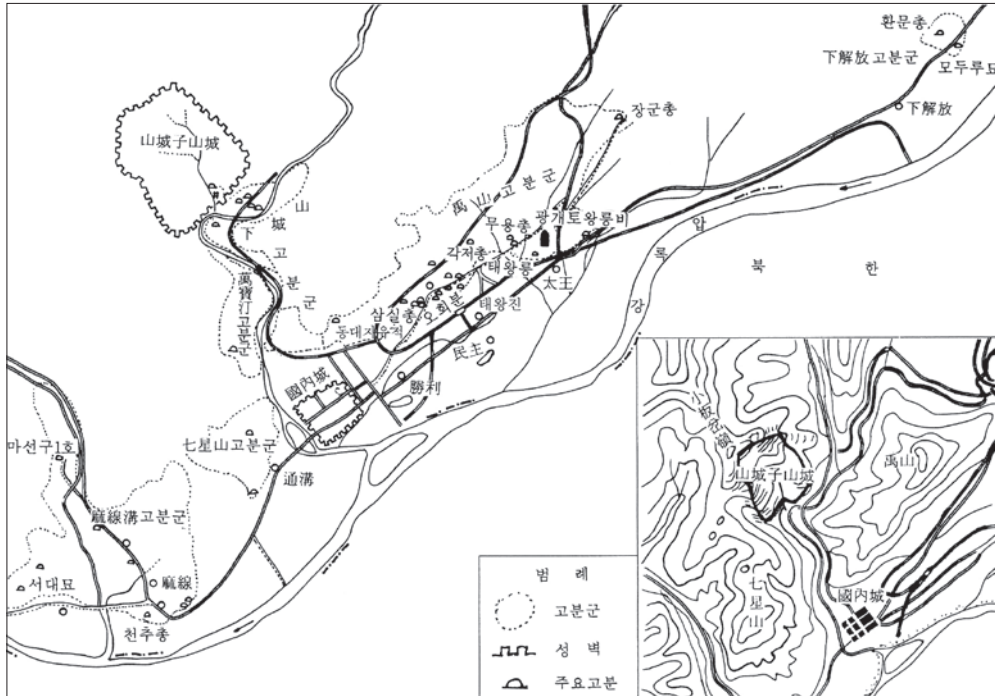


그림 4 집안지역 일대 주요 유적분포도(余昊奎 1998: 그림2-1-1 재편집)

형적인 조건을 고려하면, 사실 포곡식산성 보다는 桓仁이나 集安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산정식산성이 좀 더 부합해 보인다. 노태돈(2012)은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을 근거로 尉那巖城을 五女山城으로, 劉子敏(2006)은 霸王朝山城으로 추정할 바 있다.

3. 國內城의 축조 시기

國內城은 丸都山城과 함께 고구려의 대표적인 중기 도성 유적으로, 『三國史記』에는 故國原王 12년(342년)에 丸都城을 수리하고 國內城을 쌓았다는 기록¹⁵⁾이 존재한다. 전체 성벽 둘레가 2.74km에 달하는 國內城은 지금까지 다년간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성벽을 절개한 결과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修築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특히, 國內城의 初築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도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15) 春二月 修葺丸都城 又築國內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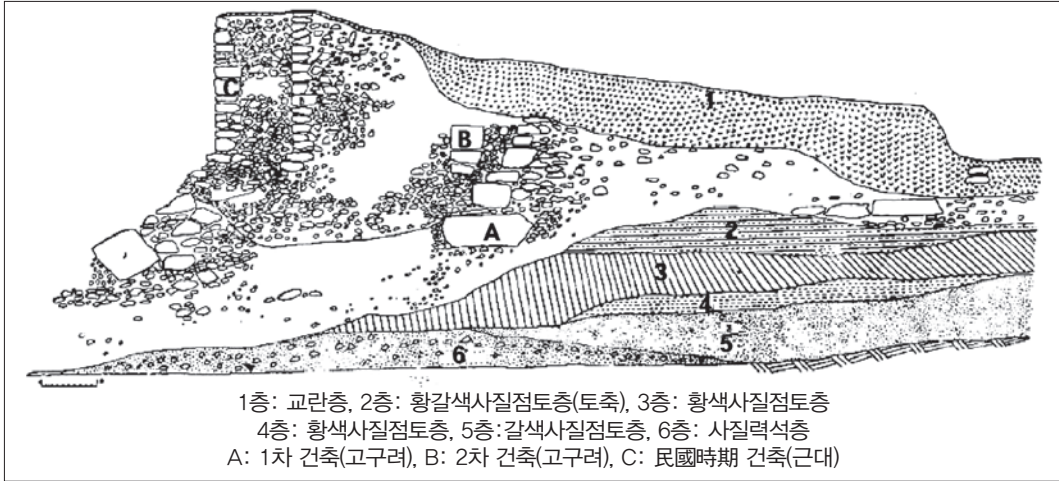


그림 5 國內城 남벽(Tr.4) 단면도(集安縣文物保管所 1984: 도13)

1975~1977년에 실시한 발굴조사에서는 석축 성벽의 아래에서 漢代 토성의 흔적을 발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集安縣文物保管所 1984). 성벽 아래에서 폭 7~8m, 잔고 1.7~2m 규모의 弓形의 토축 다짐층(삽도 5)이 발견되었고, 그 내부에서 출토된 마제 석부와 석도, 환상석기 등을 근거로 고구려 건국 이전에 축조된 漢代 高句麗縣城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李新全 등은 해당 토성은 중국의 군현성이 아닌 고구려 세력이 축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李新全·梁志龍·王俊輝 2004), 李殿福(2006)은 戰國시기 燕의 遼東郡 塞外の 거점성으로, 劉子敏(2006)은 西蓋馬縣에 있던 토착민 집단(高夷)이 세운 蓋馬國의 성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 절개한 국내성 하부의 해당 토층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석기와 함께 고구려 전기로 편년되는 중위대상파수가 부착된 심발형 토기(삽도 6 : ①)도 함께 출토되었기 때문에, 國內城은 漢代가 아닌 고구려 시기에 처음 축조된 것은 분명하다(양시은 2013b). 또한 國內城 남벽의 절개 단면 토층을 보면(삽도 7 : ②), 1970년대 조사 당시에 보고된 漢代 토루는 사실상 토성이 아닌 國內城 성벽 축조를 위해 조성한 성토층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한 근거로는 연천의 호로그루나 당포성 등에서도 석축 성벽 아래 토축 기초부(성토부)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과 2000년대 초반 발굴조사에서 북벽을 절개하여 조사할 당시 70년대 발견된 토루의 흔적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발굴단의 보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國內城은 언제 축조된 것일까? 2004년도에 발간된 『國內城』 보고서를 보면, 북쪽 석축 성벽 축조 당시에 조성된 토축부(삽도 7:①)에 회전대로 제작한 니질 태토의 토기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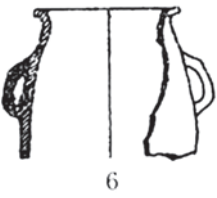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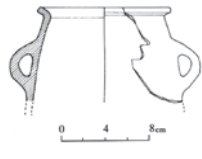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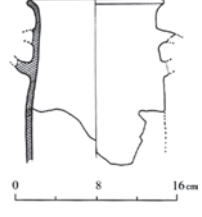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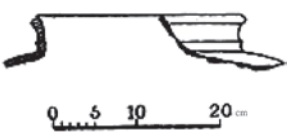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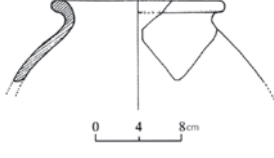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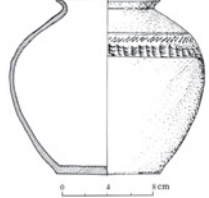
전기			
	①심발 (성벽 하부 토축, 축척미상)	②심발 (2000JZY-3층)	③심발 (2000JGR 제3층)
중기			
	④직구호 (서벽 내 토축)	⑤호 (북벽 내 토축)	⑥호 (2000JGL-4층)

그림 6 國內城 출토 고구려 전기 및 중기 토기(①,④:集安縣文物保管所 1984; ②,③,⑤,⑥: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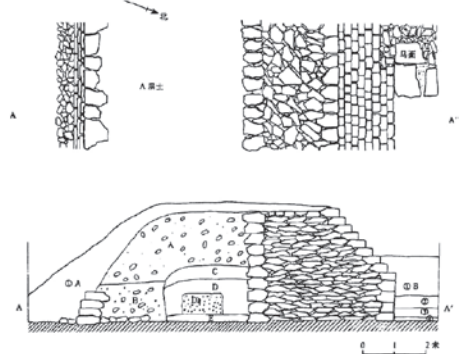

	
①國內城 북벽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도11)	②國內城 남벽 (2007년)

그림 7 國內城 성벽 기초부

편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삽도 6: ④, ⑤). 이는 國內城 석축 성벽이 고구려 전기가 아닌 중기에 축조되었음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2003년도에 조사된 國內城 내부의 體育場 지점에서는, 가장 아래 문화층에서 권운문와당, 시유도기 및 東晋代(317~420년) 浙江 지구에서 제작된 청자 등이 출토됨으로써, 4세기대 이후의 중요 건물지가 있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國內城 내부에서도 고구려 전기 토기가 수습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國內城 최하단부의 문화층은 대체로 4세기 이후의 유물이 주로 출토되고 있다. 여호규(2005)는 國內城 내에서 발견된 권운문와당의 분포 양상을 통해 4세기 전반에는 이미 성 내부에 고급 건축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골고루 분포하였기 때문에, 3세기 중후반 무렵 那部 지배세력의 集住와 더불어 國內城의 도성경관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렇지만 國內城에서 3세기대 유구가 아직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그 근거가 부족하다(양시은 2013b).

이러한 고고학적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國內城은 유리왕 22년(3년)이 아니라 축성 기사가 있는 고국원왕 12년(342년) 무렵에 완공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4. 丸都山城의 활용 시기

集安 중심지에서 북쪽으로 2.5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석축 산성인 丸都山城(山城子山城)은 산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궁성으로 사용되었다. 산성은 전형적인 포곡식산성으로, 계곡 입구인 남쪽을 제외한 나머지 세면은 모두 지세가 험하며, 남면 역시 通溝河로 인해 자연 해자와 수직 절벽이 형성되어 있다. 성벽의 전체 둘레는 7km에 달한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吉林省 文物考古研究所 등이 발굴조사 하였는데, 문지와 장대 외에도 성 내부에서 궁전지로 추정되는 대규모 초석 건물지가 발견되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초석 건물지(삽도 8)는 남북 95m, 동서 62m 범위로, 내부는 3단의 대지로 구성되었는데, 온돌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다. 발굴조사 결과 제3 토층과 제4 토층이 고구려 시기에 해당하는 문화층으로, 주로 3층에서 귀면문와당과 기와를 포함한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三國史記』에는 산상왕 2년(198년)에 丸都城을 쌓았고, 이어 13년(209년)에는 丸都로 도읍을 옮겼다는 기록이 전한다. 또한 246년에 冊丘儉의 침입으로 인

해 丸都城이 점령당하자, 동천왕 21년(247년)에는 平壤城을 쌓고 백성과 종묘 및 사직을 옮겼다. 그리고 고국원왕 12년(342년)에는 다시 丸都城을 수리하고 國內城을 쌓았으며, 같은 해 8월 丸都城으로 옮겨 거처하였다. 10월에는 前燕의 慕容皝이 고구려의 南道를 통해 도성으로 침입하여 궁실을 불 지르고 丸都城을 허물고 돌아갔다. 이로 인해 고국원왕은 다음 해에 거처를 平壤 東黃城으로 옮겼다.

문헌에 따르면 丸都山城은 198년에 축성되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초반에 실시한 발굴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5세기대 이후의 유물만 출토되었을 뿐 아직까지 2세기 말 내지는 3세기대로 편년되는 유물이나 유구는 확인된 바 없다. 國內城에서 출토되는 4세기대로 편년될 수 있는 권운문와당 또한 丸都山城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고국원왕대 丸都城이 도성으로 활용되었다는 문헌 기록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유물의 출토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丸都山城이 3세기에 존재하였음은 『三國史記』뿐만 아니라 『三國志』 魏書나 < 毌丘儉紀功碑 > 등의 여러 자료에서도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丸都山城이 毌丘儉과 慕容皝에 의해 두 차례나 대규모로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여러 차례 개축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산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초 축성 단계의 유구나 유물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중국 학계에서는 丸都山城의 궁전지는 342년 丸都城 함락과 더불어 소실 및 폐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그러나 丸都山城의 궁전지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삽도 9)과 유사한 모티브의 와당이 6세기대로 편년되는 연천 호로고루에서 발견되었고, 동일한 형태의 양이부호(삽도 9) 역시 5세기 중후반의 남한 내 여러 고구려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6세기대 문헌기록¹⁶⁾에서 여전히 丸都城의 명칭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4세기대 폐기설은 문제가 있다(양시은 2013b). 이와 관련하여 여호규(2005)는 丸都山城에서는 4세기대의 권운문와당이나 구획선(幅線) 있는 연화문와당 대신 5세기 후반에 출현하는 구획선 없는 연화문와당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궁전지는 6세기대에 조영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王飛峰(2013)은 궁전지에서 출토된 와당이 5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하여, 광개토왕 17년(407년)¹⁷⁾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16) 丸都城于朱理叛 伏誅 (『三國史記』高句麗本紀 陽原王 十三年)

17) 『三國史記』高句麗本紀의 廣開土王 十六年(406년) 기사에 ‘궁궐을 증축 수리하였다’라는 기록이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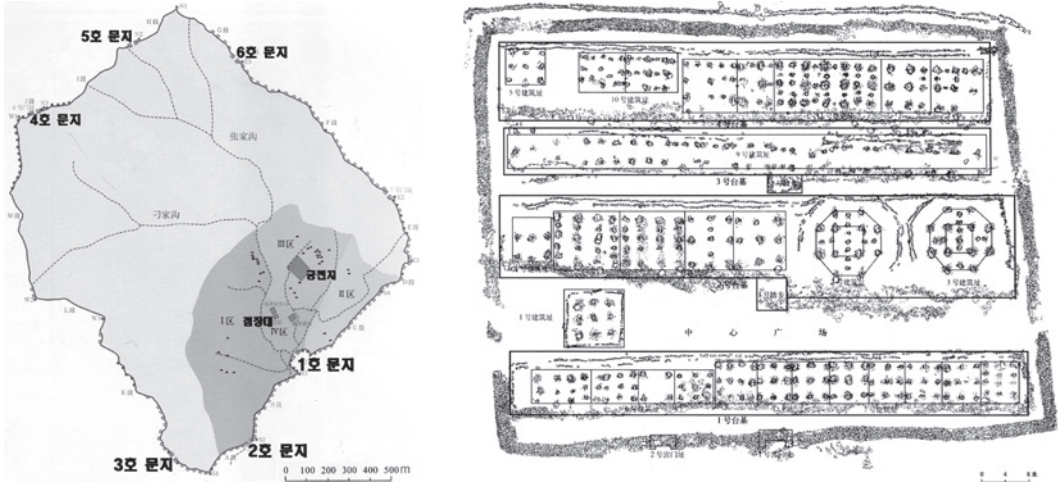


그림 8 丸都山城과 궁전지(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도3·도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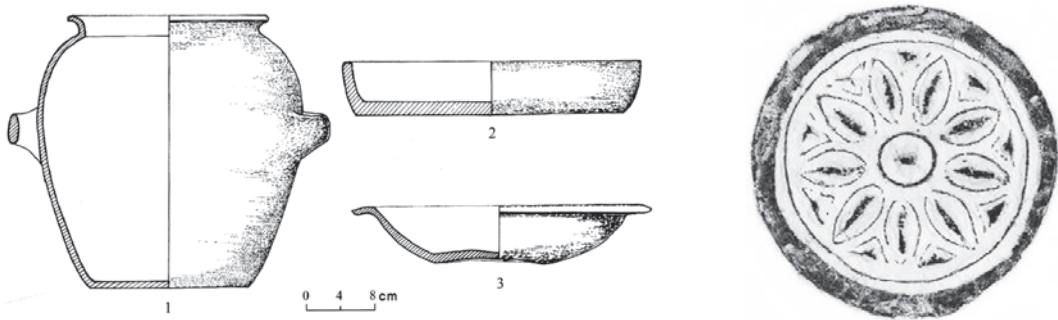


그림 9 궁전지 출토 토기와 연화문와당(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物館 2004: 도104·도76-2)

이 밖에도 『三國史記』에는 246년에 毌丘儉의 침입으로 인해 丸都城이 점령당하자, 동천왕 21년(247년)에 平壤城을 쌓고 백성과 종묘 및 사직을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그렇지만 樂浪土城에서 출토된 西晉의 연호인 元康(291~299년)이 찍힌 ‘大晉元康’ 명문 와당은 3세기 말까지도 평양 지역에 樂浪이 세력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천왕대의 平壤城은 현재의 평양 지역이 아닌 다른 곳을 지칭한 것이 된다(양시은 2013b). 당시 고구려가 평양으로

廣開土王碑와 『三國史記』高句麗本紀에는 1년의 연대 차이가 있다.

천도했다면, 3세기대 중반의 고구려 적석총과 유물이 평양 지역에서 확인되어야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유적이나 유물이 보고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張福有(2004)는 集安의 良民 수몰지구에서 갈수기에 드러난 성터 유적을 平壤城으로 판단한 바 있다. 반면 여호규(2005)는 平壤城은 협소한 麻線溝 일대의 평상시 거점이나 비상시 군사방어성인 환도성에 대비되는 명칭으로서, 通溝盆地 일대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중심부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이들 주장 역시 현재로써는 고고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기가 어렵다.

5. 平壤城의 위치 비정

『三國史記』高句麗本紀에는 長壽王 15년(427년)에 평양으로 천도¹⁸⁾하고, 平原王 28년(586년)에는 다시 長安城으로 옮겼다¹⁹⁾는 기록이 남아있다. 고구려가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한 사실은 北魏의 사신 李傲가 고구려왕이 기거하는 평양성을 방문했던 내용이 기록된 『魏書』高麗傳²⁰⁾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평양 지역은 도읍으로 활용되기 이전에 樂浪이 한동안 세력을 유지하던 곳으로, 도시의 기본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주변이 넓은 평야지대로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廣開土王은 평양에 9개의 절을 창건²¹⁾하였는데, 이는 평양 지역이 도읍으로 활용되기 이전부터 중요한 곳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6세기 중엽 北周의 역사를 기록한 『周書』高麗傳에는 고구려의 ‘도성은 平壤城으로, 동서가 6리이며 남쪽으로는 패수에 닿아 있다. 성 내에는 군량과 무기를 비축하여 두었다가 적군이 침입하면 곧 성으로 들어가 굳게 지킨다. 왕은 따로 그 곁에 궁실을 마련하였으나 평상시에는 거기에 살지 않는다.’²²⁾고 전해진다.

18) 移都平壤

19) 移都長安城

20) 世祖時 釗曾孫璉始遣使者安東奉表貢方物 并請國諱 世祖嘉其誠款 詔下帝系名諱於其國 遣員外散騎侍郎李敖拜璉爲都督遼海諸軍事 征東將軍 領護東夷中郎將 遼東郡開國公 高句麗王 敖至其所居平壤城 訪其方事 云 遼東南一千餘里 東至柵城 南至小海 北至舊夫餘 民戶參倍於前 魏時 其地東西二千里 南北一千餘里

21) 秋八月 百濟侵南邊 命將拒之 創九寺於平壤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廣開土王 二年)

22) 治平壤城 其城 東西六里 南臨泃水 城內唯積倉儲器備 寇賊至日 方入固守 王則別爲宅於其側 不常居之.



그림 10 평양지역 일대 주요 유적분포도(朝鮮總督府 1929: 지도 1 재편집)

북한 학계에서는 전기 평양성이 평지성인 안학궁과 방어용 산성인 대성산성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둘레가 7km에 달하는 대성산성은 대규모 인원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대형 포곡식 산성으로, 내부에서는 20여 곳에 달하는 기와 건물지와 金字經이 출토된 초석 기와 건물지 등 다수의 건물과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65개에 달하는 치가 발견되어 평양으로 천도 이후 수도의 방어용 산성이었음이 확실시된다.

평양성의 첫 번째 후보인 안학궁은 평면 형태가 마름모꼴에 가까운 방형 토성으로, 전체 둘레가 2.5km 가량이다. 성벽 기저부의 너비는 8.2~10m이고, 토루의 내외면은 다듬은 쇠기꼴 돌로 2m 내외까지 들여쌓기 하였다.

성 내에는 남북 중심축을 중심으로 5개의 건축군이 분포하고 있다. 남궁, 중궁, 북궁, 동궁, 서궁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궁전들은 회랑으로 서로 연결되었다. 전체 21기의 건물터와 31기의 회랑터가 발견되었으며, 그 외에도 정원과 연못, 우물 등이 확인된다. 양정석(2008)은 안



그림 11 안학궁 출토 와당①,②:고구려연구재단 2006: 135쪽; ③: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사진40)

학궁의 중앙 건축군의 배치 구조가 漢의 高臺 건축제도를 채택한 國內城의 궁궐 구조를 계승하였으며, 남궁의 경우 魏晉南北朝 시기의 太極殿과 東西堂制를 채용한 것으로 보았다.

안학궁의 축조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특히 안학궁 축조 이전에 이미 조성되어 있었던 고구려 석실분과 안학궁에서 출토된 와당에 대한 연대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다.

안학궁에서는 연화문와당, 귀면문와당, 치미 등 다양한 기와가 수습되었는데, 고구려의 전형적인 붉은색 기와 보다는 회색 계통의 기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다.

田中俊明(2005)은 안학궁이 5세기말에서 6세기 초로 편년될 수 있는 고구려 황혈석실분을 폐기하고 축조되었고, 출토 기와 또한 고려로 추정되는 만큼 안학궁은 고려시대의 궁전건축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순발(2012)은 고구려 석실분을 파괴하고 안학궁이 축조된 점과 안학궁 2호 석실묘에서 출토된 토기가 고려시대로 편년되는 점, 그리고 막새의 형식이 통일신라 또는 고려 이후의 것이라는 점에서 안학궁이 7세기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덕식(2003)은 안학궁이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건물 기와에 대한 改瓦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후기 평양성으로 천도한 후에 별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임기환(2007) 역시 천도 당시의 평양성은 청암동토성이며, 안학궁은 천도 이후 도성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안학궁에서 주연부에 연주문이 부가된 (청)회색 계통의 와당이 다수 출토되고 있다는 점은 안학궁이 고려시기에도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에는 분명하다. 물론 북한 학계에서는 주연부에 연주문이 부가된 와당(삼도 11:③)을 모두 고구려 시기의 것으로 주장하고 있

으나, 해당 형식은 안학궁을 제외한 다른 고구려 유적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고구려 와당과는 달리 내면에 1~2조의 깊은 홈이 반원형으로 파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양시은 2013a).

고구려연구재단의 보고서(2006)에 게재된 안학궁 출토 유물을 검토해보면, 소량이지만 고구려의 승문 타날 암키와나 연화문와당, 그리고 고구려 토기편 등이 출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리광휘(2006)는 안학궁에서 출토된 토기와 기와를 모두 고구려 시기로 파악하고 있으나, 그가 논문에서 제시한 2-3부류(격자타날 토기), 4-5부류(파상문 시문), 5-7부류(타날+돌대), 6-8부류(회청색 타날문 토기), 7-9부류(타날+돌대, 내면 타날), 8-10부류(유약)는 고구려가 아닌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에 해당한다. 또한 『대성산의 고구려유적』(1973)에 제시된 안학궁 출토품 중 전면이 타날된 토기편, 돌대와 타날흔이 있는 동체부편, 그리고 T자형 구연부를 가진 토기편 역시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구려 유물이 출토된다는 점에서 안학궁의 축조 시기는 고려가 아닌 고구려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안학궁 조성 이전에 축조된 석실분 3기의 연대는 안학궁 축조 시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3기의 석실분 모두 안학궁 내부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상부 구조가 훼손되어 기초부만 남아있다. 1호분은 우편재 연도에 장방형 현실을, 2호분은 중앙 연도에 방형의 현실을 갖추었고, 3호분은 쌍실분으로 좌측은 우편재 연도에 장방형 현실을, 우측은 우편재 연도에 방형 현실을 갖추고 있다. 유사한 형태의 석실분이 대성산성을 비롯한 고구려 전 영역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석실분의 형태만을 가지고 시기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평양성 고구려돌칸흙무덤 발굴보고』(2003)에서는 안학궁 2호분에서 토기 2점, 관정 39점, 五銖錢을 비롯한 청동 화폐 8점과 청동 반지 2점이 출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²³⁾. 도면이 제시된 안학궁 석실분 출토 토기에 대해 박순발(2012)은 회색 계통의 반구형 구연의 호(삼도 12:㉔)를 구연부가 발달하고 내면에도 물레흔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고려시기의 토기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반구형의 구연이 고려시대의 병에서 많이 확인되지만 보통 경부가 세장하거나 구연부와 경부가 확실하게 구분되는데 반해, 안학궁 석실분 출토품은 그렇지 않다. 사

23) 2호분 출토 토기 2점에 대한 기술이 『대성산의 고구려유적』(1973) 보고서의 3호분 출토품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도면으로 제시된 1점의 토기 또한 3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보고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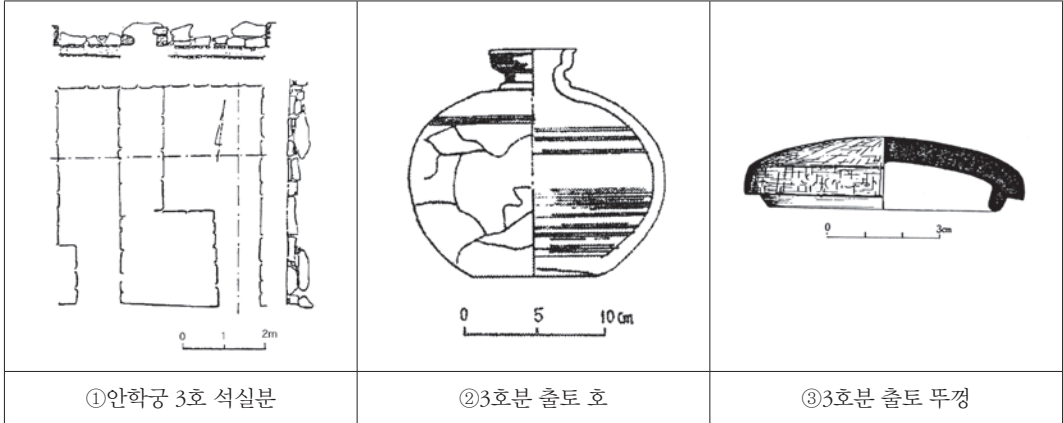


그림 12 안학궁 3호분과 출토 토기(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레가 드물기는 하지만, 한강유역의 구의동보루나 아차산 3보루에서도 반구형 구연을 갖춘 병이나 호가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토기를 무리하게 고려시대까지 내려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뚜껑받이 턱을 갖춘 회색 계통의 뚜껑 또한 남한 내 고구려 성에서 유사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유물을 실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기의 연대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제작기법과 관련된 여러 측면을 고려해볼 때 안학궁 석실분에서 출토된 토기는 고구려 중기 이후의 것으로 판단된다(양시은 2013c).

이상으로 볼 때, 안학궁은 비록 후대의 유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고구려 유물도 출토되고 있으므로 고구려 시기에 초축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안학궁이 고구려 중기의 석실분을 파괴하고 축조되었고, 출토 와당의 형식이 대성산성이나 청암리토성 출토품보다 늦으며, 이전 시기의 평지 도성과는 달리 별도의 방어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루의 기단부 내외면을 석축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안학궁은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427년 보다는 그 이후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평양성의 두 번째 후보인 청암동토성은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반달모양이며, 성벽의 전체 둘레는 약 3.5km이다. 1990년대의 조사에 따르면, 고구려 시기에 세 차례에 걸쳐 성벽을 보강하였는데, 성벽의 중심 토루에서는 고구려 이전 시기에 축조된 토성의 흔적도 발견되었다고 한다(남일룡·김경찬 1998).

關野貞(1941)은 1920년대에 청암리토성을 평양성으로 비정하고, 기와가 다량으로 산포하고 있는 토성의 중앙부에 왕궁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바 있다. 그러나 1938년 추정 왕궁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절터(淸岩里寺址)가 발견되었다. 당시 8각탑을 비롯한 1탑 3금당



그림 13 청암리토성 출토 고구려 와당(井内古文化研究室 1976)

식의 건물지가 발견되었는데, 해당 건물지를 498년 文咨明王이 건립하였던 金剛寺로 보기도 한다(朝鮮古蹟研究會 1940).

한편, 1990년대 후반에는 토성 내 서쪽 구역에서 길이 50m, 너비 20m 규모의 초석 건물지가 발견되었다. 자갈과 점토를 교대로 다져 만든 방형의 적심시설과 직경 70~80cm 가량의 원형 초석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건물지에서는 점토 벽체에 가는 모래와 점토를 섞어 얇게 바른 다음 연화문, 원문 등 다양한 문양을 표현한 채색 벽화편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금가루가 입혀진 벽화편도 상당 수라고 한다(남일룡·김경찬 2000).

청암동토성에서는 초석 건물지를 비롯한 성 내부의 여러 곳에서 고구려 기와가 출토되었다. 대성산성과 마찬가지로 太王陵이나 將軍塚 출토품과 유사한 형식의 연화문와당도 다수 발견되었다. 안학궁에 비해 이른 시기의 연화문와당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고구려 전기 평양성으로 비정된다(박순발 2012). 그렇다고 하더라도 왕궁지의 위치로 추정되던 토성 중앙부에서 절터가 발견됨에 따라 도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6. 長安城과 里坊制

『三國史記』에 따르면 고구려는 陽原王 8년(552)에 長安城을 쌓기 시작하여, 平原王 28년(586)에는 도성을 長安城으로 옮기게 된다. 長安城은 현재의 평양성으로, 세 면이 대동강과 보통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모란봉으로 가로막힌 천혜의 요새지에 축조되었다. 평양성은 외곽 성벽의 전체 둘레가 16km에 달하는 대형 성곽으로, 그동안 평지 거점 내지는



그림 14 長安城 평면도(『조선유적유물도감』3: 도115 재편집)

평지성과 방어용 산성으로 구분되던 고구려의 전통적인 도성 체제를, 도시를 방어할 수 있는 대형 성곽으로 일원화시켰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長安城은 왕성인 내성과 주민의 거주지역인 외성으로 구분되어 있고, 내성의 북쪽에는 산성을 결합시켜 방어력을 증대하였다. 그동안 발견된 刻字城石을 통해 552년 공사에 착수하여, 566년에는 내성을 쌓고, 586년 천도한 이후에도 589년에는 외성을 쌓았으며, 전체 완공은 552년으로부터 42년이 지난 593년에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양시은 2013a).

현재의 평양성(長安城)은 북성, 내성, 중성,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성벽이 고구려 시기에 축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중성과 외성 사이의 성벽 하단부에서 고구려 시기로 추정되는 원형 초석 2개가 발견되었는데, 關野貞은 성벽 하단부에 고구려 건물 초석이 있으므로 성벽이 고구려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였다(東潮·田中俊明 1995). 반면 최희림(1978)은 해당 초석이 문루의 초석으로 해당 위치에 고구려 시기의 성문

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長安城의 외성에서는 동서 120m, 남북 84m의 대형 구획과 동서 84m, 남북 84m의 소형 방형 구획으로 구성된 里坊制가 확인된다. 김희선(2008)에 따르면 長安城의 里坊制(街路區劃 방식)는 北魏의 도성이었던 洛陽城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에서 주민의 거주지역인 里를 坊으로 구획한 것은 422년에 축조된 北魏 平城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平城은 전체 길이가 32리에 달하는 外郭에 坊을 축조하고 그 내부에 巷을 배치하였다. 坊은 주변이 담장으로 둘러진 평면 방형인 공간으로, 平城에 도읍을 정한 뒤 도성 인구를 늘리기 위해 유목민이나 농경 漢族을 徙民하는 과정에서 주민 통제를 위해 拓拔鮮卑族이 고안한 방식이다. 里坊制는 北魏 洛陽城은 물론 隋·唐 長安城으로 이어져 고대 동아시아 도성제의 전형으로 정착되었다(박순발 2010).

IV. 맺음말 : 고구려 도성 연구의 과제

이상에서는 고구려 도성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및 연구 현황과 함께 쟁점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고구려는 고대 중국 중원 왕조의 도성제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도성제를 운영하였다. 고구려 도성제에 대한 모습은 『周書』 高麗傳에 잘 나타나있는데, 수도 내에 방어용 성곽(산성)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를 방어할 수 있는 나성(외성)이 축조된 고구려의 최종 도성이었던 長安城 또한 北魏나 隋, 唐의 도성이 방형의 평면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지형에 맞게 변형되었다.

고구려의 도성은 기본적으로 도읍의 위치에 따라 桓仁, 集安, 평양으로 나누어볼 수 있겠으나, 문헌기록에는 보다 많은 고구려 도성 및 천도 기사가 확인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고학적인 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북한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평양 지역의 고구려 도성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활발히 진행되어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평양 도성에 대한 연구는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21세기 들어 고구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대대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桓仁과 集安 고구려 도성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고구려의 건국지인 卒本은 현재의 桓仁 지역으로, 고구려 이른 시기의 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고구려 전기의 초석 건물지가 확인된 五女山城은 고구려의 초기 도성으로 활용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卒本の 평지 거점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중국 학계에서 평지 도성으로 추정하고 있는 下古城子城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초기 도성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의 두 번째 도읍인 集安에서는 중기 도성으로 활용된 國內城과 丸都山城이 존재한다. 발굴조사를 통해 현재의 國內城 성벽이 4세기 이후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앞에서 밝힌 바 있다. 다만 丸都山城은 문헌과 卍丘儉紀功碑 등을 통해 3세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현재까지의 고고학적인 조사 자료는 5세기대 유물이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丸都山城에 대한 추가 발굴을 통해 이른 시기의 유구가 존재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喇哈城과 良民古城에 대한 시굴조사 등이 이루어진다면, 고구려 전기와 중기 도성에 대한 추가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고구려의 세 번째 도읍인 평양의 경우에는 안학궁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안학궁 석실 분과 안학궁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암리토성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진행한다면, 전기 평양성에 대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된 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어 고구려 유적과 유물에 대한 공동 조사 및 학술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 고구려연구재단, 2005,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남북공동유적조사보고서.
- 고구려연구재단, 2006,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대성산의 고구려 유적』(고고학 및 민속학강좌).
- 남일룡·김경찬, 1998, 「청암동토성에 대하여(1)」, 『조선고고연구』 1998-2.
- 남일룡·김경찬, 2000, 「청암동토성에 대하여(2)」, 『조선고고연구』 2000-1.
- 남일룡·김경찬, 2001, 「청암동토성에 대하여(3)」, 『조선고고연구』 2001-2.
- 노태돈, 2012, 「고구려 초기의 천도에 관한 약간의 논의」, 『韓國古代史研究』 68.
- 동북아역사재단, 2013, 『평양 지역 고구려도성 유적』.
- 리광휘, 2006, 「기와와 질그릇을 통해 본 안학궁의 존속연대」,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 민덕식, 2005, 「高句麗城郭의 發掘調査 現況과 展望」, 『白山學報』 72.
- 박순발, 2012, 「高句麗의 都城과 墓域」, 『韓國古代史探究』 12.
- 손수호·최응선, 2003, 「고구려돌칸흙무덤 자료집(평양시)」, 『평양성 고구려돌칸흙무덤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 양시은, 2013a, 「고구려 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시은, 2013b, 「桓仁 및 集安 都邑期 高句麗 城과 防禦體系 研究」, 『嶺南學』 24.
- 양시은, 2013c, 「평양도읍기 고구려의 성곽방어체계」, 『고고학』 12-3.
- 양정석, 2008, 「고구려 안학궁 중앙건축군에 대한 고찰: 전전 고대건축 형제의 채용을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56.
- 여호규, 2005, 「高句麗 國內 遷都의 시기와 배경」, 『韓國古代史研究』 38.
- 王飛峰, 2013, 「高句麗 瓦當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기환, 2007, 「고구려 평양 도성의 정치적 성격」, 『韓國史研究』 137.
- 최희림, 1978, 『고구려 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集安縣文物保管所, 1984, 「集安高句麗國內城址의 調查與試掘」, 『文物』 1984-1.
- 魏存成, 1985, 「高句麗初中期の都城」, 『北方文物』 1985-2.
-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 編纂委員會, 1990, 『桓仁滿族自治縣文物志』.

- 萬欣·梁志龍, 1998, 「遼寧桓仁縣高麗墓子高句麗積石墓」, 『考古』1998-3.
- 耿鐵華, 2001, 「高句麗紇升骨城新考」, 『北方民族』2001-2.
- 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2004, 『國內城-2000~2003年集安國內城與民主遺址試掘報告』, 文物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2004, 『丸都山城-2001~2003年集安丸都山城調查試掘報告』, 文物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4, 『五女山城-1996~1999, 2003年桓仁五女山城調查發掘報告』, 文物出版社.
- 王從安·紀飛, 2004, 「卒本城何在」, 『東北史地』2004-2.
- 耿鐵華, 2004, 「集安作為高句麗都城的考古學證明」, 『東北史地』2004-2.
- 李新全·梁志龍·王俊輝, 2004, 「關於高句麗兩坐土城的一點思考」, 『東北史地』2004-3.
- 李健才, 2004, 「再論高句麗遷都國內以前有無漢代縣城的問題」, 『東北史地』2004-6.
- 張福有, 2004, 「高句麗第一個平壤城在集安良民即國之東北大鎮-新城」, 『東北史地』2004-6.
- 李殿福, 2006, 「國內城始建於戰國晚期燕國遼東郡塞外的一個據點之上」, 『東北史地』2006-3.
- 劉子敏, 2006, 「關於高句麗第一次遷都的問題的探討」, 『東北史地』2006-4.
- 李樂營·李淑英, 2006, 『中國高句麗學者與研究綜述』, 吉林文史出版社.
- 梁振昂, 2008, 「桓仁縣上古城子魏晉時期墓群」, 『中國考古學年鑑』, 文物出版社.
- 梁志龍, 2008, 「關於高句麗建國初期王都的探討-以卒本和紇升骨城為中心-」, 『조선시기의 고구려 역사 연구』, 2008년 한·중 고구려역사 연구 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
- 李新全, 2009, 「高句麗的早期都城及遷徙」, 『東北史地』2009-6.
- 鳥居龍藏, 1914, 「丸都城及び國內城の位置に就きて」, 『史學雜誌』25-7, 史學會.
- 關野貞, 1914a, 「滿洲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蹟」, 『考古學雜誌』5-3, 日本考古學會.
- 關野貞, 1914b, 「國內城及丸都城の位置」, 『史學雜誌』25-11, 史學會.
- 朝鮮總督府, 1919, 「大正七年度古蹟調查成績」, 『朝鮮彙報』8月號.
- 朝鮮總督府, 1929,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 上册, 古蹟調查特別報告 第5冊.
- 日滿文化協會, 1938, 『通溝 上-滿洲國通化省輯安縣高句麗遺蹟』.

- 日滿文化協會, 1940, 『通溝 下-滿洲國通化省輯安縣高句麗壁畫墳』.
- 朝鮮古蹟研究會, 1940, 『昭和十三年度蹟調査報告』.
- 關野貞, 1941, 「高句麗の平壤及び長安城に就いて」, 『朝鮮の建築と藝術』.
- 井內古文化研究室 編, 1976, 『朝鮮瓦磚圖譜』Ⅱ.
- 小泉顯夫, 1986, 『朝鮮古代遺跡の遍歴』, 六興出版.
- 東潮・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 田中俊明, 1998, 「高句麗の前期王都 卒本の構造」, 『高麗美術館紀要』2.
- 田中俊明, 2005, 「高句麗平壤遷都和王宮城」, 『古代都城과 益山王宮城』, 제17회마한백제문화국제학술회의,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양정석(수원대학교)

1. 본 발표문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고구려 도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한 글로서 향후 고구려 도성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글이다. 따라서 토론자는 이 글에 대해 다른 이견을 제기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의 과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토론의 과제를 받았기 때문에 궁금한 몇 가지를 여쭙어 보는 것으로 그 책임을 대신하고자 한다.

2. 우선 II장 고구려 도성 조사 및 연구 현황의 경우는 조사 성과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은 정리가 되어 있지만, 연구 현황은 그다지 언급되지 않은 것 같다. 사실 본 발표문에서는 연구 현황을 주요 쟁점별로 정리하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장의 제목에서 연구 현황이라는 부분을 빼고 좋지 않을까 한다.

3. 이 발표문의 중심 부분은 결국 III장에서 다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에서 발표자는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면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는 문헌에 나타난 고구려 도성, 卒本 도성의 위치 비정, 國內로의 천도, 國內城의 축조 시기, 丸都山城의 활용 시기, 平壤城의 위치 비정, 그리고 長安城과 里坊制를 고구려 도성과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 제기하였다.

이 중 문헌에 나타난 고구려 도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료를 소개하는데 멈추었기 때문에 본 발표문의 주 대상은 고고학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는 환인지역, 집안지역,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성관련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이 중 가장 많은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卒本 도성의 위치 비정에 대한 논의이다.

졸본은 현재 桓仁 일대로 비정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졸본의 紇升骨城은 五女山城(魏存成), 下古城子城(耿鐵華), 졸본의 평지성은 下古城子土城(魏存成), 喇哈城(田中俊明), 高力墓子村 부근(梁志龍)으로 보는 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발표자는 이중 紇升骨城은 五女山城으로, 졸본의 평지성은 高力墓子村 부근으로 보는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많이 논의되는 下古城子土城에 대해 고구려 초기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더불어 전체 둘레가 1km 내외에 이르는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토성내 기와건물지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紇升骨城으로 이해되는 五女山城에서조차 기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下古城子土城에서는 귀면와당 1점이 확인되었다면 좀 더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5. 국내성으로 천도하기 이전 도성의 변천과정과 관련하여 중요시 할 수 있는 것이 사료에 보이는 ‘國內’ 또는 ‘國內 尉那巖城’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집안 일대로 보는데 비해 노태돈은 尉那巖城을 五女山城으로, 劉子敏은 霸王朝山城으로 추정하였다. 발표자는 집안 일대에서는 1~2세기대에 해당하는 고구려 도성 유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과 사료에서 묘사하는 성의 입지를 들면서도 桓仁이나 集安일대에 분포하는 산정식산성일 가능성은 이야기 하였지만, 환인인지 집안인지는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6. 국내성의 천도와는 별도로 축조시기에 대한 논의도 최근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고구려 전기 유물은 존재하지만 3세기대 유구는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고국원왕 12년(342) 무렵 완공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국내성 천도과정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성 내외에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는 고구려 전기 토기의 존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7. 발표자는 현재 山城子山城, 즉 丸都山城에서 출토되는 기와를 비롯한 유물이 5세기에서 6세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 성의 운용 시기를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헌자료에서 이전 시기에 축성되고 도읍으로 사용된 2~4세기대의 丸都城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궁금하다.

8. 발표자는 고구려 전기평양성과 관련하여 안학궁유적과 청암동토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안학궁유적은 고구려시기에 조영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427년 천도하였던 전기평양성은 아니며, 청암동토성은 안학궁유적보다는 빠른 외당이 확인되지만 중앙부의 절터로 인해 도성의 가능성에 논란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발표자가 갖고 있는 전기평양성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9. 장안성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논란이 있는 것은 중성의 축조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사실이 부분은 쉽게 확정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혹시 발표자의 견해가 있다면 듣고 싶다.

高句麗王陵研究の現況と課題

高句麗王陵の研究は、鳥居龍蔵1910『鴨緑江上流に於ける高句麗遺跡』(『南満州調査報告』)による集安の「高句麗王ノ古墓」(將軍塚)、「高句麗王(所謂將軍塚)ノ古墓」(太王陵)と廣開土王碑の研究にはじまる。墳墓は故國原に营造された。故國原は故國壤、故國川原、故國谷、國崗上の地であり、中川之原などは洞溝を流れる小川の名から命名されたという。王の葬地・諡に着目した鳥居龍蔵の視点はそのごの王陵研究の基本となった。

鳥居は「慕容廆来侵、至故國原、見西川王墓、使人發之。役者暴死者」(『三國史記』高句麗本紀5)の記事に着目し、烽上王5年(296)、西川王陵が実在したことを指摘する。今日の集安一帯で破壊された巨大積石塚として西大墓、七星山871號墓、七星山211號墓があり、そのなかで西川王陵は実在した王陵として、211號墓と推定されている。

墳墓の頂上に何物かの建物ありしと見え、古瓦の小破片散乱し、土を盛りし跡あり。

又上部の石に窖を穿ちたる跡あり。こは多分柱を立てし為ならん。

此の墳墓に比較的接近せる所に彼の好太王の碑あり。されば此の古墳は好太王の陵墓なるか、或いは其の以前の帝王の陵墓なるか明らかかならずと雖も、少なくとも好太王の時代と相距こと遠からざる高句麗王の陵墓なるべし(鳥居龍蔵1910『南満州調査報告』)。

將軍塚(大王陵)は「最初土を以て築き、その上に小石を積み、更に其の周圍に真四角の石段を築きしものなり」。將軍塚の南方一町余の畑中に古瓦、古磚が散乱し、礎石を發見している。陵墓には烟戸と称する墓守の制度のあることを調査当初から指摘している。

「好太王墳墓」は將軍塚と構造も大きさも等しく、その周圍は土塀を以て取り囲まれている。碑文は土塀の東に接して建っている。大王名の煉瓦のあることから、好太王のようである(鳥居龍蔵1913)。

1905年に好太王碑を調査し、「今しも碑面を拓本せんとして足場を掛けていた。私は早速その拓本を求めた」(鳥居龍蔵1953『ある老學徒の手記』)。

関野貞は1913年9月~12月、谷井濟一、今西龍等と集安を調査した。國內城、尉那巖城の位置について問題意識をもち調査した。將軍塚、太王陵、千秋塚を命名した。(関野貞1913・1914)。

藤田亮策(1940)は、1940年代の太王陵の墻垣の現状を記録した。通溝の王陵として、東崗の太王陵・將軍塚、西崗の北大塚(禹山992號墓)・南大塚(禹山2110號墓)、麻線溝の千秋

塚・西大塚の7基をあげる。平壤附近の「土築大陵」として俗称皇帝墓(漢王墓)、湖南里四神塚、三墓里三墓、大寶面西綺里大墓で、平壤遷都以後、王陵は土築墳の時代であった。

1935年関野貞から池内宏らに調査要請があり、計畫されていたが、7月関野が急逝し、池内宏が藤田亮策・梅原末治・小泉顕夫と調査することになったという。9月28日~30日に廣開土王碑、太王陵、將軍塚、舞踊塚・角抵塚、山城子山城、千秋塚、西大塚、三室塚を調査した。翌年の9月30日~10月4日、第2回の通溝調査として牟頭婁塚、環文塚、四神塚、三室塚、大王陵、將軍塚、千秋塚、西大塚、山城子山城、山城子東方古墳群、通溝城の調査がなされた。濱田耕作、水野清一、三上次男、田中豊蔵等が参加した(池内宏1938、池内宏・梅原末治1940)、その報告書のなかで、池内宏は將軍塚を山上王陵、廣開土王陵は太王陵、東川王陵を臨江塚、西川王陵を千秋塚に比定した。

高句麗王陵の比定問題

これまで鳥居龍蔵や関野貞らの調査研究によって、高句麗王陵が比定されてきた。

美川王；安岳3號墳(朱栄憲1985)、千秋塚(濱田耕策1986)

故國原王；安岳3號墳(朱栄憲1985)、將軍塚(濱田1986)、太王陵(東1997)、禹山992號墓(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2004)

廣開土王；將軍塚(関野1914、永島暉臣慎1981、魏存成1994、田村晃一1984)、太王陵(池内宏1938、藤田亮策1940、濱田1986、方起東1988)

長壽王；將軍塚、漢王墓(東1997)、伝東明王陵(永島1981)

文咨明王；真坡里1號墳(永島1981)、真坡里4號墳、土浦里大塚(東1997)

陽原王；湖南里四神塚(東1997)

平原王；江西大墓(関野1941、李丙燾1980)

嬰陽王；江西中墓

榮留王；江西大墓

1990~2003年の『集安高句麗王陵』發掘報告書では、墳丘の構造(墳形、規模)、瓦、陵園などの諸要素から編年、王陵比定がなされた(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2004)。

麻線2378號墓→山城下磚36號墓→七星山871號墓→臨江墓→禹山2110號墓→七星山211號墓→西大墓(美川王)→禹山992號墓(故國原王)→麻線2100號墓(小獸林王)→千秋墓(故國壤王)→太王陵(廣開土王)→將軍塚(長壽王)

王陵の相對編年について、基本的には『集安高句麗王陵』に依拠しえるが、千秋塚と太王陵の先後關係を検討し、陵園・墓室の空間構造をみて、千秋塚は太王陵に後出する可能性を示唆した(東2006・2009・2011)。千秋塚の石室問題は今後の調査研究課題として、千秋塚→太王陵→將軍塚の築造順序をふまえたい。

王陵の絶対編年について、大王陵出土の「辛卯年好太王」銘の銅鈴が廣開土王陵説の根拠となっている。そのうえで將軍塚は長壽王陵にあてられている。こであらためて太王陵出土の銅鈴について検討したい。

千秋塚・大王陵・將軍塚の三陵の墳丘構造・陵園などについて、20世紀初の發見当初の原報告と21世紀初の發掘調査成果と比較する。また將軍塚 = 長壽王説を平壤城時代の王陵の系統關係を問題としたい。

葬地と諡

故國原王 2年(332) 春二月。如王卒本。祀始祖廟。三月。至自卒本(『三國史記』卷18)。

故國原王12年(342) 發美川王廟。

故國原王41年(342) 百濟王率兵三萬來攻平壤城。王出師拒之。為流矢所中。是月二十三日薨。葬于故國之原。

小獸林王 3年(373) 始領律令。

小獸林王14年(384) 冬十一月。王薨。葬於小獸林。號為小獸林王。

故國壤王。諱伊連。或云於只支小獸林之弟也。小獸林王在位十四年薨。無嗣。弟伊連即位。

故國壤王 3年(386) 立王子談德為太子。

故國壤王 9年(391) 春。遣使新羅修好。新羅王遣姪聖為質。三月下教、崇信佛法求福。命有司立國社修宗廟。夏五月。王薨。葬於故國壤。號為故國壤王。

廣開土王。諱談德。故國壤王之子。故國壤王三年。立為太子。九年王薨。太子即位。巨連為太子。

廣開土王18年(408) 夏四月。立太子。巨連為太子。

義熙 6 年(410) 跋下書曰「昔高祖為義帝舉哀、天下歸其仁。吾輿高雲義則君臣、恩踰兄弟。其以禮葬雲及其妻子、立雲廟於町、置園邑二十家、四時供薦(『晋書』卷125)。

廣開土王22年(412) 冬十月。王薨。號為廣開土王。

長壽王元年 諡巨連。開土王之元子也。開土王十八年。立為太子。

長壽王15年(427) 移都平壤。

安臧王 3 年(521) 夏四月。王幸卒本。祀始祖廟。五月。王至卒本。所經州邑貧乏者賜穀人斛。

平原王 2 年(560) 春二月。…王幸卒本。祀始祖廟。三月。王至卒本。所經州郡獄囚汝除二死皆原之。

平原王28年(586) 移都長安城。

榮留王 2 年(619) 夏四月。王幸卒本。祀始祖廟。五月。王至卒本。

禹山992號墓と故國原王陵(國罡上王)

992號墓は左右が小谷(河川)の台地上にある。992號墓の南辺に墓葬の空白区域がある。陵園内の空間とみられる。墳丘と祭壇の関係から4倍の陵園域を想定したが、立地条件から墳丘の9倍に復元しえる。故國原王、故国壤王、廣開土王陵の葬地は「國罡上」にあった。

千秋墓と小獸林王陵

麻線溝の右岸、鴨緑江に面する河岸段丘上に立地する。1913年の関野貞等の調査時、玄室も破壊されてほとんど形跡をとどめない状況であった(関野貞1914)。地勢上、西向の陵で、南西隅および東南隅に「倚石」がのこる。推定されている(藤田1940)。石陵の周囲に無数の川石があり、敷きつめたようである。背面、東30mに細長い長方形の石堆があり、瓦が散布する。陵の西北で六角形礎石、北側で円形礎石がみついている。

千秋塚の陵園は墳丘の4倍である。北牆の北に段差があり、北西方向に谷状に傾斜し、麻線溝辺にさがる。南門牆の部分は河岸段丘上で鴨緑江に面する。

千秋塚の北辺長71.0、東辺長約67.0、西辺長約62.6m、南辺長約60.5mと計測された。墳頂部に東西約10、南北約7mの範囲に石室痕跡がある。墓室は未發掘である。發掘調査報告書で埋葬施設について検討された。

①墓頂に2個の南北方向の加工石。大は長さ2.3m。墓道の蓋石、門楣石とみられてきた。②大王陵のような石室説。③墓上の小形の川原石が東西約10m、南北7mにあり、破壊された基底の可能性があるという。千秋塚の墓室は王陵と將軍塚の中間に位置する(東2005)。将来の墳頂部石室の發掘に期待される。

塼「千秋萬歲永固」保固乾坤相畢」

瓦「浪口趙將軍口…口未在永樂…」長安「王」「一王」

永樂は廣開土王の年號で、「口未」は乙未ならば永樂5年(395)、丁未ならば永樂17年(407)にあたる。「樂浪趙將軍なる人物は、その「未」年のある事件にかかわった「趙」姓某、つまり歸化系漢人の子孫」で、德興里古墳の主人公、つまり前秦から亡命した「鎮」なる人物もまた、同時代を生きた歸化系漢人の一人である(武田2007)、

永樂年間の395年か407年のころ、高句麗の對外戦争で凱旋した樂浪趙將軍が永樂大王、廣開土王の寿陵でなく、先王の故國壤王陵や小獸林王陵に戦績を報告、奉獻したものであろう。

集安高句麗碑と千秋塚

麻線溝河口、千秋塚から西北約470mの地点で碑石が發見された。碑文の一部は廣開土王碑と同文の守墓烟戸が記載されている。

碑石は圭形で、高さ173cm、幅61~67cm、厚さ13~21cm。底面に枘穴結合用の凸部がある。碑石は廣開土王碑にくらべ、扁平化している。

集安高句麗碑文(徐建新2013積文)と廣開土王碑文(斜体)

口口口口世必授天道自承元王始祖雛牟王之創基也

始祖雛牟王之創基也

天口帝口之口子河伯之孫神靈祐護蔽蔭開國辟土繼胤相承

出自北夫餘天帝之子母河伯女郎

口口口口口口烟戶以此河流四時祭祀然而口備長烟

口口口口烟戶口口口口富足口轉買口口守墓者以銘

口口口口口口國口罌上口太王口口口口王神口口輿東西

國罌上廣開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墓

口口口口立碑銘其烟戶頭廿人名以示後世自今以後

上立碑銘其烟戶不令差錯又制守墓人自今以後不得

守墓之民不得擅自更相轉買雖富足之者亦不得其買

更相轉買雖有富足之者亦不得擅買其有違令賣者刑

賣如有違令者後世口嗣口口看其碑文與其罪過

之買人制令守墓之

高句麗碑の釈文について、『集安高句麗碑』で報告されたが、そのご『東北史地』2013年第3期紙上で林澐・魏存成・張福有・孫仁杰・耿鉄華によっていくつかの新しい説がだされ、問題点が指摘された。

國罌上太王口口口口王「國罌上太王口平口口王」(徐建新釈文)、「國罌上太王號平安太王神武」(張福有釈文)の解釈によると、廣開土王は國罌上太王口平安太王ともよばれた。廣開土王碑文では「國罌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であり、あらたな呼び方がくわわった。廣開土王の諡であり、集安碑は没後の412年以後に建立されたことになる。

戊子・戊午・戊申戊口は戊子(328・388・448年)・戊午(358・418・478年)、戊申(427年)説がある。ただし定律の時期であり、立碑年代でない。

口卯歲「戊口定律」の前の5字について「丁卯歲刊石」とよむ(張福有2013)。丁卯年は長壽王15年(427)に比定されている。

「國罌上太王口口口口王」は廣開土王で、諡である以上、碑の建立は412年以降である。廣開土王碑文には「自上祖先王以來墓上不安石碑致使守墓人烟戶差錯國罌上廣開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墓上立銘其烟戶不令差錯」と記されているように、廣開土王の時にすでに碑は立てられた。つまり廣開土王碑建立の414年以前に集安高句麗碑が存在したとかがえられる。

千秋塚の永楽年間の文字瓦(浪趙將軍口…口未在永楽)の乙未(395)ないし丁未(407)にしても、永楽年間に王陵の修築が実修された。

麻線高句麗碑が発見地点の地理的關係から、千秋塚の烟戸碑とみられている。戊子ならば故国壤王 5 年(388)、戊午ならば長壽王 6 年(418)である。戊子の可能性がたかく、千秋塚は故国壤王陵と推定する(耿鉄華2013)。

あらためて王の諡と葬地の關係が問題となる。

故国原王・廣開土王は「國罡上」に立地する。美川王は好襄王(三国史記)美川之原、小獸林王は小獸林(三国史記)、故国原王は故國之原、故国壤王は故国壤(三国史記)である。美川之原と小獸林の葬地は區別されていた。つまり國罡上や故国原(壤と)は區別されていた。千秋塚は小獸林王陵に比定されよう。

太王陵と故國壤王陵

1938年の藤田亮策の実測調査によると、墳丘は南面63.6m、東面62.5mで、護石は各面5個であった。石段級は関野貞の推定復元図のように7級であった。陵に圍繞された「土壘」について着目する。墳丘周囲に敷石が確認される。陵の北辺から約90mを隔てて高さ1m、幅3~5mの石土混築の土堤が東西に約250m遺存する。東端は丸く曲がって南に延びる。約220m続き、さらに西折れし、陵の前面に約350m伸びる。東牆は幅5m、高さ約1.0~1.5mで、赤粘土で築く。西牆は約350mと推定されるが、ほとんど壊れている。北西隅に約50m余の土壘がのこり、北牆につながる。北土壘の南20mに、東西98m、南北15~18mの横長の「石塊群」がある。1935年のころ、高さ1mの長方形に遺存していた。石塊に切石をふくみ、將軍塚や千秋塚の背面と同一の「陪塚群」と推定された。南180mの民家の裏に建物跡。瓦がみついている。太王陵の石室の羨門は西に開口する。石陵の南面中央前に3mを隔てて平行する長石が拜道の痕跡と思われ、陵の背面に石築陪塚群のあることから、陵そのものは南面し、地勢によって鴨緑江に向けたとみる。

2003年の發掘調査によると、北辺長68.0、東辺長約62.5、西辺長約66.0、南辺長約63.0mである。南辺の角度は255°、墓室墓道は256°で、62m前後の方形に復元されている。陵垣牆の東西は墳丘一辺(約66m)の約2.5倍、南北は墳丘中心から垣牆門まで墳丘一辺(約64m)の約2倍である。陵垣牆は矩形で、東西は墳丘の5~6倍、南北は墳丘の4

倍、20~24倍の陵域を復元できる。

太王陵墳丘中心から廣開土王碑の前面まで417m(49°)、太王陵と將軍塚とは2200m(53°)の距離である。廣開土王碑から將軍塚まで1700m(35°)。

太王陵墳丘端で出土した銅鈴銘「辛卯年好太王所造鈴九十六」の解釈(武田幸男2007)

- ① 辛卯年〔に〕／好太王〔の即位を記念し〕／口造〔…?〕鈴〔…?〕／九十六〔…?〕
- ② 辛卯年〔(西暦391年)に〕／好太王〔つまり廣開土王の即位を祝い〕／造〔る〕所〔の〕鈴／〔下賜品の〕九十六〔番目〕
- ③ 辛卯年〔(西暦391年)に〕／好太王〔つまり故國壤王の薨去を悼み〕／造〔る〕所〔の〕鈴／〔下賜品の〕九十六〔番目〕

この「有銘銅鈴それ自体もまた故國壤王の薨去にともなって製作されたもので、同王の葬送儀礼にともなって配布された下賜品である」(武田2007)。

新羅慶州出土の壺杆銘の「乙卯年國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は廣開土王の諡は正式名称である。大王陵銅鈴のばあいも壺杆とどうよう諡を省略することは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つまり銅鈴の「好太王」は廣開土王ではなく、別の王、故國壤王と解釈される(武田2007)。銅鈴は先王の陵にも配布された。たしかに壺杆のような銅鏡は廣開土王の薨去にともなう國家的儀礼にもちいられた。

高句麗王陵は「故國」に立地する。「墓守の制度」が存在した。陵墓の墓頂上に碑石を立てた。それは「烟戸のことを明記し、「看守事務」を正確にするためであった。集安高句麗碑の發見を予見するかのようである。

將軍塚と廣開土王陵

関野貞の1913年の計測(関野1914)によると、正面97.8尺(29.6m)、側面98.9尺(30m)、最上層の壇の高さ地上37.59尺(11.4m)、饅頭形の頂まで全高40.59尺(12.3m)。饅頭形の高さ約3尺(1m)である。

『通溝』の測量図では墳丘は北辺33.1、東辺31.7、西辺32.6、南辺31.8m。基壇周囲3~4m、厚さ10~16cmに河原石を敷く。

將軍塚は小河川の流れる谷の奥まったところに立地する。風水の地理的条件にある。その谷筋の西約1740m(35°)に廣開土王碑が立つ。碑石から將軍塚には北側の谷筋があ

るが、南側が主要な道であった。現在も小谷に沿って道がとおる。この谷はまた墓道(神道)であり、巨石運搬の道であった。

廣開土王碑に、「甲寅年(414)九月廿九日乙酉遷就山陵於是立碑銘記勲以示後世」とある。廣開土王は「山陵」に埋葬された。歴代の王陵の葬地は「國罽上」で、故國原、故國壤であった。廣開土王の諡は「國罽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で、「國罽上」に造営された。故國原王は「國罽上王」である。

山上王三十一年(226)王薨。葬於山上陵。號為山上王(『三國史記』卷16)。

東川王八年(234)太后于氏薨。太后臨終遺言曰、妾失行。將何面目見國壤於地下。若羣臣不忍擠於溝壑。則請葬我於山上王陵之側。遂葬之如其言(『三國史記』卷17)。

廣開土王碑の「山陵」と國內城遷都の初代の山上王(諱は延優、一名位宮)と比較することは荒唐無稽のことでないだろう。池内宏が將軍塚を山上王に比定したのは年代的に齟齬があった。大王陵(故國壤王)や禹山992號墓(故國原王)の葬地は「國罽上」に位置する。將軍塚の立地条件は特別である。東崗の最高所に烟戸330家の营造されていたのであろう。

伝東明王陵(真坡里古墳)と始祖廟

平壤城の東南20kmの戊辰川上流域に位置する。真坡里古墳群(11基)、雪梅里古墳群(8基)、その南に定陵寺が造営されている。

この伝東明王陵は平壤城遷都後に造営されたもので、長壽王陵説がだされた(永島暉臣慎1981)。伝東明王陵の墳丘、墓室、蓮華紋壁畫などの諸要素が桓仁米倉溝壁畫墓に類似することから、高句麗建國地の卒本(桓仁)で代々祀られた始祖廟が平壤城遷都にともない、あらたに造営されたと推定される。伝東明王陵は高麗時代から王陵として伝承されてきている、定陵寺は「陵寺」である。文咨明王(491~519)代に建立された、6世紀代に真坡里9(舊1)號墳、1(舊4)號墳の壁畫墓が築造された。壁畫に蓮華化生圖像など仏教の影響関係がみられる。

陵寺、陵園の制は北魏孝文帝のころに伝わった。大同平城の北の丘陵上に文明皇后馮氏の永固陵、孝文帝寿陵の万年堂、丘陵麓に思遠仏寺を建立し、皇帝陵を守護した。長壽王や文咨明王陵の崩御の時、舉哀の儀式がとりおこなわれた。

長壽王七十九年(491)冬十二月。王薨。年九十八歳。號長壽王。魏孝文聞之制素。委貌布

深衣、舉哀於東郊遣謁僕射李安上。策贈車騎大將軍太傅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諡曰康。

文咨明王二十八年(518)王薨。號文咨明王。魏靈太后舉哀於東堂。遣使策贈車騎大將軍。時魏肅宗十歲。太后臨朝稱制。

漢王墓—長壽王陵

平壤市から東北に約11km、大同江の右岸の小丘陵上に立地する。1911年朝鮮総督府の古蹟調査として、関野貞が発掘した(関野貞『朝鮮の建築と芸術』1941年、『朝鮮の建築と芸術(新版)』2005年)。

『吳州志』(『江東邑志』)に「皇帝墓、在県北三十五里錢浦里、圉六百七尺四寸、高一百二十六尺、隧道丁字閣遺址宛然、至今墓南烏崖窟中、有終南山下漢王天地八字古人詩曰、片土至今名漢岱、延熙十載葬東川、謹按漢史与東史、則東川即高句麗王延熙蜀漢後主年號也、東川之薨在於延熙十載丁卯、以此推之、東川之墓無疑、而但漢王与皇帝之称未知何処」(関野貞1914)。

漢王墓はまさしく平壤付近における古墳中最大にしてかつ代表的のものであった。この墓は江東邑の西南約四里、大同江の右岸約二町のところにあつて南面し後に山を負う。その付近に高句麗時代の小墳今一八基あり、その位置は後がやや高く、前が低くて広さ一町、長さ四町ばかりの平地をなし小丘陵が左右よりこれを包擁する。

墓は二成の基壇の上にある円墳で、基壇は方形で、前面および西面は高さ一尺前後の石を並べて二段に築き、東面は地勢がやや高いために一段とし、北面は地ますます高いので壇を作らない(『朝鮮の建築と芸術』)。

古墳はこの基壇の上にあつて、径約30間(54.5m)、高さ約40尺(12.1m)。墳丘上で「一尺掘ると全部平瓦・丸瓦・巴瓦の破片を並べ葺いたのを發見した。まさしく雨水の内部に浸透するのを防ぐ目的からでたものであろう」という。「巴瓦の文様は満州輯安県將軍塚(余が長壽王の父廣開土王の墓と推定したもの)の上から出たものと同形式で年代はやや下るようである。

玄室は方形で東西11尺4寸(345cm)、南北11尺1寸2分(337cm)、床より天井までの高さ11尺4寸6分(347cm)。「四壁には何物かを畫いたもののように見えるが剥落してほとんど識別できない」。羨道は長さ17尺7寸6分(538cm)、幅5尺余(152cm)。

玄室内に2枚の厚い石床がある。左右に相並び共に縦形を有する前後二個の脚を有す

る。玄室の上部は石灰に砂利を混ぜた「コンクリート」を以て覆い、かつ壁・天井等に使用した石材の目地はことごとく石灰を用いて充填する。

この墓は規模が大きくて構造形式が平壤地方における高句麗時代のもっとも完備した墳墓を代表し、国内城付近の墳墓の形式と一致し、彼此の連絡を明らかにするに足るべきもので、その年代は約一五〇〇年前に近いものだろう(『朝鮮の建築と芸術』)。

被葬者について、「長壽王前後のある王の陵墓に比定すべき」とのべ、長壽王陵と断定していないようである。

漢王墓は方形二層の基壇上に築かれた、径約54m、高さ約12mの方台形の封土墳である。両袖式石室で、切石で構築され、天井は二層の平行持送り、さらに二層の三角持送りで積築する。羨道は7.4mの長大なもので、玄門及び前室状空間に閉塞施設(扉)がある。墳丘規模は、大同江流域で最大で、しかも基底部に基壇積石塚の伝統が継承され、石室天井の裏込めとして切石状の石材を使用する点など將軍塚積石塚を想起させる。墳丘上で出土した瓦は平壤遷都直後ごろに比定されている。

土浦里大塚と文咨明王陵—匡大山南麓古墳群—

匡大山は平壤の東方、大同江北岸に立地する。その南麓に東から湖南里古墳群、南京里古墳、土浦里古墳群、西の山塊の南麓に内里古墳群が分布する。匡大山塊のほぼ真ん中に土浦里古墳群が築造、次いで湖南里古墳群が造営された。

將軍塚系列の石室、方壇封土墳の系統関係から、漢王墓の後に築造されたのが土浦里大塚であった。土浦里大塚は文咨明王陵に比定される(東・田中俊明1995、東1997)。

湖南里四神塚と陽原王陵

土浦里古墳群の東、匡大山の左、東方に造営されたのが湖南里古墳群である。湖南里四神塚を中心に17基の墓が分布する。

湖南里四神塚は方壇(截頭方錐形)封土墳で四神壁畫墓である。風水の地理的立地条

件にある。丘陵上に後山にあたる空間があり、左右の青龍・白虎にあたる微高地がのびる。大同江の北岸の陽の地にある。「陽崗上好王」の陽原王(545~559)陵に相応しい。

江西三墓と平原王陵

平壤西方に位置する。周囲を山で囲まれた盆地状の平野の中央に立地する。独立丘陵の南に張り出し微高地上に立地する。三墓とも方台形墳で、大墓を中心に逆三角形状に、東北方に小墓、西北方に中墓と築かれた。大墓は「平崗上好王」の平原王陵と推定できる。王陵の立地条件が溢に表現されている。国内城時代からの伝統的命名法だ。小墓は平原王長子の嬰陽王、中墓は嬰陽王の異母弟の榮留王陵とみられる。平原王陵の後方に、兄弟の墓が並列する関係である。

これらの古墳は江西の西方約一里、広闊な平野の中央にあって烏石山を右にし、舞鶴山を左にし、南は井林山に当たり、印徳山を北にし、地勢はもっとも形勝を占める(関野1913)。

大墓は南側に位置する。基底径約170尺(約52m)、高さ29尺(約9m)、中墓は大墓の西北312尺(約95m)に位置する。基底径150尺(約45m)、高さ26尺(約8m)。小墓は大墓の東北約285尺(約86m)。中墓と261尺(79m)隔てる。基底径約135尺(約41m)、高さ22.5尺(約7m)。石室の平面形、天井の積築構造からみると、築造順序は大墓→小墓→中墓であり、壁畫墓の大墓、中墓は王陵、小墓は王族の墓であろう。

高句麗王陵研究の課題 — 廣開土王陵・長壽王陵をめぐって

国内城・平壤城時代の王陵の一部について検討した。これまで、王陵の相対年代について明らかにされてきている。卷雲紋瓦の銘文によって、王陵の絶対年代を推定するうえでの手がかりがえられた。

西大墓で美川王(300~331)代の己丑(329)銘卷雲紋瓦、禹山992號墓で故國原王(331~371)代の戊戌(338)銘卷雲紋瓦が出土し、墓上における祭祀や修築がなされたのであった。

太王陵出土銅鈴の「辛卯年」「好太王」によって、大王陵 = 廣開土王説が証明されたとの見解がだされた。『集安高句麗王陵』報告書が刊行されて10余年、2012年に発見された集安高句麗碑の解釈によって、あらためて千秋塚 = 故國壤王陵説が提起された。

この間の高句麗王陵研究において、やはり大王陵の被葬者像について意見は二分される。廣開土王陵か否かである。

故國原王；國罝上王(『三國史記』卷18、國罝上王(牟頭婁塚墓誌)、國罝上

聖太王(牟頭婁塚墓誌)

小獸林王；小解朱留王(『三國史記』卷18)

故國壤王；辛卯年好太王所造鈴九十六(太王陵銅鈴)

願太王陵安如山固如岳(太王陵塼)

廣開土王；國罝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廣開土王碑)、國罝上廣開土境好太王

(廣開土王碑)、國罝上廣開土地好太聖王(牟頭婁塚墓誌)、乙卯年國

罝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壺杆塚壺杆)、

長壽王；長壽王

文咨明王；明治好王(『三國史記』卷19)

安原王；(香崗上王)(『日本書紀』欽明紀)

陽原王；陽崗上好王(『三國史記』卷19)

平原王；平崗上好王(『三國史記』卷19)

嬰陽王；平陽王(『三國史記』卷20)

太王陵が故國壤王陵であれば、將軍塚が廣開土王陵となる。

長壽王陵は漢王墓に比定しえる。国内城時代の大王陵から將軍塚、平壤城時代の漢王墓、土浦里大塚、湖南里四神塚、江西大墓・中墓への墳丘と墓室の変遷は一貫している。平壤遷都後、桓仁米倉溝壁畫墓から伝東明王陵への墓室への系列もある。

長壽王が国内城時代に寿陵を造営したかという問題が提起されてきている。廣開土王が薨じ、長壽王が即位したのが412年で、甲寅年(414)九月廿九日乙酉の日に「山陵」に埋葬し、石碑を立てた。國烟三十、看烟三百、三百三十家の烟戸を配置した。韓と穢から徴發した新民220家、舊民110家である。陵園内に烟戸の建物群が造営された。国内城はさながら千秋塚、大王陵、將軍塚と巨大積石塚が築造され、陵邑都市そのものであった。

414~427平壤城移都までの間に寿陵としての長壽王陵を造ったのであろうか。その前段階に廣開土王が即位した391年から412年の間に太王陵を築いたことになる。

このように漢王墓が長壽王陵であるならば、「故國」、「國罝上」に帰葬されたとかんがえがたい。長壽王陵は文咨明王によって造営された。葬地は匡大山にうつった。方壇封土

墳の土浦里大塚が漢王墓の墓制を継承して築造されている。文咨明王の諡は「明治好王」で、その葬地は「明治」に相応しい地のはずである。文咨明王の「明治好王」と陽原王の「陽崗上好王」はいずれも匡大山一帯である。

陽原王の葬地は匡大山の東側にかわる。大同江の支流の小河川で形成されたゆるやかな谷に奥まった風水の地にある四神壁畫墳である。湖南里四神塚をもって壁畫が王陵に採用された。千秋塚の被葬者は、集安高句麗碑の「國罽上太王」はこれまで未詳であった小獸林王のことであろうか。あらたに「國罽上太王」の諡が存在するとすれば、小獸林王の可能性がうかびあがってきたのである。小獸林王陵は麻線2100號墓に比定された(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2004)。千秋塚は故國壤王陵(魏存成2002)に比定されている。

高句麗王陵と諡故國原王は「國罽上王」・「國罽上聖太王」、故國壤王は「好太王」、「太王陵」、廣開土王は「國罽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文咨明王は「明治好王」、安原王は「香崗上王」、陽原王は「陽崗上好王」、平原王は「平崗上好王」、嬰陽王は「平陽王」である。

高句麗王陵の葬地は「國罽上」から「陽崗上」、「平崗上」にかわる。諡も「聖太王」から「好太王」、「好王」にかわる。國內城時代から平壤城時代への移りかわる。葬地の呼称も変化した。高句麗王の諡は地名と不可分の関係にあ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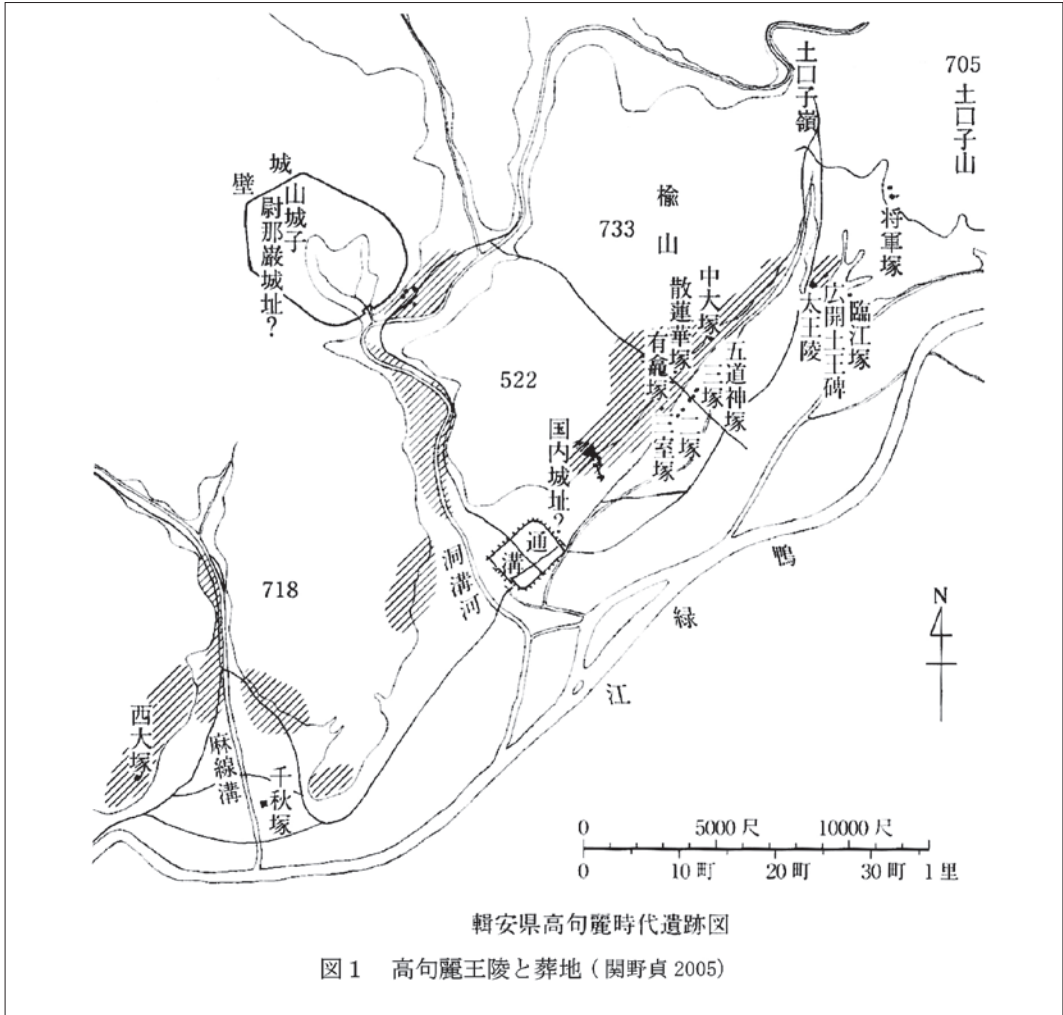
| 참고문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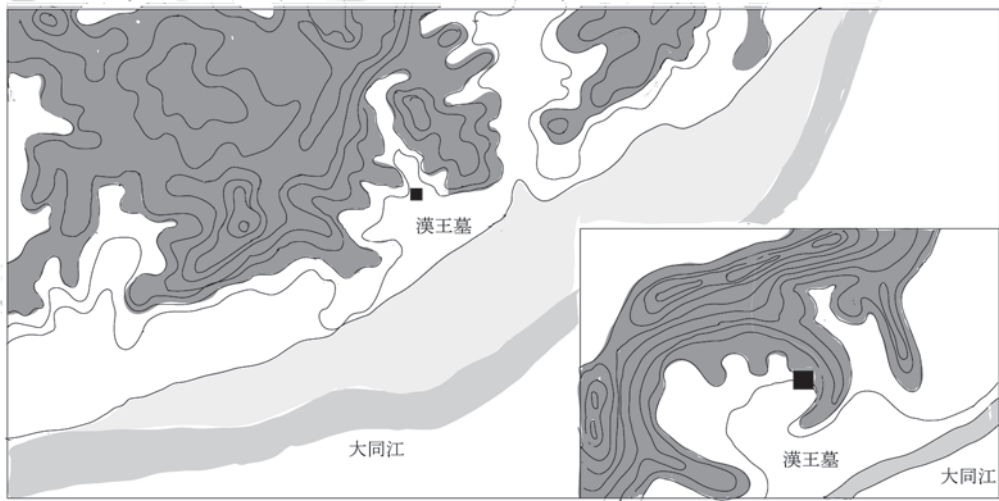
- 鳥居龍蔵, 1910, 「鴨緑江畔に於ける高句麗の遺跡」(『東洋時報』 137・140, 『南滿州調査報告』, 『鳥居龍蔵全集』 12, 1976)
- 鳥居龍蔵, 1913, 「滿州より北朝鮮の旅行」, 『東洋時報』 179・180, 『鳥居龍蔵全集』 12, 1976.
- 関野貞, 1913, 「朝鮮江西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古墳」(『考古學雜誌』 3-8, 『朝鮮の建築と芸術』 所収, 1941, 『朝鮮の建築と芸(新版)』, 2005)
- 関野貞, 1914, 「滿州輯安県及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跡」(『考古學雜誌』 5-3, 5-4, 1914, 『朝鮮の建築と芸術』 所収, 1941, 『朝鮮の建築と芸(新版)』, 2005)
- 藤田亮策, 1940, 「通溝附近の古墳と高句麗の墓制」(『朝鮮考古學研究』, 1948, 高桐書院)
- 池内宏, 1938, 『通溝』 卷上, 日滿文化協会.
- 池内宏・梅原末治, 1940, 『通溝』 卷下, 日滿文化協会.
- 鳥居龍蔵, 1953, 『ある老學徒の手記』, 朝日新聞社.
- 李丙燾, 1980, 『韓國古代史研究』, 學生社.
- 永島暉臣愼, 1981, 「高句麗の都城と建築」, 『難波宮址研究』 7.
- 田村晃一, 1984, 「高句麗の積石塚の年代と被葬者をめぐる諸問題」, 『青山史學』 8.
- 朱榮憲, 1985, 「高句麗壁畫古墳の被葬者について」, 『高句麗古墳壁畫』, 朝鮮畫報社.
- 濱田耕策, 1986, 「高句麗廣開土王陵墓比定論の再検討」, 『朝鮮學報』 119・120
- 方起東, 1988, 「千秋塚、大王陵、將軍塚」, 『好太王碑と高句麗遺跡』, 読売新聞社.
- 魏存成, 1994, 『高句麗考古』, 吉林大學出版社.
- 東潮・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박천수・이근우, 2008, 『고구려의 역사와 유적』, 동북아역사재단).
-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 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 魏存成, 2002, 『高句麗遺跡』, 吉林大學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 전호태, 2004, 『고구려 고분 벽화의 세계』, 서울대학교 출판부.
- 東潮, 2006, 「高句麗王陵と巨大積石塚—國內城時代の陵園制」, 『朝鮮學報』 199・200.
- 武田幸男, 2007, 『廣開土王碑との対話』, 白帝社.

- 孫仁杰·遲邑, 2007, 『集安高句麗墓葬』, 香港叢洲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編, 2009, 『吉林集安高句麗墓葬報告集』, 科學出版社.
- 임기환, 2009, 「고구려의 장기명 왕호와 왕릉 비정」, 『고구려 왕릉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강현숙, 2009, 「고구려 왕릉복원 시고」, 『고구려 왕릉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東潮, 2009, 「高句麗王陵と陵園制」, 『高句麗王陵研究』, 『東北亞歴史財團企劃研究』 20.
- 東潮, 2011, 『高句麗壁畫と東アジア』, 學生社.
- 武田幸男, 2013, 「廣開土王碑の真意をたずねて」, 『廣開土王碑拓本の新研究』, 同成社.
- 集安市博物館, 2013, 『集安高句麗碑』, 吉林大學出版社.
- 集安博物館, 2013, 「集安高句麗碑調查報告」, 『東北史地』, 2013-3.
- 林雲, 2013, 「集安麻線高句麗碑小識」, 『東北史地』, 2013-3.
- 徐建新, 2013, 「中國新出”集安高句麗碑”試析」, 『東北史地』, 2013-3.
- 魏存成, 2013, 「關於新出集安高句麗的几点思考」, 『東北史地』, 2013-3.
- 張福有, 2013, 「集安麻線溝高句麗碑碑文補积与識讀解析」, 『東北史地』, 2013-3.
- 孫仁杰, 2013, 「集安高句麗碑文識讀」, 『東北史地』, 2013-3.
- 耿鉄華, 2013, 「集安新出高句麗碑的重要價值」, 『東北史地』, 20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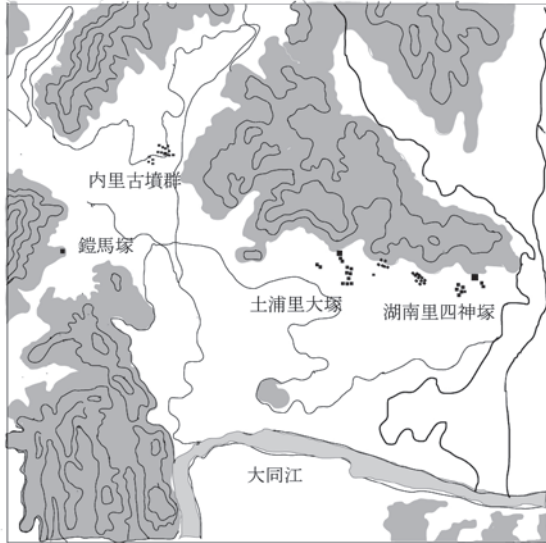
高句麗王諡・諱・葬地(武田幸男1989、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2004、東潮2006)

王	在位	諡	諱	葬地	吉文2004	東潮
故國川王		故國川王[國襄王]	男武[伊夷謨]	故國川原		
山上王		山上王	延優[位宮]	山上陵	麻線626	
東川王		東川王 [東襄]	憂位居[郊僞]	柴原	七星871	
中川王		中川王 [中襄]	然弗	中川之原	臨江墓	
西川王		西川王 [西襄]	藥廬[若友]	西川之原	禹山2110	
烽上王	292~300	烽上王 [雉葛王]	相夫[挿矢婁]	烽山之原	七星211	
美川王	300~331	美川王 [好壤王]	乙弗[憂弗]	美川之原	西大墓	西大墓
故國原王	331~371	故國原王[國岡上王] 國岡上聖太王(牟頭婁塚)	斯由[劉]	故國之原	禹山992	禹山992
小獸林王	371~384	小獸林王[小解朱留王]	丘夫	小獸林	麻線2100	千秋塚
故國壤王	384~391	故國壤王、好太王(太王陵銅鈴)	伊連[於只支]	故國壤	千秋墓	太王陵
廣開土王	391~412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廣開土王碑)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廣開土王碑) 國岡上広 開土地好太王 (壺杆)	談德	-	太王陵	將軍塚
長壽王	413~491	長壽王	巨連[璉]	-	將軍塚	漢王墓
文咨王	491~519	文咨明王[明治好王]	羅雲			土浦里大塚
安臧王	519~531	安臧王 香崗上王 (日本書紀欽明紀)	興安			真城里9
安原王	531~545	安原王	宝延	-		
陽原王	545~559	陽原王[陽崗上好王]	平成			湖南里四神塚
平原王	559~590	平原王[平崗上好王]	陽成[湯]	-		江西大墓
嬰陽王	590~618	嬰陽王[平陽王]	元[大元]	-		江西中墓
建武王	618~642	榮留王	建武[成]	-		
宝臧王	642~668		臧[宝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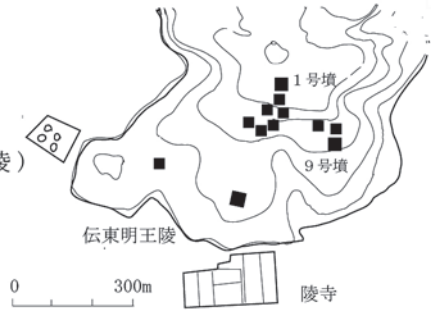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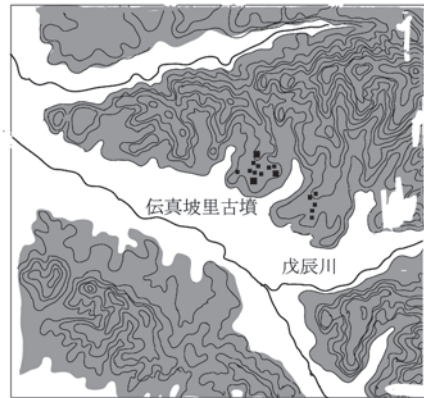




漢王墓（長寿王陵）



土浦里大塚（文咨明王陵）・湖南里四神塚（陽原王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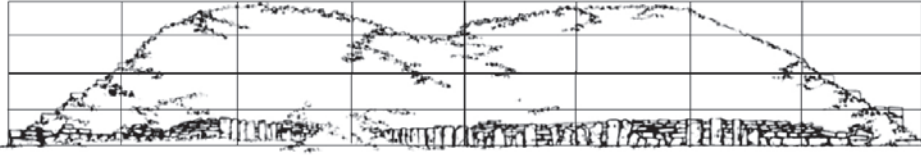


真坡里古墳（伝東明王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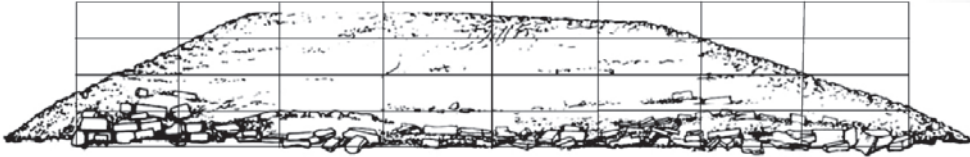


江西大墓（平原王陵）・中墓（嬰陽王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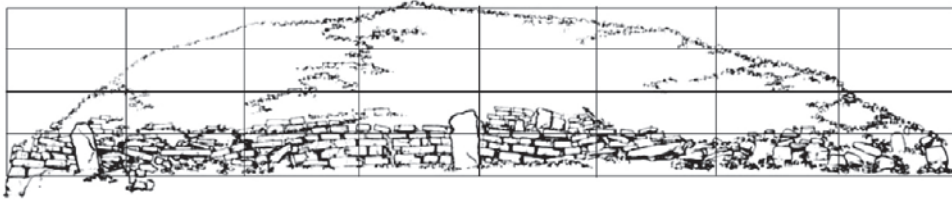
図2 高句麗王陵の葬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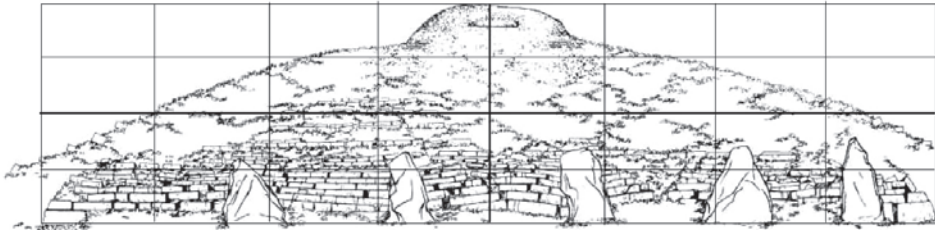
西大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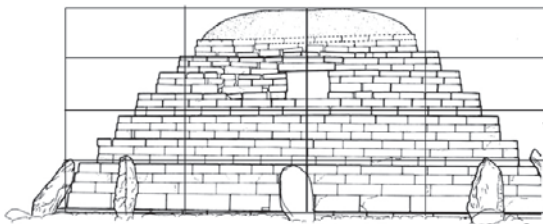
禹山 992 号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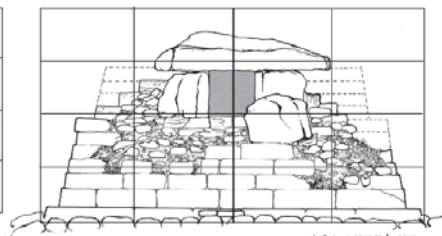
千秋塚



太王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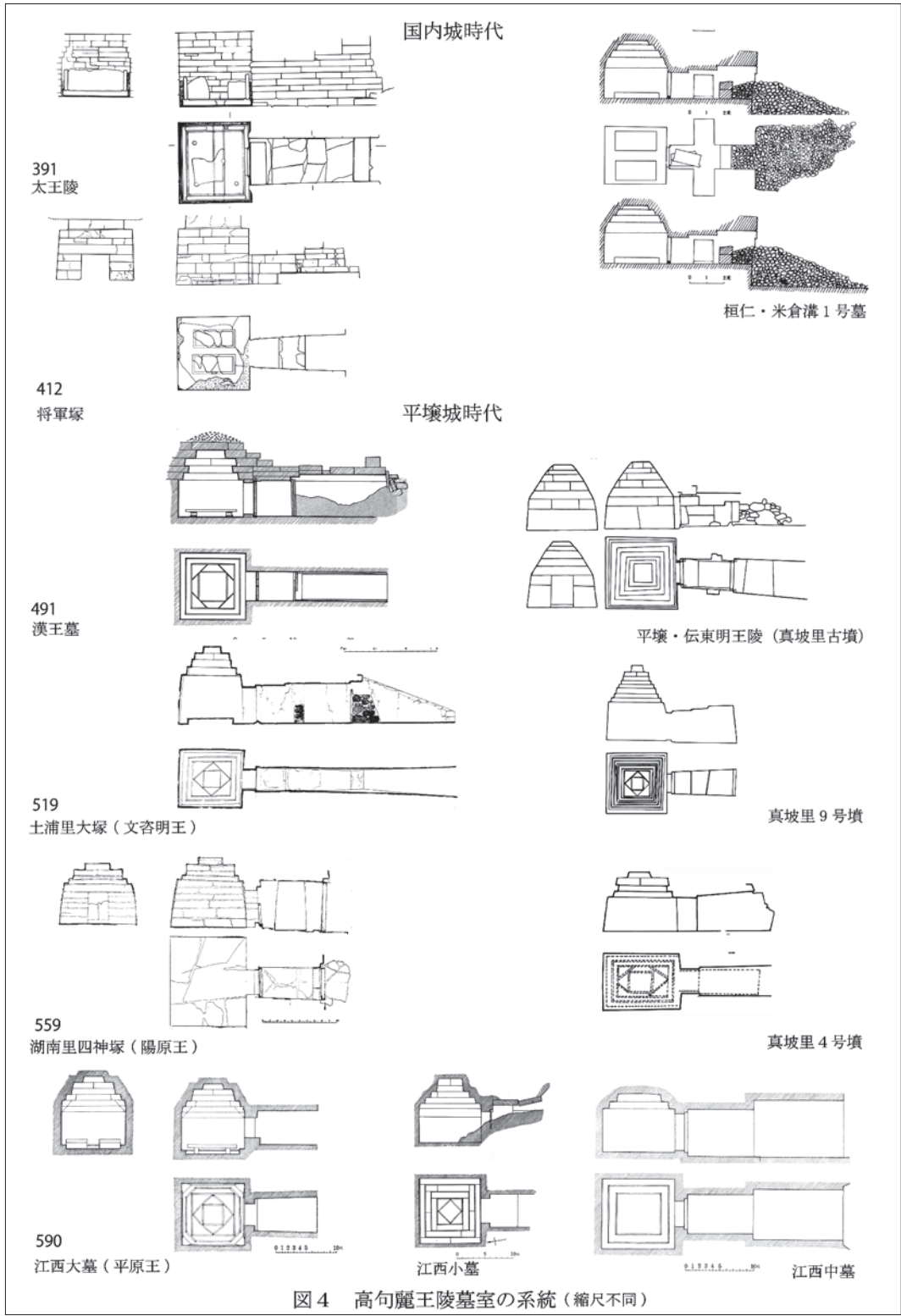


將軍塚



將軍塚陪塚

図3 西大墓・禹山 992 号墓・太王陵・千秋塚・將軍塚の石室護石空間



번역 | 고구려왕릉 연구의 현황과 과제

아즈마 우시오(東潮) : 도쿠시마대학(德島大學)

번역: 주홍규(영남대학교)

고구려왕릉 연구는 토리이 류쥬(鳥居龍藏 1910, 『鴨綠江上流に於ける高句麗遺跡』, 『南滿洲調査報告』)에 의해 집안지역에 있는 고구려 왕의 무덤으로 보이는 장군총, 태왕릉(당시에는 장군총으로 불림)과 광개토왕비의 연구로 시작되었다. 분묘는 고국원에 만들어졌는데, 고국원은 고국양, 고국천원, 고국곡, 국강상의 땅이고, 중천원 등은 통구에 흐르는 작은 강의 이름에서 명명되었다고 한다. 왕의 장지를 시호와 연결시킨 토리이 류쥬의 시점은 그 후 왕릉연구의 기본이 되었다.

토리이는

「慕容魔來侵, 至故國原, 見西川王墓, 使人發之. 役者暴死者」(『三國史記』高句麗本紀5)

라고 하는 기사에 착안해 봉상왕 5년(296)에 서천왕릉이 실재했다고 지적했다. 지금 집안 일대에 파괴된 거대적석총으로는 서대총, 칠성산871호, 칠성산 211호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도 서천왕릉은 실재했던 왕릉으로서 칠성산 211호로 추정되고 있다.

「분묘의 정상에 어떤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래된 기와의 파편이 산재되어 있고, 성토한 흔적도 있다. 또한 상부의 돌에 구멍을 뚫은 흔적이 있다. 이것은 아마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 분묘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호태왕의 비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분은 호태왕의 능묘이거나 혹은 그 이전 제왕의 능묘가 되지만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호태왕의 시대와 근접하거나 멀지 않은 고구려 왕의 능묘일 것이다(鳥居龍藏 1910, 『南滿洲調査報告』)

장군총(태왕릉을 지칭)¹⁾에 관해서는 「먼저 흙을 다지고 그 위에 작은 돌을 쌓아올린 후 그 주위에 사각형의 석단을 쌓은 것이다.」라고 했고, 남쪽으로 1町(약 109m) 정도 거리를 둔 밭에는 기와와 벽돌이 산란되어 있고 초석도 발견했다. 능묘에는 연호로 불리는 수묘제도가 있었던 것을 (토리이는) 조사 당시부터 지적했다.

「호태왕의 무덤은 장군총과 구조나 크기가 같은데, 흙담으로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비문은 흙담의 동쪽에 붙어 세워져 있다. 대왕명의 벽돌이 있는 점으로도 호태왕의 것인 것 같다(鳥居龍藏 1913).」라고도 했다.

(토리이는) 1905년에 호태왕비도 조사했는데 「마침 비면을 탁본하려고 발판을 걸어놓았다. 나는 곧바로 이 탁본을 구했다(鳥居龍藏 1953, 『ある老學徒の手記』)」라고도 적었다.

세키노 타다시(關野貞)는 1913년9월~12월에 야즈이 세이치(谷井濟一), 이마니시 류(今西龍) 등과 함께 집안을 조사했는데, 국내성, 위나암성의 위치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했고, 장군총, 태왕릉, 천추총이라고 이름지었다(關野貞 1913·1914).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1940)는 1940년대에 태왕릉의 능을 둘러싼 담장의 당시 상황을 기록했다. 통구의 (고구려) 왕릉으로 동강의 태왕릉과 장군총, 서강의 북대총(우산992호)과 남대총(우산2110호), 마선구의 천추총과 서대총 등의 7기를 들었다. 평양부근의 「토축대릉」으로 는 속칭 황제릉(한왕묘), 호남리 사신총, 삼실리 삼묘, 대보면 서기리 대묘를 들었다. 고구려의 왕릉은 평양 천도 이후에는 토축분의 시대였다.

1935년에는 세키노 타다시와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등에게 요청이 있어서 조사가 계획되었으나, 7월에 세키노 타다시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이케우치 히로시는 후지타 료사쿠,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코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 등과 함께 조사하게 되었다. (이들은) 9월28일~30일에 걸쳐 광개토왕비, 태왕릉, 장군총, 무용총, 각저총, 산성자산성, 천추총, 서대총, 삼실총 등을 조사했다. 다음 해에는 두번째 통구지역에 관한 조사로서 9월 30일~10월 4일에 걸쳐 모두루총, 환문총, 사신총, 삼실총, 태왕릉, 장군총, 천추총, 서대총, 산성자산성, 산성자 동쪽의 고분군, 통구성 등을 조사했다. 하마다 코사쿠(濱田耕作), 미즈노 세이치(水野清一), 미카미 츠기오(三上次男), 타나카 토요쥬(田中豊藏) 등이 (제 2차 조사에) 참가했다(池内宏 1938、池内宏·梅原末治 1940). 당시의 보고서에 이케우치 히로시는 장군총을 산상왕릉, 광개토

1) 일본어 원문에서 빠져 있는 내용이나 단어에 관해서는 역자가 괄호 안에 보충했다.

왕릉을 태왕릉, 동천왕릉을 임강총, 서천왕릉을 천추총으로 비정했다.

고구려왕릉의 비정문제

지금까지 토리이 류쇼나 세키노 타다시 등의 조사연구에 의해 고구려왕릉이 비정되었다.

미천왕 ; 안악 3 호분(주영현 1985), 천추총(濱田耕策 1986)

고국원왕 ; 안악3호분(주영현 1985), 장군총(濱田耕策 1986), 태왕릉(東潮 1997), 우산992호묘(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광개토왕 ; 장군총(關野貞 1914, 나가시마 키미치카 永島暉臣愼 1981、魏存成 1994、타무라 코이치 田村晃一 1984), 태왕릉(池内宏 1938, 藤田亮策 1940, 濱田耕策 1986, 方起東 1988)

장수왕 ; 장군총, 한왕묘(東潮 1997), 전 동명왕릉(永島暉臣愼 1981)

문자명왕 ; 진파리 1 호분(永島暉臣愼 1981), 진파리 4 호분, 토포리 대총(東潮 1997)

양원왕 ; 호남리사신총(東潮 1997)

평원왕 ; 강서대묘(關野 1941, 이병도 1980)

영양왕 ; 강서중묘

영류왕 ; 강서대묘

1990~2003년에 행해진 발굴조사가 보고서로 간행되었는데 분구의 구조(분구의 형태, 규모), 기와, 능원 등의 제 요소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편년과 왕릉 비정이 행해졌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

마선2378호묘→산성하36호묘→칠성산871호묘→임강총→우산2110호묘→칠성산211호묘→서대총(미천왕)→우산992호묘(고국원왕)→마선2100호묘(소수림왕)→천추총(고국양왕)→태왕릉(광개토왕)→장군총(장수왕)

왕릉의 상대편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集安高句麗王陵』 보고서에 의거할 수 있으나, 천추총과 태왕릉의 선후관계에 관해서는 능원이나 묘실의 공간구조를 감안해 천추총이 태왕릉보다 후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東潮2006·2009·2011). 천추총의 석실문제는 차후의 조사 연구과제로 삼기로 하고 (일단) 천추총→태왕릉→장군총의 축조순서로 본다.

왕릉의 절대연대에 관해서는 태왕릉 출토의 「辛卯年好太王」명의 동령이 (태왕릉의) 광개토왕릉설의 근거가 되고 있고, 장군총을 장수왕릉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다시금 태왕릉 출토의 동령에 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의 분구의 구조와 능원 등에 관해서 20세기 초의 발견 당시의 원 보고와 21세기 초의 발굴보고성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장군총 = 장수왕설과 평양성시대 왕릉의 계통관계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장지와 시호

故國原王 2 年(332) 春二月. 如王卒本. 祀始祖廟. 三月. 至自卒本(『三國史記』卷18).

故國原王12年(342) 發美川王廟.

故國原王41年(342) 百濟王率兵三萬來攻平壤城. 王出師拒之. 爲流矢所中. 是月二十三日
薨. 葬于故國之原.

小獸林王 3 年(373) 始領律令.

小獸林王14年(384) 冬十一月. 王薨. 葬於小獸林. 號爲小獸林王.

故國壤王 3 年(386) 立王子談爲太子.

故國壤王 9 年(391) 命有司立國社修宗廟. 夏五月. 王薨. 葬於故國壤. 號爲故國壤王. 廣開
土王諱談德故國壤王之子. 故國壤王三年. 立爲太子. 九年王薨. 太子即
位. 巨連爲太子.

廣開土王18年(408) 夏四月. 立太子. 巨連爲太子.

義熙 6 年(410) 跋下書曰「昔高祖爲義帝舉哀. 天下歸其仁. 吾與高雲義則君臣, 恩踰兄弟.
其以禮葬雲及其妻子, 立雲廟於町, 置園邑二十家, 四時供薦(『晉書』卷125).

廣開土王22年(412) 冬十月. 王薨. 號爲廣開土王.

長壽王元年 諡巨連. 開土王之元子也. 開土王十八年. 立爲太子.

長壽王15年(427) 移都平壤.

安臧王 3 年(521) 夏四月. 王幸卒本. 祀始祖廟. 五月. 王至卒本. 所經州邑貧乏者賜穀八斛.

平原王 2 年(560) 春二月. …王幸卒本. 祀始祖廟. 三月. 王至卒本. 所經州郡獄囚汝除二死
皆原之.

平原王28年(586) 移都長安城.

榮留王 2 年(619) 夏四月. 王幸卒本. 祀始祖廟. 五月. 王至卒本.

우산 992호묘와 고국원왕릉(國罔上王)

우산 992호묘는 좌우가 작은 계곡(하천)인 대지 위에 있다. 992호묘의 남변에는 묘장의 공백구역이 있다. 능원내의 공간으로 보인다. 분구와 제단의 관계에서 4배의 능원구역을 상정했으나, 입지조건으로 보면 분구의 9배로 복원할 수 있다. 고국원왕, 고국양왕, 광개토왕릉의 장지는 「國罔上」에 있었다.

천추총과 소수림왕릉

(천추총은) 마선구의 우안, 압록강에 면한 하안단구에 위치한다. 1913년에 세키노 타다시 등의 조사에 의하면 현실도 파괴되어 거의 형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關野貞 1914). 지세상으로 서향의 능인 것으로 추정되었다(藤田亮策 1940). 남서쪽과 동남쪽의 모서리에 「호석」이 남아 있다. 능의 주위에 수많은 강돌이 널려 있는데 깔았던 것으로 보인다. 배면의 동쪽 30m에는 세장한 장방형의 가공석이 있고 기와도 산포되어 있다. 능의 서북쪽에서는 육각형의 초석이, 북쪽에서는 원형의 초석이 발견되었다.

천추총의 능원은 분구의 4배이다. 북쪽 담벼락은 북쪽으로 단차를 보이고 북서쪽 방향에서 계곡처럼 경사지게 마선구 쪽으로 낮아진다. 남문쪽의 담장 부분은 하안단구상에 있고 압록강에 면하고 있다.

천추총의 북변은 길이가 71.0m, 동변의 길이가 약67.0m, 서변의 길이가 약62.6m, 남변의 길이가 약 60.5m로 계측되었다. 분구 정상부에서 동서로 약 10m, 남북으로 약 7m의 범위로 석실흔적이 있다. 묘실은 미발굴이다.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매장시설에 관해서도 검토되었다. ①묘 정상부에서 남북 방향으로 2개의 가공석(큰 것은 길이 2.3m. 묘도의 개석이나 이맷돌로 보인다)이 발견되었다. ②태왕릉과 같은 석실(이라는)설. ③묘상에는 소형의 강돌이 동서로 약10m, 남북으로 7m로 널려 있는데 파괴된 묘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천추총의 묘실은 태왕릉과 장군총의 중간에 위치한다(東潮2005). 차후에 분구 정상부에 있는 석실의 발굴을 기대해 본다.

벽돌—「千秋萬歲永固」 「保固乾坤相畢」

기와—「浪口趙將軍口 … 口未在永樂…」 「長安」「王」「一王」

영락은 광개토왕의 연호로 「口未」가 乙未라면 영락5년(395)에 해당하고, 丁未라면 영락17년(407)에 해당한다. 「樂浪趙將軍」인 인물은 그 「未」년에 어떤 사건에 연루된 「趙」씨 성을 가진 모씨, 다시 말해 귀화한 한인의 자손으로 덕흥리고분의 주인공, 다시 말해 전진에서 망명한 「鎭」이라는 인물도 또한 동시대에 산 귀화계 한인의 한 명이다(武田 2007).

영락 연간인 395년에서 407년경에는 고구려의 대외전쟁에서 개선한 낙랑 조장군이 영락대왕, 즉 광개토왕의 수릉이 아니라 선왕인 고국양왕릉이나 소수림왕릉에 전적을 보고, 봉헌한 것일 것이다.

집안 고구려비와 천추총

마선구 하구, 천추총에서 서북쪽으로 약 470m 지점에서 비석이 발견되었다. 비문의 일부는 광개토왕비와 같이 수묘, 연호가 기재되어 있다. 광개토왕 비문의 원문이나 비문 자체에서 채록한 것 같다.

비문은 규형으로 높이 173cm, 폭 61~67cm, 두께 13~21cm이다. 밑면에 장부구멍과 결합하기 위한凸部가 있다. 비문은 광개토왕비에 비해 편평하다.

집안 고구려 비문(徐建新2013 번역문)과 광개토왕비문(하단)

口口口口世必授天道自承元王始祖雛牟王之創基也

始祖雛牟王之創基也

天口帝口之口子河伯之孫神靈祐護蔽蔭開國辟土繼胤相承

出自北夫餘天帝之子母河伯女郎

口口口口口口烟戶以此河流四時祭祀然而口備長烟

口口口口烟戶口口口口富足口轉買口口守墓者以銘

口口口口口口國口罷上口太王口口口口王神口口輿東西

國罷上廣開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墓

口口口口立碑銘其烟戶頭廿人名以示後世自今以後

上立碑銘其烟戶不令差錯又制守墓人自今以後不得

守墓之民不得擅自更相轉買雖富足之者亦不得其買

更相轉買雖有富足之者亦不得擅買其有違令賣者刑
賣如有違令者後世口嗣口口看其碑文與其罪過
之買人制令守墓之

고구려비의 해석문에 대해서는 『集安高句麗碑』에 보고되었으나, 그 후 『東北史地』 2013年 第3期에서 林滄·魏存成·張福有·孫仁杰·耿鉄華에 의해 몇가지 새로운 설이 제시되었고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國罽上太王口口口口王

「國罽上太王口平口口王」(徐建新번역문)과 「國罽上太王號平安太王神武」(張福有 번역문)의 해석에 의하면 광개토왕은 國罽上太王口平安太王 이라고도 불렸다. 광개토왕 비문에서는 「國罽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었지만 새로운 호칭이 더해졌다. 광개토왕의 시호이기도 하므로 집안고구려비는 (광개토왕) 사후의 412년 이후에 건립된 것이 된다.

戊子·戊午·戊申

戊口는 戊子(328·388·448년), 戊午(358·418·478년), 戊申(427년)이라는 설이 있다. 다만 정률의 시기이고 비석을 세운 연대는 아니다.

口卯歲

「戊口定律」의 앞 5글자에 관해서 「丁卯歲刊石」로 읽는다(張福有 2013). 丁卯年은 장수왕 15년(427)으로 비정되고 있다.

「國罽上太王口口口口王」은 광개토왕이고 시호인 이상 비의 건립은 412년 이후이다. 광개토왕 비문에는

「自上祖先王以來墓上不安石碑致使守墓人烟戶差錯國罽上廣開土境好太王盡為祖先王墓上立銘其烟戶不令差錯」

라고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광개토왕의 시기에 이미 비는 세워졌다. 다시 말해 광개토왕비 건립의 414년 이전에 집안 고구려비가 존재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천추총(에서 발견된) 영락 연간의 문자 기와(浪趙將軍口…口未在永樂)에서 보이는 (口未)를 乙未(395) 혹은 丁未(407)로 보면 영락 연간에 왕릉의 수축이 실시되었다.

마선(구에서 발견된) 고구려비는 발견지점의 지리적 관계에서 천추총의 연호비로 보여진다. 戊子라면 고국양왕 5년(388), 戊午라면 장수왕 6년(418)이다. 戊子の 가능성이 높아서 천추총은 고국양왕릉으로 추정되고 있다(耿鉄華2013).

다시 한번 왕의 시호와 장지와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고국원왕과 광개토왕의 (왕릉)은 「國冢上」에 입지한다. 好襄王인 미천왕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美川之原에, 소수림왕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小獸林에, 고국원왕은 故國之原에, 고국양왕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故國壤에 (위치하게 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美川之原과 小獸林의 장지는 구별되었다. 다시 말해 國冢上이나 故國原(壤)은 구별되어 있었다. 천추총은 소수림왕릉으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태왕릉과 고국양왕릉

1938년에 후지타 료사쿠의 실측조사에 의하면 (태왕릉의) 분구는 남쪽 면이 63.6m, 동쪽 면이 62.5m이고 호석은 각 변에 5개씩 있다. 돌계단은 세키노 타다시의 추정 복원도와 같이 7단이였다. 능을 둘러싼 「토루」에 눈이 가고 분구 주위에 포석이 확인된다. 능의 북변에서 약 90m 떨어진 높이 1m, 폭 3~5m의 토석혼축의 흠담이 동서로 약 250m 남아 있다. 동쪽 끝은 둥글게 굽어져 남쪽으로 뻗어 있다. 약 220m 계속되는데, 다시 서쪽으로 꺾어져 능의 전면에까지 약 350m 늘어난다. 동쪽 담은 폭이 5m, 높이가 약 1.0~1.5m로 적색 점토로 쌓았다. 서쪽 담은 약 350m로 추정되나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북서쪽의 구석 지점에 약 50m 정도의 토루가 남아 있는데 북쪽 담으로 연결된다. 북쪽 토루의 남쪽 20m 지점에 동서 98m, 남북 15~18m 정도로 옆으로 길게 늘어진 「석괴군」이 있다. 1935년경에는 높이가 1m인 장방형으로 남아 있었다. 석괴에는 다듬돌도 포함되어 있어서 장군총이나 천추총의 배면과 동일한 「배총군」으로 추정되었다. 남쪽으로 180m 지점에 있는 민가의 뒤에서는 건물터와 기와가 발견되었다. 태왕릉 석실의 무덤길 문은 서쪽으로 열린다. 석릉의 남면 중앙 앞에 3m 떨어져 평행하는 장석이 배도의 흔적으로 생각된다. 능의 배면에 석축의 배총군

이 있는 점으로 능 그 자체는 남쪽을 보고 있고, 지세로 보면 압록강을 향했다고 보인다.

2003년의 발굴조사에 의하면 북변의 길이가 68.0m, 동변의 길이가 약 62.5m, 서변의 길이가 약 66.0m, 남변의 길이가 약 63.0m이다. 남변의 각도는 255°, 묘실과 묘도는 256°로, 62m 전후의 방형으로 복원되었다. 능을 둘러싼 담장은 분구의 중심에서 담장의 문까지가 동서로는 분구 한 변(약 66m)의 약 2.5배이고, 남북으로는 분구 한 변(약 64m)의 약 2배이다. 능의 담장은 직사각형으로 동서로 분구의 약 5~6배이고, 남북으로 분구의 4배이므로 20~24배인 능역으로 복원된다.

태왕릉의 분구 중심에서 광개토왕비의 전면까지 417m(49°)이고, 태왕릉과 장군총은 2200m(53°) 떨어진 거리에 있다. 광개토왕비에서 장군총까지 1700m(35°)이다.

태왕릉의 분구 모서리 부분에서 출토된 동령의 명문인

「辛卯年好太王所造鈴九十六」

은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武田幸男 2007).

- ① 辛卯年(에) / 好太王(의 즉위를 기념해) / 口造(…?)鈴(…?) / 九十六(…?)
- ② 辛卯年((391年)에) / 好太王(다시 말해, 광개토왕의 즉위를 축하해) / 造(만든)所(의)방울 / (하사품인)九十六(순서)
- ③ 辛卯年((391年)에) / 好太王(다시 말해, 고국양왕의 흥거를 애도해) / 造(만든)所(의)방울 / (하사품인)九十六(순서)

(이 중에서도 武田는) 「명문 동령 그 자체도 또한 고국양왕의 흥거에 맞추어 제작된 것으로서, 동 왕의 장송의례에 동반되어 배포된 하사품이다.」(라고 보았다)(武田幸男 2007).

경주에서 출토된 호우에는 「乙卯年國置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라는 명문이 확인되는데 정식 명칭의 광개토왕의 시호가 확인된다. 호우는 태왕릉에서 출토된 동령의 경우와 달리 시호를 생략하지는 않았던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 동령에서 확인되는 「호태왕」은 광개토왕이 아니라 다른 왕, 고국양왕으로 해석할 수 있다(武田 2007). 청동방울은 선왕의 능에도 배포되었다. 확실히 호우와 같은 동완은 광개토왕의 흥거에 따른 국가적 의례에 이용되었다.

고구려왕릉은 「故國」에 입지하고 「수묘제도」가 존재했으며 능묘의 정상부에 비석을 세웠다. 이는 연호를 명기해 「간수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 집안고구려비의 발견을 예견하는 듯 하다.

장군총과 광개토왕릉

세키노 타다시(關野 1914)가 1913년에 측정한 바에 의하면 정면으로 97.8尺(29.6m), 측면으로 98.9尺(30m)이고, 최상층 단의 높이는 지상에서 37.59尺(11.4m), 만두형인 정상부까지 전체 높이는 40.59尺(12.3m)이고, 만두형의 높이는 약 3尺(1m)이다.

(그러나) 『通溝』의 측량도에서는 분구가 북변이 33.1m, 동변이 31.7m, 서변이 32.6m, 남변이 31.8m이다. 기단 주위가 3~4m. 두께 10~16cm인 냇돌을 깔았다.

장군총은 소 하천이 흐르는 골짜기의 안쪽에 입지한다.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조건이다. 그 골짜기의 초입에서 서쪽으로 약 1740m(35°)지점에 광개토왕비가 서 있다. 비석에서 장군총을 보면 북쪽에 골짜기 초입이 있고 남쪽에는 주요한 도로가 나 있다. 현재도 작은 골짜기를 따라서 길이 통해 있다. 이 골짜기 또한 묘도(신도)로 거석운반의 길이였다.

광개토왕비에 「甲寅年(414)九月廿九日乙酉遷就山陵於是立碑銘記勳以示後世」라고 되어 있다. 광개토왕은 「산릉」에 매장되었다. 역대 왕릉의 장지는 「國罽上」으로 고국원, 고국양이 있었다. 광개토왕의 시호는 「國罽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으로, 「國罽上」에 조영되었다. 고국원왕은 「國罽上王」이다.

山上王三十一年(226)王薨. 葬於山上陵. 號爲山上王(『三國史記』卷16).

東川王八年(234)太后于氏薨. 太后臨終遺言曰, 妾失行. 將何面目見國壤於地下. 若羣臣不忍擠於溝壑. 則請葬我於山上王陵之側. 遂葬之如其言(『三國史記』卷17).

광개토왕비에서 (보이는) 「산릉」과 국내성 천도 후의 초대 왕인 산상왕 (휘는 연우, 일명 궁)과 비교하는 것은 황당무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케우치 히로시가 장군총을 산상왕으로 비정한 것은 연대적으로 어긋난다. 태왕릉(고국양왕)이나 우산992호묘(고국원왕)의 장지는 「國罽上」에 위치한다. 장군총의 입지조건은 특별하다. 東崗의 가장 높은 곳에 연호 330家가 조영되어 있었을 것이다.

전 동명왕릉(진파리 고분)과 시조묘

평양성에서 동남쪽으로 20km 떨어진 무진천의 상류에 위치한다. 진파리 고분군(11기), 설매리 고분군(8기)의 남쪽에 정릉사가 조영되어 있다. 이 전 동명왕릉은 평양성 천도 후에 조영된 것으로 장수왕릉이라는 설이 제기되었다(永島暉臣愼 1981). 전 동명왕릉의 분구, 묘실, 연화문 벽화 등의 제 요소가 환인 미창구 벽화묘와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고구려가 건국한 졸본(환인)에서 대대로 제사지낸 시조묘가 평양성 천도에 맞추어 새롭게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 동명왕릉은 고려시대까지 왕릉으로 전승되었다.

정릉사는 「陵寺」이다. 문자왕(491~519)대에 건립되었다. 6세기에 벽화묘인 진파리 9호분(구 1호분), 1호분(구 4호분)이 축조되었다. 벽화에서는 연화화생도상 등의 불교 영향관계가 보인다.

능사, 능원의 제도는 북위 효문제 때에 전해졌다. 대동 평성의 북쪽 구릉상에 문명황후 풍씨의 영고릉, 효문제 수릉의 만년당, 구릉의 기슭에 사원불사를 건립했고 황제릉을 수호했다. 장수왕이나 문자명왕이 봉어했을 때에 거애발상의 의식이 행해졌다.

長壽王七十九年(491)冬十二月. 王薨. 年九十八歲. 號長壽王. 魏孝文聞之制素. 委貌布深衣, 舉哀於東郊遣謁僕射李安上. 策贈車騎大將軍太傅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諡曰康.

文咨明王二十八年(518)王薨. 號文咨明王. 魏靈太后舉哀於東堂. 遣使策贈車騎大將軍. 時魏肅宗十歲. 太后臨朝稱制.

한왕묘—장수왕릉

평양시에서 동북쪽으로 약 11km, 대동강의 우안 소구릉상에 입지한다. 1911년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에서 세키노 타다시가 발굴했다(關野貞『朝鮮の建築と藝術』1941年:『朝鮮の建築と藝術(新版)』2005年).

『吳州志』(『江東邑志』)에 의하면 「皇帝墓, 在県北三十五里錢浦里, 圍六百七尺四寸, 高一百二十六尺, 隧道丁字閣遺址宛然, 至今墓南烏崖窟中, 有終南山下漢王天地八字古人

詩曰, 片土至今名漢岱, 延熙十載葬東川, 謹按漢史與東史, 則東川即高句麗王延熙蜀漢後主年号也, 東川之薨在於延熙十載丁卯, 以此推之, 東川之墓無疑, 而但漢王與皇帝之稱未知何處」

라고 되어 있다(關野貞 1914).

한왕묘는 평양부근에 있는 고분 중에서도 최대급에 속하고 대표적인 것이다. 이 고분은 강동읍에서 서남쪽으로 약 4리, 대동강의 우안에서 약 2町인 지점에 남면하고 있고 산을 등지고 엮고 있다. 그 부근에는 고구려시대의 소형분들이 18기가 있는데, 그 위치는 뒤쪽이 약간 높고 앞이 낮는데 넓이는 1町이고 높이는 4町정도의 평지로 소구릉이 좌우에서 감싸 안고 있는 형상이다.

묘는 2단의 기단 위에 만들어진 원분으로 기단은 방형이고 전면과 서쪽 면은 높이가 1尺이다. 앞뒤로 돌을 나란히 2단으로 쌓았다. 동쪽 면은 지세가 약간 높아서 1단으로 했고, 북쪽 면은 땅이 더 높아서 단을 만들지 않았다(『朝鮮の建築と藝術』).

기단 위에 만들어진 이 고분은 직경이 약 30間(54.5m)이고 높이는 약 40尺(12.1m)이다. (세키노에 의하면) 분구 위를 「1尺 정도 파 내면 전부(기와인데) 암키와, 수키와, 수막새의 파편을 늘어놓아 덮었던 것을 볼 수 있다. 틀림없이 빗물이 내부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수막새의 문양은 만주 집안현의 장군총(필자는 장수왕의 아버지인 광개토왕의 묘로 추정한다) 위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형식이고 연대는 약간 내려가는 것 같다.

현실은 방형이고 동서로 11尺 4寸(345cm), 남북으로 11尺 1寸 2分(337cm),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는 11尺 4寸 6分(347cm)이다. 「네 벽에는 무엇인가를 그린 것처럼 보이나 박락되어 거의 식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연도는 길이 17尺 7寸 6分(538cm), 폭은 5尺(152cm)정도이다. 현실 내에 2장의 두꺼운 돌침상이 있다. 좌우에 서로 나란히 놓고 앞뒤에는 2개씩의 조악한 돌로 다리를 삼았다. 현실의 상부는 석회에 자갈을 섞은 콘크리트로 덮었다. 한편으로는 벽이나 천정 등에 사용한 석재의 줄눈에는 전부 석회를 이용해 충진했다.

이 묘는 평양지방에서 규모가 큰 편이고 구조형식이 고구려시대의 것으로는 가장 완비된 분묘로 대표적이다. 국내성 부근의 분묘형식과 일치하므로 양자가 연결되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데, 그 연대는 약 1,500년 전에 가까운 것일 것이다(『朝鮮の建築と藝術』).

피장자에 관해서 (세키노는) 「장수왕 전후의 어떤 왕의 능묘로 비정될 수 있다」라고 기술했는데 장수왕릉으로 단정하지는 않았다.

한왕묘는 방형 2단의 기단 위에 지은 것으로 직경 약 54m, 높이 약 12m의 방대형 봉토분이다. 중앙연도의 석실로 마름돌로 구축되었고 천정은 2층의 평행줄임에 2층의 삼각모줄임으로 쌓았다. 연도는 7.4m로 매우 길고 현실의 문 및 전실상의 공간에 폐쇄시설(문)이 있다. 분구 규모는 대동강유역에서 최대급으로 더욱이 기단적석층의 전통을 계승하였고 석실 천정의 뒤채움에 마름돌의 석재를 사용하는 점 등에서 장군총을 상기시킨다. 분구 위에서 출토된 기와는 평양천도 직후 경의 것으로 비정되어 있다.

토포리 대총과 문자명왕릉—광대산 남면 고분군—

광대산은 평양의 동쪽, 대동강 북안에 입지한다. 그 남면에는 동쪽에서부터 호남리 고분군, 남경리 고분, 토포리 고분군이 있고, 서쪽 남쪽에 동쪽에서 내리 고분군이 분포한다. 광대산의 거의 중심에 토포리 고분군이 축조되었고 다음으로 호남리 고분군이 조영되었다. 장군총계열의 석실, 방단봉토분의 계통관계에서 한왕묘 뒤에 축조된 것이 토포리 대총이다. 토포리 대총은 문자명왕릉으로 비정된다(東·田中 1995、東 1997).

호남리 사신총과 양원왕릉

토포리 고분군이 있는 광대산의 동쪽 방향에 조영된 것이 호남리 고분군이다. 호남리 사신총을 중심으로 17기의 묘가 분포한다.

호남리 사신총은 방단(재두원추형) 봉토분으로 사신 벽화묘이다.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입지조건을 가진다. 구릉 위에 배산에 해당하는 공간이 있고, 좌우에 청룡과 백호에 해당하는 약간 높은 고지가 뻗어 있다. 대동강 북안의 양지이다. 「陽崗上好王」인 양원왕(545~559)의 능에 상응한다.

강서대묘와 평원왕릉

평양의 서쪽에 위치한다.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상의 평지 중앙에 입지한다. 독

립구릉의 남쪽으로 튀어나온 약간 높은 고지에 입지하고 있다. 3기의 묘는 전부 방대형분인데, 대묘를 중심으로 역삼각형으로 동북쪽에 소묘, 서북쪽에 중묘가 축조되었다. 대묘는 「平崗上好王」의 평원왕릉으로 추정된다. 왕릉의 입지조건이 시호에 표현되어 있다. 국내성 시대부터의 전통적인 명명법이다. 소묘는 평원왕의 장자인 영양왕, 중묘는 영양왕의 배다른 동생인 영류왕의 것으로 보인다. 평원왕릉의 뒤에 형제의 묘가 나란히 있는 형상이다.

이와 같은 고분은 강서에서 서쪽으로 약 1리 떨어진 광활한 평야의 중앙에 있는데, 오석산을 오른쪽에 두고 무학산을 왼쪽에, 남쪽에는 정립산이, 인덕산을 북쪽에 둔 지세가 가장 좋은 형상을 띠는다고 했다(關野 1913).

대묘는 남쪽에 위치한다. 기저부의 직경이 약 170尺(약 52m)이고, 높이는 29尺(약 9m)이다. 중묘는 묘의 서북쪽으로 312尺(약 95m)에 위치한다. 기저부의 직경은 150尺(약 45m), 높이가 26尺(약 8m)이다. 소묘는 대묘의 동북쪽 약 285尺(약 86m)에 있고 중묘와는 261尺(79m) 떨어져 있다. 기저부 직경은 약 135尺(약 41m), 높이 22.5尺(약 7m)이다. 석실의 평면형과 천정의 축조구조로 볼 때 축조순서는 대묘→소묘→중묘로 벽화묘인 대묘, 중묘는 왕릉이고 소묘는 왕족의 묘일 것이다.

고구려왕릉 연구의 과제 -광개토왕릉·장수왕릉을 둘러싸고-

국내성시대와 평양성시대의 일부 왕릉에 대해서 검토했다. 지금까지 왕릉의 상대연대에 관해서 밝혀지고 있고 권운문 기와의 명문에 의해 왕릉의 절대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도 얻을 수 있다.

서대총에서 미천왕(300~331)대의 기축(329)명 권운문기와, 우산992호묘에서 고국원왕(331~371)대의 무술(338)명 권운문기와가 출토되었는데, 묘상에서 제사나 수축이 행해졌던 것이다.

태왕릉 출토 동령에서 확인되는 「辛卯年」「好太王」이라는 명문에 의해 태왕릉 = 광개토왕설이 증명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集安高句麗王陵』 보고서가 간행된지 10여 년, 2012년에 발견된 집안고구려비의 해석에 의해 다시금 천추총 = 고국양왕설이 제기되었다.

최근의 고구려왕릉 연구에서도 역시 태왕릉의 피장자상에 관해서는 광개토왕릉인지 아닌지로 의견이 양분되었다.

故國原王；國罽上王(『三國史記』卷18)、國罽上王(牟頭婁塚墓誌)、國罽上聖太王(牟頭婁塚墓誌)

小獸林王；小解朱留王(『三國史記』卷18)

故國壤王；辛卯年好太王所造鈴九十六(太王陵銅鈴)

願太王陵安如山固如岳(太王陵埴)

廣開土王；國罽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廣開土王碑)、國罽上廣開土境好太王(廣開土王

碑)、國罽上廣開土地好太聖王(牟頭婁塚墓誌)、乙卯年國罽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壺杆塚壺杆)、

長壽王；長壽王

文咨明王；明治好王(『三國史記』卷19)

安原王；(香崗上王)(『日本書紀』欽明紀)

陽原王；陽崗上好王(『三國史記』卷19)

平原王；平崗上好王(『三國史記』卷19)

嬰陽王；平陽王(『三國史記』卷20)

태왕릉이 고국양왕릉이라면 장군총은 광개토왕릉이 된다.

장수왕릉은 한왕묘로 비정할 수 있다. 국내성시대의 태왕릉에서 장군총, 평양성시대의 한왕묘, 토포리 대총, 호남리 사신총, 강서대묘, 중묘로 분구와 묘실의 변천은 일관되어 있다. 평양 천도 후, 환인 미창구 벽화묘에서 전 동명왕릉으로의 묘실계열도 상정된다.

장수왕이 국내성시대에 수릉을 조영했는지에 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광개통왕이 세상을 떠나고 장수왕이 즉위한 것이 412년이고, 甲寅年(414)9월 29일 乙酉의 날에 「산릉」에 매장하고 석비를 세웠다. 國烟 30, 看烟300, 330家の 인호를 배치했다. 韓과 穢에서 징발한 新民220家、旧民110家였다. 능원 내에는 인호의 건물군이 조영되었다. 국내성은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등의 거대적석총이 축조된 소위 능읍 도시 바로 그 자체였다.

414~427년의 평양성으로 천도하는 사이에 수릉으로서 장수왕릉을 만들었을까? (그렇다면) 그 전 단계에 광개토왕이 즉위한 391년에서 412년 사이에 태왕릉을 지은 것이 된다.

이와 같이 한왕묘가 장수왕릉이라면 「故國」, 「國罽上」에 귀장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장수왕릉은 문자명왕에 의해 조영되었다. 장지는 광대산으로 옮겼다. 방단봉토분인 토포리 대총이 한왕묘의 묘제를 계승해서 축조되었다. 문자명왕의 시호는 「明治好王」으로 그 장지는 「明治」에 상응하는 땅이어야 한다. 「明治好王」인 문자명왕과 「陽崗上好王」인 양원왕의

무덤은 모두 광대산 일대이다.

양원왕의 장지는 광대산의 동쪽으로 바뀌었다. 대동강 지류의 소하천으로 형성된 완만한 계곡 안쪽에 풍수가 좋은 땅에 있는 사신벽화분이다. 호남리 사신총에는 벽화가 왕릉에 채용되었다. 집안고구려비에서 보이는 「國罽上太王」은 천추총의 피장자로 지금까지 미상이었던 소수림왕이지 않을까? 새롭게 「國罽上太王」의 시호가 존재했다고 한다면, 소수림왕의 가능성이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소수림왕릉은 마친 2100호묘로 비정되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2004). 천추총은 고국양왕릉으로 비정되어 있다(魏存成 2002).

고구려왕릉과 시호

고국원왕은 「國罽上王」, 「國罽上聖太王」이고, 고국양왕은 「好太王」, 「太王陵」이며 광개토왕은 「國罽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고, 문자명왕은 「明治好王」이며, 안원왕은 「香崗上王」이고, 양원왕은 「陽崗上好王」이고, 평원왕은 「平崗上好王」이고, 영양왕은 「平陽王」이다.

고구려왕릉의 장지는 「國罽上」에서 「陽崗上」, 「平崗上」으로 변했다. 시호도 「聖太王」에서 「好太王」, 「好王」으로 변했다. 국내성시대에서 평양성시대로 변천하면서 장지의 호칭도 변화했다. 고구려왕의 시호는 지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백승옥(부산박물관)

1. 고구려왕릉을 비롯한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19세가 말~20세기 초의 한 시기에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는 日帝의 중국 동북부(만주)지역 진출에 따른 학술적 기초토대 구축 작업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20세기 말~21세기 초에 이르러 연구는 또 한번의 절정을 이루는 것 같다(물론 그 사이에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이에 대한 위기의식에서의 논리개발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온 결과로 보인다. 또한 작금에는 오늘의 대주제인 세계유산등록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다.

東潮先生은 고구려 고고학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분이며, 북한을 포함한 각국의 관련 Field도 비교적 자유로이 답사하신 분이다. 또한 최근 韓國과 中國의 고구려사 연구경향에 대해서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학문적 측면에서 각국의 학자들이 객관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共生과 共益을 위한 건강한 연구과제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여쭙어 보고 싶다.

2. 오늘의 발표는 고구려의 국내성 시대와 평양성시대의 일부 왕릉에 대해 발표자의 기존 견해(東 2006)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보충하는 내용이다. 집안지역의 여러 왕릉 가운데, 서대총을 미천왕(300~331)릉으로, 우산992호묘를 고국원왕(331~371)릉으로, 천추총을 소수림왕(371~384)릉으로, 태왕릉을 고국양왕(384~391)릉으로, 장군총을 광개토왕(391~412)릉으로 비정하고, 평양의 한왕묘를 장수왕(413~491)릉으로 비정하였다. 이 외 평양지역의 토포리 대총은 문자명왕릉으로, 호남리 사신총은 양원왕릉으로, 강서대묘는 평원왕릉으로 비정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중국학계의 공식견해로 볼 수 있는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의 서대총(미천왕)→우산992호묘(고국원왕)→마선2100호묘(소수림왕)→천추총(고국양왕)→태왕릉(광개토왕)→장군총(장수왕)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集安高句麗王陵』에서는 태왕릉 출토 銅鈴에서 확인되는 「辛卯年好太王 造鈴九十六」이라는 명문에 의해 태왕릉 = 광개토왕릉설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학계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견해와 이로 인해 오히려 태왕릉 = 광개토왕릉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태왕릉은 고국양왕릉이며 장군총이 광개토왕이라는 주장이 있다.

오늘 발표자의 주장은 태왕릉은 고국양왕릉이며 장군총이 광개토왕릉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장수왕릉은 평양의 한왕묘라는 것이다. 발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 발견된 집안고구려비에 의해 천추총 = 고국양왕설이 제기됨으로 해서 태왕릉=고국양왕설 재검토의 필요가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오늘의 발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 핵심은 태왕릉과 장군총의 피장자가 누구인가이다.

3. 집안 고구려비와 관련한 질의

① “(집안)고구려비의 연대에 관해서 「自戊口定律」이라는 연호에 주목되었다. 「戊子」나 「戊午」로 보이고, 국양왕 5년인 戊子年(388)에 해당한다. 비석을 천추총이 고국양왕릉인 근거의 하나로 본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集安高句麗碑』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자설을 포기하고 천추총=고국양왕설을 따른다는 것인가? 확인을 부탁한다.

(私見 : 집안 고구려비의 「自戊口定律」에서의 '戊口'가 戊子(고국양왕 5년, 388)이든 戊午(장수왕 6년, 418)이든 이는 내용으로 보아 수묘율이 정해진 해로 보아야 한다. 이때 집안 고구려비가 건립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비의 戊子 건비설을 근거로 비에서 가장 至近 거리에 있는 천추총을 고국양왕릉으로 보는 설은 설득력이 없다.)

② 집안 고구려비를 광개토태왕릉비문 속에 나오는 墓上立碑 중의 하나로 보는지?
 ③ “집안고구려비는 ㉠ 414년인 광개토왕비 이전 (혹은) ㉡ 광개토왕비문 이후(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광개토왕비문과 같은 문장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비문을 傳寫했거나, 동일한 원문이 존재했던 것 같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집안 고구려비의 건립연대를 광개토왕릉비 건립(412년) 이후로 보는지?

4. 太王陵 피장자와 관련한 질의

① 발표자는 태왕릉에 대한 설명에서 “능의 배면에 석축의 배층군이 있는 점으로 능 그 자체는 남쪽을 보고 있고, 지세로 보면 압록강을 향했다고 보인다.”고 하고 있다. 이는 태왕릉의 정면을 남쪽으로 본다는 것인가?

(私見 : 太王陵의 羨道 입구는 서쪽을 향하고 있다. 장군총의 예를 보더라도 羨道 입구 쪽이 정면으로 보

이는데, 태왕릉의 정면도 서쪽으로 봄이 옳지 않는가? 이는 그동안 태왕릉이 광개토태왕릉이 될 수 없다는 주요 논리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확인해 본다.)

- ② 태왕릉 출토 동령과 관련하여 武田幸男(2007)의 견해를 쫓아, 「辛卯年好太王所造鈴九十六」로 석독하고, 「好太王」은 고국양왕으로 보며 방울이 만들어진 시기는 391년으로 보는 것 같다. 「好太王」이 시호가 아니라 존호라는 설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③ 장군총=광개토태왕릉설의 반박 근거 가운데 하나는 광개토태왕릉비와 장군총과의 거리(1740m)가 멀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부탁한다.
- ④ 「國岡上」과 「東崗」의 구체적 범위는?

세계문화유산 - 고구려벽화고분의 현황과 과제

전호태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머리말

2004년 6월28일~7월7일 중국 소주에서 열린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34기의 벽화고분도 등재유적 목록에 포함되었다.¹⁾ 이후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북한과 중국에서는 새로운 벽화고분의 존재가 추가로 알려지기도 하고 고분벽화의 보존관리를 둘러싼 논의와 조치가 더해지기도 하였다.²⁾ 이 글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전부터 논의의 주제로 떠올랐던 고구려 벽화고분의 보존 관리와 연구 상의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³⁾

I. 현황

북한과 중국에 소재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고구려 벽화고분의 분포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⁴⁾

-
- 1) 2004.7.1. 연합뉴스 ; <http://whc.unesco.org>; 북한 및 중국 소재 고구려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을 둘러싼 논의 과정은 근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신미아에 의해 정리되었다.(신미아, 2011, 「북한과 중국내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 등재관련 주요쟁점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40, 고구려발해학회)
 - 2) 대성동벽화분(2003), 용악산벽화분(2004), 동산동벽화분(2009), 옥도리벽화분(2011), 호남리벽화분(2014) 등이 추가로 발견, 조사되어 국내에 알려졌다.(대성동벽화분은 2003년에 발견되었으나 새로운 벽화고분임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필자가 KBS 스페셜 제작진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던 기간, 고구려유적조사에 동행했던 박철용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연구실장 발언 및 출토유물 공개(2004.6.14)를 통해서였다. ; 용악산벽화분: 남일룡, 2004, 「새로운 유적유물 발굴」, 『조선』 569, 조선화보사, 40~41쪽; 동산동벽화분: 연합뉴스 보도(2010.8.14. 인터넷판) ; 옥도리벽화분은 동북아역사재단, 2011, 『옥도리 고구려 벽화무덤』, 62~66쪽, 도판 128~133 ; 호남리벽화분의 존재는 평양 조선중앙통신·서울 연합뉴스, 2014.5.26. 「평양 근교서 고구려 벽화무덤 또 발굴」을 통해 확인) 2014년 6월까지 무덤간 안에 벽화가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고구려 벽화고분은 모두 122기이다. 이 통계에는 중국이 세계유산 신청서를 통해 무덤간 안의 벽화 존재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오희분1호묘, 오희분3호묘가 포함되었다.(Capital Cities and Tombs of the Ancient Koguryo Kingdom, China, 2003, 23쪽) 耿鐵華, 2008『高句麗古墓壁畫研究』吉林大學出版社에는 두 고분이 벽화고분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 3) 全虎兌, 2002, 「북한소재 고구려 벽화고분의 보존과 관리-세계문화유산등재신청 유적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25, 한국고대사학회.
 - 4) Capital Cities and Tombs of the Ancient Koguryo Kingdom, China, 2003, 21~24쪽(WHC file name, 1135.pdf) ; 「WHC-04/28.COM/14BREV」, 2004, 21쪽.

표 1 세계문화유산 등재 북한 및 중국 소재 고구려 벽화고분 분포 현황

국가	지역	고분군	고분명	기수		
북한	평양권	대동 지역	덕화리1호분, 덕화리2호분	2	13	16
		평양 지역	(傳)동명왕릉, 진파리1호분, 진파리4호분, 호남리사신총	4		
		남포 지역	강서대묘, 강서중묘, 덕흥리벽화분, 수산리벽화분, 약수리벽화분, 용강대묘, 쌍영총	7		
		안악군 안악 지역	안악1호분, 안악2호분, 안악3호분	3	3	
중국	집안권	하해방 고분군	모두루총(XM001), 환문총(XM033)	2	18	18
		우산하 고분군	각저총(YM0457), 무용총(YM0458), 통구12호분(YM1894), 산연화총(YM1896), 오희분1호묘(YM2101), 오희분3호묘(YM2103), 오희분4호묘(YM2104), 오희분5호묘(YM2105), 통구사신총(YM2114), 우산하3319호묘(YM3319)	10		
		산성하 고분군	산성하왕자묘(SM332), 산성하절천정묘(SM1298), 산성자귀갑총(SM1304)	3		
		장천 고분군	장천1호분(JCM001), 장천2호분(JCM002), 장천4호분(JCM004)	3		

위의 34기의 벽화고분 가운데 북한 소재 유적의 경우 관리상태 및 보존조치에 대한 학술 정보가 관련 문헌자료, 국내 학자들에 의한 수차례의 현지 방문조사, 북한측 문화유산 보존 담당자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국내에 알려졌다. 필자는 이런 정보를 모아 글로 정리하기도 하였다.⁵⁾ 필자가 조사 정리한 내용에 유네스코가 위촉한 전문가들의 현장 보존 활동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북한 소재 세계문화유산 등재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관리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표2)와 같다.⁶⁾ 중국 소재 세계문화유산 등재 벽화고분

5) 전호태, 2004, 「북한 소재 고구려 고분벽화의 보존과 관리방안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35, 한국고대사학회.
 6) Conservation of Mural Paintings and Historical Sites by Rodolfo Lujan, Serial No. FMR/CLT/CH/91/102, Paris, 1991 : UNESCO Expert Mission to the DPR of Korea for the review of the Nomination File and elaboration of a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of the Koguryo tombs, 5-12 August 2000, Reported by Ariane Perrin : Mission Report of Werner SCHMID, Representative of ICCROM, Rome, Italy, 2000 : UNESCO WHC Mission to North Korea Report by Melanie Pomeroy-Kellinger(October 2000) : UNESCO expert mission to the DPR of Korea for the finalization of the World Heritage Nomination File of the Complex of Koguryo tombs located in DPRK (19-31 July 2001), Mission report prepared by Ariane Perrin; 필자의 방북조사(1차 : 2004. 6. 8~6. 15, 2차: 2005. 7. 19~7. 30, 강서대묘, 강서중묘, 진파리1호분, 수산리 벽화분, 덕흥리벽화분, 안악3호분, 태성리3호분 현장 조사 및 대성동벽화분 출토유물); Preservation of the Koguryo Kingdom Tombs, UNESCO, September 2005 ; 동북아역사재단, 2005, 『남북공동유적조사보고

의 관리상태 및 보존조치에 대해서는 필자가 별도로 정리하여 보았으며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⁷⁾

표2) 및 표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 이전부터 UNESCO, ICCROM, ICOMOS와 같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소속 전문가들로 하여금 유적에 대한 현장조사와 평가를 통해 고분 및 벽화의 보존 관리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보존과학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의 보존과학 전문가들이 국제적 수준의 벽화 보존과학 기술을 단계적으로 경험하며 익힐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보존과학 전문가의 양성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⁸⁾ 또한 한국 및 일본과의 협조로 벽화 고분의 현황에 대한 평가가 더욱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벽화 보존을 위한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 형성의 기반도 다지게 되었다.⁹⁾ 이런 면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고분벽화 현황 파악 및 보존을 위한 국제적 공동 작업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고구려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 앞선 UNESCO 및 ICOMOS의 현장 접근과 조사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¹⁰⁾ 자체적인 유적 관리 역시 엄격하지 않아 세계유산 등재 신청 이전 이미 주요 벽화고분으로 분류되고 있던 장천1호분, 삼실총 벽화가 여러 차례에 걸쳐 심각하게 훼손되고 도굴된 것은 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¹¹⁾ 훼손

서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共同通信社, 2005, 『高句麗壁畫古墳』; 남북역사학자협의회·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남북공동 고구려벽화고분 보존실태 조사보고서』; 필자가 전시감독을 맡은 Photo Exhibition for the Preservation of the World Heritage Site of the Koguryo Tombs and Mural Painting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rom 12 to 26 October 2012 at Salle des Pas Perdus, UNESCO Headquarters, in Paris; 전호태, 2011, 「고구려 평양권 벽화고분의 현황과 과제」, 『울산사학』 15.

7) Capital Cities and Tombs of the Ancient Koguryo Kingdom, China, 2003, 21~24쪽(WHC file name, 1135.pdf); 『WHC-04/28.COM/14BREV』, 2004; 耿鐵華, 2008, 『高句麗古墓壁畫研究』吉林大學出版社; 전호태, 2009, 「고구려 집안권 벽화고분의 현황과 과제」, 『울산사학』 14.

8) Preservation of the Koguryo Kingdom Tombs, UNESCO, September 2005.

9) 동북아역사재단, 2005, 『남북공동유적조사보고서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共同通信社, 2005, 『高句麗壁畫古墳』; 남북역사학자협의회·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남북공동 고구려벽화고분 보존실태 조사보고서』.

10) 중국의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 등재 신청 문서는 2003년 1월 22일 UNESCO WHC에 공식 접수되었으며 2004년 7월 세계유산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으므로 UNESCO의 의뢰로 ICOMOS 전문가들이 현장을 제대로 실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WHC file name, 1135.pdf)

11)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2003.4.16.)에 따르면 조선족 도굴꾼 3인이 1997년 가을부터 1998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삼실총의 출토도, 청룡도, 백호도, 현무도 등의 벽화를 도굴하였고 1차 도굴 참여자 1인을 포함한 다른 3인이 2000년 7월 3일 장천1호분의 무금무악도, 비봉도, 공양인도[예불도], 백희도를 도굴했

손과 도굴이 특히 심각했던 삼실총 벽화는 중국의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 등재 신청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삼실총, 장천1호분이 5세기경 동아시아에서 진행된 동서 교류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벽화로 장식된 유적이었음을 감안하면 벽화의 훼손, 도굴로 말미암은 문화사적, 예술사적 손실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하겠다.¹²⁾

그러나 훼손 및 도굴 이후 두 유적의 현황이 어떠한지, 사후 보존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보고 역시 보존과학적, 연구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보고가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표3)에서 지적하였듯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벽화고분 가운데 이미 조사가 진행된 유적임에도 내용에 대한 학술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 오회분1호묘, 오회분3호묘는 벽화고분으로 등재되었지만 그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출간된 중국학자의 연구서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¹³⁾

고, 같은 시기 삼실총의 무사도, 현무도, 청룡도를 한 차례 더 도굴했다고 한다. 1차 도굴꾼 3인은 2003년 4월 16일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었다고 보도되었다.(인터넷 한겨레 2003년 4월 18일 사회면) 2000년 두 번째로 이루어진 고분벽화 도굴 사실은 경향신문(2001.10.3.) 및 조선일보(2001.10.4.) 보도를 통해 국내에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가문물국은 도굴된 벽화 일부가 한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반환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의 문화재청장 앞으로 보내기도 하였다.(2010년 12월 15일 문화재청 공식 발표,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2010년 12월 15일자 보도)

12) 장천1호분, 삼실총 벽화 제재에 담긴 동서교류사적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는 필자가 별도의 글에서 언급하였다.(전호태, 2012,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와 중앙아시아의 교류」, 『韓國古代史研究』 68, 한국고대사학회)

13) 耿鐵華, 2008, 『高句麗古墓壁畫研究』, 吉林大學出版社.

표 2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북한 소재 고구려벽화고분의 보존관리

지역	벽화 고분	벽화 주제	기존 관리상태 및 보존조치	보존상의 주요 문제	세계유산 등재 전후의 보존활동 및 기타
대동	덕화리 1호분	생활 풍속 · 사신	봉분 재축.	벽화바락 위험, 온습도 지속적 계속 필요. 정밀 모사도 작업을 통한 벽화 현황 기록 유지 필요.	주변 환경 재정비,
	덕화리 2호분	생활 풍속 · 사신	봉분 재축.	벽화바락 위험, 온습도 지속적 계속 필요. 정밀 모사도 작업을 통한 벽화 현황 기록 유지 필요.	주변 환경 재정비,
평양	동명 왕릉	장식 무늬	1973년 내부 재조사 및 정리과정에 염분층 밑의 벽화발견, 1993년 염분층 제거, 벽화보존처리, 봉분기단부를 화강암석재로 덧씌우면서 2단에서 3단으로 높임. 봉토규모도 확대, 주변지역 대대적 정비, 제상 및 석상, 기념비 추가, 진입로 조성, 기념관 건립, 나무식재.	재축 봉토의 압력이 석실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속과 개선 필요. 주변경관의 지나친 변화가 고분구조와 벽화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필요.	주변 환경 재정비,
	진파리 1호분	사신	봉분재축, 시멘트출입구 설치. 기록보존의 일환으로 벽화모사.	수분응축, 탄산칼슘층 존재, 염분층 형성 계속, 백회지장층 및 벽화안료층이 돌벽으로부터 뜨는 현상 심화, 벽화바락 위험, 일부 벽면에는 흰색 침전물층이 형성되어 확대되고 있음. 차단 및 개선방안강구, 온습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지속적 계속 필요, 외부개방자제.	UNESCO-ROK-DPRK의 3자간 협조로 ICCROM 보존과학 전문가 참여하에 벽화 현황 파악 및 보존 작업 진행(2003~2006) ICOMOS 전문가 자문. ROK-DPRK의 공동연구 방식으로 벽화 현황 파악 및 보존 작업 연구 진행(2004~2006) 보고서 발간.
	진파리 4호분	사신	봉분재축, 시멘트출입구 설치. 기록보존의 일환으로 벽화모사.	수분응축, 탄산칼슘층 존재, 염분층 형성 계속, 백회지장층 및 벽화안료층이 돌벽으로부터 뜨는 현상 심화, 벽화바락 위험, 온습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지속적 계속 필요, 외부개방자제.	주변 환경 재정비,
	호남리 사신총	사신	봉분 재축. 기록보존의 일환으로 벽화모사.	벽화의 퇴색과 박락 계속, 온습도 지속적 계속 필요.	2004년 가을, DPRK-JAPAN공동조사, 2005년 일본 교도통신 주관 사진도록 발간. ROK-DPRK의 공동연구 방식으로 벽화 현황 파악 및 보존 작업 연구 진행(2006) 보고서 발간.
남포	강서 대묘	사신	1971년 봉토와 석실사이에 수분침투를 막기 위해 타르방습지를 덮음, 봉토층 안에 시멘트 돔 설치, 콘크리트 출입구 설치, U자형 통로, 시멘트 입구, 통로, 바닥, 1989년 유리방벽설치, 온습도계측기 가동, 벽화관찰을 위한 형광등 및 백열등 설치, 고분사이로 다수의 나무를 식재. 기록보존의 일환으로 벽화모사.	수분응축, 탄산칼슘층 존재(남벽과 우입구부분 안료층에 두텁게 형성), 염분층 형성 차단방안 강구, 인근 관계수로로 인한 침수방지, 형광등 및 백열등을 퇴색방지등으로 교체, 재축 봉토 및 시멘트 돔의 압력이 석실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속과 개선 필요. 보호지역 확대, 통풍을 저해하는 나무제거. 보존용 유리벽이 온습도 유지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필요.	ROK-DPRK의 공동연구 방식으로 벽화 현황 파악 및 보존 작업 연구 진행(2004~2006) 보고서 발간. 2004년 가을, DPRK-JAPAN공동조사, 2005년 일본 교도통신 주관 사진도록 발간.
	강서 중묘	사신	콘크리트 출입구 설치, 봉토와 석실사이에 수분침투를 막기 위해 타르방습지를 덮음, 봉토층 안에 시멘트 돔 설치. U자형 통로, 시멘트 입구, 통로, 바닥, 유리방벽 설치, 벽화관찰을 위한 형광등 및 백열등 설치, 고분사이로 다수의 나무를 식재. 기록보존의 일환으로 벽화모사.	수분응축, 탄산칼슘층 존재, 염분층 형성 차단방안강구, 인근관계수로로 인한 침수방지, 형광등 및 백열등을 퇴색방지등으로 교체, 보호지역 확대, 통풍을 저해하는 나무제거. 보존용 유리벽이 온습도 유지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필요.	ROK-DPRK의 공동연구 방식으로 벽화 현황 파악 및 보존 작업 연구 진행(2004~2006) 보고서 발간. 2004년 가을, DPRK-JAPAN공동조사, 2005년 일본 교도통신 주관 사진도록 발간.

지역	벽화 고분	벽화 주제	기존 관리상태 및 보존조치	보존상의 주요 문제	세계유산 등재 전후의 보존활동 및 기타
남포	덕흥리 벽화분	생활 풍속	1976년 재발견후 입구통로복원, 1990년 봉분재축, 1991년 유리방벽 설치, 시멘트입구 및 통로, 계단, 문 설치, 앞방천장석 훼손부 시멘트로 접합, 온습도계측기 가동, 벽화관찰을 위한 형광등 및 백열등 설치. 기록보존의 일환으로 벽화모사.	1903년 일본인의 도굴 뒤 도굴구멍으로 묘실에 수분과 토사 침투, 수분 응축, 탄산칼슘층 존재, 염분층 형성, 벽화바락 계속, 백회지장층 및 벽화안료층이 돌벽으로부터 뜨는 현상 심화, 보존처리를 위한 시멘트가 가용성염분을 공급, 흰색침전물형성의 원인으로 작용, 벽화 위에 검은 얼룩 발생, 차단 및 개선방안강구, 형광등 및 백열등을 퇴색방지등으로 교체, 외부개방자체. 보존용 유리벽이 온습도 유지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필요.	ICOMOS 전문가 자문 및 ICCROM 보존과학 전문가 참여하에 벽화 현황 파악 및 보존 작업 진행(2003~2006) 무덤 내 온습도 계측 지속적으로 진행중. 보고서 발간. 2004년 가을, DPRK-JAPAN공동조사, 2005년 일본 교도통신 주관 사진도록 발간.
	수산리 벽화분	생활 풍속	봉분재축, 2001년 유리방벽 설치, 시멘트입구 및 통로, 계단, 문 설치, 벽화관찰을 위한 형광등 및 백열등 설치. 기록보존의 일환으로 벽화모사.	수분응축, 탄산칼슘층 존재(남벽 인근 연도 좌우벽에 이미 두텁게 형성), 염분층 형성 계속, 백회지장층 및 벽화안료층이 돌벽으로부터 뜨는 현상 심화, 벽화바락 위험 가중, 온습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지속적 계측 필요, 형광등 및 백열등을 퇴색방지등으로 교체, 외부개방자체.	UNESCO-ROK-DPRK의 3자간 협조로ICROM 보존과학 전문가가 참여하에 벽화 현황 파악 및 보존 작업 진행(2003~2006). 이후의 계속된 보존 작업 결과를 정리. ICOMOS 전문가 자문. 사진전시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개(2012.10.12.~10.26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약수리 벽화분	생활 풍속 · 사진	봉분재축, 시멘트출입구, 계단, 옹벽, 2001년 유리방벽 설치, 납종이를 이용한 방습조치계획, 벽화관찰을 위한 형광등 및 백열등 설치. 기록보존의 일환으로 벽화모사.	저수지 인접으로 인한 침수현상 발생, 2002년초 완성된 관개수로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검토, 침수방지조치 시행 필요. 백회지장층 및 벽화안료층이 돌벽으로부터 뜨는 현상심화, 앞방 벽화 약화, 바락진행 위험, 형광등 및 백열등을 퇴색방지등으로 교체, 외부개방자체, 재축봉토의 압력이 석실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측과 개선필요.	주변 환경 재정비, ICCROM 보존과학 전문가가 참여하에 2차에 걸친 벽화 보존 작업 진행. UNESCO-DPRK의 협조로 유적현황 수집 평가 및 1차 작업 진행(2001.12~2002.10), UNESCO-ROK-DPRK의 협조로 2차 작업 진행(2003~2006) ICOMOS 전문가 자문.
	용강 대묘	생활 풍속	봉분재축. 기록보존의 일환으로 벽화모사 필요.	벽화바락, 온습도 지속적 계측 필요.	주변 환경 재정비,
	쌍영총	생활 풍속 · 사진	봉분재축. 기록보존의 일환으로 벽화모사.	벽화바락 위험, 온습도 지속적 계측 필요. 벽화 현황 평가 및 보존 관리방안 추가 연구 필요.	2004년 가을, DPRK-JAPAN공동조사, 2005년 일본 교도통신 주관 사진도록 발간.
안악	안악 1호분	생활 풍속	봉분재축.	벽화바락, 온습도 지속적 계측 필요.	주변 환경 재정비,
	안악 2호분	생활 풍속	봉분재축. 기록보존의 일환으로 벽화모사.	벽화바락 위험, 온습도 지속적 계측 필요. 벽화 현황 평가 및 보존 관리방안 추가 연구 필요.	주변 환경 재정비,
	안악 3호분	생활 풍속	봉분재축, 1957년 시멘트입구 및 지하통로설치, 2개의 철문 설치,돔(1957, 1971, 1986에 걸쳐 3개층),철제받침대, 플라스틱방벽설치, 온습도계측기 가동, 벽화관찰을 위한 형광등 및 백열등 설치. 기록보존의 일환으로 벽화모사.	수분응축, 탄산칼슘층 존재, 시멘트 용해물로 말미암은 염분층 생성, 안료층 바락, 안료층에 대한 생물학적 침식 등의 문제 해결(서쪽결방의 흰막, 개미류에 의한 흙굴), 형광등 및 백열등을 퇴색방지등으로 교체, 외부개방자체, 재축봉토 및 시멘트 돔의 압력이 석실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측과 개선 필요. 묘실과 시멘트통로 사이의 인위적 공간이 묘실 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도 필요.	ROK-DPRK의 공동연구 방식으로 벽화 현황 파악 및 보존 작업 연구 진행(2004~2006) 2004년 가을, DPRK-JAPAN공동조사, 2005년 일본 교도통신 주관 사진도록 발간.

표 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중국 소재 고구려벽화고분의 보존관리

지역	고분군	벽화 고분	벽화 주제	기존 관리상태 및 보존조치	보존상의 주요 문제	세계유산 등재 전후의 보존활동 및 기타
하해방 고분군	모두루총 (XM001)	벽서명	벽서명	1957년 길림성박물관, 재조사. 1963년 10월 집안현문물보관소 봉분 증축. 수차례 무덤 정비와 수리 진행. 1978년 6월 벽서 명부분 화학안료보호막 작업. 무덤 폐쇄. 1997년 재조사 및 실측보고.	벽서명 퇴색 진행. 벽서명 정밀 조사 보고 후 벽서 명부분 추가 보존 조치 필요.	주변 환경 재정비,
	환문총 (XM033)	장식 무늬	장식 무늬	1974년 10월 집안현문관소, 무덤 수리. 1976년 11월 봉분 증축. 1978년 집안현문물관리소 벽화 화학안료 보호막 작업. 1997년 재조사 및 실측보고.	벽화 퇴색 및 박락 심각. 1차 및 2차 벽화작업 내용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 벽화 보존상황 재확인 및 추가 조치 여부 연구 필요.	주변 환경 재정비,
집안 우산하 고분군	각저총 (YM0457)	생활 풍속	생활 풍속	1956년 9월 나무문 추가 설치 962년 5월 일부 수리, 1964년 8월 봉분 증축. 1975년 6월 무덤 수리. 1976년 7월 집안현문물보관소, 묘도, 묘문 정비 및 수리, 벽화에 대한 화학적 보호막 작업. 1976년 9월 봉분 증축. 1982년 5월 집안현문관소, 벽화 모사. 1997년 재조사 및 실측보고.	벽화 보호막으로 인한 벽화 안료층의 부식 진행. 벽화 퇴색 및 벽화층 박락 지속. 계절 변화에 따른 결로 현상 심각. 온습도 안정을 위한 조치 필요. 벽화 화학안료막의 영향에 대한 정밀 검토 후 보존 추가 조치 여부 연구 필요.	주변 환경 재정비, 부정기적 개방 자제.
	무용총 (YM0458)	생활 풍속	생활 풍속	1956년 9월 나무문 추가 설치 962년 5월 일부 수리, 1964년 8월 봉분 증축. 1975년 6월 무덤 수리. 1977년 5월 집안현문물보관소, 묘도, 묘문 정비 및 수리, 벽화에 대한 화학적 보호막 작업. 1982년 5월 집안현문관소, 벽화 모사. 1997년 재조사 및 실측보고.	벽화 보호막으로 인한 벽화 안료층의 부식 진행. 벽화 퇴색 및 벽화층 박락 지속. 계절 변화에 따른 결로 현상 심각. 온습도 안정을 위한 조치 필요. 화학안료막의 영향에 대한 정밀 검토 후 보존 추가 조치 여부 연구 필요.	주변 환경 재정비, 부정기적 개방 자제.
	통구 12호분 (YM1894)	생활 풍속	생활 풍속	1956년 봄 집안현 문화과 봉분 증축. 1961년 가을 무덤문 폐쇄. 1962년 4월 길림성박물관과 집안현문물보관소 무덤 재조사와 실측, 벽화모사. 1962년 5월 무덤 유지보수 작업 진행. 1964년 봄 봉분 증축. 1977년 5월 집안현문물보관소, 벽화에 대한 화학적 보호막 작업 진행. 1997년 재조사 및 실측보고.	벽화 보호막으로 인한 벽화 안료층의 부식 진행. 벽화 퇴색 및 벽화층 박락 지속. 계절 변화에 따른 결로 현상 심각. 온습도 안정을 위한 조치 필요. 벽화 보존을 위한 추가 조치 여부 연구 필요.	주변 환경 재정비. 벽화 현황 평가 및 정밀 모사도 작업을 통한 벽화 현황 기록 유지 검토 필요.
	산연화총 (YM1896)	장식 무늬	장식 무늬	1997년 재조사 및 실측보고.	벽화 대부분 박락. 벽화 현황 평가 및 공개 필요.	주변 환경 재정비
	오회분 1호묘 (YM2101)	?	?	1997년 실측보고.	벽화 존재 확인. 내용 미공개	주변 환경 재정비. 현재의 보존 안정성에 대한 평가 및 환경 유지
	오회분 3호묘 (YM2103)	?	?	1997년 실측보고.	벽화 존재 확인. 내용 미공개	주변 환경 재정비. 현재의 보존 안정성에 대한 평가 및 환경 유지
	오회분 4호묘 (YM2104)	사신	사신	1950년 겨울 인민해방군 부대장에 의해 무덤문 무단 개방. 국가 문화부 무덤문 폐쇄. 1962년 6월-8월 길림성박물관과 집안현문물보관소에 의해 정식 발굴 조사. 1963년 10월 집안현문물보관소, 무덤문 폐쇄. 1965년 6월 길림성박물관에 의해 실측 및 벽화모사. 1974년 10월 집안현문관소, 무덤 수리. 1974년 5월 길림성박물관과 집안현문관부문, 벽화 수리가 검토. 1974년 9월 집안현문관소, 벽화 수리 및 화학적 보존처리 작업 진행. 1997년 재조사 및 실측보고.	관광객 지속적 출입 허용 후 벽화 퇴색 심화. 벽화 관람용 카메라 설치 후 고분 폐쇄. 벽화보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카메라 지지대 설치로 벽화의 부분적 훼손 우려. 계절 변화에 따른 결로 현상 심각. 온습도 안정 및 벽화 추가 훼손 방지를 위한 고분 완전 폐쇄 검토 필요.	주변 환경 재정비, 현재의 시멘트 출입구가 벽화 및 고분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및 조치 필요.

지역	고분군	벽화 고분	벽화 주제	기존 관리상태 및 보존조치	보존상의 주요 문제	세계유산 등재 전후의 보존활동 및 기타
집안	우산하 고분군	오회분 5호묘 (YM2105)	사신	1956년 9월 나무문 추가 설치. 1962년 4월 무덤 실측, 벽화 모사. 1962년 6월~8월 길림성박물관과 집안현문물보관소, 발굴 조사되었다. 1963년 10월 봉분 중측. 1965년 6월 2차 무덤 실측 및 벽화 모사. 1975년 6월 및 1976년 5월 두 차례 무덤 수리. 1983년 1월 벽화 보존을 위한 2차 화학처리 작업 진행. 1997년 재조사 및 실측보고.	관광객 지속적 출입 허용으로 벽화 퇴색 심각. 계절 변화에 따른 결로 현상 심각. 온습도 안정을 위한 조치 및 고분 완전 폐쇄 필요.	주변 환경 재정비. 현재의 시멘트 출입구가 벽화 및 고분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및 조치 필요.
		통구 사신총 (YM2114)	사신	1956년 봄 집안현 문화과, 무덤문 봉쇄. 1961년 가을 무덤문 폐쇄. 1997년 재조사 및 실측보고.	벽화 대부분 퇴색. 벽화 현황에 대한 정밀 감식 및 보고 필요, 벽화 보존조치 요구 필요.	주변 환경 재정비. 벽화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미공개. 벽화 현황 평가 및 정밀 모사도 작업을 통한 벽화 현황 기록 유지 검토 필요.
		우산하 3319호묘 (YM3319)	생활 풍속	1962년 4월 길림성박물관과 집안현문물보관소, 실측 조사. 1997년 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와 집안현박물관 공동 발굴 조사 과정에서 벽화 발견.	벽화 대부분 박락.	주변 환경 재정비
	산성하 고분군	산성 하왕 자묘 (SM332)	장식 무늬	1965년 4월 집안현문물보관소, 벽화 발견. 1966년 3월~6월 길림성문관회, 발굴 정리. 1981년 11월 집안현문물보관소 벽화 실측과 모사. 화학안료를 사용한 보존처리. 1982년 10월 무덤 수리. 봉분 중측. 무덤문 폐쇄.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와 집안시박물관, 재조사 및 실측보고.	벽화 대부분 박락. 벽화 현황에 대한 정밀 감식 및 보고 필요,	주변 환경 재정비
		산성 하절 천정묘 (SM1298)	생활 풍속	1983년 7월 집안문물보사대, 재조사 및 실측, 무덤 수리. 널길 북벽에서 결방 발견. 1985년 무덤 보존상태 점검 중 널방 바닥에서 벽화조각 발견. 199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와 집안시박물관, 재조사 및 실측보고.	벽화 박락. 벽화 내용 정밀 조사 및 보고 필요.	주변 환경 재정비
		산성자 귀갑총 (SM1304)	장식 무늬	1993년 집안시박물관과 집안시문물보관소, 무덤 내외부 조사, 수리. 1997년 재조사 및 실측보고.	벽화 박락. 벽화 현황에 대한 정밀 감식 및 보고 필요,	주변 환경 재정비
	장천고 분군	장천 1호분 (JCM001)	생활 풍속	1970년 8월 길림성문물공작대와 집안현문물보관소, 발굴 및 조사. 1973년 8월 벽화의 화학적 보존처리작업 진행. 1973년 9월 무덤 수리. 1997년 재조사 및 실측보고. 2000년 가을 벽화 훼손 및 도굴.	고분 앞방 벽화 대부분 훼손 및 도굴. 벽화 현황에 대한 정밀 감식 및 보고 필요, 널방 1차 벽화 및 2차 벽화 내용 정밀 조사 및 보고 요망.	주변 환경 재정비
		장천 2호분 (JCM002)	장식 무늬	1972년 4월~5월, 길림성문물공작대와 집안현문물보관소 발굴조사. 1980년 8월 무덤 수리, 벽화 보존을 위한 화학처리. 무덤문 폐쇄.	벽화 박락 심함. 벽화 내용 정밀 조사 및 보고 필요.	주변 환경 재정비
		장천 4호분 (JCM004)	장식 무늬	1956년 주민 고분 내부 출입. 1984년 집안시문물보관소, 벽화고분 확인. 1985년 집안시박물관 무덤 내부 조사. 1990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와 집안시문물보관소 무덤 내부 재조사유물 수습 및 벽화 촬영.	벽화 박락 심함. 벽화 내용 정밀 조사 및 보고 필요.	주변 환경 재정비

II. 과제

1. 기록 유지와 보존

고구려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이전부터 남북한과 중국학계의 관심은 고분벽화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보존, 관리였다. 온습도상 일교차 및 계절교차가 심한 북한 및 중국 동북지역의 기후적 특징으로 볼 때, 도굴 후 장기간 방치되거나 발굴조사 이후의 보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고구려 벽화고분의 벽화는 퇴색되거나 박락되기 쉽다. 실제 일제강점기에 발견되어 간략한 내부 조사가 진행된 고구려 벽화고분의 상당수에서 심각한 벽화 박락 및 퇴색 현상이 확인되었다. 1913년 발견되어 내부 조사가 이루어진 순천의 천왕지신총은 현재 벽화가 전혀 남아 있지 않으며, 1935년 발굴 조사되었던 집안의 무용총과 각저총은 무덤칸의 바닥 및 천장 부근 벽화 대부분이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¹⁴⁾ 이들 벽화고분 가운데 상당수의 벽화가 발견 및 조사 당시 1,500년 이상의 세월을 견뎌내고 벽화 제작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무덤칸 개방 후 수십 년 동안 벽화 퇴색 및 박락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미 빠른 속도로 벽화 퇴색이나 박락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보존 대책이 마련되어 곧바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북한과 중국에 소재한 상당수 벽화고분이 천왕지신총과 같은 운명과 맞닥뜨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보존과학의 기본 성격상 일정 기간의 시뮬레이션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보존법을 택하여 벽화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벽화에 적용되었던 화학 안료막 보존법이 오히려 벽화의 변색과 부식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를 고려하면 벽화에 대한 보존과학적 기법 적용은 보다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¹⁵⁾ 그럼에도 현재의 상황은 고분벽화 연구자와 보존과학 전문가에게 모순적 태도와 결정을 요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벽화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과학적 기법의 연구와 적용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유산 등재 이전부터 UNESCO를 비롯하여 상당수의 국제기관과 국가

14) 전호태, 2004,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교출판부.

15) 耿鐵華, 1993, 『集安高句麗古墓壁畫及其保護』,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들이 북한 소재 고분벽화 보존을 위해 기울인 국제적인 노력은 주목 받고 평가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북한의 요청으로 시작된 북한의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일련의 조사와 보존 활동은 수차례에 걸쳐 10년 이상 진행되었다.¹⁶⁾ 이를 통해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진파리1호분, 약수리벽화분, 수산리벽화분 등이 벽화의 심각한 훼손, 소멸의 위기를 넘겼다. 수산리벽화분의 경우, 보존상의 위기를 수차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는 모범적인 보존과학 조치와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평가, 선정되었다.¹⁷⁾

그러나 수산리벽화분도 유적 보존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는 않고 있다. 무덤칸의 벽체와 안료층 사이가 벌어지며 빈틈에 공기가 차는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¹⁸⁾ 정기적으로 벽체와 안료층 사이의 공기를 빼야 한다. 안료층을 덮고 있는 붉은 곰팡이와 검은 곰팡이를 제거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곰팡이가 안료층을 덮으며 벽화 변색의 원인이 되는 현상은 중국 소재 고분벽화에서도 확인되지만 이를 중단시키거나 제거할 적절한 방안은 중국 보존과학계에서도 연구중이다. 북한의 경우를 고려할 때 국제적 공동연구가 절실한 분야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다.

북한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분벽화의 보존 처리에는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세계 보존과학계에서 쌓아 온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지역별, 혹은 개별 고분벽화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공동의 논의 및 시뮬레이션, 이에 대한 평가 등이 필요하다. 북한과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벽화는 유사한 환경 조건 아래 있으므로 양국의 보존과학계와 한국, 일본 등 유사한 유적에 대한 보존과학 분야의 기술 능력을 축적한 나라들 사이의 공조를 통한 유적 보존처리가 적극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에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UNESCO, ICOMOS,

16) Conservation of Mural Paintings and Historical Sites by Rodolfo Lujan, Serial No. FMR/CLT/CH/91/102, Paris, 1991 : UNESCO Expert Mission to the DPR of Korea for the review of the Nomination File and elaboration of a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of the Koguryo tombs, 5-12 August 2000, Reported by Ariane Perrin.

17) Photo Exhibition for the Preservation of the World Heritage Site of the Koguryo Tombs and Mural Painting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rom 12 to 26 October 2012 at Salle des Pas Perdus, UNESCO Headquarters, in Paris.

18) 필자의 방북조사(1차 : 2004. 6. 8~6. 15, 2차 : 2005. 7. 19~7. 30)에서도 확인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2005, 『남북공동유적조사보고서 평양일대 고구려유적』의 '벽화고분' 부분에서도 언급하였다.

ICCROM 전문가들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고구려 고분벽화 보존처리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는 UNESCO와 같은 기존의 국제기구 외에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 관심과 연구자료 축적, 공유를 담당할 국제적인 연구 post가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기관은 북한과 중국의 대학 연구소나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라는 형태로 설립될 수도 있으며 한국, 일본, 그 외의 국가에 세워질 수도 있지만 고분벽화 연구 및 보존 자료의 Data Bank 및 전문연구자 양성 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연구 post는 고분벽화 연구 및 보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가마다 세워져 각 국의 연구 post들이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보존과학적 차원의 국제적 관심과 현장 보존 활동 참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벽화가 현재와 같은 보존 상태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 유적에 대한 기록 유지 활동도 적극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을 듯하다. 고분벽화의 기록 유지 및 보존을 위한 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정밀 촬영 및 모사도의 제작이라고 하겠다. 유적 촬영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고 관련기기의 개발도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D 디지털 촬영기, 3D 스캐너, 적외선 촬영기를 활용한 벽화 및 고분 내부와 외부 촬영 작업,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의 정리, 분석, Data Base화는 유적 기록 보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유적도 기록 보존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벽화 모사는 일제강점기 이래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 성과에 대한 점검과 평가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¹⁹⁾ 특히 북한에서는 1950년대부터 벽화 모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종래에는 모사화가 예술 장르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그러나 중국 소재 고분벽화의 경우, 일제강점기 이후 전문적인 모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분벽화 별로 제한적으로 진행된 모사의 결과물 가운데에도 회화적으로 정밀성과 전문성에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수준의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북한의 사례

19) 전호태, 2006, 「일제강점기 고구려 무덤벽화 모사도의 자료적 가치와 의미」, 『고구려 무덤벽화-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모사도』, 국립중앙박물관 ; 박아림, 2006, 「高句麗 古墳壁畫 기초자료 정리와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13, 동북아역사재단.

20) 전호태, 2014, 「시원에서 새 지평을 찾으려 한 화가 정현웅」(근간).

와 같이 벽화 모사화가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은 것도 아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 고분벽화의 변색, 훼손, 박락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유적별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벽화 모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국가박물관이나 지방 문화재관리기관 차원의 벽화 모사를 통한 기록 유지가 쉽지 않다면 국제기관이나 관련 국가 연구 post 소속 전문화가의 참여를 통한 모사 작업 진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벽화 모사를 통한 기록 유지와 관련하여 주목될 부분은 벽화고분의 2D 및 3D 복원이다. 한국의 역사연구기관이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고구려 고분벽화 및 고대 궁전지 벽화의 2D 복원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한계를 안고 있지만 유적의 기록 보존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큰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²¹⁾ 고대 유적을 장식하던 벽화가 지니는 보존상의 취약점을 고려할 때 이런 형태의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까닭이다. 이런 작업은 차후 북한, 중국의 연구 post들과 공조하여 좀 더 풍부한 유적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정리하며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전문가 양성과 유적관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유적 가운데 성이나 일반 고분과 달리 벽화고분은 보존 관리상의 취약점을 많이 지니고 있다. 고분벽화가 보존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유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때문에 이런 종류의 유적 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현장 관리에 투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별 유적에 전문 인력이 관리 요원으로 상시적으로 투입되기는 쉽지 않다.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현장 근무 여건도 매우 열악하여 전문 인력에게 적절한 대우를 보장하며 유적 관리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기도 어렵다.

위의 여러 가지 난점을 고려할 때, 벽화고분 관리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할 일

21)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분벽화 디지털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덕흥리벽화분, 강서대묘, 수산리벽화분, 안악 3호분 벽화를 복원하였고,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아프리카시압 궁전지 벽화의 복원도 진행하였다.(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자료마당 참고) 벽화 모사에 대한 사전 검토 연구 성과로는 김식, 2006, 「전통재료와 기법을 이용한 고구려 고분벽화의 현상모사 방안」, 『동북아역사논총』 13,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은 유적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문가의 양성이다. 북한과 중국의 경우 고구려 벽화고분 연구, 보존, 관리 전문가는 숫자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전문가 양성기관도 제대로 설립되어 있지 않다. 대학 소속 연구소나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벽화고분 관련 업무와 연구를 맡다가 전문가에 준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경우도 손에 꼽을 정도이다. 역시 위에서 언급한 연구 post를 통한 인력 양성이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북한의 세계유산 등재 벽화고분 보존활동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기구와의 공조 아래 진행되는 중장기 단위의 특정 사업을 통해 유적 보존 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출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²²⁾ 이런 사례로 볼 때 유적 보존을 위한 중장기적 사업을 추진, 확정,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연구 post 네트워크를 구성, 가동하면서 북한과 중국 소재 벽화고분 관리 및 연구와 관련한 사업을 구상하여 기금을 모으고 단계별 진행을 시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적의 보존, 관리, 연구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일은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유적 관리라고 하겠다. 벽화고분과 같이 주변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유적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되었던 것과 같은 벽화 훼손, 박락의 범위를 좁히고 속도를 늦추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이 역시 온습도 측정기의 설치와 관리, 벽화 훼손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제거, 고분의 안정성을 해치는 구조물의 변경 등의 사전 조치를 전제로 한 견해이다. 고분의 구조, 벽화 채색 방법, 안료 및 아교의 재료적 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 분석, 정리, 평가 및 후속조치의 검토가 선행된 후에 논의될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되기를 기다리면서 유적 관리 방식을 검토하기에는 사안이 시급하다. 그간 진행된 자연적, 인위적 환경조건의 변화로 말미암은 벽화의 변색, 퇴색, 침식, 박락은 계속되고 있는 까닭이다. 유적 관리 기관의 일원화, 유적 보존 관리 지침의 정비, 유적 현황 계측과 변경 사항에 대한 상시적 보고 및 관리 체계 마련, 유적 현황 변경에 따른 임시적 보존 조치 내용 적시, 상시적 보존 활동 명기 등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22) Preservation of the Koguryo Kingdom Tombs, UNESCO, September 2005.

부분이 정비, 정리되면 고분벽화의 보존, 관리 전문 인력이 유적 현장에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정 기간 계속되더라도 유적 관리의 효율성과 실제성을 일정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와 활용

34기의 세계유산 등재 유적을 포함한 122기의 고구려 벽화고분은 벽화 내용에 담긴 문화사적, 예술사적 가치와 의미는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유적의 재발견 및 조사 이후 1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고구려 고분벽화가 유적, 제재, 기법 등의 기초적인 단위나 내용별로도 제대로 검토, 정리, 연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²³⁾ 고구려 벽화고분은 여전히 기초 자료의 Data Base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 고대문화의 다른 자료들처럼 고구려 벽화고분도 기초 자료의 정리를 포함한 여러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유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고구려 역사와 문화의 생생한 현장 자료일 뿐 아니라 동서교류를 포함한 동아시아 고대 역사문화의 주요한 기초 자료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고구려 벽화고분의 기초적 정리와 연구는 시급한 과제이다. 고구려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도 벽화고분 분야 전문 연구자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현실적 연구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분벽화’가 지닌 가치와 의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을 감안하면 그 자체로 연구자들을 둘러싼 환경은 매우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벽화고분이라는 유적에 대한 내외의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학문분야에서 유적별, 주제별, 제재별로 고분벽화 연구를 시도할 수도 있고 학제적 공동연구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실제 연구 여건은 크게 향상된 셈이다.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상의 여러 가지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지만 추가적으로 검토되거나 이전의 연구상의 흐름을 이으면서 좀 더 관심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는 분야도 있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한국 고대문화와 예술에서 지니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비중과 가치, 내용 등이다. 한국 고대 예술의 큰 흐름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과 평가

23) 연구사적 정리는 필자의 글 참조.(전호태, 2004,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교출판부)

는 일찍부터 제기되었지만 단계별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 역시 현재적 과제의 하나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문화의 전통적 흐름과 고구려 문화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할 때에도 고구려 고분벽화는 주요한 자료이자 전거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삼국에서 남북국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 계승관계를 살펴보고자 할 때, 매개고리이자 문화적 실체로서 고구려 고분벽화의 위상과 내용에 대한 검토, 평가는 필수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남북국시대의 통일신라와 발해 사이에 중국의 당 문화 외의 문화적 공통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에 내재한 문화예술적 전통과 가치에 대한 재인식, 재평가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라 하겠다.

고구려 고분벽화와 한국 현대 문화예술의 흐름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현재적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흐름 안에 내재한 보편성, 국제성과 개성, 전통성의 어우러짐을 고려하면 한국 현대 문화예술의 내용 및 지향을 설정하고자 할 때 고구려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는 선결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문화경쟁시대로 일컫는 21세기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한국사회로서는 동아시아 문화강국의 위상과 경험을 담고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와 이해, 문화콘텐츠화는 필수적, 우선적이라고 하겠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기원과 계통, 성격을 달리하는 매우 다양한 제재가 포함되어 있다. 동북아시아 사회문화를 기반으로 한 것도 있고 중국의 중원문화에서 비롯된 것도 있으며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인도에서 기원한 것도 있다. 문화 혼합의 결과물도 있고 신화종교의 흐름 안에서 재조합, 재창조의 결과물로 등장한 것도 있다. 이런 다양한 벽화 제재와 구성방식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주요한 특징이기도 하고 고구려 문화예술의 특징적 흐름을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한국 현대 문화예술의 지향과 관련하여 고구려 고분벽화의 이러한 내용 및 전개는 문화콘텐츠적 측면에서도 주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이는 고구려 고분벽화가 문화콘텐츠 산업 측면에서도 개발 및 활용 전망이 매우 높음을 뜻한다.²⁴⁾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의 활성화, 이 분야 관련 전문 연구 인력의 적극적 양성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하겠다.

24) 고구려 고분벽화의 문화콘텐츠적 활용에 대한 논의는 박아림, 2008, 「고구려의 문화상품 디자인 콘텐츠 개발」, 『고구려발해연구』 31, 고구려발해학회 참조.

맺음말

북한과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고구려 유적의 현황 및 보존, 관리에 대한 내외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북한의 고구려 벽화고분에 대해서는 세계유산 등재 이전부터 북한의 문화재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 UNESCO, ICCROM, ICOMOS와 같은 국제기구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참여, 한국과 일본에서의 재정 지원에 힘입어 보존, 관리를 위한 노력이 집중적으로 기울여졌다. 이런 노력의 성과는 2012년 파리 유네스코 본부 사진 전시를 통해 내외에 공개되어 추가적인 보존, 관리 활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반면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의 보존, 관리 활동은 중국 문화재 당국에 의해 서만 진행되고 있어 벽화고분 보존 현황 및 과제는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북한의 경우와는 다른 의미에서 전문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 고구려 벽화고분은 다른 유적과 달리 보존 환경의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때문에 현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연구 post의 설립, 국제적 네트워크 구성, 보존 및 연구 정보의 수집과 공유 등의 조치들이 요구된다.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 환경의 유지 관리와 동시에 추진,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은 유적 현상에 대한 기록 보존 차원의 활동과 이로 말미암아 확보되는 학술정보의 축적과 활용이다. 기록 보존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유적 촬영, 벽화 모사 등의 활동이다. 북한의 경우 벽화 모사가 예술장르로 성립하여 모사화 전공자들이 세대별로 다수 양성되었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 중국에서도 정교한 벽화 모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 협조체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고구려 문화예술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 차원의 문화교류 및 신앙종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역사문화 자료이다. 한국 고대문화의 흐름의 중심 줄기인 동시에 한국 현대문화의 지향을 결정하는 데에 한국 고대사회 문화경험의 산물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연구 성과 축적은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식, 2006, 「전통재료와 기법을 이용한 고구려 고분벽화의 현상모사 방안」, 『동북아역사논총』 13, 동북아역사재단.
- 남북역사학자협의회·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남북공동 고구려벽화고분 보존실태 조사보고서』.
- 남일룡, 2004, 「새로운 유적유물 발굴」, 『조선』 569, 조선화보사.
- 동북아역사재단, 2005, 『남북공동유적조사보고서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 동북아역사재단, 2011, 『옥도리 고구려 벽화무덤』.
- 박아림, 2006, 「高句麗 古墳壁畫 기초자료 정리와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13, 동북아역사재단.
- 박아림, 2008, 「고구려의 문화상품 디자인 콘텐츠 개발」, 『고구려발해연구』 31, 고구려발해학회.
- 신미아, 2011, 「북한과 중국내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 등재관련 주요쟁점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40, 고구려발해학회.
- 金虎兪, 2002, 「북한소재 고구려 벽화고분의 보존과 관리-세계문화유산등재신청 유적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25, 한국고대사학회.
- 전호태, 2004,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교출판부.
- 전호태, 2004, 「북한 소재 고구려 고분벽화의 보존과 관리방안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35, 한국고대사학회.
- 전호태, 2006, 「일제강점기 고구려 무덤벽화 모사도의 자료적 가치와 의미」, 『고구려 무덤벽화-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모사도』, 국립중앙박물관.
- 전호태, 2009, 「고구려 집안권 벽화고분의 현황과 과제」, 『울산사학』 14.
- 전호태, 2011, 「고구려 평양권 벽화고분의 현황과 과제」, 『울산사학』 15.
- 전호태, 2012,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와 중앙아시아의 교류」, 『韓國古代史研究』 68, 한국고대사학회.
- 전호태, 2014, 「시원에서 새 지평을 찾으려 한 화가 정현웅」(근간)
- 평양 조선중앙통신·서울 연합뉴스, 2014.5.26. 「평양 근교서 고구려 벽화무덤 또 발굴」.
- 耿鐵華, 1993, 「集安高句麗古墓壁畫及其保護」,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 耿鐵華, 2008, 『高句麗古墓壁畫研究』, 吉林大學出版社.
- 共同通信社, 2005, 『高句麗壁畫古墳』.

Capital Cities and Tombs of the Ancient Koguryo Kingdom, China, 2003(WHC file name, 1135.pdf).

Conservation of Mural Paintings and Historical Sites by Rodolfo Lujan, Serial No. FMR/CLT/CH/91/102, Paris, 1991.

Mission Report of Werner SCHMID, Representative of ICCROM, Rome, Italy, 2000.

Photo Exhibition for the Preservation of the World Heritage Site of the Koguryo Tombs and Mural Painting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rom 12 to 26 October 2012 at Salle des Pas Perdus, UNESCO Headquarters, in Paris.

Preservation of the Koguryo Kingdom Tombs, UNESCO, September 2005.

UNESCO expert mission to the DPR of Korea for the finalization of the World Heritage Nomination File of the Complex of Koguryo tombs located in DPRK (19-31 July 2001), Mission report prepared by Ariane Perrin.

UNESCO Expert Mission to the DPR of Korea for the review of the Nomination File and elaboration of a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of the Koguryo tombs, 5-12 August 2000, Reported by Ariane Perrin.

UNESCO WHC Mission to North Korea Report by Melanie Pomeroy-Kellinger(October 2000)

토론 | <세계문화유산 - 고구려 벽화고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정호섭(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고구려 벽화고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대체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견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궁금한 몇 가지 내용과 함께 발표자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분야 연구에 매진하셨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여쭙 보고자 합니다.

1. 중국의 등재신청보고서를 제외하고는 오희분 1호묘, 오희분 3호묘에 벽화에 대한 정보를 소개한 자료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행한 여러보고서나 최근 간행된 연구서 등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보가 중국의 연구기관이나 학자들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아울러 오희분 1호묘나 3호묘는 무덤 양식이나 주변 4호묘, 5호묘 등으로 볼 때 6세기 후반경의 사신도 계열의 고분에 속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호묘에서 5호묘에 이르는 오희분 고분의 피장자의 성격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 현재 남아있는 모사도는 주로 일제강점기에 그려진 것으로 벽화의 원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자료입니다만, 최근에는 정밀한 사진, 3D 스캔, 적외선 영상 등 다양한 기록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과거 사진이나 영상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에는 벽화 모사가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현재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벽화 모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그려지는 모사도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적 시점에서도 모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고분벽화의 기초자료 정리나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기존 자료의 취합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도 부실한 것이 많고, 각종 연구에 다

수 활용되는 벽화고분도 약 30-40여기에 한정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120여기에 달하는 벽화고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알려진 자료만으로도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중국의 벽화고분 가운데 오회분 4호묘와 5호묘가 개방된 바 있거나 현재 개방중입니다. 매년 볼 때마다 벽화 훼손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벽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벽화의 보존을 위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현재 벽화훼손에 대한 문제도 시급하지만, 더 이상 훼손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향후 북한의 일부 벽화고분들도 중국의 경우와 같은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벽화고분들을 공개하고 있는 현실에서 벽화의 훼손을 막는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약품 등을 통한 보존처리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모두 존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벽화보존을 위해서 긴급 보존 처리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好太王碑发现初期的捶拓与研究

耿铁华 中国 通化师范大学 教授

东晋安帝义熙十年(公元414年)九月廿九日,高句丽长寿王为其父广开土境平安好太王举行了隆重的安葬仪式,并遵照其父生前的教言建立起一座巨大的墓碑,铭记勋绩,铭刻守墓烟户来源、数量及其制度。今年,适逢好太王碑建立1600年,中国、韩国、日本等国的学者举行各种学术会议进行纪念。在此情况下,回顾一下好太王碑发现初期的捶拓和研究情况是十分必要的。

一 好太王碑发现

关于好太王碑发现的时间,一直是学者们关注的问题。一百多年来,凡是研究好太王碑的学者大都不能回避这一问题。有的学者对这一问题还进行过专门的调查与研究,多数学者则是从诸多说法中选取自认为较为合理的说法而已。最早进行调查、研究、著录的中国学者王志修、潘祖荫、盛昱、陆心源、郑文焯、荣禧、罗振玉、叶昌炽、杨守敬、张凤台、付云龙、顾燮光、刘承干、欧阳辅、谈国桓、张延厚等,都在自己的著述中涉及到好太王碑发现初期的状况。也都成为讨论好太王碑发现时间的原始资料。概括起来,在20世纪初,大体形成了五种意见:

其一,同治末年说,以刘承干为代表。1922年他编成《海东金石苑补遗》,其中收录了好太王碑释文和郑文焯、罗振玉等人的著录。他在释文后附了一段跋尾:“此碑同治末年始传入京师,吴县潘文勤公祖荫先得之。海东工人不善拓墨,但就石勾勒,才可辨字而已。光绪己丑(1889年)宗室伯羲祭酒盛昱始集资,令厂肆碑估李云从裹粮往拓,于是流传稍广。”

其二,光绪元年说,以顾燮光为代表。1918年他发表了《梦碧簃石言》,文中记载:“戴君葵甫为余言:好太王碑在奉天省辑安县东门外十里将军墓南里许。光绪元年开垦东边荒地始发见。碑面为苍苔漫没,剔出极难。土人以粪涂碑面,俟乾,纵火焚之。苍苔去而碑裂矣。按此碑字大如碗,方严厚整,在隶楷之间。”

其三,光绪三年说,以王志修为代表。1895年他的《高句丽永乐太王古碑歌考》刊行,其中包括《高句丽永乐太王古碑歌》和《高句丽永乐太王碑考》。《高句丽永乐太王古碑歌》诗句中有“我皇驭宇之三载,衽席黎首开边疆。奇文自有鬼神护,逢时不敢名山藏。伐林架木拓碑出,得者宝之同琳琅。”已明确指出好太王

碑是光绪三年时发现的。《高句丽永乐太王碑考》一文中再次强调：“碑在奉天东境，兴京同知属怀仁县东三百六十里通沟口。光绪三年开边禁，以通沟设巡检。”他很可能见过发现好太王碑的怀仁书启关月山，才有诗文所记。可能因为诗文的缘故，没能引起学者的注意。

其四，光绪六年说，以叶昌炽、欧阳辅为代表。1909年，叶昌炽《语石》一书印刷发行，收入《奉天一则》，记载了好太王碑的发现：“高句丽好太王碑，在奉天怀仁县东三百九十里通沟口，高三丈余。其文四面环刻，略如平百济碑。光绪六年，边民斩山刊木始得之。穷边无纸墨，土人以径尺皮纸捣煤汁拓之。苔藓封蚀，其坳垤之处，拓者又以意描画，往往失真。”1923年，欧阳辅《集古求真》第三卷《高丽好太王碑》一文记载：“高丽好太王碑，石高二丈余，四面环刻，由南面起，而西而北而东。计南向十一行，西十行，北十三行，东九行，行俱四十一字，字大三四寸，似楷似隶。其文叙述高丽开国武功，颇为煊赫。石在奉天怀仁县东四百里通沟口。光绪六年，边民斩山刊木始得发现，中土乃有拓本。故以前未见著录。即罗丽琳琅，及海东金石苑，亦无此目。唯陆心源有题跋，杨守敬刻双钩本，而叶昌炽言之綦详。谓初出时，穷边无纸墨，以径尺皮纸，捣煤汁拓之，其坳垤处，拓者又以意描画，往往失真。石质粗驳，又经野烧，渐多剥损。近拓已大半模糊。”

其五，光绪初年说，以谈国桓、张延厚为代表。谈国桓在《手札》中记载：“近得高句丽好太王碑，尚不恶，当在光绪初叶时所拓。此碑最初历史，弟有所知，致贡左右，籍备参考。奉天怀仁县设治之时，首膺其选者为章君樾，字幼樵。幕中关君月山，癖于金石，公余访诸野，获此碑于荒烟蔓草中，喜欲狂，手拓数字，分赠同好，弟髫年犹及见之。字颇精整。”

1925年，张延厚在《跋语》中记载：“此碑在奉天省辑安县鸭绿江滨，历代金石家未有著录。胜清光绪初，吴县潘郑安尚书始访得之。”1930年印行的《辑安县志》采用“光绪初年”说。

到了20世纪末，好太王碑研究学者逐渐摒弃了“同治末年”说，形成了三种意见：

第一种意见：光绪元年或二年发现。

王健群先生引征刘承干的《海东金石苑补遗》，张延厚《好太王碑跋语》，顾燮

光《梦碧簏石言》，谈国桓《手札》等记载，主张好太王碑是光绪初年发现。认为，明代以后，人们虽然知道有个碑“却根本不知道是高句丽好太王碑，这当然不能算是发现。直到光绪初年，公元1875年前后，才被中国的金石学家所发现，明确了它是高句丽广开土王墓碑。”^①同时，王健群还注意到，“盛京将军崇实于光绪元年呈请清政府同意，派出设治委员，调查耕地，清理户口，决定管理事宜。光绪二年，正式设立怀仁县(后改为桓仁县)。好太王碑所在地区，称为通沟口子，当时归怀仁县管辖。”于是得出结论：“好太王碑是在光绪初年(元年或二年左右)为章樾书启，金石爱好者关月山所发现。”^②

第二种意见：光绪六年发现。

刘永智先生主要依据叶昌炽《语石》“奉天一则”记载，认为好太王碑拓本“光绪六年，边民斩山刊木始得之。穷边无纸墨，土人以径尺皮纸，捣煤汁拓之。苔藓封蚀，其坳垤之处，

拓者又以意描画，往往失真。”刘永智评价，其语言真切，若亲临其境。叶氏治学严谨，绝无任意乱记之理。同时还引征金毓黻《东北通史》和日本1889年出版的《会余录》中横井忠直文，肯定好太王碑为光绪六年(1880年)发现。值得注意的是，刘永智在分析谈国桓《手札》时，肯定了“关月山为发现此碑之人，则是正确的。”^③

第三种意见：光绪三年发现。

1985年夏秋之际，我研究了国内外学者关于好太王碑发现时间的相关论文和文献，得出了关月山于光绪三年(1877年)发现好太王碑的结论。主要依据有三点：其一，晚清至民国年间，诸家的记载，谈国桓也好，叶昌炽也好，顾燮光也好，张延厚也好……尽管也提出了光绪初年、光绪元年、光绪六年之说，都未能准确而详尽地把发现人与具体时间相联系起来。只有谈国桓提出关月山发现好太王碑，时间却笼统地定为“光绪初叶”。^④近年来，王健群、刘永智二位学者，虽然认为发现时间不同，却都肯定是怀仁知县章樾书启关月山发现。据《奉天通志》记载，怀仁县建于光绪三年七月。这也就是好太王碑发现时间的上限!

其二，关于好太王碑发现时间的下限，有两点值得注意。一点是荣禧在《高句丽永乐太王墓碑谰言》中指出：“余于光绪八年，曾请山东布衣元丹山往拓，得获全璧。”一般学者都赞同光绪八年获得好太王碑完整拓本。那么，好太王碑肯定在光

绪三年至八年间发现了。另一点，张延厚在《好太王碑跋语》中讲道：“又闻寅卯间，碑下截毁于火，为惋惜久之。”这是指好太王碑发现后，为清除苔藓，曾用火焚的事。调查已证实存在火焚除苔之事。时间只有张延厚一人提及。

光绪年间有寅卯三对：

光绪四年	戊寅	1878年	光绪五年	己卯	1879年
光绪十六年	庚寅	1890年	光绪十七年	辛卯	1891年
光绪廿八年	壬寅	1902年	光绪廿九年	癸卯	1903年

荣禧已在光绪八年得到好太王碑完整拓本，火焚除苔只能在光绪四、五年间。那么，关月光绪三年秋发现好太王碑，转年请知县同意火焚除苔就合乎情理了。

其三，王志修在其《高句丽永乐太王古碑歌》中已指出好太王碑是光绪三年时发现。人们多把此《碑歌》当成文学作品，而未加注意。碑歌曰：

鸭绿江水流汤汤，有碑矗矗江之阳。
大书深刻石四面，千秋风雨霉苔苍。
手剔霉苔索点画，追摹秦汉超隋唐。
首从创业述祖德，始基丕立邹牟王。
白云其母河伯女，有如元鸟降生商。

.....

稽古名不录欧赵，访碑近未逢孙黄。
风霜阅历几千载，势将寂寞沉穷荒。
我皇驭宇之三载，衽席黎首开边疆。
奇文自有鬼神护，逢时不敢名山藏。
伐林架木拓碑出，得者宝之同琳琅。

.....

好太王碑发现不久，王志修就曾到现场观察和捶拓，对好太王碑的位置、形制、特点及内容，叙述得颇为准确。他在《高句丽永乐太王碑考》中指出：“碑在奉天东境，兴京同知属怀仁县东三百六十里通沟口。光绪三年开边禁，以通沟设巡检。地有古城基尚存。碑立古城东北鸭绿江岸，东向，高二丈余，宽八尺强，厚得半。无趺屨盘螭饰。”很明显，他记录好太王碑发现在“我皇驭宇之三载”——光绪三年。这种论断，出自一位对金石文字及诗词功力深厚的文官之手，实在是难能可贵

的。而且《碑歌》连同《高句丽永乐太王碑考》石印于光绪二十一年(1895年)，年代最早，其可信程度是很高的。^⑤而且王志修记录的好太王碑发现时间与桓仁建县、火焚除苔，完全相符。

因此，可以得出结论：好太王碑重新发现是在光绪三年——1877年。发现人是怀仁县书启关月山。

二 火焚除苔

好太王碑被重新发现的时候，碑身长满了青苔，几乎难以辨识文字。好太王碑处在鸭绿江右岸，长白山支脉的山坡地。经过二百多年的封禁，草木丛生，人迹罕至。当地气候温和湿润，降水丰富。就是在阳光照射的岩石峭壁上，也长满青苔。矗立在树木荒草之中的好太王碑，苔藓滋生，封蚀之状是可以想见的。王志修在《高句丽永乐太王古碑歌》中写到：“大书深刻石四面，千秋风雨霉苔苍。手剔霉苔索点画，追摹秦汉超隋唐。”“千秋风雨霉苔苍”，说明了好太王碑发现之初被苍苔漫没的情况。只有“手剔霉苔”之后才能看见文字，进行点画辨识，追忆秦汉至隋唐时期高句丽兴衰的历史。研读王志修《碑歌》全文，可知好太王碑发现不久他便前来调查。他曾任奉天军粮署同知，久居奉天，对辽东金石刻辞知之颇多。《碑歌》中他曾表白，“自我东来考典制，搜罗金石盈东厢。得此奇碑审初拓，恍如石鼓征陈仓。”加之他在《碑考》中对好太王碑的位置、方向、形制及文字的描述都比其他学者精当。另外，还写出了通沟古城，好太王陵及文字砖等内容，也说明他到过通沟。而且很可能是在关月山发现好太王碑之后不久，火焚除苔之前。极有可能在光绪三年的秋天。他亲自“手剔霉苔索点画”。如若青苔除掉之后再来，就根本不存在什么“手剔霉苔”之举了。甚至可以详尽地记录下好太王碑文字和火焚除苔后的状况。除了王志修之外，记载好太王碑发现之初被青苔漫没的学者大有人在。有的是到过通沟，有的听别人讲起。如顾燮光在《梦碧簃石言》中就记录了别人讲过的情况，“戴君葵甫为余言：好太王碑在奉天省辑安县东门外十里将军墓南里许。光绪元年开垦东边荒地始发现。碑面为苍苔漫没，剔除极难。”关月山发现好太王碑之后，欣喜欲狂，手拓数字，分赠同好。他应该急于得到全拓。而最大

的困难就是好太王碑被苔藓封蚀。不除掉苔藓，绝不可能拓出完整拓本。于是，关月山向怀仁知县章樾报告此事。章樾以其出身、才情，办事安详等，一定会将好太王碑发现当成本县设治后的一件大事。一面呈文上报，一面着令关月山派人看守，除去青苔，以供捶拓和观瞻。好太王碑附近几无人家，关月山等人找到了一位叫初天富的农民来担当此任。从此，这位普普通通的农民的名字同好太王碑联系在一起，成为中外学者研究好太王碑时一定要提到的重要人物。

初天富(1847~1918年)祖籍山东文登。清同治末年和他哥哥初天贵闯关东，越边来到通沟一带。初天贵在上套村安家，初天富就在好太王碑附近开荒种地。光绪三年秋，怀仁县知县的书启关月山来到通沟，发现了好太王碑并手拓数字。这样的大事，初天富一定知道。此时的初天富不过三十岁，正是年富力强的庄稼汉。关月山等人要他看碑并除掉青苔是很合适的。光绪四年至五年间，初天富大约想了许多办法，最后采用火烧的办法，才算把青苔除掉了。以火焚石，当然会给碑石带来一定的伤害。这是一个青年农民难以料到的。关于好太王碑发现后，火焚除苔的记录是很多的——

闻此碑数年前有佗父某，以苔藓过厚，不易拓，用马矢烧之。而碑石本粗劣，经此锻炼，恒片片坠。碑乃自此毁矣！物成败有数，惜哉！⑥

光绪六年，边民斩山刊木始得之。……苔藓封蚀，其坳垤之处，拓者又以意描画，往往失真。……闻石质粗驳，又经野烧，今已渐剥损矣。⑦

碑出辽东凤凰城。十余年前传来拓本，或云是庚子中日之役觅得。……曹君云：“碑初出时，人争拓之，土人以其践踏禾苗，以牛粪涂其上，用火烧之，故剥蚀乃尔。”⑧

光绪元年开垦东边荒地始发见。碑面为苍苔漫没，剔除极难。土人以粪涂碑面，俟干，纵火焚之。苍苔去而碑裂矣。⑨

此碑在奉天省辑安县鸭绿江滨，历代金石家未有著录。盛清光绪初，吴县潘郑安尚书始访得之。……又闻寅卯间，碑下截毁于火，为惋惜久之。⑩

惜多历年所，风雨侵蚀，已渐剥损，清晰处尚堪入目。光绪初年，拓者因石上多苔藓，用牛粪敷其上，烧之，以致剥削太多。⑪

(初天富)三十年前就住在此地，受当时知县之命，捶制拓本。因碑面有长华(苔藓)，曾以火烧碑，致使隅角损缺。⑫

此碑三十年前，碑面长满长华(苔藓)，文字遗存与否，无法弄清。他(指初天富)奉知县之命，烧去长华，露出文字。当烧碑之时，使碑一部分毁损。⑬

听老人说，以前由于碑身长满青苔，不好拓字，在碑上抹上马粪(当时左近无牛)，干了用火烧，把碑烧裂了。⑭

初大碑(指初天富之子初均德)还说：过去碑上青苔挺老厚。后来在青苔上抹上牛粪，牛粪干了放火烧，把青苔烧掉才拓出字来。烧的时候，大碑爆了一块。⑮

听说碑上原来长满青苔，后来说沈阳来人要看字。老初头想出了个法子，在碑上涂上牛粪，牛粪干了倒上火油烧。青苔去掉了，碑也崩了一块。⑯

上面引征的文献资料和调查记录，有学者的记录，有百姓的回忆，有中国的，也有外国的。虽然大都是亲闻，与亲历者关于苍苔漫没，霉苔苍的记录是相吻合的。特别是对初均德的调查，就更真实些。这些重要资料相互印证，加上好太王碑碑石伤损情况，完全证实了好太王碑重新发现后火焚除苔的事实。从上面引征的资料中，我们可以了解到以下情况：

第一，好太王碑重新发现后，上面长满了青苔。初天富是奉怀仁县知县章樾之命清除苔藓的。清除苔藓的办法，是初天富在实践中摸索出来的。

第二，火焚除苔的目的，主要是弄清文字保存状况，方便捶拓。至于“碑初出时，人争拓之，土人以其践踏禾苗，以牛粪涂其上，用火烧之”的说法，难以成立。好太王碑地处偏远，拓碑者并非多至践踏禾苗令人反感到烧碑的程度。

第三，火焚除苔达到了目的——苔藓除掉了。可是，好太王碑却遭到了一次人为的重大伤害。坦率地讲，初天富奉命清除苔藓，同时保护此碑。决不会有意伤害它。就是当时的知县章樾，书启关月山，其本意也是的保护、研究，以为本县之荣耀。火焚除苔，伤及好太王碑，实在是出于无奈。

根据实地观察，好太王碑上的伤痕，都不是一般自然界风雨剥蚀所能造成的。而是人为火焚造成的伤损，这也证明了当年好太王碑确实经过火焚除苔。诸多学者记载了好太王碑被火焚烧的情况，一传再传，致使记载的伤损程度不同。目前上可见的伤痕主要有三处：

第一处在碑石第一面至第二面的转角，距碑基2米左右，碑石崩掉缺口纵长约50多厘米，深约30厘米。同时造成两条斜向大裂隙，波及第一面的裂隙斜长2.20米。波及第二面的裂隙斜长2.35米。伤及第一面第7~11行文字15个左右。伤及第二面第1~6

行文字20个左右。

第二处伤损在第一面第11行的中下部和靠近基石部分，伤及文字第9~11行下部，11行中部约10余字。

第三处伤损在第二面最后一行的下部和第三面下部第1~7行。第二面最后一行伤损文字约10余个。第三面第1~7行下部碑石剥落面积约0.8平方米，伤损文字约50多个。第三面第1~3行中部碑石剥落，伤损文字约20余个。

至于其它伤损，裂痕较小，伤及文字无多。另有部分则是由于长年累月风雨剥蚀，原有伤损部分扩大所致。如第一面和第二面交界的裂痕后来有所扩大又伤及10多字，第二面上部和第三面上部剥蚀不清的30多个字等等。难以说清何时剥蚀、伤及的了。⑰

三 好太王碑捶拓

当怀仁县书启关月山在通沟荒烟漫草中发现了好太王碑的时候，中国的传拓技法已经到了炉火纯青的地步。不仅出现了专门以拓碑为业的拓工、碑贾，就是那些对金石古玩乐于搜求的官吏、学子中，亦不乏传拓高手。象关月山这样热心于金石的人，每到一地，必访碑碣石刻于野，随身携带纸墨与传拓工具。因此，一见好太王碑，欣喜欲狂，“手拓数字，分赠同好。”关月山只拓得数字，而未能得到全拓，不仅因好太王碑过于高大，更重要的是碑身布满了青苔，难以捶拓。于是，关月山一方面向朋友们讲述高句丽巨碑，另一方面请县令章樾同意清除苔藓，以便完成全面捶拓。於是，光绪四、五年间(戊寅、己卯，1878—1879年)，居住在好太王碑旁的农民初天富奉知县之命，火焚除苔。光绪六年(1880年)以后，才可能捶拓出完整的好太王碑拓本。

关月山其人的文献记载不多。谈国桓《手札》中记载：“近得高句丽好太王碑，尚不悉，当在光绪初叶时所拓。此碑最初历史，弟有所知，敢贡左右，藉备参考。奉天怀仁县设治之时，首膺其选者为章君樾，字幼樵。幕中关君月山，癖于金石，公余访诸野，获此碑于荒烟蔓草中，喜欲狂，手拓数字，分赠同好，弟髫年犹及见之。字颇精整。当时并未有全拓本，以碑高二丈余，宽六尺强，非筑层台不能从

事，风日之下，更不易措手也。”1929年8月25日，他给好太王碑一个拓本写的跋语中也提到此事：“光绪十一年，岁在乙酉，先君子宰承德首邑，晋引入都。章君代理县事。其书启西席关君月山，赠余手拓碑字数枚，每纸一字，即此碑也。字甚完整，拓工亦精。惜髫年不知宝贝，随手抛弃。”当此之时，谈国桓只有十六岁，在承德衙署中读书，见到关月山，讲起发现好太王碑之事，还将当时所拓碑字赠送给他。这些情况都应该是真实的。由此可知，关月山不仅是好太王碑的发现者，也是最先拓碑的人。由于碑高，加之苍苔漫没，不可能拓出完整拓本，也只能在碑的下部，人所能及的地方选拓出几个文字“分赠同好”。

经过火焚除苔，光绪六年(1880年)好太王碑可以捶拓完整拓本了。由于碑石过高，必须搭架子才能够得着碑的上部。山里树木很多，砍伐木料搭架子应该是不难的。正如叶昌炽在《奉天一则》中记载：“高句丽好太王碑，在奉天怀仁县东三百九十里通沟口，高三丈余。其文四面环刻，略如平百济碑。光绪六年，边民斩山刊木始得之。穷边无纸墨，土人以径尺皮纸捣煤汁拓之。苔藓封蚀，其坳垤之处，拓者又以意描画，往往失真。”所谓“光绪六年，边民斩山刊木始得之”。讲的正是捶拓完整拓本的时间和做法——时间很明确是“光绪六年”。方法首先是得搭架子，这就要“斩山刊木”——砍伐树木，修整后，搭起架子，才好上去，从头开始上纸拓碑，然后才能得到完整拓本。文中记录“光绪六年，……始得之。”

并不是说好太王碑发现时间，而是说好太王碑完整拓本“始得之”的时间。稍有一点古文基础的人都会这样理解的。此句讲述，光绪六年，边民经过斩山刊木搭架子，才开始得到好太王碑完整拓本。当时好太王碑附近已经有人居住了，发现或看见好太王碑根本不用“斩山刊木”。紧接着叶昌炽记录的仍然是拓本的情况：“穷边无纸墨，土人以径尺皮纸捣煤汁拓之。苔藓封蚀，其坳垤之处，拓者又以意描画，往往失真。”非常清楚，最初的拓本是用皮纸、煤汁拓出的。土人应该是指碑旁的初天富。

为了考释文字，弄清碑文内容及其记载的历史，关月山应该在火焚除苔后再次来到好太王碑前拓碑，或让初天富协助他拓碑。因此，初天富逐渐学会了捶拓碑文，进而受命保护并开始捶拓碑文。由于初天富没有文化，有时难免“以意描画”，而使文字“往往失真”。

关野贞在《满洲辑安县和平壤附近的高句丽遗迹》中记载：“在碑旁茅屋中，住

着一个叫初鹏度的，以拓碑为业。听他说：他今年(指1913年)六十六岁，三十年前就住在此地，受当时知县之命，拓制拓本，因碑面有长华(苔藓)，以火焚之，致使碑角欠损。又因碑面过粗，拓本文字不醒目，从十多年前起，在碑面文字周边的间隙处涂上石灰，以后每年以石灰处处修补。据我们详细观察，不仅文字周边涂以石灰，往往以石灰补其字划，有的字完全是在石灰上新刻的。而此等补足之字，大抵近似原字，但很难置信。”^⑮

关野贞1913年在好太王碑前调查时见到的初鹏度，实际上叫初天富，日本人因语言不通误记为初鹏度。他的哥哥叫初天贵，弟兄二人是从山东省文登县逃荒来到东北通沟的。他和关野贞谈到三十年前受知县之命就在这里拓碑。那么三十年前，应该是在1883年(光绪九年)前。这时，怀仁县书启关月山已经发现好太王碑，并让附近居住的初天富看护此碑，令其除去了碑上的苔藓，并逐渐学会拓碑。

好太王碑是一完整的角砾凝灰岩方柱，表面不平，特别是第一面，凸凹处可相差10—15厘米。加之千多年风雨剥蚀，气孔繁多，石齿锋利。最初的拓碑人以传统技法，将濡湿的宣纸复在碑上，稍加捶打，纸全部破碎!反复试之，难以奏效。当时拓工只带宣纸，又无它纸。只好采用古老的捶拓之法——用干宣纸复于碑上，勾出字形，再用墨廓填——这就出现了好太王碑最早的完整拓本：双勾加墨本!请注意，好太王碑的双勾加墨本与传统的双勾加墨本有所不同。传统的双勾加墨本是勾出字形后，在字形中填墨，如字帖一样，原字是墨字，而用在拓碑上，碑虽阴文，拓成的双勾加墨本上字也是墨字(与碑文阴刻白字相反)。用传统拓法作出的双勾加墨本，文字是墨色的。无论被拓的对像是墨书的字帖，还是阴刻在石上的文字，拓出的双勾加墨本都是白底黑字。使人一看便知是传统的影写法，而与直接用墨拓出的碑文拓本上的文字黑白相反。目前我们见到的好太王碑双勾加墨本，与传统拓法不同之处在于，勾出字形之后，不是在字形中填墨，而是在字形外填墨。以保持与阴刻碑文一致的白文。虽然在黑白效果上与直接墨拓本相同，但在神韵上却相去甚远。

初天富早年拓出的应是这种双钩加墨本。经过多年的学习与实践，才掌握了直接拓出墨本的方法。由于好太王碑很高大，需要搭架子才能进行捶拓。初天富的年龄和体力难以胜任之时，便由他的儿子初均德接替。直至1938年前后，初氏父子相继捶拓好太王碑达六十年之久。拓出的碑文拓本不计其数。

较早参与捶拓好太王碑的人中，多次被学者们提及还有李大龙、李云从。

张延厚在跋语中说：“此碑在奉天省辑安鸭绿江滨，历代金石家未有著录。胜清光绪初，吴县潘郑盒尚书始访得之，命京师李大龙裹粮往拓，历尽艰险，得五十本，一时贵游，争相购玩。大龙颇欲再往，以道远工巨而止。因是流传日寡，南中好事者，至双勾钹木以传。其墨本之稀可知矣。”^{①9} 叶昌炽《奉天一则》记载：

“乙酉年，中江李眉生丈得两本，以其一曾潘文勤师，其三四十纸。嘱余为排比考释，竭旬日之力，未能联缀。其后碑估李云从裹粮挟纸墨，跋涉数千里，再往返始得精拓本。”刘承干在跋语中写到：“此碑同治末年始传入京师，吴县潘文勤公祖荫先得之。海东工人不善拓墨，就石勾勒，才可辩字而已。光绪己丑，宗室伯羲祭酒盛昱集资，令厂肆碑估李云从裹粮往拓，于是流传稍广。”

关于李大龙与李云从的文献记载不多，零散的见于某些传记和史料中。在张伯驹的一部传记中，他向人讲到：“我还佩服宜古斋的李云从，可惜余生也晚，未能领略风采，只是从老辈人中听说他的故事。据说此人与夫人的祖上潘祖荫有过一段交往，那潘祖荫是位大学问家，也是位大收藏家，以收藏孟鼎闻名，当年他常去宜古斋，李云从为他搜集碑石、金文拓本，受到青睐。在潘文勤（潘祖荫的谥号）的指导下，李云从钻研考据学，熟记各类著名之碑帖、法帖。每逢顾客询问，他对答如流，如数家珍，已从一般古董商成为一个大学问家。据说清廷重臣，后来也成为一代学问宗师的端方就曾拜他为师。”^{②0}

《海王村人物》书中记载：“有若李云从者，直隶故城人，幼习碑贾，长益肆力于考据，当光绪初年，各衙门派员恭送玉牒至盛京，盛伯羲侍郎、王濂生祭酒、端甸斋尚书，皆在其中。一日，夜宿某站，盛与王纵论碑版，端询之，王奋然曰：尔但知挟优饮酒耳，何足语此！端拍案曰：三年后再见！及归，遂访厂肆之精于碑版者，得之云从，朝夕讨论，购宋明拓本无数，又购碑碣无数。其第一次所购，即郾林碑也，以五百金得之，罗列庭院，果不三年而遂负精鉴之名矣。云从为潘文勤所赏识，有所售，辄如数以偿，故云从得以挥霍十余年，终以贫死。”

陈重远《鉴赏述往事》一书中有“端方求教李云从”一节，对此事增加了一些渲染和故事——光绪十年（1884年），清廷各衙门恭送玉牒（皇族的谱牒）至盛京（沈阳），其中有待郎盛伯羲、祭酒王濂生、尚书端方。途中夜宿某站，盛伯羲与王濂生谈论法帖之碑版，端方插口询问：“你们讲的是什么？”王濂生不客气地说：“你端方只知饮酒狎优，对碑帖一无所知，请不必问了。”端方当即面赤拍案曰：“三年后再

见！”公务完毕，端方从沈阳返回北京，从潘文勤那里得知琉璃厂宜古斋碑帖铺的李云从，直隶故城人，经营法帖碑石。潘文勤介绍说：“此人精于鉴别碑帖，某帖之拓本多字，某拓本少字，背诵如流。我从他手里买到过一些名帖。”光绪十一年春，端方乘大桥，筒从便装来到琉璃厂宜古斋，见到李云从便拱手言道：“听潘文勤大人介绍，你鉴别碑帖的眼力好，又致力于考据，今特来拜访。”李云从赶忙躬身作揖口称：“端五爷驾到，给小店增光，不敢承受‘拜访’二字，请多赐教。”端方走进店堂观赏碑帖，买了十几部宋明拓本。不到一百天，端方从琉璃厂古玩店铺买了许多法帖、碑碣。他的庭院摆满古代长方形的碑和圆顶形的碣，碑碣上刻着名家书法文字，他的书房案几上也布满碑帖。次年端午节，端方设家宴请李云从。酒席上，端方举酒说：“今日端午，我端午桥(端方字午桥)拜李先生为师！法帖、碑文学问甚多，请多加指教。”李云从急忙站立，躬身作揖连称：“不敢！不敢！大人抬举，云从愿为大人效劳。”端方要和李云从碰杯共饮，李云从说：“小人乃一草民市商，怎敢同皇室贵族同干共饮！请恕罪，不能从命！”端方哈哈大笑连声说：“饮！饮！恭敬不如从命，今天无尊贱之分，只有学识深浅之别，你为师，我为徒。”二人将酒喝了下去。李云从见端方诚心诚意要学鉴别碑文法帖，便经常到端方府同端方研究鉴赏碑帖之秘诀，并将自己多年致力于考据之所得，口述给端方，端方记录成文。果然不到三年，端方在京都士大夫之间有了精于鉴别碑文、法帖之盛名，并著有《匋斋吉金录》，金石、文物收藏家的盛伯羲、王濂生对端方也刮目相看。

李云从和端方、潘文勤相交买卖，做碑帖生意，曾被日本考古学家请去东北考察鉴定碑碣刻石，并收购碑帖，赚钱既多又快，但他不善理财，挥金如土，挥霍无度，终于在光绪二十年(1894年)前后，贫困而死！当时李云从才36岁。^{②1}

1995年徐建新先生对北京大学所藏好太王碑拓本进行调查研究，在北京大学A本上发现题笺和跋文，题笺为“晋高丽好太王碑，李龙精拓整纸本五分第三”。跋文为“右好太王石刻，潘伯寅丈倩工李龙精拓者。题笺即丈亲写。其云五分第三者，即所拓五分之第三次拓者。即此四字，已足证为金石家之词。龙号云从，隶古斋所售三阙即李龙手拓，胜王可群手艺多矣。陆和九记。”^{②2}

这里边提到的李龙，就是李大龙，号云从。而李龙则不过是流传的省称而已。

以上资料，使我们大体上了解了著名碑贾李云从的简略行止。他生于咸丰八

年(1858年)，河北故城人。原名李龙、李大龙，字云从。幼年在宜古斋碑帖铺学徒。逐渐掌握了金石传拓技术，并熟悉了历代法帖碑石，成为鉴定经营法帖碑帖的古玩家。光绪十年(1884年)出任宜古斋经理人。光绪十五年(1889年)盛昱集资令其前往通沟捶拓好太王碑，使碑帖得以广泛流传。光绪二十年(1894年)贫病而死，时年36岁。

李云从经营宜古斋的时间并不长，但是他在金石碑帖方面的学问是很有名的。特别是他捶拓好太王碑的经历，为其短暂的人生增加了不少色彩。据张延厚介绍，潘祖荫命他去通沟，拓得好太王碑50本，其数量是相当可观的。叶昌炽介绍，潘祖荫从中江李眉生处得到好太王碑双钩加墨本共三、四十纸，一时联缀不上。其后，李云从裹粮挟纸墨，跋涉数千里，再往返始得精拓本。“再往返”应该是指光绪己丑，宗室伯羲祭酒盛昱集资令其裹粮往拓一事。此前潘祖荫命其往拓得到的50本，应该是在光绪六至十年(1880~1884年)之间，其拓本应该有一部分是双钩加墨本。正如罗振玉所说：“此碑善拓难得，以前厂肆碑贾李云从拓此碑时，每次上纸二三层。故第一层字迹较明晰。其第二三层模糊不辨之处，辄以墨勾填，不免讹误。”

目前，可以断定李云从捶拓的本子是北京大学图书馆善本室所藏好太王碑拓本A(简称“北大A本”)，目录编号为3021326—3。全4幅，未装裱，合装于蓝色函套中，每幅尺寸为：

第一面 长5.43米 宽1.46米 第二面 长5.30米 宽1.34米

第三面 长5.40米 宽1.94米 第四面 长5.31米 宽1.26米

据徐建新先生介绍，此拓本共用56张较厚的单层宣纸拓出，纸色白，拓破处少。为煤烟拓，墨色掉色，触手即沾墨色。着墨浓重，而且全面着墨，包括碑面破损碑文剥落处也着墨拓出。碑字拓出略显精瘦，碑面纵线清晰可见。这是李大龙亲手拓出年代较早的好太王碑精拓本。

文献资料记载，光绪三年关月山发现好太王碑之后，手拓数字，可以说是最早的拓碑人。但是，由于碑面苍苔漫没，加之碑石高大，还不能够拓出完整的拓本。只有在火焚除苔后，搭上架子，才拓出完整的拓本。拓出完整好太王碑拓本的有李大龙、谈广庆(组织者)、王少庐、李云从、亓丹山、初鹏度、初均德等人。其中李大龙即李云从，初鹏度与初均德是父子俩，他们无论从拓碑时间和数量上，都是最重要、最具代表性的拓碑者。

至于其他拓碑人或组织者，也有文献记录：

《辽东文献征略》中张延厚跋语：“光绪初，吴县潘郑盒尚书始访得之，命京师李大龙裹粮往拓，历尽艰险，得五十本，一时贵游，争相购玩。大龙颇欲再往，以道远工巨而止。”

吴大澂在《皇华纪程》中记载：“(光绪十二年二月初五日，……至铁岭县城外宿。县令陈鹤舟士芸来见。鹤舟曾任怀仁县，询以怀仁有高句丽王碑，距城百数十里，在深峡中，碑高不能精拓。鹤舟赠余拓本一分，字多清朗，文理不甚贯，盖以墨水廓填之本，与潘伯寅师所藏拓册纸墨皆同。惜不得良工一往椎拓耳。”

谈国桓《手札》：“光绪十三年间，学使杨蓉浦颐，广东之茂名县人，闻此碑，属家君(即谈广庆)觅人往拓，约得六本。弟家藏两本，失于甲午之役。嗣后，吴清卿中丞亦属家君再拓，思用宣纸，竟(未)如愿，以著碑，纸即破碎，乃用单高丽纸拓得数本。至王观察少庐所拓者，则未经寓目，亦不得其详。”

荣禧《高句丽永乐太王墓碑谰言》：“余于光绪八年，曾倩山东布衣开丹山往拓，得获完璧。”

刘承干《海东金石苑补遗》中有好太王碑跋：“光绪己丑(光绪十五年)宗室伯羲祭酒(盛昱)始集资令厂肆碑估李云从裹粮往拓，于是流传稍广。”

以上资料记载，关月山发现此碑以后，他拓得的部分文字传入京师，引起一些金石学家的关注，其中潘祖荫、盛昱、李鸿裔、吴大澂等人最为热心。

潘祖荫(1830~1890)，字在钟，小字凤笙，号伯寅，亦号少棠，又号郑盒。江苏吴县苏州人。清咸丰二年(1852)进士。潘祖荫生长于北京，祖籍吴县。他的祖父为乾隆癸丑科状元潘世恩，官封太傅及武英殿大学士。他的父亲潘曾绶，字绂庭，官至内阁侍读。他的叔祖是乾隆乙卯科探花潘世璜。潘祖荫还是一个著名的藏书、金石收藏家。“滂喜斋”、“功顺堂”是他的藏书室，他将藏书编成《滂喜斋藏书记》《滂喜斋书目》。他的门生叶昌炽为他的藏书著有价值极高的目录指南“藏书纪事诗”。攀古楼是他存放青铜器和石碑的储藏处，他还留下两部金石目录：《汉沙南侯获刻石》《攀古楼彝器款识》。著有《四本堂文集》二卷、外集二卷，诗无专集，《晚晴簃诗汇》自《癸酉消夏南苑唱和集》中录存二十余首。辑有《癸酉消夏南苑唱和集》一卷。一生雅好金石，闻听有碑石，他欣然前往一览，不惜重金购求。当他得知好太王碑之事，命京师李大龙即李云从，裹粮往拓，历尽艰险得五十本，一时贵游，争相购玩。他对好太王碑拓本的传播是有功劳的。据学者们分析潘

祖荫得到的本子，应是双钩加墨本。可以推测，李大龙最初为了多拓快拓，完成的应是双钩加墨本。吴大澂及当地官员们得到的也是这种本子。

据日本资料记载，光绪九年(日本明治十七年，公元1883年)酒匂景信从通沟带回日本的好太王碑双钩加墨本一共一百三十一张纸，排比十分困难。李鸿裔赠给潘祖荫一套，也有三、四十纸。这些也都是双钩加墨本。

李鸿裔(1831~1885)，字眉生，号香严，又号苏邻，四川中江人。咸丰元年(1851年)举人，官至江苏按察使加布政使衔。罢官後，家居苏州。精书法，临魏晋碑铭，无不神形毕肖。工诗古文，晚年好佛。得到好太王碑拓本后，临摹赏玩，未见著文。

光绪十三年间，学使杨蓉浦嘱托，由谈国桓之父谈广庆组织人前往捶拓，约得六本。

谈广庆是谈国桓的父亲。字云浦，汉军镶白旗人，出生在沈阳，进士出身，曾任金州厅海防同知，在任期间致力发展地方教育事业，曾兴办南金书院。谈广庆在清光绪五年(1879年)至清光绪九年(1883年)首次出任宁远州知州，清光绪十六年(1890年)又任宁远知州几个月。谈广庆爱民如子，不但修身自勉，还教子有方。他有两个儿子后来皆有所成就。长子谈国楫，生于1870年，1893年和弟弟谈国桓同时考中举人。民国初年，谈国楫担任奉天东边道尹，1924年任本溪湖煤铁公司总办。次子谈国桓生于1875年，18岁时考中举人，清末任奉天税捐总局局长。民国成立后，谈国桓历任奉天都督署总务处秘书，奉天省官银号监理官，东三省屯垦局副局长。谈国桓供职于张作霖幕府十余年，是张作霖的“文胆”和重要幕僚人物。谈国桓擅长书画和写作，他对好太王碑拓本的记忆应该是真实可信的。谈家曾藏有两部好太王碑拓本，甲午之战丢失于金州衙署。二战后，日本学者水谷悌二郎得到的好太王碑拓本可能便是其中之一。可以说，较好的拓本应出现在光绪十三年(1887年)前后。

后来盛昱筹集资金让李云从(李大龙)“再往返，始得精拓本。”

盛昱(1850~1900)，字伯熙(或伯希、伯羲、伯兮)韵蔚，号意园，爱新觉罗氏，肃亲王永锡的曾孙。公元1877年(清光绪三年)考中进士，入选翰林院庶吉士。1880年(光绪六年)，授翰林院编修。1884年(光绪十年)，授国子监祭酒，致力于整顿学风与学术研究方法。保护监中石鼓，重刻石鼓文，保存了一些珍贵文物；购买书籍，鼓励诸生钻研文字音韵学并著书立说。1888年(光绪十四年)，出任山东正考官，次年即告病请归。在后来十多年的时间里，他把精力投入到诗文、考据上，著成《郁华阁遗集》

《意园文略》《蒙古世系谱》《雪屐寻碑录》《郁华阁金文》等。他出资派李大龙再到通沟正是归家之后的1889年(光绪十五年)。

李大龙的精拓本从此在京师传开。

还有一位拓碑人是亓丹山，在荣禧的《澜言》里写得清清楚楚。亓作为姓氏，自古以来就存在。唐有亓志，宋有亓赞，明有亓宣。由于字形特殊，后来被称为山东四大怪姓之一。荣禧说他是山东布衣，应该是可信的。可以肯定，亓丹山拓出的是完整拓本。荣禧根据亓丹山拓本释出第三面第一行的文字，与诸家不同，其中填补了一些文字，与王志修古碑诗文的内容大体相同。有人以为受人骗了不足为凭，也有人以为或有所本。关于山东布衣亓丹山的拓本至今无人见到，至于是双钩加墨本，还是正式的拓本，尚不得而知。

最近梁启政在《高句丽好太王碑早期捶拓者亓丹山小考》中得出结论：“确有亓丹山其人，曾于光绪年间在沈阳从事书画与金石篆刻行业，且是当时沈阳书画金石篆刻领域中之翘楚。并培养出象王光烈、梅文润等后来一批著名东北金石书画家。亓丹山擅长金石书画，尤其在金石方面为当时沈阳之冠，当让其在捶拓方面也必定技艺过人，那么荣禧请亓丹山为他到通沟口捶拓好太王碑拓本也就顺理成章了。”

关于王少庐的拓本，谈国桓也未曾寓目，我们亦难知其详。

四 好太王碑发现初期的研究

好太王碑发现初期的研究，应该是从出现完整拓本之后开始的，也就是光绪六年(1880年)一直到20世纪初。期间主要是中国和日本的学者研究的成果多些。其中包括好太王碑的发现，碑文著录，碑文研究。

日本学者的研究

日本学者对于好太王碑的研究相对要早些。佐伯有清在《广开土王碑研究史》书中记载：“明治十六年(1883，光绪九年)的秋天，参谋本部派往清国的军人酒匂，在现地得到一份拓本(双钩本)，首先带回日本。日本的广开土王碑研究从此开始。”

明治十七年(1884)七月，青江秀(1834~1890)完成《东夫余永乐太王碑铭之解》，并有附言：此间，某报载，满洲盛京省与朝鲜交界处的鸭绿江上游，古来在水底下埋着一大石碑。最近从盛京将军处得知，动用了大量人工，才将此碑掘出。洗净碑面之时，恰逢日本某人在当地。得到拓本并带回日本，藏于参谋本部。该碑高大凡三丈，幅宽一丈五六，字体为绝好的隶书。由于年代久远，几经磨损，文字难以卒读。在该碑出土之际，得到高八寸，幅宽四五寸奇形瓦一枚。瓦的左右侧面刻有‘愿大王之墓安如山固如丘’十一字云云。”这个日本某人，后来被证实是陆军炮兵大尉酒匂景信。^{②③}

青江秀的《东夫余永乐太王碑铭之解》是由广开土王碑释文和《高句丽第十九世广开土王碑之解》的碑文考证组成的。是好太王碑拓本传入日本后最早的碑文研究，其抄本现藏日本国会图书馆。由于好太王碑过于高大，四面环刻碑文，给捶拓带来很多困难，需要有许多较小的纸张才能拓完一面。酒匂带回日本的双钩加墨本一共有131张纸。加上参谋本部及青江秀等人对于古代碑刻文化与高句丽历史知识的贫乏，并未能将拓本的若干张纸按顺序正确地排列好，特别是碑文的第二面和第四面，有一些串了位置，下边的弄到上边，上边的弄到了下边，因而造成释文混乱，从而导致碑文解释不通乃至错误。他参照《日本书纪》《太平寰宇记》《朝鲜史略》《东国通鉴》《三国史记》等文献资料，对碑文进行适当的考证。对于“惟昔始祖邹牟王之创基也”的解释还可以：高句丽的始祖东明王，名朱蒙，乃夫余称善射者，朱蒙又作邹牟。而对于其他的语句解释则大都不够准确。如“倭以辛卯年来渡海破百残□□新罗以为臣民”，把“辛卯年”比定为晋的咸和六年(331年)或太元十六年(391年)。依据《日本书纪》寻找近于咸和六年辛卯的，日本对外征伐的记录，可惜，不是年份相差，就是纪事阙如。甚至把“九年己亥百残违誓与倭和通”断句为“九年己亥，百残违誓合倭”（青江秀原文如此），显然是错误的，其解说更不会准确。类似的错误不少，严重影响了碑文的正确释读。

1889年(光绪十五年)《会余录》第五集刊行，内载《高句丽古碑文》《高句丽碑出土记》，横井忠直的《高句丽古碑考》《高句丽古碑释文》。横井忠直的《高句丽古碑考》有两种版本，一种版本附记“明治十七年甲申十二月横井忠直述”。另一种版本写作年月不详，经过比较，可以看出是写于明治十七年(1884年)十二月本之前。其中还有批判青江秀的考证之处，应该是写在青江秀文章完成之后，也就是明治

十七年七月以后。说明日本参谋本部得到好太王碑拓本之后找到青江秀和横井忠直进行识读考证，因此两人的研究成果同在明治十七年完成。横井忠直的《高句丽古碑考》比青江秀的《东夫余永乐太王碑铭之解》的注释更为详尽些，日本甚至将横井忠直的《高句丽古碑考》看成是日本研究好太王碑的原型。他的注解是从碑文开头“惟昔始祖邹牟王之创基也”开始的，然后逐句解说，引征中国和朝鲜古代文献进行考证。然而，其中的误释也存在。关于“辛卯年”条，青江秀把辛卯年当做东晋咸和六年(331年)或太元十六年(391年)。横井忠直则把太元十六年和仁德天皇七十九年系在一起。应该说好太王碑的“辛卯年”是东晋武帝太元十六年(391年)是正确的。这一年是好太王即位之年，也是倭寇开始入侵朝鲜半岛之年。横井忠直对于“辛卯年”条解释为：“中国称我邦为倭，是从《山海经》记载以来的事，高句丽也沿用了这种谬说。”事实上，称日本为“倭”并无贬义，如“倭人”、“倭奴国”，中国正史中有传。倭奴国王也曾接受汉朝皇帝授予的“倭奴国王”金印。只是在战争中，在侵略别国时才被加以“倭寇”、“倭贼”等字样。好太王碑上的“倭寇”、“倭贼”同“百残”一样，是因侵略或为侵略帮凶才得到的蔑称。事实如此，咎由自取。他认为“辛卯年这一年渡海之事，均不见我国史乘和韩汉的史书，这可能是当时的操觚者(或高句丽所传)之误，也许是内外史家失于记载的缘故。此碑文所谓“百残新罗旧是属民云云”应该是我军渡海使两国成为臣民之事，似始于此辛卯之岁。”碑文如此，并非误记。而百残新罗也不是倭的属民，是高句丽的属民才是正解。明知中国史书、朝鲜史书、日本史书都不记载好太王碑的“辛卯年”事，还用《日本书纪》、《新撰姓氏录》、《古事记》等毫不相干的记录与此“辛卯年”进行比附，说明日本曾统治过百济、新罗、任那等国，其用心良苦，十分明显。横井忠直与青江秀对好太王碑的释文和考证，详略有所不同，看法也有些分歧。他们都是被日军参谋本部请去为侵略别国在好太王碑文中寻找历史依据的。这与后来日本学者对好太王碑的研究是不同的。

这一时期，一些人用《古事记》《日本书纪》的段落牵强解释好太王碑。对好太王碑文中的干支随意改变比定，并对《三国史记》《东国通鉴》等朝鲜史料进行非难和指责，给后来的好太王碑研究和古代日朝关系史研究带来很多不良影响。一些较为正直的史学工作者对他们的作法提出批评。如那珂通世(1851~1908)的著名文章《日本上古年代考》发表在《文》杂志1888年第1卷第8、9号(明治21年9月1日、8日)认

为“日本纪的纪年乖谬殊甚”，断定“古史之纪年乃成于史家之妄撰”，明确指出“神功、广神之年代须要根据韩史以证之”。

在《文》杂志第1卷第9号上还有三宅米吉(1860~1929)的《日本纪元之正否》文章，也对“日本纪之年代是否可信”问题提出质疑。

1891年(光绪十七年)菅政友的《高丽好太王碑铭考》在同年《史学会杂志》第2卷第22、23、24、25号(明治24年9~12月)上连载。他的论述是在横井忠直明治十七年《高句丽古碑考》的基础上进行的。坚持的仍然是“皇国史观”，甚至把新罗、百济、高句丽都说成是自己的臣民。引用日本的《古事记》《日本书纪》的记载对好太王碑进行牵强附会的考释，致使矛盾百出，不能自圆其说。

1893年(光绪十九年)10~12月，那珂通世在《史学会杂志》第4卷第47、48、49号上发表了《高句丽古碑考》(第48号与第47号为同一篇文章重复发表)。不久前曾被誉为纪年论杰出学者的那珂通世，在此篇文章中表现很一般。他引用了横井忠直的《高句丽碑出土记》全文后说“碑文可分为三大段，第一段为云云”，将碑文分为三段进行说明，很显然也是根据横井忠直《高句丽古碑考》写成的。不仅如此，文章中沿袭菅政友《高丽好太王碑铭考》的地方也不少。除了对碑文个别字句有所考察，并无更多的建树。

1898年(光绪二十四年)1月、4月、7月，三宅米吉的《高丽古碑考》发表在《考古学会杂志》第2卷第1~3号上。另一篇《高丽古碑考追加》发表在《考古学会杂志》第2卷第5号上。三宅米吉曾因解读福冈县志贺岛出土的“汉委奴国王”金印而名声大震。^{②4}

三宅米吉的好太王碑释文虽然是依据《会余录》所载横井忠直的《高句丽古碑释文》，对根据拓本多张小纸的连接以及得出的释文提出怀疑。希望能有更为“正确的拓本”出现，同时提出不能轻视朝鲜史书的主张。对日本学术界好太王碑研究做出了贡献。不久，他见到了小松宫所藏的另一好太王碑拓本，进一步证实旧拓本之误，便写成《高丽古碑考追加》一文，将小松宫所藏拓本公布于世。“这一新拓本是直接拓下来的，石面凹凸甚大，字形极不鲜明颇多难读之处，不无遗憾”。“但是新拓本是碑的四面各以一张大纸拓出，文字的位置不会有误”。由于有了新拓本，最终还是将酒勺本无法排列的第二面和第四面按顺序得到很好地解决。小松宫即陆军大将小松宫彰仁亲王(1846~1903)，明治28年(1895年)1月26日任参谋总长。佐伯

有清记载：1893年(光绪十九年)日本陆军工兵大尉仓辻明俊带着两名随员，两次潜入中国。先到安东，从朝鲜经满浦进入通沟，从通沟得到好太王碑拓本带回日本参谋本部。小松宫担任参谋总长之后，这一拓本便落入他手中。^{②5}

三宅米吉利用小松宫藏本，将好太王碑的文字顺序搞清楚，在碑文解释方面也取得了较好的进展，为日本好太王碑研究走上正确道路打下了基础。

中国学者的研究

中国学者得到好太王碑完整拓本是最早的，开始研究也应该是最早的。如奉天军粮署的王志修，在火焚除苔后不久就来到通沟拓碑。得到拓本之后便开始研究。中国往往不是看学者手稿完成的时间，而是以正式印刷发行为标准。

1895年(光绪二十一年)王志修《高句丽永乐太王碑歌考》刊行，其中包括《高句丽永乐太王古碑歌》和《高句丽永乐太王碑考》。王志修，字竹吾，号脩庐，又号少庐，清末诸城东关铁沟村人，为按察使王赓言之孙，莒南大店道台庄瑶之表孙，莒县探花管廷献岳丈辈。生于同治初，卒于民国间。光绪五年己卯科顺天举人，曾任奉天府军粮署同知，金州厅海防同知，岫岩州知州。《高句丽永乐太王古碑歌》和《高句丽永乐太王碑考》即其任职军粮署同知时所作。他对好太王碑十分关心，光绪二十一年(1895年)三月，他被委托考试奉天府所属各衙署的青年吏员，他就以好太王碑作为历史题目进行考试。自己先写出范文，向参加考试的人公布，就是这篇《高句丽永乐太王古碑歌》，同年又写出《高句丽永乐太王碑考》，合集成《高句丽永乐太王古碑歌考》，由奉天军粮署石印成书。

《高句丽永乐太王古碑歌》原名《高句丽永乐大王古碑歌试院示诸生》，用七言排律写成，共84句，43韵，押下平声七阳韵。有些句子下加小字说明。实际是一篇以诗歌形式写出的考据文章。由于其写作时间早，公开印书早，加之内容丰实，非常珍贵。

王志修在《高句丽永乐太王古碑歌》中首先指出了好太王碑所在的地点和碑的现状。

“鸭绿江水流汤汤，有碑矗矗江之阳。”十分明确，在鸭绿江北。他曾在奉天省各地进行过调查，写出《奉天全省舆地图说图表》。得知好太王碑，一定会亲临

现场进行调查。他在《高句丽永乐太王碑考》中道：“碑在奉天东境兴京同知属怀仁县东三百六十里通沟口。光绪三年开边禁，以通沟设巡检，地有古城，基尚存。碑立古城东北五里鸭绿江岸，东向，高二丈余，宽八尺强，厚得半。无赑屃蟠螭饰。就石原质，四面环刻之，文起东迄北，共四十二行，行四十一字，共计一千七百二十二字。叙事详慎，书亦严整，类汉隶。碑西里许即其陵。有砖隶书愿太王陵安如山固如岳十字。”其对碑的位置、方向、形状和文字，以及太王陵等记述，比后来人记录要准确得多。加之诗中提到的“伐林架木拓碑出，得者宝之同琳琅”。若非亲眼目睹是难以记得如此真切。诗中还有“自我东来考典制，搜罗金石盈东厢”，表明他对金石文物的兴趣极大，而且很下功夫。另外，如果没有深入的调查研究，是不敢用碑文作为试题来考学生的，而且还要作出标准范文——作为示诸生世之作，是不能说假话的。从“大书深刻石四面，千秋风雨莓苔苍。手剔莓苔索点画，追摹秦汉超隋唐。”的描写看，王志修见过长满青苔的情况，还手剔莓苔进行辨认文字。可以断定，王志修对好太王碑进行过实地考察的时间应在关月山发现之后，火焚除苔之前。也就是光绪三年秋至四年春夏之间，这是很早的。他所见到的、记录的情况应该是真实可信的。

其次，王志修《高句丽永乐太王古碑歌》对于好太王碑发现时间的记载也是真实可信的。

早在1895年(光绪二十一年)，他就在诗中提出，好太王碑是光绪三年发现——“我皇驭宇之三载，衽席黎首开边疆。奇文自有鬼神护，逢时不敢名山藏。”王志修关于好太王碑在光绪三年(1877年)发现的结论，符合桓仁建县的时间，符合书启关月山到达怀仁的时间。由于在通沟设巡检，更由于关月山癖于金石，当年秋季到达通沟发现好太王碑是合乎情理的。关月山手拓数字带回衙署，向县令章樾回禀，得到应允，于是才有转年后令初天富看守好太王碑，火焚除苔之事。所谓“寅卯年间碑下截毁于火”则正是光绪四年(戊寅1878年)、五年(己卯1879年)发生的。另外，从集安博物馆调查记录和好太王碑下半部分损伤的情况看，火焚除苔是真实发生过的。

再次，关于好太王碑的建立与碑文内容，王志修在《高句丽永乐太王古碑歌》中也有详细的叙说。“首从创业述祖德，始基丕立邹牟王。白云其母河伯女，有如元鸟天生商。”这是好太王碑的开头——“惟昔始祖，邹牟王之创基也。出自北夫余，天帝之子。母河伯女郎。剖卵降世，生而有圣德……”在描写这一传说时，注

意到《诗经》“天命玄鸟，降而生商”的影响。这是十分重要的，他已意识到高句丽起源建国的传说与中原古老传说的联系。为后来的研究开阔了视野。关于“太元永乐共乙未，岁月可证非渺茫”所涉及的年代，王志修认为东晋孝武帝太元二十年之乙未(395年)即是好太王碑中说的永乐太王乙未，而长寿王甲寅(建碑之年)就应该是晋安帝义熙十年之甲寅(414年)。他在《高句丽永乐太王碑考》明确指出：“此碑之建，实为安帝改义熙之十年甲寅无疑。”这一论证是相当准确的，好太王碑建于公元414年。王志修是最早得出好太王碑建立时间正确结论的。接下来，歌中叙述“斯时威名震四国，史虽阙略碑能详。逞兵首及新罗境，用武远控东佛桑。”直接进入好太王时期东亚诸国的关系之中，四国是指东扶余、新罗、百济和倭。这正是好太王率大军东征西讨，扩大疆土的征战对象。好太王碑中记载：“百残、新罗，旧是属民，由来朝贡。而倭以辛卯年来，每破百残，口口新罗，以为臣民。以六年丙申，王躬率水军，讨伐残国。”指明了辛卯年以来，倭寇多次入侵新罗、百济，新罗求救于高句丽，于是，好太王亲率大军援救新罗，击退百济和倭寇。经过多次交战，好太王的军队攻破了64座城，1400个村子，取得了决定性的胜利。王志修在诗歌中已经提到。

值得注意的是诗中讲到“围城三匝势将下，坐使肉袒降牵羊。五尺珊瑚献二树，朱红宝石横笔床。四方因之贡方物，源源小国供趋跄。”一般学者很少注意。后来荣禧、金毓黻的释文中有“百残王惧，复(后)遣使献五尺珊瑚树二，朱红宝石笔床一，他倍前，质其子……”其他人的释文此段尽付阙如。而目前碑石上，此行早在火焚除苔时损毁，不见文字。如果王志修在火焚前见到原文，以诗句记之，那应该是非常珍贵的资料了。

另外，与《高句丽永乐太王古碑歌》同时刊出的还有《高句丽永乐太王碑考》一文。其中的内容诗歌记录的大体相同。尽管对碑石尺寸和文字数量的记录还有些小出入，对于碑石的建立时间、基本状况、相关历史的研究成果都是很有见地的，较之后来的论述也有其优越之处。

1896年(光绪二十二年)陆心源完成《高句丽广开土大王谈德纪勋碑跋》。陆心源(1834~1894)浙江归安(今湖州)人。字刚甫、刚父，号存斋，晚号潜园老人。清咸丰己未(1859年)举人，官至福建盐运使。著名医家，藏书家，精通金石之学。其著作有医学《诸病源候论校》《外台秘要校》，史学著作有《宋史翼》，图书类著作有《皕宋

楼藏印》《十万卷楼丛书》《千甓亭古专图释》，收藏类还有《仪顾堂集》《书画书录解题》《宋元明清书画家年表》等。陆心源是清代著名的四大藏书家之一。而且是大名鼎鼎的“皕宋楼”楼主，陆心源才得以名标青史。陆心源对于金石文字有极高的兴趣，对流传于京师的好太王碑拓本不应该错过机会，很可能已托人购得，或者在朋友处见到，因此写就了《高句丽广开土好太王谈德纪勋碑跋》，收录在他的《仪顾堂续跋》一书中。没有注明写作年月。1898年(光绪二十四年)郑文焯在《高丽国永乐太王碑释文纂考》中提到“据碑前文知，勒铭于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吴兴陆心源考为凉太元十六年……”说明他见过陆心源的《高句丽广开土好太王谈德纪勋碑跋》，可推知此跋语最迟也应在1897年(光绪二十三年)完成。这也是较早的好太王碑研究论著。

陆心源在《高句丽广开土好太王谈德纪勋碑跋》一开头便引征《后汉书·东夷传》记载

的北夷索离国传说，与《三国志》注引《魏略》进行比较。《魏略》所记“高句丽出于扶余，自言先祖朱蒙，母河伯女郎。为夫余王闭於室中，为日所照，引身避之，日影又逐，既而有孕，生卵大如五升，有一男子破壳而出”与《后汉书·东夷传》略有不同。前者作索离国，后者作高句丽。很显然《魏略》所记“高句丽出于扶余”与好太王碑正合，可谓信史。晚出之《魏书》《隋书》《文献通考》《东国通鉴》等书皆本于《魏略》。文中考证了邹牟王(东明)建国传说，儒留王即类利——琉璃明王。又引《三国史记》说明“高句丽谈德薨，号广开土王。与碑称广开土境好太王合。则此碑应题为高句丽广开土王谈德纪勋绩碑。”同时指出，《东国通鉴》所记“晋太元十七年壬辰三月高句丽王伊连薨，太子谈德立”与碑文不合。碑称“永乐五年岁在乙未”，则谈德当立于辛卯年而非壬辰年。实际上好太王应立于晋太元十六年，即公元391年。这一点是很准确的。从此也可以推断出好太王碑的立碑时间。接着排比世系，确认谈德为儒留王。

文中还指出，“谈德之攻百济、攻契丹，皆在即位五年之后，免丧久矣。自金富弼三国史误系之壬辰年，权近遂有衰经伐国之贬。赖有此碑，可以证其误耳。”碑文正史之作用可见一斑。至于碑中所记好太王征讨所涉及诸多地名，陆心源有误用音转导致错误之处。然而，作为医家和藏书家，对于东北小国的历史研究到如此程度，已属难能可贵。

1900年(光绪二十六年)郑文焯完成《高丽国永乐太王碑释文纂考》。郑文焯(1856~1918),字俊臣、叔问,号大鹤山人、小坡、鹤道人,奉天铁岭人。隶属汉军正白旗。他自称高密郑氏,是诡托郑康成后代。郑文焯的父亲郑瑛荣,字兰坡,同治初(1862年)任陕西巡抚,一门鼎盛。光绪乙亥(1875年)郑文焯在乡试中举,任中书舍人。1898年(光绪二十四年),郑文焯依据潘祖荫的早期双勾加墨本完成了《高丽国永乐太王碑释文纂考》。首先介绍好太王碑的一般情况,“此高丽好太王墓上纪功碑也。在今盛京鸭绿江属朝鲜高山城满浦城境内……彼都考古之士云,初掩土中三百年前渐掘渐露,迄今未尽出土。出土者高越十八尺,面南背北,约宽五尺六寸有奇,东西侧约宽四尺四寸有奇。四面镌字。”很显然,传闻造成一些误记。郑文焯写此文时,怀仁已建县二十多年,碑在当时奉天属怀仁县鸭绿江右岸通沟巡检之内。并非“属朝鲜高山城满浦城境内”。所谓“初掩土中三百年前渐掘渐露,迄今未尽出土”之传闻也不符合事实。碑石尺寸也有误差。关于好太王碑建立时间,他认为“勒铭于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经过考证,“知好太王实生于后汉兴平元年甲戌,其弃国之明年癸丑,至甲寅九月始迁山陵。立碑即在是岁。实当建兴之十二年也。”他的推断将好太王生卒年定在了公元194—232年,立碑234年。与历史事实相去甚远。说明其对高句丽及北方历史的陌生。更令人不解的是,居然将陆心源考证的“晋太元十六年”误引作“凉太元十六年”加以批评。关于邹牟王建国传说,好太王率军征讨碑丽,倭寇人侵半岛,好太王救新罗、破百济、驱逐倭寇,征东扶余,以及征伐百济所略城市、村庄,守墓烟户制度等诸多史事引用历史文献加以考证。对碑文中所涉及的地名、国名也作了相应的说明。又从金石学的角度,将好太王碑文字书法加以称颂。对碑文的体裁、文词都作了肯定。

《高丽国永乐太主碑释文纂考》中有两段记载颇有史料价值。一段是“碑估为余言,其墓如巨阜,类凿石为之,篝火深入,乃施毡椎。证以后汉《高句丽传》所云,其国厚葬,积石为封,殆其旧俗也。又言,墓隧四壁皆画像镌迹,精诡如鲁峻冢、郭巨室、武梁祠之类。则犹汉之遗制也。廉生尝得其墓砖二拓以见赠,其文曰‘愿太王陵安如山固如岳’,字亦八分,文则祝词,古凿文之异撰,足备一格者。”这段关于好太王陵的记录大体是准确的,其国厚葬,积石为封得到了证实。墓上出土“愿太王陵安如山固如岳”的文字砖也是事实,后来的考古发掘更加证实了这一点。唯其关于壁画的记录略有出入。好太王陵墓室中没有壁画。在陵墓西南

不远的五盔坟中却存在着精美的壁画。这也是集安高句丽古墓壁画发现较早的记录之一。

另一段是“余以戊戌（1898年）春计偕人都，阅厂肆，始获精脱本。老友主廉生祭酒，谓其族人少庐曾考之，未详。盛伯羲有释文，却未之见。”这里所说的王少庐即王志修。王廉生即王懿荣。王懿荣，字廉生，清山东福山人，光绪进士。以翰林升侍读学士，官至国子祭酒。平生好金石之学，是第一个发现甲骨文的人（1899年）。他和吴大澂、叶昌炽这些金石学家均有来往。庚子年（1900年），八国联军入北京，他和妻子一同投井自杀。王志修是他的远房晚辈亲戚。王志修的文章写于1895年。可能请王懿荣看过，所以他曾跟郑文焯提起此事。这两段文字不仅提供了好太王碑早期捶拓研究的学者和情况，也提供了高句丽古墓壁画和文物的相关资料，值得珍视。

由于他的研究依据的是双钩加墨本，有一些勾画错误。对于他的考释，学者们认为有些地方牵强附会，得出了一些错误的结论。如“碑称平安好太王盖即东国志所云平安道，至今朝鲜犹沿诸道之名”的说法，既简单而又可笑。^{②6}

郑文焯《高丽国永乐太王碑释文纂考》刊印时，江宁布政使吴重熹为之作《高丽永乐好太王碑释文纂考后跋》。吴重熹（1838~1918）山东海丰（今无棣）人。字仲怡，亦作仲饴、仲悻，号蓼舸、石莲、晚号石莲老人。1862年（同治元年）中举人。历任河南陈州知府、开封知府，福建按察使，江宁、直隶布政使，护理直隶总督、北洋大臣，江西巡抚，河南巡抚等职。解职后，闲居天津，闭门谢客，编辑印行《吴氏文存》《吴氏诗存》《世德录》等。吴重熹与郑文焯为两世故交。1899年吴重熹到任苏州，郑文焯与之文酒相交，讽议相得。1900年3月，郑文焯以《高丽国永乐太王碑释文纂考》见示，吴重熹大加赞誉。其实郑、吴二人久居官场，对与好太王碑及相关历史知之甚少，考证与跋语皆失之精当。吴重熹跋中所说的“初拓墨罕购，只潘文勤师有一就石上墨钩本。岁己丑（光绪十五年，1889年），伯羲祭酒盛昱鸠资遣工（即李云从）往精拓，始散见于京师。重熹是年在都获焉。伯羲所为释文，未甚详审。岁癸巳（光绪十九年，1893年）在信阳，老友日照丁少山待诏呵冻再考释，未卒业而没。”这一段记录对于初期好太王碑捶拓和考释，具有重要的价值。

1903年（光绪二十九年）荣禧刊印《古高句丽永乐太王墓碑谰言》。荣禧，字筱峰，长白兀扎部人，系满族世家，为辽沈名宦。清光绪二十年（1894）中日甲午鸭绿江防之战

前夕，荣禧临危受命，接任安东知县。1899年12月，荣禧被朝廷任命为宽甸知县，翌年6月离任。1901年7月，荣禧复任宽甸知县。任职期间，为政清廉，勇抵外侮，开通民风，创办教育，实绩昭彰。荣禧的《古高句丽永乐太王墓碑文考》，收入了《高句丽永乐太王墓碑文》和《高句丽永乐太王墓碑谰言》。此书在国内流传不广，长期不为人所知。日本有1905年写本(本间九介写本，东洋文库所藏)，因此日本西川权等曾利用《谰言》进行研究。我国直至1925年刊印的《辽东文献征略》中才提到它。

荣禧《高句丽永乐太王墓碑文》是较早的好太王碑释文。中国和日本的一些著作都将其作为具有代表性的释文收录。释文中最有特点的是对缺失文字的增补，对后来金毓黻的释文影响很大。其中碑文第二面第九、十行，第四面第一行上部原来缺损而无文字处增补的文字，推断有误，不知所本。第三面第一行所增补的文字明显受到了王志修《高句丽永乐太王古碑歌》的影响。认为金石碑版的研究对于补史证史具有重要意义。而好太王碑则与怀仁建制治相关。清初设柳条边，禁樵采，遂使边疆重地成为荒芜之所。光绪纪元，奉天将军崇实奏准，于宽(甸)、怀(仁)、安(东)、通(化)四地设县置官，为逋逃渊蔽，启为候甸，以益田赋。对于怀仁县通沟地方发现的高句丽永乐太王墓碑的现状记录详尽：“巨石矗立，状极伟岸，长方形碑，高二丈二尺五寸。南北正面，东西横量宽六尺，东西两侧面，南北横量宽二尺九寸，均按今工部营造尺计算。其文自东而南，南而西，西而北，四面环列。东南两面镌文，西北两面镌数字。看烟，盖记守墓之烟户耳。碑字千七百九十有九，大四寸，篆隶相属，兼多省文，古朴可喜，极似魏碑，而书法过之，洵足珍矣。碑西山麓北五里许，有石冢大亩余，即永乐太王墓也。”其中的字数略有出入，但较郑文焯所记更为详实。

文中关于王彦庄、亓丹山的著录考释和拓碑资料是很珍贵的：“岔沟一名通沟，旧设巡检一缺，部选王君彦庄承其乏，今改设辑安县治。彦庄好古敏学，目睹是碑，备录其文，惜其考订无书，仅言大概。余于光绪八年壬午(1882年)，曾倩山东布衣亓丹山往拓，得获完璧。”可知通沟巡检王彦庄曾对碑文进行考释研究，其成果未能得见。他派遣亓丹山往拓“得获完璧”，应该是好太王碑的完整拓本。凭借此拓本开始进行研究，他引证《通典》、《盛京通志》等书，证明邹牟王即朱蒙，亦即东明。邹牟立国，当在汉元帝建昭二年甲申(公元前37年)，这一结论是正确的。碑中

“五年乙未”，“当在东晋之世，为孝武帝太元二十年乙未(公元395年)”依此推断，认为好太王安葬、立碑当在义熙十年(公元414年)，这也是正确的。他按碑文推断，永乐太王卒于义熙七年辛亥(公元411年)则提早了一年。可能是受了《三国史记》记载好太王卒于二十二年十月的影响，与碑文所记相差一年。实际按碑文正确推算，好太王的卒年应是壬子年(公元412年)。

好太王碑发现以后，碑文著录较早的还有杨守敬《寰宇贞石图》。杨守敬(1839~1915)字惺吾、号邻苏，晚年自号邻苏老人。湖北宜都陆城镇人。同治元年(1862年)中举，同治四年(1865年)考取景山宫学教习，1874年考取国史馆誊录。1880年至1884年任驻日钦使随员，归国后先后任黄冈教谕、两湖书院教习、勤成(后更为存古)学堂总教长。1909年被举为礼部顾问官，次年兼聘为湖北通志局纂修。杨守敬是清末民初杰出的历史地理学家、金石文字学家、目录版本学家、书法艺术家、泉币学家、藏书家。撰著有《湖北金石志》《日本金石志》《望党金石录》《水经注疏》，编绘有《历代舆地沿革图》《历代舆地沿革险要图》和《水经注图》等。编辑有《寰宇贞石图》《三续寰宇访碑录》《日本访书志》等83种著作传世。他的《寰宇贞石图》是在日本期间的1882年(光绪八年)辑印成书，由日本大藏省印刷局承印。用中国单宣纸拓本缩影，略依时代顺序粘贴为五册，流传甚少，现已难见到。1909年(宣统元年)由上海重新印刷。《寰宇贞石图》按年代选出碑刻，在晋代的碑刻目录中，我们发现了《高句丽好太王碑》。“就入选诸碑的文字内容而言，不但都有裨于考史，可收补阙正误之功，而且还有为中外学者瞩目的重要史料，如《高句丽好太王碑》《大秦景教流行中国碑》之类。就书法艺术而言，出草书外的各种树体的典范作品俱在其中，在突出名家的同时，又兼顾了各种风格流派。杨守敬的编选精神，并非抱残守阙，唯古是崇，而是去芜存精，以约驭博，选拔内容比较完整，文献价值高，而又足以显示文字与书法演进的轨迹的碑刻。正因为如此，《寰宇贞石图》至今仍不失为治文史、艺术者所需的一种重要参考书。”^{②7}

从相关记载看，杨守敬对好太王碑的著录也是很早的。我虽然没有见到《寰宇贞石图》在日本印行的版本，但是，从好太王碑完整拓本出现在1880年的事实，以及当年杨守敬已到日本的情况分析，他是难以看到全拓的。而在1882辑印成书的《寰宇贞石图》中，是否收入了好太王碑的释文和摹写双钩本，很有些疑问。我们见到的只是1909年上海重印的《寰宇贞石图》。其中有一些碑石拓片和释文是此次

增补的。在王健群《好太王碑研究》一书附录二好太王碑研究年表中，1882年并无杨守敬《寰宇贞石图》在日本印行的记录。1902年的记录有“杨守敬从曹廷杰处获得拓本”。1909年记录则有“杨守敬发表《高丽好太王碑》(包括跋和碑文)、《寰宇贞石图》”。徐无闻在《〈寰宇贞石图〉浅说》中谈到，1909年上海重印时对于内容有所增删，“周秦汉魏部分删减较多，约四十种被删的碑刻，主要因文字博世太甚，如《是吾残碑》《仙人唐公碑》《沙南侯刻石》《郑季宣碑》等；或为字太少，如《广陵中殿刻石》《朱君长》等；或是伪刻、翻刻，如《朱博残碑》《裴岑纪功碑》《华山碑》等；但也有少数增加，如《刘熊碑》《孟孝琚碑》等。两晋南北朝部分，删减略多于增加，删掉了《邓太尉祠碑》《郑文公上碑》《郑述祖天柱山铭》《韩法成造像》等近二十种，却增加了《高句丽好太王碑》《刘怀民墓志》《刘猛进墓志》《李璧墓志》《高庆碑》《程哲碑》等十余种。”^{②8}

由此看来，1882年(光绪八年)杨守敬《寰宇贞石图》在日本辑印成书时，还没有收入好太王碑。十年后的1902年他才从曹廷杰处获得好太王碑拓本，亲手摹写成没有经过墨水填廓的双钩本。从1909上海重印本《寰宇贞石图》中见到的好太王碑双勾本看，此本没经过碑石捶拓过程，是从曹廷杰藏拓本上临摹下来的，而且文字内外都没有加墨，形成了较为独特的摹写双勾本。

几点说明

从好太王碑发现，火焚除苔，完整拓本出现，到石灰涂抹期间，经过了二十多年的时间。期间的著录与研究主要是在日本和中国学者之间展开的，中日学者之间没有交叉讨论的情况。日本的释文、考证等研究成果公布的稍早些，以青江秀的文章《东夫余永乐太王碑铭之解》完成最早，在1884年(光绪十年)，至今正好130年，也可以说，好太王碑研究已经经历了130个年头。石灰涂抹前的一段虽然短暂，却是奠定好太王碑研究基础的重要时期。日本的研究虽然稍早，存在问题却不少。首先是好太王碑拓本的传入问题——前面已经引用了青江秀《东夫余永乐太王碑铭之解》的附言：碑原在水底，从盛京将军处得知，动用大量人工将碑掘出，当时日本人某恰在该地，拓出拓本带回日本藏于参谋本部。1889年《会余录》第五集中的《高句丽碑出土记》记载如下：

碑在清国盛京省怀仁县，其地曰洞沟，在鸭绿江之北，距其上游九连城八百余里(清国里法，以下仿之)，地势平坦，广三四里，长十二三里。中央有旧土城，周围五里余，内置怀仁县分县，即古之令安城也。距此城东约四里许，离江边三里余，山下有一小溪，则碑所在也。据土人云：此碑旧埋没土中三百余年前，始渐渐显出。前年有人由天津雇工人四名来此，掘出洗刷，费二年之功，稍至可读，然久为溪流所激，欠损处甚多。初掘至四尺许，阅其文，始知其为高句丽碑。於是四面搭架，令工毡拓，然碑面凸凹不平，不能用大幅一时施工，不得已用尺余之纸，次第拓取，故费工多而成功少，至今仅得二幅云。日本人某适游此地，因求得其一赆还。碑已掘出者，其高一丈八尺，前后广五尺六七寸，两侧四尺四五寸，埋没土中者，尚不知有几尺。面南而背北，四面皆刻有字，南十一行，西十行，北十三行，东九行，通计四十三行，每行四十一字，大略一千七百五十九字。字长短不齐，长者五寸，短或三寸，可深至五六寸。其残缺者凡一百九十七字。碑之旁有一大坟，宛然丘陵，而其形倾欹，势如被压，盖高句丽盛时，葬永乐太王之处。某闻其中有古砖，悬金募购，得数枚而还，今藏其家。

青江秀、横井忠直、那珂通世、三宅米吉同时期的研究者都相信并引用了这类记载。后来的佐伯有清、王健群在自己的著作里也都做了说明和引证。^{②9}

十分明显，青江秀、横井忠直等人引征的两段关于好太王碑发现情况的记录错误百出，根本不可信。一个说好太王碑埋在水底，盛京将军动用人工掘出刷洗。一个说埋在土中由天津雇工人四名来此，掘出洗刷。完全是道听途说。凡是到过好太王碑跟前的人，都不会相信这些胡乱记载。关于好太王碑的尺寸，一个说高三丈，宽一丈五六尺，一个说高一丈八尺，前后广五尺六七寸，两侧四尺四五寸。更有可笑者，说刻字深五六寸。凡是亲自见过好太王碑的都不会出现如此大的差距。好太王陵出土的文字砖分明是“愿太王陵安如山固如岳”十个字，却记成“愿大王之墓安如山固如丘”十一个字，居然错了四个字。谁都知道，文字砖上的隶书清楚好辨认，不要说是学者，只要懂一点汉字，也不会出现这样低级的错误。从这些可笑的传闻记录看，日本间谍酒匂景信根本没有到过好太王碑所在地，他若是在现场得到的好太王碑拓本，对于碑石的记载不会出现如此多的错误，还会对拓本的顺序一一标明，不至于出现第二面和第四面的混乱。也可以说，好太王碑发现初期，参与研究的日本人都没有到过好太王碑跟前，碑石情况、拓本情况都是依据错误的传闻写

出的。根据顺序混乱的拓本得出的释文出现错误也就不奇怪了。是三宅米吉看到小松宫藏本后，才改变了碑文顺序的混乱局面，是好太王碑研究步入正轨。

相比较而言，中国学者的研究则要准确得多。特别是王志修，在好太王碑发现不久便到现场进行考察，记录的形状更准确些。特别是关于发现时间，两次提到光绪三年。“我皇驭宇之三载，衽席黎首开边疆。奇文自有鬼神护，逢时不敢名山藏”。“光绪三年开边禁以通沟设巡检”。这是文献记录中最早明确好太王碑发现时间为光绪三年(1877年)的，与光绪四五年火焚除苔的记载相吻合，与后来的现场调查与访问记录相吻合。荣禧的好太王碑释文是光绪二十九年(1903年)刊印其著述《古高句丽永乐太王墓碑文考》收入的，完成的时间还会早些。他的纪录“余于光绪八年壬午(1882年)曾倩山东布衣元丹山往拓，得获完璧”。可以肯定，元丹山拓出的是完整拓本。荣禧根据元丹山拓本释出第三面第一行的文字，与诸家不同，其中填补了一些文字，与王志修古碑诗文的内容大体相同。有人以为受人骗了，不足为凭，也有人以为或有所本。

注释：

- ① 王健群：《好太王碑研究》第4页，吉林人民出版社1984年版。
- ② 王健群：《好太王碑研究》第5—6页，吉林人民出版社1984年版。根据《奉天通志》《怀仁县志》《通化县志》记载，怀仁、宽甸、通化建县都在光绪三年——1877年。
- ③ 刘永智：《好太王碑的发现及其他》，《社会科学战线》1985年第1期。
- ④ 谈国桓：《手札》。
- ⑤ 耿铁华：《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第25~28页，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3年版。
- ⑥ 谈国桓：《手札》。
- ⑦ 叶昌炽：《奉天一则》。
- ⑧ 杨守敬：《高句丽广开土好太王谈德碑跋》。
- ⑨ 顾燮光：《梦碧簪石言》。
- ⑩ 张延厚：《跋语》。
- ⑪ 《辑安县志》。
- ⑫ 关野贞：《满洲辑安和平壤附近的高句丽遗迹》，《考古学杂志》第5卷第3、4号，1914年。
- ⑬ 今西龙：《关于广开土境好太王碑》，附录于久米邦武著《日本古代史》，1915年。

- ⑭ 王健群：《好太王碑的发现和捶拓》，《社会科学战线》1983年第4期。
- ⑮ 王健群：《好太王碑的发现和捶拓》，《社会科学战线》1983年第4期。
- ⑯ 王健群：《好太王碑的发现和捶拓》，《社会科学战线》1983年第4期。
- ⑰ 耿铁华：《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第33~34页，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3年版。
- ⑱ 《考古学杂志》1914年第5卷第3、4号。
- ⑲ 张延厚：《跋语》见《辽东文献征略》。
- ⑳ 张庆军、潘千叶：《京城玩主张伯驹》第155页，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4年1月版。
- ㉑ 陈重远：《鉴赏述往事》第17—18页，北京出版社2001年1月版。
- ㉒ 徐建新：《关于北京大学图书馆所藏好太王碑原石拓本》，《世界历史》1995年第2期。
- ㉓ 佐伯有清：《广开土王碑研究史》第4、264页，日本吉川弘文馆1981年第2次印刷。
- ㉔ 汉委奴国王金印是在天明四年(1784)一位名叫秀治和喜平的二位佃农，在耕作挖沟时偶然发现的。金印印面正方形，边长2.3厘米，印台高约0.9厘米，台上附蛇形钮，通体高约2.2厘米，上面刻有“汉委奴国王”字样。金印出土以后辗转百年，直至1979年这个家族的后人把它捐献给了福冈市博物馆。
- ㉕ 佐伯有清：《广开土王碑研究史》第117~118页，日本吉川弘文馆1981年第2次印刷。
- ㉖ 王健群：《好太王碑研究》第55—56页，吉林人民出版社1984年8月版。
- ㉗ 杨世灿：《杨守敬学术年谱》第95~96页，湖北人民出版社2004年11月第1版。
- ㉘ 谢承仁：《杨守敬集》第九册，第17~18页，湖北人民出版社、湖北教育出版社1997年6月。
- ㉙ 佐伯有清：《广开土王碑研究史》第4、81~82页，日本吉川弘文馆1981年第2次印刷。王健群《好太王碑研究》第75—76页，吉林人民出版社1984年8月版。

번역 | 광개토왕비 발견 초기 탁본작업과 연구

耿鐵華(中國 通化師範大學)

번역: 조우연(인하대학교)

東晉의 安帝 義熙10年(414) 9월 29일에, 고구려 長壽王은 작고한 부왕 廣開土境平安好太王을 위해 성대한 安葬 의식을 거행하였다. 더불어 그 생전의 교언에 따라 거대한 능비를 세우고 거기에 광개토왕의 공적, 수묘인 煙戶의 출자와 호수 및 수묘제에 관한 기록을 새겼다. 올해는 광개토왕비 입비 1,6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중국,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 학자들이 다양한 기념 학술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학계의 움직임에 발맞춰, 호태왕비 발견 초기 탁본작업과 연구 진행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一. 好太王碑의 발견

호태왕비 발견시점 문제는 줄곧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는데, 지난 백여 년 동안, 무릇 호태왕비 연구자라면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했던 것 같다. 일부 학자들은 전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뤘으나, 대부분 학자들은 다양한 학설 중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주장을 수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호태왕비에 대한 조사·연구를 거쳐 관련 기록을 남긴 가장 이른 시기 중국학자들로는 王志修, 潘祖蔭, 盛昱, 陸心源, 鄭文焯, 榮禧, 羅振玉, 葉昌熾, 楊守敬, 張鳳台, 傅雲龍, 顧燮光, 劉承幹, 歐陽輔, 談國樞, 張延厚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광개토왕비 발견 초기 상황을 저술로 남겼는데, 이는 호태왕비 발견 시점을 해명하기 위한 원시 자료라고도 할 수 있다. 20세기 초 학자들의 호태왕비 발견 시점에 관한 주장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견해로 축약된다.

첫째는, 劉承幹의 언급을 대표로하는 ‘同治末年說’이다. 劉承幹은 1922년에 『海東金石苑

補遺』를 편찬하였는데, 거기에 호태왕비문 釋文과 鄭文焯, 羅振玉 등 학자들의 관련 저술이 수록되어 있다. 그는 석문 跋尾에 다음과 같은 기술을 남겼다.

“이 비석은 동치 말년에 처음으로 경사에 전래하였는데, 吳縣의 潘祖蔭이 먼저 얻었다. 海東의 탁공들이 먹 사용이 서툴러, 비석에 종이를 대고 그려내서 겨우 비문을 읽어낼 수 있었을 뿐이다. 광서 己丑(1889)에 종친인 崔主 盛昱(字 伯羲)이 廠肆의 비첩 상인 李雲從에게 명해 식량을 싸들고 가서 탁본해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탁본이) 점차 널리 퍼지게 되었다(此碑同治末年始傳入京師, 吳縣潘文勤公祖蔭先得之. 海東工人不善拓墨, 但就石勾勒, 才可辨字而已. 光緒己丑(1889年) 宗室伯羲祭酒盛昱始集資, 令廠肆碑估李雲從裹糧往拓, 於是流傳稍廣)”

둘째는, 顧燮光의 언급을 대표로 하는 ‘光緒元年說’이다. 顧燮光이 1918년에 발표한 『夢碧簞石言』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戴葵甫가 나에게 말하기를, 호태왕비는 奉天省 輯安縣 동문 밖 10里, 將軍墓 남쪽 1리쯤에 있는데, 광서원년 동쪽 변방의 황무지를 개간하던 과정에 처음 발견되었다고 한다. 비면이 푸른 이끼에 뒤덮여 있었는데, 제거하기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이에) 현지인들이 비면에 분변을 바르고 마른 후에 거기에 불을 지폈는데, (그리하여) 이끼는 제거되었으나 비석 또한 단열되었다고 한다. 이 비석의 비문은 사발(碗)만큼 큰데, 엄밀하고 단정하며, (서체는) 예서와 해서 사이라고 한다(戴君葵甫爲餘言: 好太王碑在奉天省輯安縣東門外十里將軍墓南里許. 光緒元年開墾東邊荒地始發見. 碑面爲蒼苔漫沒, 剔出極難. 土人以糞塗碑面, 俟乾, 縱火焚之. 蒼苔去而碑裂矣. 按此碑字大如碗, 方嚴厚整, 在隸楷之間).”

셋째, 王志修의 주장을 대표로 하는 ‘光緒3年說’이다. 王志修가 1895년에 간행한 『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考』에는 「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와 「高句麗永樂太王碑考」가 수록되어 있는데, 「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에 보면 “我皇馭宇之三載, 衽席黎首開邊疆. 奇文自有鬼神護, 逢時不敢名山藏. 伐林架木拓碑出, 得者寶之同琳琅.”이라 하여, 호태왕비가 광서3년에 발견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高句麗永樂太王碑考」에서도 “비석은 奉天 동쪽 경계의 興京同知(관할 영역)에 속해 있는 懷仁縣에서 동쪽으로 360리 떨어진 通溝口에 위치해 있다. 광서3년에 변방지역의 封禁을 풀고, 通溝에 巡檢을 설치하였다(碑在奉天東境, 興京同知屬懷仁縣

東三百六十里通溝口。光緒三年開邊禁，以通溝設巡檢。”라고 하여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가 실제로 호태왕비를 발견한 인물인 懷仁縣의 書啓 關月山을 만났고, 그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詩文 형식으로 기술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다만 시문으로 기술되다보니 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

넷째는 葉昌熾, 歐陽輔의 언급을 대표로 하는 ‘光緒6年說’이다. 1909년, 葉昌熾가 편찬한 『語石』이 간행되었는데, 거기에 수록된 「奉天一則」에서는 호태왕비의 발견 시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고구려 호태왕비는 봉천 회인현 동쪽 390리 通溝口에 있으며 높이가 3丈이 넘는다. 비문이 4면에 環刻되어 있는데, 대개 平百濟碑와 비슷하다. 광서6년, 변방의 백성들이 산을 깎고 나무를 베다가 처음으로 얻었다(발견하였다). 궁벽한 변방이라 종이와 먹이 없었으므로 土人(현지인)들이 徑尺(한 치 크기)의 皮紙에 그을음(煤汁)을 뿜아 탁본하였다. 게다가 이끼가 뒤덮여 울퉁불퉁한 부분은 또 탁본한자가 자의적으로 그려 넣어 본래의 모습을 잃은 부분이 많다(高句麗好太王碑, 在奉天懷仁縣東三百九十里通溝口, 高三丈餘. 其文四面環刻, 略如平百濟碑. 光緒六年, 邊民斬山刊木始得之. 窮邊無紙墨, 土人以徑尺皮紙搗煤汁拓之. 苔蘚封蝕, 其坳堦之處, 拓者又以意描畫, 往往失真).”

歐陽輔가 1923년에 편찬한 『集古求真』 第3卷에 수록된 「高麗好太王碑」에도 유사한 내용이 확인된다.

“고구려 호태왕비의 높이는 2丈 남짓이며, 4면에 (비문) 環刻되어 있는데, 남면에서 시작하여 서, 북, 동의 순서로 되어 있다. 남면에 11행, 서면에 10행, 북면에 13행, 동면에 9행이며, 매 행에 41자씩 새겨져 있다. 글자 크기는 3, 4寸이며, 해서체, 예서체와 유사하다. 비문에서는 고구려 건국과 武功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제법 혁혁하다. 비석은 봉천성 회인현 동쪽 4백리 떨어진 通溝口에 있다. 광서6년에 변방의 백성들이 산을 깎고 나무를 베다가 처음 발견하였는데, 관내에 그 탁본이 전해지고 있다. 그전에 이에 관한 著錄을 보지 못했다. 『海東金石苑』에도 역시 이 비석 항목이 없다. 단지 陸心源이 발문을 지었고, 楊守敬이 雙鉤本을 각인하였으며, 葉昌熾가 가장 자세한 언급을 남겼을 뿐이다. 전해 듣기로는,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 궁벽한 변방이라 종이와 먹이 없었으므로 徑尺의 皮紙에

그을음을 뺀아 탁본하였다고 한다. (㉔) 비면이 울퉁불퉁하여 탁본한자가 자의적으로 그려 넣어 본래의 모습을 잃은 부분이 많다고 한다. 石質이 거친데다가 또 들불에 타다보니 훼손되어 박락한 부분이 많아졌다. 근자의 탁본 대부분이 어렵풋하다(高麗好太王碑, 石高二丈餘, 四面環刻, 由南面起, 而西而北而東. 計南向十一行, 西十行, 北十三行, 東九行, 行俱四十一字, 字大三四寸, 似楷似隸. 其文敘述高麗開國武功, 頗爲煊赫. 石在奉天懷仁縣東四百里通溝口. 光緒六年, 邊民斬山刊木始得發現, 中土乃有拓本. 故以前未見著錄. 卽羅麗琳琅, 及海東金石苑, 亦無此目. 唯陸心源有題跋, 楊守敬刻雙鉤本, 而葉昌熾言之綦詳. 謂初出時, 窮邊無紙墨, 以徑尺皮紙, 搗煤汁拓之, 其坳堦處, 拓者又以意描畫, 往往失真. 石質粗駁, 又經野燒, 漸多剝損. 近拓已大半模糊.)”

다섯째는 談國桓, 張延厚의 언급을 대표로 하는 ‘光緒初年說’이다. 談國桓의 「手札」에서 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근자에 고구려호태왕비(탁본을)를 얻었는데, (상태가) 그런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광서초엽에 탁본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비의 최초 역사에 대해 이 아우가 조금 알고 있어, 감히 주변사람들께 말씀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봉천 회인현을 설치할 당시 처음 (知縣으로) 물색된 인물은 章君樾인데 (그의) 字는 幼樵입니다. 그 막하의 관월산이라는 자가 금석에 관심이 많아 공무외의 틈을 타 여러 들판을 두루 헤매고 다녔는데, 수풀이 우거진 황량한 곳에서 이 비석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기뻐하며 직접 몇몇 글자를 탁본하여 같은 취미를 가진 지인들에게 증정하였습니다. 이 아우도 어린 시절에 직접 보았는데, 글자가 자못 바르고 정교했습니다(近得高句麗好太王碑, 尙不惡, 當在光緒初葉時所拓. 此碑最初曆史, 弟有所知, 致貢左右, 籍備參考. 奉天懷仁縣設治之時, 首膺其選者爲章君樾, 字幼樵. 幕中關君月山, 癖於金石, 公餘訪諸野, 獲此碑於荒煙蔓草中, 喜欲狂, 手拓數字, 分贈同好, 弟髫年猶及見之. 字頗精整).”

또 1925년, 張延厚도 「跋語」에서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이 비석은 봉천성 집안현 압록강변에 위치해 있는데, 역대 금석학자들이 남긴 기록은 없다. 청 광서초년에, 吳縣의 尙書 潘鄭安이 방문하여 얻었다(此碑在奉天省輯安縣鴨綠江濱, 歷代金石家未有著錄. 勝清光緒初, 吳縣潘鄭安尙書始訪得之).”

1930년에 간행된 『輯安縣志』에서도 ‘光緒初年說’을 취하고 있다.

20세기말에 이르러, 호태왕비 연구자들은 점차 ‘同治末年說’을 폐기하였으며, 결국 세 가지 견해로 이견을 좁혔다.

첫 번째 견해는, 광서원년 혹은 2년에 발견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王健群 선생은 劉承幹의 『海東金石苑補遺』와 張延厚의 「好太王碑跋語」 그리고 顧燮光의 『夢碧簃石言』, 談國桓의 「手札」 등 기록을 근거로 호태왕비의 발견 시점을 광서초년으로 추정하였다. 비록 明代 이후부터 이미 비석의 존재가 알려져 있었으나, 당시 사람들이 고구려 호태왕비임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발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광서초년, 즉 1875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국의 금석문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그것이 고구려 광개토왕묘비(능비)임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¹⁾

더불어 왕건군 선생은 또 “光緒元년에 盛京將軍 崇實이 조정의 윤허를 받아 (懷仁縣) 設治委員會를 파견하여 경작지를 조사하고 호구수를 점검하는 등 (縣 설치에 관한) 제반 사전 작업을 진행하였다. 광서2년에, 정식으로 懷仁縣(후에 ‘桓仁縣’으로 경명)을 설치하였다. 호태왕비는 通溝口에 위치하였는데, 당시 회인현의 관할 영역에 속해 있었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호태왕비는 광서초년(원년 혹은 2년 전후 시점)에 章樾의 晝寤이자 금석문 애호가였던 關月山에 의해 발견되었다.”²⁾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견해는, 광서6년에 발견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劉永智 선생은 주로 葉昌熾의 『語石』에 수록된 「奉天一則」의 기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광서6년, 변방의 백성들이 산을 깎고 나무를 베다가 처음으로 얻었다 (발견하였다). 궁벽한 변방이라, 목과 종이가 없었으므로 土人(현지인)들이 徑尺(한 치 크기)의 皮紙에 그을음(煤汁)을 뿜아 탁본을 떴다. 게다가 이끼가 뒤덮여 울퉁불퉁한 부분은 또 탁본한 자가 자의적으로 그려 넣어 본래의 모습을 잃은 부분이 많다.”고 한다. 유명지 선생의 평가

1) 王健群,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1984, 4쪽.

2) 王健群,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1984, 5~6쪽. 『奉天通志』, 『懷仁縣志』, 『通化縣志』의 기록에 따르면, 懷仁, 寬甸, 通化縣은 모두 光緒3년(1877)에 설치되었다.

에 따르면, 이 기록은 문맥이 진실하고, 또 당시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고 한다. 또 엽창치의 치밀한 학문 성향으로 미루어보아도 그가 함부로 기술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더불어 金毓黻의 『東北通史』와 1889년 일본에서 출간된 『會餘錄』에 수록되어 있는 요코이 다다나오(橫井忠直)의 글에서도 호태왕비의 발견 시점을 광서6년(1880)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또 유영지 선생의 주장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談國桓의 「手札」에 대한 분석 결과 “이 비석을 발견한 인물이 關月山이라는 점은 분명하다.”³⁾라고 긍정하였다는 점이다.

세 번째 견해는, 광서3년에 발견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1985년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 무렵, 필자는 호태왕비 발견시점에 관한 국내외 연구논저와 문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월산이 광서3년(1877)에 호태왕비를 발견하였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낸바 있다. 당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청말에서 중화민국에 이르는 시기, 비록 談國桓이나, 葉昌熾나, 顧燮光이나, 張延厚와 같은 인물들이 광서초년설, 광서원년설, 광서6년설을 언급하였다고는 하나, 비석 발견자와 구체적인 발견 시점을 연관시키지는 않았다. 비록 담국환만이 관월산이 호태왕비를 발견하였다고 했으나, 그 시점에 대해서는 또 ‘光緒初葉’이라고 하여 모호하게 언급한데 그치고 있다.⁴⁾ 최근 왕건군과 유영지 두 연구자가 제시한 비석 발견 연대는 서로 다르나, 이들 모두 비석의 발견자를 ‘懷仁知縣 章樾의 書啓인 관월산’으로 보고 있다. 『奉天通志』에 따르면, 회인현은 광서3년 7월에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을 호태왕비가 발견된 상한선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호태왕비 발견 시점의 하한선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주목된다. 하나는, 榮禧가 「高句麗永樂太王墓碑譚言」에서 언급한 “광서8년 임오에 산둥 출신의 布衣 元丹山에게 부탁하여 全壁의 탁본을 얻을 수 있었다(餘於光緒八年(壬午), 曾請山東布衣元丹山往拓, 得獲全壁).”라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張延厚가 호태왕비 「跋語」에서 “또 인묘년 사이에 비석 하단이 불에 타 훼손되었다는 얘기를 전해들고 내내 안타깝게 생각하였다(又聞寅卯間, 碑下載毀於火, 爲惋惜久之).”라고 한 언급이다. 이는 호태왕비가 발견되고 나서, 비면의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 불을 지른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데, 조사를 거쳐 불을 질러 이끼를

3) 劉永智, 「好太王碑的發現及其他」, 『社會科學戰線』1985年第1期.

4) 談國桓, 「手札」.

소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단지 장연후 한 사람만이 언급하였던 것이다.

광서연간에 짝할 수 있는 ‘寅’과 ‘卯’의 연도 조합이 3회 확인된다.

寅		卯	
光緒4年 戊寅	1878년	光緒5年 己卯	1879년
光緒16年 庚寅	1890년	光緒17年 辛卯	1891년
光緒28年 壬寅	1902년	光緒29年 癸卯	1903년

榮禧는 광서8년에 이미 호태왕비 탁본 완정본을 입수하였으므로, 이끼 소각은 광서4, 5년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관산월이 광서3년에 호태왕비를 발견하였고, 이듬해 知縣의 허락을 얻어 이끼를 소각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셋째, 王志修의 「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에서 이미 호태왕비의 발견 연대를 광서3년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 사람들은 이를 문학작품으로 취급하여 주목하지 않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鴨綠江水流湯湯, 有碑轟轟江之陽.
 大書深刻石四面, 千秋風雨徽苔蒼.
 手剔徽苔索點畫, 追摹秦漢超隋唐.
 首從創業述祖德, 始基丕立鄒牟王.
 自雲其母河伯女, 有如元鳥降生商.
 …(중략)…

稽古名不錄歐趙, 訪碑近未逢孫黃.
 風霜閱曆幾千載, 勢將寂寞沉窮荒.
 我皇馭宇之三載, 衽席黎首開邊疆.
 奇文自有鬼神護, 逢時不敢名山藏.
 伐林架木拓碑出, 得者寶之同琳琅.
 …(중략)…

호태왕비가 발견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왕지수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비석을 살

피고 탁본한 것 같은데, 호태왕비의 위치, 형태, 특징 및 비문의 내용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는 「高句麗永樂太王碑考」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비석은 奉天 동쪽 경계의 興京同知에 속해 있는 懷仁縣에서 동쪽으로 360리 떨어진 通溝口에 위치해 있다. 광서3년에 변방지역의 封禁을 풀고, 通溝에 巡檢을 설치하였다. 그 지역에 옛 성터가 여전히 남아있다. 비석은 옛 성에서 동북쪽으로 5리 떨어진 압록강변에 위치해 있는데, (방향은) 東向이며, 높이는 두丈 남짓하고, 넓이는 8尺이며, 두께는 그 절반 정도이다. 螭首(거북모양의 碑座)나 螭首 장식이 없다(碑在奉天東境, 興京同知屬懷仁縣東三百六十里通溝口. 光緒三年開邊禁, 以通溝設巡檢. 地有古城基尚存. 碑立古城東北(五里)⁵⁾鴨綠江岸, 東向, 高二丈餘, 寬八尺強, 厚得半. 無螭首盤螭飾).”

위에서 보듯이, 왕지수는 호태왕비의 발견 시점을 ‘우리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린지 3년 되던 해(我皇馭宇之三載)’ - 광서3년이라고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금석문과 시부에 깊은 소양을 갖춘 文官이 남긴 이러한 언급은 실로 중요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또 「碑歌」와 「高句麗永樂太王碑考」는 모두 광서21년(1895)에 石印 출간되었는데, 가장 이른 시기의 언급인 만큼 신뢰도가 매우 높다.⁶⁾ 게다가 왕지수가 기술한 호태왕비의 발견 시점은 桓仁縣 설치와 이끼를 불태운 시기와의 완전한 부합된다.

그러므로 호태왕비 재발견 시점은 광서3년 -1877년이고, 발견자는 懷仁縣의 書啓 關月山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二. 이끼 제거를 위한 소각 작업

호태왕비가 재발견되었을 당시 비면이 푸른 이끼로 뒤덮여 있어 문자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호태왕비는 압록강 오른쪽 기슭에 위치해 있는데, 長白山 支脈의 산비탈에 해당한다. 2백여 년의 封禁 조치로 인해 초목이 우거지고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5) 발표문에서 ‘五里’가 누락되어, 「高句麗永樂太王碑考」 원문을 참조해 보완. - 역자.

6) 耿鐵華, 『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25~28쪽.

습하고 따뜻하며 강수량이 풍부한 현지 기후의 특성상, 일조가 좋은 지역의 바위절벽에도 푸른 이끼가 뒤덮여 있다. 따라서 발견 당시 수풀이 우거진 황지에 우뚝 솟아 있었던 호태왕비에 이끼가 뒤덮여 있었고, 그에 따른 침식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 가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왕지수의 「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에서 “큰 글자가 비석 네 면에 깊게 새겨있으나, 오랜 세월 비바람 속에 이끼만 푸르네. 손으로 이끼를 걷어내고 점획을 찾아보니, (그 書風이)秦漢을 이은 것이요, 隋唐을 넘어선다(진한 이후, 수당 이전의 것이라는 의미)(大書深刻石四面, 千秋風雨黴苔蒼. 手剔黴苔索點畫, 追摹秦漢超隋唐).”라고 했는데, 이 구절에서 ‘千秋風雨黴苔蒼’이라는 문구는 호태왕비 발견 당시 이끼로 뒤덮여 있었던 상황을 잘 전해주고 있다.

‘손으로 이끼를 걷어낸(手剔黴苔)’ 이후에야 비문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점획을 판독하여 진한에서 수당에 이르는 시기 고구려의 흥망사를 되짚어 보았다는 것이다.⁷⁾

왕지수의 「碑歌(약칭)」 문장 전체를 살펴보면, 그가 호태왕비가 발견되고 얼마 되지 않아 곧 바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奉天軍糧署同知를 지냈으며 장기간 봉천에 거주하였으므로 요동지역 금석문에 대한 제법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碑歌」의 “自我東來考典制, 搜羅金石盈東廂. 得此奇碑審初拓, 恍如石鼓征陳倉.”이라는 구절에도 금석문에 대한 관심이 잘 드러나 있다.

또 「碑考」에서 호태왕비의 위치, 방향, 형태 및 비문에 대해 다른 학자들보다 자세히 기술하고 있고, 그 외에, 通溝古城, 호태왕릉 및 文字磚 등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그가 실제로 통구 현지를 방문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 시점이 관월산이 호태왕비를 발견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이끼를 불태우기 이전일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즉 광서3년 가을 무렵일 가능성이 많다.

그는 직접 ‘손으로 이끼를 걷어내고 점획을 찾아(手剔黴苔索點畫)’ 보았다고 했는데, 만약 이끼를 소각한 이후 다녀간 것이라면, 구태여 손으로 이끼를 걷어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호태왕비 비문과 이끼소각 상황에 대해 소상히 기술했을 것이다.

왕지수 외에도 호태왕비 발견 초기 이끼로 뒤덮여 있었던 상황을 언급한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는 통구에 직접 다녀갔고, 일부는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던 것 같다. 예를

7) 발표문에서는 “追摹秦漢超隋唐”을 “진한에서 수당에 이르는 시기 고구려의 흥망사를 되짚어 보다.”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옮겼으나, 사실 이는 비문 書體에 대한 언급으로 판단된다. - 역자 주.

들어, 顧燮光의 『夢碧簃石言』에서 타인이 전해준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戴葵甫가 전해준 말에 따르면, 호태왕비는 봉천 집안현 동문 밖 10리에 있는 將軍墓 남쪽 1리쯤에 있다고 한다. 광서원년에 동쪽 변경의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비면이 이끼에 뒤덮여 있었으며, (이끼를) 제거하기 아주 어려웠다고 한다(戴君葵甫爲餘言：好太王碑在奉天省輯安縣東門外十里將軍墓南里許. 光緒元年開墾東邊荒地始發現. 碑面爲蒼苔漫沒, 剔除極難).”

호태왕비 발견 직후, 관월산은 너무 기쁜 나머지 몇 글자를 직접 탁본하여 지인들에게 증명하였다고 한다. 아마 그는 비면 전체 탁본을 얻기 위해 다급해졌을 것이고, 가장 큰 어려움은 비면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끼였다. 이끼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완전한 탁본을 할 수 없었었다. 이에 관월산은 당시 회인현 知縣 章樾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장월의 출신, 재능, 사무 처리 성향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호태왕비의 발견을 회인현 설치이래의 일대 사건으로 삼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는 한편으로 상급 관아에 稟文을 올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월산을 시켜 사람을 보내 비석을 경비하게하고, 이끼를 제거하여 탁본과 관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호태왕비 인근에 인적이 드물었으므로 관월산 등은 初天富라는 농부를 찾아 그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다. 그리하여 이 평범한 농부의 이름이 호태왕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되었으며, 국내외 학자들이 호태왕비 연구에서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初天富(1847~1918)의 원적(祖籍)은 山東 文登(縣)이다. 淸 同治 말년에 형 初天貴와 함께 關東의 변경을 넘어 通溝 일대로 이주하였다. 초천부는 上套村에 자리 잡았고, 초천부는 호태왕비 인근의 황무지를 개간하였다. 광서3년 가을에, 회인현 지현의 서계 관월산이 통구에 이르러 호태왕비를 발견하고 직접 비문 몇 자를 탁본하였는데, 초천부는 이러한 중대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시 초천부의 나이는 30세에 불과하였으며, 힘이 넘치는 농부로서, 관월산 등이 비석 경비와 이끼 제거 작업을 위임하기에 적절한 인물이었다.

광서4년에서 5년 사이, 초천부는 (이끼 제거를 위해)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불을 질러 소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야 최종 이끼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다. 비석에 불을 지르면서 불가피하게 비석이 훼손될 수밖에 없었는데, 젊은 농부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호태왕비 발견 직후 이끼 소각 작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전해 듣기로는, 수년전에 어떤 무식한 농부가 이끼가 두꺼워 탁본하기 어렵다 하여 말뚝으로 태웠다고 합니다. 비석이 워낙 거친데다가, 이 같이 불에 그을리다보니 조각들이 떨어

어져 나갔고, 이로써 비석이 훼손되었습니다. 사물의 흥망이 유수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聞此碑數年前有僧父某, 以苔蘚過厚, 不易拓, 用馬矢燒之. 而碑石本粗劣, 經此煨煉, 恒片片墜. 碑乃自此毀矣! 物成敗有數, 惜哉!).⁸⁾

“광서6년에, 변방의 백성들이 산을 깎고 나무를 베다가 처음으로 얻었다(발견하였다). …… 이끼가 뒤덮여 울퉁불퉁한 부분은 탁본한 자가 자의적으로 그려 넣어 본래의 모습을 잃은 부분이 많다. …… 전해 듣기로는 비석의 재질이 거친데다가 또 불에 그을리다보니 지금에는 (조각들이) 점차 박락하여 훼손되었다(光緒六年, 邊民斬山刊木始得之. ……苔蘚封蝕, 其坳埳之處, 拓者又以意描畫, 往往失真. ……聞石質粗駁, 又經野燒, 今已漸剝損矣).”⁹⁾

“비석은 요동 鳳凰城에서 발견되었다. 십여 년 전, 탁본이 전해졌는데, 혹자 이르기를 경자년 중일전쟁 무렵에 발견된 것이라고 한다. ……曹君(曹廷杰)의 말에 따르면, ‘비석이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 사람들이 다투어 탁본하려 하자, 현지인들은 그들이 벼 싹을 짓밟는다 하여, 거기에(비석) 소똥을 발라 불태웠다. 그리하여 (조각이) 박락하고 침식이 생겨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碑出遼東鳳凰城. 十餘年前傳來拓本, 或雲是庚子中日之役覓得. ……曹君雲: “碑初出時, 人爭拓之, 土人以其踐踏禾苗, 以牛糞塗其上, 用火燒之, 故剝蝕乃爾).”¹⁰⁾

“광서원년 동쪽 변방의 황무지를 개간하던 과정에 처음 발견되었다. 비면이 푸른 이끼에 뒤덮여 있었는데, 제거하기 매우 어려웠다. 현지인들이 비면에 분변을 바르고 마른 후에 거기에 불을 지폈다. (그리하여) 이끼는 제거되었으나 비석 또한 단열되었다(光緒元年開墾東邊荒地始發見. 碑面爲蒼苔漫沒, 剔除極難. 土人以糞塗碑面, 俟幹, 縱火焚之. 蒼苔去而碑裂矣).”¹¹⁾

“이 비석은 봉천성 집안현 압록강변에 위치해 있는데, 역대 금석학자들이 남긴 기록은 없다. 청 광서초년에, 吳縣의 尙書 潘鄭安이 방문하여 얻었다. ……또 인묘년 사이에 비석

8) 談國樞, 「手札」

9) 葉昌熾, 「奉天一則」

10) 楊守敬, 「高句麗廣開土好太王談德碑跋」

11) 顧燮光, 「夢碧簃石言」

하단이 불에 타 훼손되었다는 얘기를 전해들고 내내 안타깝게 생각하였다(此碑在奉天省輯安縣鴨綠江濱, 歷代金石家未有著錄. 盛清光緒初, 吳縣潘鄭安尙書始訪得之. ……又聞寅卯間, 碑下載毀於火, 爲惋惜久之).¹²⁾

“오랜 세월 비바람에 침식되어 점차 박락·훼손되었으나, (비문이) 뚜렷한 곳은 여전히 눈에 띈다. 광서초년, 탁공이 비면에 이끼가 많다하여 거기에 소똥을 붙여 태웠는데, 그로 인해 너무 많이 깎이고 박락되었다(惜多曆年所, 風雨侵蝕, 已漸剝損, 清晰處尙堪入目. 光緒初年, 拓者因石上多苔蘚, 用牛糞敷其上, 燒之, 以致剝削太多).¹³⁾

“(初天富는) 30년 전에 이미 이곳에 거주하였고, 당시 知縣의 명을 받고 탁본을 제작하였다. 비면에 이끼가 있어 비를 불태웠는데, 그로 인해 모퉁이가 훼손되었다(初天富三十年前就住在此地, 受當時知縣之命, 捶制拓本. 因碑面有長華(苔蘚), 曾以火燒碑, 致使隅角損缺).¹⁴⁾

“30년 전 이 비석의 표면에 이끼가 뒤덮여 있어, 비문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그가 (초천부를 지칭) 지현의 명을 받들어 이끼를 소각해 제거하고 문자를 노출 시켰다. 비석을 불태우면서 그로 인해 비석의 일부가 훼손되었다(此碑三十年前, 碑面長滿長華(苔蘚), 文字遺存與否, 無法弄清. 他(指初天富)奉知縣之命, 燒去長華, 露出文字. 當燒碑之時, 使碑一部分毀損).¹⁵⁾

“어르신들한테서 듣기로는, 전에 비석이 푸른 이끼로 뒤덮여 있어 탁본이 어려웠으므로 비석에 말뚝(당시 인근에 소가 없었다고 함)을 바르고, 마른 다음 불을 질러 태웠는데, 비석이 불에 타 깨져버렸다고 합니다(聽老人說, 以前由於碑身長滿青苔, 不好拓字, 在碑上抹上馬糞(當時左

12) 張延厚, 「跋語」

13) 『輯安縣志』

14) 關野貞, 「滿洲輯安和平壤附近の高句麗遺跡」, 『考古學雜誌』第5卷 第3, 4號, 1914 (『滿洲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跡(二)』, 『考古學雜誌』5-4, 1914;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1941. - 역자補)

15) 今西龍, 「關於廣開土境好太王碑」(久米邦武, 『日本古代史』附錄, 1915) (『廣開土境好太王陵碑に就て』, 『訂正増補大日本時代史』古代 下卷, 1915. - 역자補)

近無牛), 幹了用火燒, 把碑燒裂了).”¹⁶⁾

“初大碑(초천부의 아들 初均德을 지칭)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에 비석에 푸른 이끼가 아주 두껍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뒤, 이끼에 소똥을 바르고, 소똥이 마른 다음 불을 질러 이끼를 소각하고 나서야 글자를 탁본할 수 있었습니다. 소각할 때 비석의 한 조각이 깨져 버렸습니다.’(初大碑(指初天富之子初均德)還說: 過去碑上青苔挺老厚. 後來在青苔上抹上牛糞, 牛糞幹了放火燒, 把青苔燒掉才拓出字來. 燒的時候, 大碑爆了一塊).”¹⁷⁾

“전해 듣기로는, 본래 비석이 푸른 이끼에 뒤덮여 있었는데, 후에 沈陽에서 누군가가 비석을 보러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老初頭(초천부)가 방도를 생각해내, 비석에 소똥을 바르고, 소똥이 마르자 거기에 등유를 부어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끼는 제거되었으나 비석의 한 조각이 깨져버렸다고 합니다.(聽說碑上原來長滿青苔, 後來說沈陽來人要看字. 老初頭想出了個法子, 在碑上塗上牛糞, 牛糞幹了倒上火油燒. 青苔去掉了, 碑也崩了一塊).”¹⁸⁾

위에서 살펴본 문헌자료와 조사기록은 학자들이 남긴 것도 있고, 일반 주민의 회역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도 있으며,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의해 기록된 것도 있다. 비록 대부분이 직접 전해들은 내용이라고는 하나, 직접 경험한 인물이 기술한, 비면에 이끼가 덮여 있었고, 이끼를 소각하였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특히나 初均德과의 면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들 중요한 자료들은 그 진실성을 서로 입증해주고 있으며, 거기에 또 (현재)호태왕비의 훼손 상황과 연관시켜 보면, 호태왕비 재발견 직후 확실히 불로 이끼를 소각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자료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첫째, 호태왕비가 재발견되었을 무렵 표면에 푸른 이끼가 뒤덮여 있었고, 初天富가 회인 현 지현 章樾의 명을 받고 이끼를 제거하였다. 이끼 제거 방법은 초천부가 작업 과정에서

16) 王健群, 「好太王碑的發現和捶拓」, 『社會科學戰線』1983年第4期.

17) 王健群, 「好太王碑的發現和捶拓」, 『社會科學戰線』1983年第4期.

18) 王健群, 「好太王碑的發現和捶拓」, 『社會科學戰線』1983年第4期.

스스로 터득해낸 것이다.

둘째, 이끼를 소각한 목적은 주로 비문의 상황을 파악해 손쉽게 탁본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이 다투어 탁본하려 하자, 현지인들은 그들이 벼 싹을 짓밟는다 하여, 거기에(비석) 소똥을 발라 불태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호태왕비가 편벽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또 탁본하러 다녀간 사람이 마을의 벼 싹을 짓밟을 정도로 많았던 것도 아닌 만큼, 주민들이 그들을 귀찮게 여겨 비석을 불태워 없애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소각 작업을 통해 이끼를 말끔히 제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호태왕비가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 사실 초천부는 이끼 제거 지시만 받았던 것이 아니고, 더불어 비석 看守 업무도 위임 받았던 만큼, 그가 의도적으로 비석을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지현인 장월이나 서계 관월산 역시 본래 의도한 바는 호태왕비를 현의 자랑거리로 여겨 보호 및 연구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끼를 불태우는 과정에서 호태왕비가 훼손된 것은 사실상 의외의 우발사고였던 것이다.

현장 조사 결과, 호태왕비의 훼손된 부분은 모두 자연 풍화현상으로 인해 침식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비석 훼손은 모두 인위적인 소각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이었다. 이는 당시 확실히 호태왕비에 불을 질러 이끼를 제거하였음을 말해준다. 많은 학자들이 호태왕비 소각 상황에 대한 기술을 남겼는데, 그러한 사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훼손 정도와 위치에 관한 다양한 설들이 생겨났다. 현재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곳의 훼손이 관찰되고 있다.

첫 번째는, 비석의 1면에서 2면에 이르는 모퉁이부분인데, 基石에서 2m 떨어져 있다. 깨져나간 흙의 크기는 세로로 50여 cm, 깊이 30cm이다. 그와 함께, 비스듬한 두 갈래의 커다란 단열된 틈이 생겼는데, 1면에 닿은 부분의 길이는 2.20m이고, 2면에 닿은 부분의 길이는 2.35m이다. 이 단열로 인해 1면 7~11행의 비문 15자가 훼손되었으며, 2면 1~6행의 비문 20자 정도가 훼손되었다.

두 번째는, 1면 11행의 中下部와 基石에 가까이 있는 부분인데, 비문 9~11행 하단과 11행 중부의 약 10여 글자가 훼손되었다.

세 번째는, 2면 마지막 행의 하부와 3면 하단의 1~7행 부분이다. 2면의 마지막 행에서 비문 10여 자가 훼손되었다. 3면의 1~7행 하단은 비석이 깨져 박락되었는데, 면적이 약 0.8㎡이며, 50여 자가 훼손되었다. 3면의 1~3행 중부도 비석이 박락하여 20여 글자가 훼손되었다.

나머지 훼손된 부분은 대개 작은 단열에 불과하며 그에 따른 비문 훼손도 많지 않다. 그 외, 일부는 장기간 누적된 풍화작용으로 발생한 침식이거나, 훼손된 부분이 주변으로 확대되면서 생겨난 것들이다. 예를 들어, 1면과 2면이 만나는 경계지역의 단열이 후에 점차 커지면서 10여 자가 더 훼손되었고, 2면 상부와 3면 상부는 침식으로 인해 비문 30여 글자가 훼손되었는데, 침식이 발생한 정확한 시점을 알기는 어렵다.¹⁹⁾

三. 호태왕비 탁본

懷仁縣의 書啓 關月山이 수풀이 우거진 通溝의 황량한 땅에서 호태왕비를 발견했을 무렵, 중국의 (금석문) 탁본 기술은 이미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비석 탁본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탁공, 판매상들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금석문과 골동품 수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관리, 학자들 중에도 傳拓에 능한자가 적지 않았다. 관월산과 같이 금석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반드시 비갈과 석각을 찾아보곤 했으며, 항상 탁본 도구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

따라서 호태왕비를 발견하고는 미친 듯이 기뻐하였으며, 이에 “직접 몇몇 글자를 탁본하여 같은 취미를 가진 지인들에게 증정(手拓數字, 分贈同好)”했던 것이다. 관월산은 몇 글자만 탁본하였을 뿐, 비문 전체 탁본은 얻지 못했는데, 호태왕비 자체가 거대했고, 더 중요한 것은 비면에 푸른 이끼가 뒤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관월산을 지인들에게 거대한 고구려비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完정한 비문 탁본을 위해 縣令(知縣) 장월의 허락을 받아 이끼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광서4년, 5년 사이에(戊寅, 己卯 / 1878~1879) 호태왕비 옆에 거주하고 있던 농부 초천부가 지현의 명을 받고 이끼를 불태워 제거했던 것이다. 따라서 광서6년(1880) 이후에야 비로소完정한 탁본이 가능해졌다.

관월산에 관한 문헌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談國桓의 「手札」에서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 耿鐵華, 『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33~34쪽.

“근자에 고구려호태왕비(탁본을)를 얻었는데, (상태가) 그런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광서초엽에 탁본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비의 최초 역사에 대해 이 아우가 조금 알고 있어,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봉천 회인현을 설치할 당시 처음 (지현으로) 물색된 인물은 章君樾인데 (그의) 字는 幼樵입니다. 그 막하의 관월산이라는 자가 금석에 관심이 많아 공무외의 틈을 타 여러 들판을 두루 헤매고 다녔는데, 수풀이 우거진 황량한 곳에서 이 비석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기뻐하며 직접 몇몇 글자를 탁본하여 같은 취미를 가진 지인들에게 증정하였습니다. 이 아우도 어린 시절에 직접 보았는데, 글자가 자못 바르고 정교했습니다. 당시 비문 전체 탁본이 없었는데, 비석의 높이가 2丈도 더 되고, 넓이는 6尺 이상이어서 築臺를 설치하지 않고서는 작업할 수 없으며, 바람이 불거나, 피약별 아래서는 손쓰기 더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원문은 앞부분 참조……當時並未有全拓本, 以碑高二丈餘, 寬六尺強, 非築層台不能從事, 風日之下, 更不易措手也).”

1929년 8월 25일, 談國桓이 호태왕비 탁본을 위해 쓴 跋語에서도 관련 언급이 확인된다.

“광서11년 乙酉에 (이미 돌아가신) 가친께서 承德 首邑에 계시다가 京師(北京)로 귀환하셨고, 章君(장월)이 현의 사무를 대신하였다. 그 서계인 西席 관월산이 손수 탁본한 비문 몇자를 증정하였다. 종이 한 장에 한자씩 있었는데, 바로 이 비석이였다. 글자가 자못 完整했으며, 탁본 기술 역시 정교했다. 가석하게도 (당시) 나이가 어려 귀한 것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버렸다(光緒十一年, 歲在乙酉, 先君子宰承德首邑, 晉引入都. 章君代理縣事. 其書啓西席關君月山, 贈餘手拓碑字數枚, 每紙一字, 卽此碑也. 字甚完整, 拓工亦精. 惜髫年不知寶貝, 隨手拋棄).”

당시 담국환의 나이는 겨우 16세에 불과하였으며, 承德 관아(衙署)에서 글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는 관월산을 만나 호태왕비 발견 경위에 대해 전해 들었고, 또 당시 탁본을 증정받기도 했다. 이는 진실한 내용일 가능성이 많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관월산은 호태왕비의 발견자일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탁본한 인물이기도 하다. 비석이 높은데다가 이끼로 뒤덮여 있어 완전한 탁본이 어려웠으며, 이에 하는 수 없이 손이 닿는 비석 하단에서 몇몇 글자를 탁본하여 “지인들에게 증정”하였던 것이다.

이끼 소각 이후, 광서6년(1880)에 이르러 완전한 탁본이 가능해졌다. 비석이 너무 높아, 반드시 架木을 설치하여야 비석 윗부분에 닿을 수 있었다. 산속에 나무가 무성했으므로 벌목

하여 가목을 설치하는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葉昌熾는 「奉天一則」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한바 있다.

“고구려 호태왕비는 봉천 회인현 동쪽 390리 通溝口에 있으며 높이가 3丈이 넘는다. 그 비문이 사면에 環刻되어 있는데, 대개 平百濟碑와 비슷하다. 광서6년, 변방의 백성들이 산을 깎고 나무를 베다가 처음으로 얻었다(발견하였다). 궁벽한 변방이라, 묵과 종이 없었으므로 土人(현지인)들이 徑尺(한 치 크기)의 皮紙에 그을음(煤汁)을 뿜아 탁본을 뒀다. 게다가 이끼가 뒤덮여 울퉁불퉁한 부분은 또 탁본한 자가 자의적으로 그려 넣어 본래의 모습을 잃은 부분이 많다(원문은 앞부분 참조).”

위에서 이른바 “광서6년, 변방의 백성들이 산을 깎고 나무를 베다가 처음으로 얻었다”고 한 것은, 바로 완전한 탁본이 이루어진 시간과 방법에 관한 언급이다. 즉 시점은 ‘광서6년’이고, 방법은 우선 나무를 베어 가목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러 기위해서 ‘산을 깎고 나무를 베(斬山刊木)’는 작업이 필요하였다.²⁰⁾ 다시 말해, 나무를 베어다가 다듬어 가목을 설치하고 나서야 비로소 비석의 윗부분부터 작업하여 완전한 탁본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광서6년에……처음 얻었다’고 한 것은 결코 호태왕비 발견 시점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완전한 호태왕비 탁본이 처음 이루어진 시점을 말한다. 기본적인 古文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모두 이 같이 해석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문장에서는 광서6년 변방의 주민들이 나무를 베어다가 가목을 설치하고 나서야 처음 완전한 호태왕비 탁본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음을 전해주고 있다. 당시 호태왕비 인근 지역에는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산을 깎고 나무를 베다가’ 처음 발견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葉昌熾는 이어서 탁본 작업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궁벽한 변방이라, 묵과 종이가 없었으므로 土人(현지인)들이 徑尺(한 치 크기)의 皮紙에 그을음(煤汁)을 뿜아 탁본을 뒀다. 게다가 이끼가 뒤덮여 울퉁불퉁한 부분은 또 탁본한 자가 자의적으로 그려 넣어 본래의 모습을 잃은 부분이 많다”고 했다. 즉 최초의 탁본은 徑尺(한 치 크기)의 皮紙에 그을음을 뿜아

20) “邊民斬山刊木始得之”를 현지인들이 황무지 개간 과정에서 광개토왕비를 처음 발견하여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발표자는 나무를 베어다가 비석 옆에 架木을 설치함으로써 처음 완전한 탁본을 얻을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 역자 주.

작업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土人(현지인)’이란 마땅히 비석 옆에 거주하고 있었던 初天富를 지칭할 것이다.

이끼를 소각하고 나서, 관월산은 비문을 고증하여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및 역사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호태왕비를 방문하여 직접 탁본했거나, 초천부의 도움을 받아 탁본 작업을 진행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하여 초천부도 점차 비석 탁본 기술을 익히게 되었으며, 비석 경비를 위임받고 비문 탁본 작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초천부는 일개 무지렁이 농부였던 터라 탁본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그려(以意描畫)’ 넣음으로써 탁본 문자가 ‘본래의 모습을 잃은 경우가 많(往往失真)’았던 것 같다.

세키노 다다시(關野貞)는 「滿洲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跡」(1914)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비석) 옆에 있는 오두막집에 初鵬度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비석 탁본을 업으로 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올해(1913년) 그의 나이는 66세이며, 30년 전부터 이곳에 거주하면서 당시 지현의 명을 받고 비석 탁본 일을 하였다고 한다. 비면에 이끼가 있어, 불을 붙여 태웠는데, 그로 인해 비석 모퉁이가 훼손되었다고 한다. 또 비면이 너무 거칠어 탁본해낸 문자가 뚜렷하지 않아, 십여 년 전부터 비면 문자 주변의 틈새에 석회를 바르기 시작했는데, 그 후 매년 군데군데 석회로 보수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가 관찰한 바로는, 비단 문자주변에 석회가 발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석회로 글자 자획을 메꾼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일부 글자는 완전히 석회위에 새로 새겨 넣은 것이었다. 그렇게 보완한 글자 대부분이 원래 글자에 근접한 것처럼 보이나,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在碑旁茅屋中, 住著一個叫初鵬度的, 以拓碑爲業. 聽他說: 他今年(指1913年)六十六歲, 三十年前就住在此地, 受當時知縣之命, 拓制拓本, 因碑面有長華(苔蘚), 以火焚之, 致使碑角欠損. 又因碑面過粗, 拓本文字不醒目, 從十多年前起, 在碑面文字周邊的間隙處塗上石灰, 以後每年以石灰處處修補. 據我們詳細觀察, 不僅文字周邊塗以石灰, 往往以石灰補其字劃, 有的字完全是在石灰上新刻的. 而此等補足之字, 大抵近似原字, 但很難置信).”²¹⁾

21) 『考古學雜誌』1914年 第5卷 第3, 4號.

세키노 다다시는 1913년에 진행한 호태왕비 현장 조사 과정에서 初鵬度라는 인물을 만났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가 바로 초천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일본인들이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어 ‘초봉도’로 오기했던 것 같다. 그 형의 이름은 初天貴인데, 두 형제는 기근을 피해 山東省 文登縣에서 東北의 通溝지역으로 이주했다. 그는 세키노에게 30년 전부터 지현의 명을 받고 비석 탁본 일을 시작했다고 얘기했는데, 30년 전이라면 마땅히 1883년(광서 9년)일 것이다. 당시 회인현 서계 관월산이 이미 호태왕비를 발견하였고,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초천부에게 비석 간수와 이끼 제거 일을 지시하였다. 초천부는 그 과정에서 점차 탁본 기술을 익히게 되었던 것이다.

호태왕비는 방형의 角礫凝灰岩 재질로서 표면이 평평하지 못하다. 특히나 1면의 돌출부와 함몰 부분의 낙차는 10~15cm에 달한다. 거기에 또 천여 년 동안 비바람의 침식으로 인해 구멍이 많이 생겨났고 石齒가 날카로워졌다. 처음 탁본할 때 전형적인 탁본 기법을 사용하여, 비면에 젖은 宣紙를 덧대고 가볍게 두드리자 종이가 곧 찢어졌다. 반복하여 시도했으나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당시 탁공들은 선지 외에 다른 종이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비석에 마른 종이를 덧대어 자획 윤곽을 그려내고, 다시 거기에 먹칠 채워 넣는 전통적인 탁본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호태왕비 최초의 완전한 탁본인 ‘雙勾加墨本’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호태왕비의 쌍구가목본은 전통적인 쌍구가목본과 다르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쌍구가목본은 자형을 그려내고 거기에 먹칠 채워 넣는 방식인데, 마치 字帖과도 같아 글자 색이 검은 색이다. 그러므로 비록 비문은 음각이나, 탁본해낸 쌍구가목본의 글자는 검은 색이다(비문이 음각이므로 일반 탁본에서 글자는 흰색이다). 전통기법으로 제작한 쌍구가목본의 글자는 검은 색이다. 탁본 대상이 목서든 아니든 음각된 비문이면 탁본해낸 쌍구가목본은 흰 바탕에 검은색 글자 형태이다. 그러므로 탁본을 보면 곧바로 전통적인 影寫法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검은색 배경에 흰색 글자 형태의 일반 탁본과 반대된다.

현재 우리가 보아온 호태왕비 쌍구가목본이 전통기법과 다른 점이라면, 비문 자형을 그려내고 거기에 먹칠 채워 넣은 것이 아니라, 글자 이외의 부분에 먹칠을 했다는 것이다. 즉 음각된 비문에 대응되게 글자가 흰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록 탁본의 흑백 효과는 직접 탁본해낸 것과 동일하지만, 그 운치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거리가 멀다.

초천부가 초기에 제작해낸 탁본이 바로 이러한 쌍구가목본일 것이다. 그는 다년간의 기술 습득과 실천을 거치면서 직접 탁본 방법을 익히게 된다. 비석이 거대하여 가목을 설치하

여 작업하였는데, 초천부가 노쇠하여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그의 아들 初均德이 일을 대신하였다. 1938년을 전후하기 까지, 초씨 부자는 60년에 걸쳐 호태왕비 탁본 작업에 종사하였는데, 그 사이에 부지기수의 탁본을 제작해냈다.

호태왕비 초기 탁본 제작자로 李大龍, 李雲從도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 張延厚의 「跋語」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비석은 봉천성 집안현 압록강변에 위치해 있는데, 역대 금석학자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청 광서초년에, 吳縣의 尙書 潘鄭安이 방문하여 얻었다. 京師(북경)의 李大龍에게 명해 식량을 싸들고 가서 탁본하도록 했는데, 간난신고 끝에 50本을 얻어 오자 貴遊들이 일시에 다투어 구입하였다. 이대룡은 다시 (탁본하러) 다녀오고 싶었으나 길이 멀고 작업 양이 커서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流轉되는 탁본이 점차 적어졌다. 南中의 호사가가 나무에 새겨 쌍구본을 제작해 퍼뜨렸는데, 墨本의 희귀함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此碑在奉天省輯安鴨綠江濱, 歷代金石家未有著錄. 勝清光緒初, 吳縣潘鄭安尙書始訪得之, 命京師李大龍裹糧往拓, 歷盡艱險, 得五十本, 一時貴遊, 爭相購玩. 大龍頗欲再往, 以道遠工巨而止. 因是流傳日寡, 南中好事者, 至雙勾鋸木以傳. 其墨本之稀可知矣).”²²⁾

葉昌熾의 「奉天一則」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을유년(광서11년(1885) -역자)에 中江 李眉生(李鴻齋 -역자)이 두 부(本)을 얻어, 그 중 한부를 스승 潘文勤(潘祖蔭 -역자)에게 드렸다. 모두 3, 40장 분량이었고, 내게 그 순서를 맞추어 考釋하라고 분부하였는데, 열흘이 넘게 애썼으나 맞추지 못했다. 그 후, 碑帖 판매상인 李雲從이 식량과 먹을 싸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수천 리 길을 다녀와서야 비로소 精拓本을 얻을 수 있었다(乙酉年, 中江李眉生丈得兩本, 以其一曾潘文勤師, 其三四十紙. 囑餘爲排比考釋, 竭旬日之力, 未能聯綴. 其後碑估李雲從裹糧挾紙墨, 跋涉數千里, 再往返始得精拓本).”

劉承幹의 「跋語」(『海東金石苑補遺』-역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22) 張延厚, 「跋語」(『遼東文獻征略』).

“이 비석은 동치 말년에 처음으로 경사에 전래하였는데, 吳縣의 潘祖蔭이 먼저 얻었다. 海東의 탁공들이 먹 사용이 서툴러, 비석에 종이를 대고 그려내서 겨우 비문을 읽어낼 수 있었을 뿐이다. 광서 己丑(1889)에 종친인 涑州 盛昱(字 伯羲)이 廠肆의 비첩 상인 李雲從에게 명해 식량을 싸들고 가서 탁본해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탁본이) 점차 널리 퍼지게 되었다(원문은 앞부분 참조).”

李大龍과 李雲從에 관한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일부 傳記나 사료에서 산견되고 있다. 張伯駒가 저술한 전기에서 이운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나는 宜古齋의 李雲從에 대해 탄복해마지 않는다. 다만 아쉽게도 늦게 태어난 고로 미처 그의 풍채를 領略하지는 못하고 단지 어르신들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이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는 부인의 조상인 潘祖蔭과 친교를 맺은바 있다고 한다. 潘祖蔭은 학문의 대가이자 수집가인데, 孟鼎(大孟鼎(周代의 명문 청동기) - 역자)의 소장자로도 유명하다. 당시 그는 늘 宜古齋(이운중의 가계 -역자)를 방문하였고, 이운중은 그를 위해 금석문 탁본을 널리 수집하여 깊은 신임을 얻었다. 潘文勤(潘祖蔭의 諡號)공의 지도를 받아 이운중은 점차 考據學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각종 유명한 碑帖과 書帖을 널리 익혔다. 방문한 고객의 질문에 항상 막힘없이 답하였으며, 평범한 공동품 상인에서 일약 대학자로 성장하였다. 소문에 따르면, 청 조정의 중신이자 후에 학문의 대가가 된 端方이 그를 스승으로 모셨다고 한다(我還佩服宜古齋的李雲從, 可惜餘生也晚, 未能領略風采, 只是從老輩人中聽說他的故事. 據說此人與夫人的祖上潘祖蔭有過一段交往, 那潘祖蔭是位大學問家, 也是位大收藏家, 以收藏孟鼎聞名, 當年他常去宜古齋, 李雲從爲他搜集碑石, 金文拓本, 受到青睞. 在潘文勤(潘祖蔭的諡號)的指導下, 李雲從鑽研考據學, 熟記各類著名之碑帖, 法帖. 每逢顧客詢問, 他對答如流, 如數家珍, 已從一般古董商成爲一個大學問家. 據說清廷重臣, 後來也成爲一代學問宗師的端方就曾拜他爲師).”²³⁾

『海王村人物』이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23) 張慶軍, 潘千葉, 『京城玩主張伯駒』,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155쪽.

“이운중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直隸 故城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비첩 장사를 배웠고, 오래 동안 考據學 연구에 몰두하였다. 광서초년에 관아에서 玉牒(역대 왕실 족보)을 盛京에 올리기 위해 사람을 보냈는데, 그 중에는 侍郎 盛伯羲, 祭酒 王濂生, 尙書 端甸齋(端方-역자) 등도 있었다. 도중 어느 역에서 하루 밤을 묵게 되었는데, (그날) 성백희와 왕림생 사이에 비석 판본에 관해 논쟁이 있었고, 단도재가 끼어들어 질문했다. 왕림생이 분연히 이르기를 ‘자네는 기생이나 끼고 술 마실 줄밖에 모를 터인데 뭘 이런 얘기에 참견인가!’라고 하자, 이에 단도재가 노하여 탁자를 치며 이르기를 ‘3년 후에 다시 봄세!’라고 했다. 돌아와서 곧 廠肆에서 비석 판본에 능통한자를 수소문하여 이운중을 만나게 되었고, 아침저녁으로 무수한 宋明 탁본과 碑碣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가 처음 구입한 것이 바로 鄆縣의 林碑인데, 돈 5백 냥을 주고 얻어 정원에 늘어놓았다. 과연 3년이 지나 (비문) 감식에 능하다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운중은 반문근공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수집품의) 일부는 판매도 했으나, 번번이 많은 것들을 관상용을 남겼다. 그로 인해 이운중은 그렇게 십여 년을 허송하였으며 결국 가난에 쪼들려 사망했다 (有若李雲從者, 直隸故城人, 幼習碑賈, 長益肆力於考據, 當光緒初年, 各衙門派員恭送玉牒至盛京, 盛伯羲侍郎, 王濂生祭酒, 端甸齋尙書, 皆在其中. 一日, 夜宿某站, 盛與王縱論碑版, 端詢之, 王奮然曰: 爾但知挾優飲酒耳, 何足語此! 端拍案曰: 三年後再見! 及歸, 遂訪廠肆之精於碑版者, 得之雲從, 朝夕討論, 購宋明拓本無數, 又購碑碣無數. 其第一次所購, 卽鄆林碑也, 以五百金得之, 羅列庭院, 果不三年而遂負精鑒之名矣. 雲從爲潘文勤所賞識, 有所售, 輒如數以償, 故雲從得以揮霍十餘年, 終以貧死).”

陳重遠의『鑒賞述往事』에서 “단방이 이운중에게 가르침을 청하다 (端方求教李雲從)”라고 하여 한 개 節을 할애해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위의 내용에 비해 또 다분히 문학적 분석이 가해졌다. 그 내용을 옮겨 적으면 대개 다음과 같다.

光緒10년(1884), 각지의 관아에서 玉牒(皇族의 譜牒)을 盛京(沈陽)에 올리기 위해 사람을 보냈는데, 그 중에는 侍郎 盛伯羲, 祭酒 王濂生, 尙書 端方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도중 어떤 역에서 하루 밤 투숙하게 되었는데, 성백희와 왕림생이 法帖의 판본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端方이 끼어들어 “자네들 뭘 얘기를 하나?”라고 묻자, 이에 왕림생이 “자네 端方은 기생이나 끼고 술 마실 줄 밖에 모르지 않는가? 비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을 터

이니 물을 필요가 없네.”라고 비아냥거렸다. 단방은 곧 얼굴을 붉히면서 탁자를 치고 일어나 말했다. “3년 후에 다시 봄세!” 公務가 끝나자 단방은 곧 沈陽에서 北京으로 돌아왔고, 潘文勤(반조음)공으로부터 琉璃廠에 있는 宜古齋 碑帖 가게의 李雲從에 대해 전해 듣게 되었다. 그는 直隸 故城 출신으로, 비첩 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었다. 반문근공이 이운종에 대해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비첩 감별에 능통하다네. 어떤 판본에 몇 글자가 더 많은지, 또 어떤 판본에 몇 글자가 적은지 까지도 줄줄이 꿰고 있지. 나도 그한테서 유명한 비첩 몇 부를 구입한바 있네.”라고 했다.

광서11년 봄, 단방은 私服 차림에 가마를 타고 琉璃廠의 宜古齋를 방문하였다. 이운종을 만나자 곧 공손히 읊하면서 말했다. “반문근 대인의 소개로 왔습니다. 당신이 비첩 감별에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考據學에 능하다고 하기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이운종은 황급히 고개 숙여 답례하였다. “端五爺께서 누추한 가게에 왕림하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찾아뵙다’는 말씀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단방은 이운종의 가게에 있는 비첩들을 둘러보고 宋明시기 탁본 십여 부를 구입했다. 백일이 채 지나지 않아, 단방은 유리창의 골동품 가게에서 대량의 法帖과 碑碣을 구매하였다. 그는 집 정원에 방형의 碑와 圓頂形의 碣을 나열해 놓았는데, 그들 碑碣에는 유명한 서법가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또 서재의 탁자위에도 비첩들이 쌓여 있었다.

이듬해 端午 날, 단방이 연회를 열어 이운종을 초대했다. 단방은 연회석상에서 술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하면서 말하기를 “오늘 단오 날, 저 端午橋(端方的字가 ‘午橋’이다)는 이선생(이운종)을 스승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선생께서 法帖, 비문에 조예가 깊으시니,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에 이운종은 황급히 일어나 머리를 조아려 “가당치 않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스승을 칭할 수 있겠습니까. 대인께서 높이 사주시니, 운종은 그저 대인을 위해 힘을 다 하고자 할뿐입니다.”라고 했다. 단방이 이운종과 더불어 건배하려 하자, 이운종은 “소인은 일개 필부요, 장사치에 불과합니다. 어찌 감히 지체가 귀하신 종친과 더불어 잔을 들 수 있겠습니까.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사양했다. 그러자 단방은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마십시오. 마십시오. 恭敬보다는 명을 따름이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귀천의 구분이 없고, 단지 학식의 깊고 열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스승이요, 나는 제자입니다.” 이에 두 사람은 즐겁게 건배했다.

이운종은 단방이 진심으로 비문, 법첩 감별을 배우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주 단방의

거처에 찾아가 함께 비첩 감별법을 연구하였으며, 더불어 자신이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온 考據學의 경험을 단방에게 전수하였고, 단방은 이를 글로 정리해냈다.

과연 3년이 채 안되어, 단방은 京都(북경)의 사대부들 사이에서 비문, 법첩 감별에 능통하다고 소문이 자자해졌다. 그는 또 『匋齋吉金錄』을 지었고, 이에 당시 유명한 金石, 文物 소장가였던 성백희와 왕립생도 단방을 달리 보게 되었다.

이운중은 단방, 반문근공과 왕래하면서 비첩을 거래하는 등 탁본 장사를 하였는데, 일본 고고학자들의 요청을 받고 동북지역의 碑碣과 刻石들을 고찰·감별한 바 있다. 또 그러한 비첩을 구매하기도 했는데,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재산 관리에 서툴렀던 것 같은데, 돈을 물 쓰듯이 낭비하다 보니, 결국 광서20년(1894)을 전후하여 가난에 쪼들려 사망하였다! 당시 이운중의 나이는 겨우 36세였다.²⁴⁾

1995년, 徐建新 선생은 北京大學에 소장되어 있는 호태왕비 탁본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북경대학 소장 탁본 A本에서 篆文과 跋文을 발견하였는데, 전문에는 “晉高麗好太王碑, 李龍精拓整紙本五分第三”이라고 씌어 있고 발문에는 “右好太王石刻, 潘伯寅丈倩工李龍精拓者. 題箋即丈親寫. 其雲五分第三者, 即所拓五分之第三次拓者. 即此四字, 已足證爲金石家之詞. 龍號雲從, 隸古齋所售三闕即李龍手拓, 勝王可群手藝多矣. 陸和九記.”²⁵⁾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李龍’이란 곧李大龍을 말하는데, 그의 號는 ‘雲從’이다. ‘李龍’은 전해지는 생략된 호칭에 불과하다.

앞의 자료를 통해, 우리는 유명한 비첩 상인이었던 이운중의 행적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咸豐8년(1858)에 출생했으며, 河北省 故省 출신으로, 본명은 李龍, 李大龍이고 字는 雲從이다. 어려서부터 宜古齋 碑帖鋪에서 學徒로 일했으며, 점차 金石 傳拓 기술을 익히고, 역대 法帖 비석에 대해 숙지함으로써 비첩 감별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골동품 상인으로 성장하였다. 이운중은 광서10년(1884)에 宜古齋의 경영자가 되었다. 광서15년(1889)에 盛昱이 자금을 모아 이운중에게 주어 통구에 가서 호태왕비를 탁본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그리하여 (호태왕비) 비첩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운중은 광서20년(1894)에 가난에 쪼들려 病死하였는데, 당시 나이 36세였다.

24) 陳重遠, 『鑒賞述往事』, 北京出版社, 2001, 17~18쪽.

25) 徐建新, 「關於北京大學圖書館所藏好太王碑原石拓本」, 『世界歷史』1995年第2期.

이운종이 宜古齋를 경영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으나, 금석문 비첩에 관한 그의 학문은 널리 인정을 받고 있었다. 특히나 호태왕비 탁본 경력은 그의 짧은 생애에 적지 않은 색채를 더해주고 있다. 張延厚의 소개에 따르면, 潘祖蔭이 그에게 명하여 통구를 방문하여 호태왕비 50本을 얻었다고 했는데, 적지 않은 양이다. 葉昌熾에 따르면, 반조음이 中江 李眉生으로부터 호태왕비 쌍구가목본 총 3, 40매를 받았는데, 그 순서를 배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 후, 이운종이 식량과 종이·먹을 짊어지고 수천리 길을 다시 다녀와서야(再往返) 처음으로 정탁본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다시 다녀온(再往返)’ 시점은 광서 己丑年으로 짐작되는데, 종친인 祭酒 盛伯羲(盛昱)가 노자를 모아 이운종에게 주어 재차 다녀오도록 한 사실을 일컫는다.

그에 앞서, 반조음의 명을 받고 다녀와 탁본 50본을 얻은 시점은 마땅히 광서 6년에서 10년(1880~1884) 사이이며, 그 탁본 중 일부는 쌍구가목본일 것으로 짐작된다. 羅振玉이 언급했듯이, “이 비석은 탁본을 잘 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전에 廠肆의 비첩 상인 이운종이 이 비석을 탁본할 때, 매번 종이를 두, 세겹 겹쳐서 붙였는데, 그로 인해 첫 장 탁본의 글씨는 비교적 뚜렷하나, 그 두 번째, 세 번째 층의 탁본은 어렵듯하여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에 먹으로 윤곽을 그려 넣었는데,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此碑善拓難得, 以前廠肆碑賈李雲從拓此碑時, 每次上紙二三層. 故第一層字跡較明晰. 其第二三層模糊不辨之處, 輒以墨勾填, 不免訛誤).”²⁶⁾

현재, 이운종이 작업한 탁본이라로 단정할 수 있는 판본으로는 북경대학 도서관 善本室에 소장되어 있는 好太王碑拓本A(‘北大A本’으로 약칭)인데, 부여된 目錄 編號는 3021326—3이다. 전체 4폭이며, 표구하지 않은 상태이고, 함께 남색 函套에 담겨있다. 매 폭의 실측 사이즈는 다음과 같다.

第1面 : 길이 5.43m, 넓이 1.46m

第2面 : 길이 5.30m, 넓이 1.34m

第3面 : 길이 5.40m, 넓이 1.94m

第4面 : 길이 5.31m, 넓이 1.26m

서건신 선생의 소개에 따르면, 이 탁본은 비교적 두꺼운 흘겹 宣紙 56장으로 되어 있는데, 종이 색은 흰색이며, 탁본 과정에서 찢어진 곳이 적다고 한다. 그리고 그을음(煤煙)을 이

26) 羅振玉, 『匋廬日札』(1908) - 역자 주.

용해 탁본하였으므로 검은 색이 탈색되었고, 손이 닿으면 검은 색이 묻어난다고 한다. 또 먹칠을 길게 사용하였으며, 비면뿐만 아니라 파손되어 박락한 부분도 모두 탁본했다고 한다. 비문이 약간 얇아져 있으며, 비면의 세로 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李大龍(이운중)이 직접 탁본한 비교적 이른 시기의 호태왕비 정탁본이라고 한다.

문헌기록에서 광서3년에 관월산이 호태왕비를 발견하고 직접 몇 글자를 탁본하였다고 했으므로, 이를 최초의 탁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면에 이끼가 뒤덮여 있었고, 비석이 거대하여 완전한 탁본이 어려웠다. 불을 질러 이끼를 소각하고, 또 가목을 설치한 연후에야 비로소 완전한 탁본을 얻을 수 있었다. 완전한 탁본을 제작해낸 인물로는李大龍, 談廣慶(기획자), 王少廬, 李雲從, 元丹山, 初鵬度, 初均德 등이 있다. 그 중, 이대룡과 이운중은 동일 인물이고, 초봉도와 초균덕은 부자사이인데, 이들은 탁본 작업 시간으로 보나, 수량으로 보아 모두 가장 중요하고도 대표적인 탁본 작업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외에도, 호태왕비를 탁본한 인물이나 기획자에 관한 기록이 문헌에서 확인된다.

『遼東文獻征略』에 수록된 張延厚의 跋語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청 광서초년에, 吳縣의 尙書 潘鄭安이 방문하여 얻었다. 京師(북경)의李大龍에게 명해 식량을 싸들고 가서 탁본하도록 했는데, 간난신고 끝에 50本을 얻어 오자 貴遊들이 일시에 다투어 구입하였다. 이대룡은 다시 (탁본하러) 다녀오고 싶었으나 길이 멀고 작업양이 커서 그만두었다 (원문은 앞부분 참조).”

吳大澂의「皇華紀程」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광서12년 2월) 初五日, ……鐵嶺 현성밖에 이르러 하루 밤 묵었다. 縣令 陳士蕓(號 鶴舟)이 찾아왔는데, 학주는 전에 회인현 관리를 지낸바 있어, 그에게 회인에 있는 高句麗王碑에 대해 물었다. 현성에서 백 수 십리 떨어진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데, 비석이 높아 정탁 할 수 없다고 했다. 진학주가 탁본 한부를 증정하였는데, 글자 대부분이 뚜렷하였으나 문맥(文理)이 잘 통하지 않았다. 모두 墨水廓填本으로, 스승 潘伯寅이 소장하고 있는 탁본 책자의 것과 동일한 紙墨이었다. 솜씨 좋은 탁공을 구해 탁본해보지 못한 것이 자못 아쉽다 ((光緒十二年二月初五日, ……至鐵嶺縣城外宿. 縣令陳鶴舟士蕓來見. 鶴舟曾任懷仁縣, 詢以懷仁有高句麗王碑, 距城百數十里, 在深峽中, 碑高不能精拓. 鶴舟贈餘拓本一分, 字多清朗, 文理不甚貫, 蓋以墨水廓

填之本，與潘伯寅師所藏拓冊紙墨皆同。惜不得良工一往椎拓耳。”

談國桓의 「手札」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광서13년 사이에, 廣東省 茂名縣 출신인 學使 楊頤(號 蓉浦)가 이 비석에 대해 전해 듣고는 가친(즉 談廣慶)께 사람(탁공)을 물색해 탁본 해줄 것을 부탁하여 약 6부를 얻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2부를 소장하고 있었으나, 갑오(중일)전쟁 중에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급작스러운 상황이라, 기술 좋은 탁공이나, 좋은 먹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세월이 오래되어 비석 침식 상태가 심각하였는데, 石齒가 울퉁불퉁하여 탁본 기술에 능통하지 않고서는 완벽하게 해내기 어려웠습니다. 고로 당시 탁본은 단지 자획이 뚜렷할 뿐입니다.) 그 후, 中丞 吳淸卿이 또 가친께 다시 탁본 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宣紙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결국 생각대로 되지 않았는데, 종이를 비석에 붙이면 바로 찢어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흘겹의 高麗紙를 사용하여 몇 부를 탁본했습니다. 觀察使 王少廬가 탁본한 것은 아직 보지 못했으므로 또한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光緒十三年間, 學使楊蓉浦頤, 廣東之茂名縣人, 聞此碑, 屬家君(即談廣慶)覓人往拓, 約得六本. 弟家藏兩本, 失於甲午之役. (維時倉卒之間, 既無良工, 又乏佳墨, 而碑因歲久剝蝕, 石齒嶙峋, 非精于此道, 不能求其美善, 故當時所拓者, 僅字劃清楚而已)²⁷⁾ 嗣後, 吳淸卿中丞亦屬家君再拓, 思用宣紙, 竟(未)如願, 以著碑, 紙即破碎, 乃用單高麗紙拓得數本. 至王觀察少廬所拓者, 則未經寓目, 亦不得其詳).”

榮禧의 「高句麗永樂太王墓碑謾言」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확인된다.

“광서8년 임오(1882)에 산동의 布衣 丁丹山에게 탁본하러 다녀올 것을 청하여 全壁 탁본을 얻었다(餘於光緒八年(壬午)²⁸⁾, 曾倩山東布衣開(丁)²⁹⁾丹山往拓, 得獲完壁).”

劉承幹의 『海東金石苑補遺』에 수록되어 있는 好太王碑跋文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

27) “維時倉卒之間……清楚而已” 이 부분이 발표문에서 누락되어 보완 - 역자 주.

28) 발표문에서 ‘壬午’가 누락되어, 원문을 참조해 보완. - 역자.

29) 발표문에서 ‘開’라고 썼으나, 원문을 참조해 ‘丁’로 수정. - 역자.

고 있다.

“광서 己丑(1889)에 중친인 재주 盛昱(字 伯羲)이 廠肆의 비첩 상인 李雲從에게 명해 식량을 싸들고 가서 탁본해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탁본이) 점차 널리 퍼지게 되었다(원문은 앞 부분 참조).”

위의 자료들에 따르면, 관월산이 이 비석을 발견하고 일부 문자를 직접 탁본하였고, 그것이 북경에 전해지면서 일부 금석문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그 중, 潘祖蔭, 盛昱, 李鴻齋, 吳大澂 등 인물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 같다.

潘祖蔭(1830~1890)은 字가 在鍾이고 小字는 鳳笙이며 號는 伯寅, 혹은 少棠, 鄭齋으로 불리기도 한다. 본적은 江蘇省 吳縣(蘇州)이며, 淸 咸豐2년(1852) 과거에 進士 급제하였다. 반조음은 북경 출신이며, 그 곳에서 성장하였다. 그의 조부는 乾隆帝시기 癸丑年 과거시험 壯元인 潘世恩으로, 벼슬이 太傅 및 武英殿大學士에 이르렀다. 그의 부친 潘曾綬의 字는 紱庭이고, 內閣侍讀(學士)을 지냈다. 그의 叔祖는 建曆제 乙卯年 과거시험 探花인 潘世璜이다.

반조음은 藏書와 金石 수집으로도 유명한데, 그는 <滂喜齋>와 <功順堂> 두 藏書室을 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소장한 도서를 분류하여 『滂喜齋藏書記』와 『滂喜齋書目』을 엮어내기도 했다. 그의 문생인 葉昌熾는 이들 장서 목록 가이드 성격의 「藏書紀事詩」를 지었다. <攀古樓>는 그가 수집한 청동기와 비석을 소장한 곳이다. 그는 『漢沙南侯獲刻石』과 『攀古樓彝器款識』 2부의 금석문 목록을 남겼다. 그는 평생에 걸쳐 금석문을 애호했는데, 비석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 직접 찾아가 보았고, 거금을 들여서라도 구입했다.

그는 호태왕비에 관한 소문을 접하자 곧 북경의 李大龍 즉 李雲從에게 명해 식량을 짊어지고 가서 50부를 탁본해왔고, 한동안 貴遊들이 다투어 구입했다. 그러므로 그는 호태왕비 탁본의 전파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반조음이 얻은 탁본은 마땅히 雙勾加墨本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로 미루어, 이대룡이 처음 탁본할 당시, 빨리 그리고 많이 제작하기 위해 쌍구가목본으로 완성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吳大澂 및 현지 관리들이 얻은 탁본 역시 이와 동일한 판본이었다.

일본 측 자료에 따르면, 광서9년(日本 明治17年 /1883)에 사코 가케노부(酒匂景信)가 通溝에서 호태왕비 쌍구가목본 131매(張)를 구했는데, (비문) 배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李鴻齋

가 반조음에게 증정한 탁본 세트도 3, 40매였다고 전하는데, 그 역시 쌍구가목본이었다.

李鴻齋(1831~1885)의 字는 眉生이고, 號는 香巖 또는 蘇鄰이라고 하며, 四川省 中江 출신이다. 咸豐元年(1851)에 舉人에 합격하였으며, 벼슬이 江蘇按察使, 布政使에 이르렀다. 관직에서 은퇴하고 나서는 蘇州에 거주하였다. 서예에 능하였으며, 魏晉 시기 碑銘을 모사하였는데, 그 운치가 그대로 살아 있을 만큼 뛰어났다. 詩와 古文에 능하였으며, 말년에는 불교에 심취해 있었다. 호태왕비 탁본을 얻어 모사하고 감상하였으나 그에 관한 글을 남기지는 않았다.

광서13년 사이에, 談國桓의 부친 談廣慶이 學使 楊蓉浦(楊頤)의 부탁을 받고 통구에 사람을 보내 탁본해오게 하여 약 6부를 얻었다고 한다.

談廣慶은 談國桓의 부친으로, 字는 雲浦이다. 漢軍鑲白旗 출신이며, 沈陽에서 태어났다. 과거에 進士 급제 했고, 金州廳 海防同知 벼슬을 지냈다. 재임기간에 지방 교육 사업에 힘을 기울였으며 南金書院을 창설했다. 담광경은 광서5년(1879)에서 광서9년(1883)사이에 처음 寧遠州知州에 부임하였으며, 광서16년(1890)에 몇 개월 동안 다시 寧遠知州 직을 맡았다. 담광경은 백성들을 자식처럼 아꼈으며, 스스로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았을 뿐만 아니라, 자식 교육에도 남달랐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대성하였다. 長子 談國楫은 1870년에 출생하였으며, 1893년에 동생 談國桓과 함께 舉人에 합격하였다. 中華民國 초년에 談國楫은 奉天 東邊道尹직에 위임되었으며, 1924년에는 本溪 湖煤鐵公司 總辦직을 맡았다. 次子 談國桓은 1875년생인데, 18세에 舉人에 합격하였고 청말에 奉天稅捐總局 局長을 지냈다. 중화민국 이후, 奉天都督署 總務處 秘書, 奉天省官銀號 監理官, 東三省屯墾局 副局長 등 직을 역임하였다. 담국환은 10여 년간 張作霖의 막하에 있었는데, 장작림의 ‘文膽’으로 불리며 핵심 막료로서 활동했다. 담국환은 서예, 그림 및 문장에 능하였는데, 호태왕비 탁본에 관한 그의 언급을 가히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집에 호태왕비 탁본 2부를 소장하고 있었으나, 갑오전쟁 중에 金州 관아에서 분실했다고 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학자 미즈다니 데지로(水谷梯二郎)가 입수한 호태왕비 탁본이 아마 그 중의 한 부일 가능성이 많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탁본은 광서13년(1887) 이후에야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후에, 盛昱이 자금을 모아 李雲從(李大龍)을 시켜 “다시 다녀와서야 처음으로 정탁본을 얻을 수 있었다.”

盛昱(1850~1900)의 字는 伯熙(또는 ‘伯希’, ‘伯羲’, ‘伯兮’로도 씀), 韻時이며, 號는 意園이다. 성씨

는 愛新覺羅氏이며, 肅親王 永錫의 曾孫이다. 1877년(광서3년)에 進士에 합격하였으며 翰林院 庶吉士에 발탁되었다. 1880년(광서6년)에 翰林院編修에 제수되었고, 1884년(광서10년)에는 國子監祭酒에 제수되어, 學風과 學術研究方法 개선에 힘을 기울였다. 그 동안 石鼓 보호와, 石鼓文 重刻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일부 진귀한 문물과 서책을 구입하기도 했다. 또 학생들을 독려하여 문자 音韻學 연구에 매진하였다. 1888년(광서14)에 山東正考官에 부임하였으며, 이듬해에 지병으로 관직에서 은퇴하였다. 그 후, 10여 년 동안 時文과 考據學 연구에 전념하여 『鬱華閣遺集』, 『意園文略』, 『蒙古世系譜』, 『雪履尋碑錄』, 『鬱華閣金文』 등 저서를 펴냈다. 그가 李大龍을 재차 通溝에 보낸 시점이 바로 관직에서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1889년(광서15)이다. 그리하여 李大龍의 精拓本이 북경지역에 퍼져나가게 되었다.

또 다른 한 명의 탁본 작업자는 바로 元丹山이다. 榮禧의 「讖言」에서 그에 관한 자세한 기술을 남겼다. ‘元’씨는 고대로부터 있어온 성씨인데, 唐代的 元志, 宋代的 元贊, 明代的 元宣 등이 대표적인 기씨들이다. ‘기’의 字形이 특이하여 山東 지역의 괴이한 네 성씨 중의 하나로 손꼽히기도 한다. 영희의 글에서 기단산을 山東의 평민(布衣)이라고 했는데,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기단산의 탁본은 완전한 형태의 비문 탁본이라는 것이다. 영희가 기단산의 탁본에 근거하여 판독해낸 3면 1행 비문은 다른 학자들의 판독과 달랐으며, 일부 글자를 보완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王志修가 지은 詩文의 것과 대략 일치한다.

일각에서는 영희가 사기꾼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에 불과하기에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거나, 혹 참조한 다른 탁본 판본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한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산동의 평민 기단산이 제작했다고 전해지는 탁본을 보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그것이 쌍구가목본인지 아니면 정식 탁본인지 아직 자세히 알 수 없다.

최근 梁啓政이 발표한 「高句麗好太王碑早期捶拓者元丹山小考」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짓고 있다.

“元丹山은 확실히 실존한 인물로서, 광서연간에 심양지역에서 書畫와 金石篆刻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심양지역 해당 업계에서 뛰어난 실력자로 손꼽히기도 했다. 또한 王光烈, 梅文潤과 같은 동북지역의 유명한 금석문·서화가들을 육성해내기도 했다. 기단산은 금석문·서화에 능하였는데, 특히나 금석문에 관해서는 당시 심양지역에서 첫 손꼽히는 실력자였다. 따라서 탁본 기술 역시 뛰어났을 것으로 짐작되며, 榮禧가 기단산에게 통구에 직접 가서 호태왕비를 탁본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도 자연스럽다.”

王少廬의 탁본에 관해서는, 談國桓마저도 친견한바 없다고 한 만큼, 역시 자세히 알 수 없다.

四. 호태왕비 발견 초기의 연구

호태왕비 발견 초기 연구는 완전한 탁본이 제작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광서6년(1880)에서 20세기 초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 연구는 주로 중국과 일본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들 초기 연구에는 호태왕비의 발견, 비문 저술, 비문 연구 등 분야가 포함된다.

일본 학계의 연구

일본 학계의 호태왕비 연구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사에키 아리키요(佐伯有清)는 자신의 저서 『廣開土王碑研究史(研究史廣開土王碑)』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明治16년(1883 / 光緒9년) 가을, 參謀本部에서 淸國에 파견한 군인 사코 가케노부가 현지에서 탁본(雙勾本) 한 부를 입수하여 일본으로 가져왔고, 이를 기점으로 일본의 광개토왕비 연구가 시작되었다.

明治17년(1884) 7월, 아오에 히데(青江秀)(1834~1890)의 「東夫餘永樂太王碑銘之解」(國會圖書館藏, 1884)가 발표되었는데, 附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요사이 某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滿洲 盛京省과 朝鮮이 접하는 鴨綠江 상류지역에 옛날부터 물속에 거대한 비석 하나가 수몰되어있었다고 한다. 근자에 盛京將軍으로부터 전해들은 바로는, 대량의 인력을 동원하여 겨우 비석을 발굴해냈다고 한다. 비면을 세척하던 중에, 마침 일본인 某人이 현지에 있어, 그가 비석 탁본을 일본에 가져왔고, (현재) 참모본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비석의 높이는 대략 3丈이고, 넓이는 1丈 5, 6尺이며, 서체는 빼어난 예서체이다. 연대가 오래되어 마모상태가 심각하므로 비문 전체를 완전히 판독해내

기는 어렵다. 이 비석이 출토될 무렵, 높이 8寸, 넓이 4, 5寸되는 기이한 형태의 기와(瓦) 1매가 발견되었는데, 기와의 좌우측면에 <願大王之墓安如山固如丘>이라는 열 한 글자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언급된 ‘일본인 모인’은 후에 (일본)陸軍 炮兵 大尉 사코 가케노부로 밝혀졌다.”³⁰⁾

아오에 히데의 「東夫餘永樂太王碑銘之解」는 크게 廣開土王碑釋文과 ‘高句麗第十九世廣開土王碑之解’라고 제목을 붙인 비문 考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는 호태왕비탁본이 일본에 전해지고 나서 진행된 최초의 관련 연구이다. 현재 日本國會圖書館에 이 글의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호태왕비가 거대한데다가 네 면에 모두 비문이 새겨져 있어 탁본하기 아주 어려운데, 비문 한 면 전체를 탁본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작은 종이를 필요로 했다. 사코 가케노부가 일본으로 가져간 쌍구가목본은 총 131매였는데, 참모본부나 아오에 히데가 고대 석각문화와 고구려 역사 지식이 결여되어 있어, 이들 탁본을 정확한 순서대로 배열할 수 없었다. 특히 비석의 3면과 4면의 비문 배열 과정에서 일부 글자들의 순서가 잘 못되어, 아래 글자를 위에, 위에 글자를 아래에 배치한 경우가 확인된다. 그로인해 비문 해독이 혼란스러워졌고, 나아가 비문 해석 자체가 어려워진 경우나, 해석상의 오류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는 『日本書紀』, 『太平寰宇記』, 『朝鮮史略』, 『東國通鑒』, 『三國史記』등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비문 고증을 시도했다. 그는 비문의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라는 구절에 대해,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이름은 朱蒙인데, 夫餘 말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한다. 또한 ‘鄒牟’라고도 한다.”라고 했는데, 나름 정확한 해석이다. 하지만 여타 문구에 대한 해석은 대부분 그다지 올바르지 못하다. 예를 들어, “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新羅以爲臣民”에 대해 그는 ‘신묘년’을 (東)晉의 咸和6년(331) 혹은 太元16년(391)으로 보고, 『일본서기』기록에서 합화6년 신묘의 대외정벌 기사를 찾아 대응시키고자 했으나, 아쉽게도 시기적으로 편차가 있거나, 사건과 아귀가 맞지 않았다. 그는 또 “九年己亥百殘違誓與倭和通”을 “九年己亥, 百殘違誓合倭”(아오에 히데의 표현을 그대로 옮김)로 끊어 해석했는데, 이는 잘 못된 이해이

30) 佐伯有清, 『廣開土王碑研究史(研究史廣開土王碑)』第4, 吉川弘文館, 1981(2刷), 264쪽.

며, 문장 해석 또한 정확할 수 없다. 이 같은 오류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비문의 정확한 해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889년(광서15년)에 『會餘錄』 第5集이 간행되었는데, 「高句麗古碑文」, 「高句麗碑出土記」, 요코이 다다나오(橫井忠直)의 「高句麗古碑考」, 「高句麗古碑釋文」등 연구가 수록되어 있다. 요코이 다다나오의 「高句麗古碑考」는 두 가지 판본이 있는데, 하나는 “明治十七年甲申十二月橫井忠直述”이라고 하여 저술 시점에 대한 부언이 있는 판본이고, 다른 한 판본은 저술 연대가 불분명하다. 단 비교를 통해 明治17년(1884) 12월 판본보다 앞서 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글에서 아오에 히데의 고증을 비판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그 보다 늦은 시기, 즉 메이지17년 7월 이후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 참모본부에서 호태왕비 탁본을 입수한 후, 아오에 히데와 요코이 다다나오에게 관련 고증을 의뢰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연구 성과는 모두 메이지17년에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코이 다다나오의 「高句麗古碑考」는 아오에 히데가 저술한 「東夫餘永樂太王碑銘之解」의 해제보다 좀 더 자세하다. 따라서 일본 학계에서는 「高句麗古碑考」를 일본 내 호태왕비 연구의 ‘原型’으로 보기도 한다.

요코이 다다나오는 비문의 첫 구절인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부터 시작하여 문단을 나누어 해제를 붙이고, 중국과 한국 고대 문헌을 인용하여 비문 내용에 대한 고증을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辛卯年’條 기사와 관련해, 아오에 히데는 신묘년을 동진의 함화6년(331) 혹은 태원16년(391)일 것으로 보았으나, 요코이 다다나오는 직접 태원16년을 仁德天皇79년과 연계시켰다. 호태왕비문의 ‘신묘년’은 정확히 동진의武帝 태원16년(391)이다. 이 해는 호태왕의 즉위년이자 왜구가 처음 한반도에 침입한 시점이기도 하다.

요코이 다다나오는 ‘신묘년’조 기사에 다음과 같은 해제를 붙였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왜’로 칭한 것은 『山海經』 찬술 이후의 일이다. 고구려에서 그러한 謬說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中國稱我邦爲倭, 是從『山海經』記載以來的事, 高句麗也沿用了這種謬說).”

사실상, 일본을 지칭하는 ‘왜’라는 표현에는 폄하의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중국 정사에 ‘倭人’, ‘倭奴國’ 등에 관한 傳이 수록되어 있다. 倭奴國의 왕은 漢의 황제가 하사한 ‘倭(倭)奴

國王’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金印을 하사받기도 했다. ‘倭寇’, ‘倭賊’이라는 표현은 전쟁 중이거나 혹은 그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했을 경우에만 붙여진다. 호태왕비문의 ‘왜구’, ‘왜적’은 ‘百殘’과 마찬가지로, 침략자 혹은 침략의 조력자라는 인식 때문에 붙여진 폄하의 표현인데,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요코이 다다나오는 또 “신묘년에 바다를 건넌 사실은 우리나라(일본) 전승이나 한·중 사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아마 당시 기록자(操觚者)(혹은 고구려 전승)의 오류이거나, 국내 외 사관들이 기록에서 누락시켰기 때문일 수도 있다. 비문에서 이른바 ‘百殘新羅舊是屬民’이라고 한 것은 마땅히 우리 군사가 바다를 건너 (백제와 신라)두 나라를 신민으로 복속시킨 사실을 지칭하며, (그러한 臣屬 관계가) 신묘년을 시점으로 정립되었음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일단 비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상 오히려 보기 어려우며, 또 백제와 신라가 왜의 속민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구려의 속민이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이해이다. 중국이나 한국 사서는 물론, 일본 사서에도 호태왕비 신묘년조 기사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 알고 있었으면서도 『日本書紀』, 『新撰姓氏錄』, 『古事記』 등에 수록되어 있는 전혀 상관없는 기록을 신묘년조 기사에 끼워 맞춰, 일본이 한반도 남부의 백제, 신라, 임나 등 나라를 지배했음을 입증하려 했는데, 그 의도는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었다.

요코이 다다나오와 아오에 히데의 호태왕비문 해석과 고증은 그 치밀함에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견해도 서로 달랐다. 그들은 모두 일본 참모본부의 요청에 따라 호태왕비문에서 주변국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역사적 명분을 찾아내고자 했다. 이는 후일 일본 학계의 호태왕비 연구와 구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일부 학자들은 『古事記』, 『日本書紀』의 단편적인 기록을 호태왕비문과 억지스로 연결시켜 해석하려고 했다. 또 호태왕비문 干支의 연대를 자의적으로 비정하고, 나아가 『三國史記』, 『東國通鑑』 등 한국 사료를 지적·비판하기도 했는데, 이는 호태왕비 후속연구와 고대 한일관계사연구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쳤다. 이에 일부 올곧은 사학자들은 그들의 견해를 비판하고 나섰다. 예를 들어, 나카 미치요(那珂通世)(1851~1908)는 「日本上古年代考」를 『文』잡지 1888年 第1卷 第8, 9號(明治21年9月1日, 8日)에 발표하여 『일본서기』의 연대 기록에 많은 오류가 나타나며, 그러한 고대사 기년 오류는 사서 편찬자가 함부로 꾸며낸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神功(皇后)의 연대는 한국사에 근거해 고증해야 한다고 했다.

『文』잡지 第1卷 第9號에 발표된 미야케 요네키치(三宅米吉)(1860~1929)의 「日本紀元之正否」

에서도 일본서기의 연대 기록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1891년(광서17년)에 간 마사도모(菅政友)의 「高麗好太王碑銘考」가 『史學會雜誌』第2卷 第22, 23, 24, 25號(明治24年 9~12月)에 연재되었다. 이 글은 요코이 다다나오(横井忠直)의 「高句麗古碑考」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서, 여전히 ‘皇國史觀’의 기초를 고집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라, 백제, 고구려 모두를 일본의 臣民으로 보았다. 그는 일본의 『고사기』, 『일본서기』 기록을 인용하여 호태왕비문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는데,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성립되기 어렵다.

1893년(광서19년) 10~12월에 나카 미치요의 「高句麗古碑考」가 『史學會雜誌』第4卷 第47, 48, 49號(第48號와 第47號에 동일한 글에 중복 게재됨)에 발표되었다. 그전까지만 해도 연대고증이 치밀하기로 유명한 학자였으나, 이 글의 구성은 평범한 수준이었다. 그는 요코이 다다나오의 「高句麗碑出土記」전문을 인용하면서 호태왕비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해석했다. 이러한 내용 구성으로 미루어 그 역시 요코이 다다나오의 「高句麗古碑考」에 근거하여 이 논문을 작성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뿐만 아니라, 이 글에서는 간 마사도모의 「高麗好太王碑銘考」의 내용을 적지 않게 답습하였다. 따라서 일부 개별 비문 문자에 대한 고증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참신한 견해가 제시되지 못했다.

1898년(광서24년)1월, 4월, 7월에 걸쳐 미야케 요네키치의 「高麗古碑考」가 『考古學會雜誌』第2卷 第1~3號에 발표되었고, 이어서 「高麗古碑考追加」가 『考古學會雜誌』第2卷 第5號에 발표되었다. 그에 앞서, 미야케 요네키치는 후쿠오카현(福岡縣) 시카노시마(志賀島)에서 출토된 ‘漢委奴國王’ 金印 문자를 해독하여 이름을 널리 알렸다.³¹⁾

비록 미야케 요네키치의 호태왕비문 해석은 『會餘錄』에 수록되어 있던 요코이 다다나오의 「高句麗古碑釋文」을 토대로 하였으나, 여러 장의 작은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탁본 문자 배열 방식 그리고 비문 釋讀에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탁본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더불어 한국사서 기록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고마쓰노미야(小松宮)가 소장하고 있던 다른 호태왕비 탁본

31) ‘漢委奴國王’ 金印은 天明4年(1784)에 秀治와 喜平아라는 두 농부가 도랑을 파던 중에 우연하게 발견하였다. 금인의 印面은 方形인데, 한 변의 길이는 2.3cm이며, 높이는 약 0.9cm이다. 윗부분에 蛇形鈕가 부착되어 있으며, 전체 높이는 약 2.2cm이다. ‘漢委奴國王’이라는 글자가 각인되어 있다. 출토되어 백여 년이 지난, 1979년에 그 후손들이 후쿠오카현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을 접하게 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앞선 시기 탁본의 오류를 재확인했다. 그는 「高麗古碑考追加」를 발표하여 고마쓰노미야 소장 탁본을 학계에 공표했다. 그는 글에서 고마쓰노미야 탁본은 직접 비석에 종이를 붙여 탁본해낸 것으로서, 비면이 고르지 못해 자형이 아주 흐릿하여 해독이 어려우므로 참으로 아쉽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탁본은 네 비면을 각각 큰 종이 한 장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문자 배열상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 새 탁본이 발견되면서 사코 가케노부(酒匂景信) 탁본의 2면, 4면 비문 배열 문제가 해결되었다. ‘고마쓰노미야’는 바로 일본 陸軍大將 고마쓰노미야 아키히토(小松宮 彰仁) 親王(1846~1903)을 말하는데, 그는 明治28년(1895) 1월 26일에 參謀總長에 위임되기도 했다.

사에키 아리키요(佐伯有清)는 (고마쓰노미야의 탁본 입수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893년(광서19년) 日本陸軍 工兵 大尉 구라츠지(倉辻明俊)가 수행원 2명과 함께 두 차례 중국에 잠입하였다. 우선 安東에 이르렀다가, 朝鮮 滿浦를 경유해 通溝에 도착하였다. 통구에서 호태왕비탁본을 입수해 일본참보본부로 가져왔다. (당시) 고마쓰노미야가 참모총장에 부임한 직후 이므로, 이 탁본이 그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 같다.³²⁾

미야케 요네키치는 고마쓰노미야 탁본을 이용하여 호태왕비문 배열 순서를 확실히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비문 해석에 있어서도 한층 발전된 성과를 이루었다. 그의 연구는 그 후, 일본 학계의 호태왕비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들어서는데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중국 학계의 연구

완전한 형태의 호태왕비 탁본은 중국 학자들이 최초로 입수하였고, 그 연구 또한 가장 일찍 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예를 들어, 奉天 軍糧署의 王志修는 이끼 조각 작업이 이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통구를 방문하여 비문을 탁본했고, 그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중국 학계의 관행 상, 원고의 완성 시점보다는 정식으로 인쇄·발행된 시점을 연구 성

32) 佐伯有清, 『廣開土王碑研究史(研究史廣開土王碑)』 第4, 吉川弘文館, 1981(2刷), 117~118쪽.

과 발표의 기준으로 삼는다.

1895년(광서21년)에 왕지수의 『高句麗永樂太王碑歌考』가 刊行되었는데, 거기에 「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와 「高句麗永樂太王碑考」가 수록되었다. 왕지수의 字는 竹吾이고, 號는 脩廬 혹은 少廬이다. 청나라 말기, 諸城(산둥성·역자) 東關 鐵溝村 출신으로, 按察使 王賡言의 손자이자, 莒南大店(鎭) 道台 莊瑤의 表孫이며, 莒縣 探花 管廷獻의 사위이다. 同治 초년에 태어나 중화민국 연간에 사망했다. 광서5년 己卯에 順天府에서 舉人에 합격했으며, 奉天府 軍糧署同知, 金州廳 海防同知, 岫岩州 知州 등 관직을 역임했다.

「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와 「高句麗永樂太王碑考」는 (봉천) 軍糧署 同知로 있을 때 지은 것이다. 그는 호태왕비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 같은데, 광서21년(1895) 3월 봉천부 소속 관아의 청년 吏員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받았을 때, 호태왕비를 주제로 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자신이 우선 표준 답안지 예문을 지어 시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공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이다. 같은 해, 또 「高句麗永樂太王碑考」를 지어, 두 문장을 『高句麗永樂太王碑歌考』로 엮어 봉천 군량서에서 石印하여 간행하였다.

「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의 원래 제목은 「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試院示諸生」이며 七言 詩의 형태로 운율에 맞춰 쓰어진 詩文으로, 총 84 구절에, 43韻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일부 문구 아래에 작은 글자로 해제를 덧붙이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시가의 형태로 작성된 考據學 문장으로, 그 찬술 시기가 이를 뿐만 아니라, 이른 시기에 공개 간행되었고, 내용이 풍부하고 충실하여 아주 중요한 문헌자료로 손꼽힌다.

「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에서 왕지수는 우선 호태왕비의 소재와 비석의 상태에 대해 밝히고 있다. 즉 “鴨綠江水流湯湯, 有碑矗矗江之陽。”이란 비석의 위치가 압록강 북쪽임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다. 그는 봉천성 각지를 답사하여 현장 조사를 거쳐 『奉天全省輿地圖說圖表』를 편찬하기도 했는데, 호태왕비에 관한 소식을 접한 후, 반드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했을 것이다. 그는 「高句麗永樂太王碑考」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비석은 奉天 동쪽 경계의 興京同知에 속해 있는 懷仁縣에서 동쪽으로 360리 떨어진 通溝口에 위치해 있다. 광서3년에 변방지역의 封禁을 풀고, 通溝에 巡檢을 설치하였다. 그 지역에 옛 성터가 여전히 남아있다. 비석은 옛 성에서 동북쪽으로 5리 떨어진 압록강변에 위치해 있는데, (방향은) 東向이며, 높이는 두 丈 남짓하고, 넓이는 8尺이며, 두께는 그 절반 정도이다. 鼉屬(거북모양의 碑座)나 螭首 장식이 없다. 원석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네 면에 비문을 環刻하였는데, 비문은 동쪽 비면에서 시작하여 북쪽 비면에 이른다. 총 42行이며, 매 행에 41字씩 총 1,722자가 새겨져 있다. (비문) 서술이 자세하며, 서체 또한 바르고 가지런한데, 漢代의 예서체와 유사하다. 비석 서쪽으로 1리쯤 떨어진 곳에 古陵이 있다. (거기에서) 예서체로 ‘願太王陵安如山固如嶽’이라는 열 글자가 새겨진 벽돌(磚)이 발견되었다(碑在奉天東境興京同知屬懷仁縣東三百六十里通溝口. 光緒三年開邊禁, 以通溝設巡檢, 地有古城, 基尚存. 碑立古城東北五里鴨綠江岸, 東向, 高二丈餘, 寬八尺強, 厚得半. 無蟲鼠蟻螻飾. 就石原質, 四面環刻之, 文起東迄北, 共四十二行, 行四十一字, 共計一千七百二十二字. 敘事詳慎, 書亦嚴整, 類漢隸. 碑西里許即其陵. 有磚隸書願太王陵安如山固如嶽十字.)”

위에서 보듯이, 그는 비석의 위치, 방향, 형태 및 비문 그리고 태왕릉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그 후대의 관련 기록에 비해 훨씬 정확하다. 또 시문에서 “伐林架木拓碑出, 得者寶之同琳琅”이라고 했는데, 친견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자세히 기술하기는 어렵다. 또 “自我東來考典制, 搜羅金石盈東廂”이라는 시구는 그가 금석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또 그와 관련된 일에 많은 시간을 들였음을 시사해준다.

그 외에도, 만약 그가 사전에 호태왕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감히 호태왕비문을 시험 과제로 출제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표준 답안지 예문을 지어 수험생들에게 배포했는데, 허위로 작성했을 수는 없다.

“大書深刻石四面, 千秋風雨莓苔蒼. 手剔莓苔索點畫, 追摹秦漢超隋唐.”이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직접 이끼로 뒤덮인 비석을 직접 보았고, 손으로 이끼를 걷어내고 비문을 확인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왕지수가 호태왕비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한 시점은 관월산이 호태왕비를 발견한 직후, 아직 이끼를 소각하지 않았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즉 광서3년 가을에서 4년 봄~여름 사이였을 것이다. 그가 직접 보고 기록으로 남긴 당시 상황인 만큼, 신뢰할만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왕지수의 「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에 언급되어 있는 호태왕비 발견 시점도 신뢰할 만하다. 일찍이 1895년(광서21년)에 그는 이미 호태왕비가 광서3년에 발견되었음을 시구에서 언급한 바 있다. “我皇馭宇之三載, 衽席黎首開邊疆. 奇文自有鬼神護, 逢時不敢名山藏.”이 바로 그것인데, 그가 호태왕비의 발견 시점을 광서3년(1877)년이라고 한 것은 懷仁縣 설치 시기, 그리고 書啓 관월산이 회인현에 도착한 시기와도 부합된다.

당시 通溝지역에 巡檢을 설치하기 위해 준비 작업 중이었고, 또 관월산이 금석문에 관심

이 많아, 그 해 가을에 통구에 이르러 호태왕비를 발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관월산이 손수 몇 글자를 탁본하여 관아에 가져다 縣令 章樾에게 보고하였고, 그의 유히를 얻어 이듬해 초천부에게 호태왕비 경비와 이끼 소각 작업을 위임했던 것 같다. 이른바 “인묘년 사이에 비석 하단이 불에 타 훼손되었다(寅卯年間碑下截毀於火).”³³⁾고 한 사건은 광서4년(戊寅/1878), 5년(己卯/1879)사이에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 외에, 集安博物館의 조사 기록과 호태왕비 하반부 훼손 상태로 미루어 보아, 확실히 이끼제거를 위한 소각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다.

그 다음, 왕지수의 「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에서는 호태왕비의 건립과 비문의 내용에 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首從創業述祖德, 始基丕立鄒牟王. 自雲其母河伯女, 有如元鳥天生商.”은 호태왕비문 첫 머리의 “옛적에 시조 鄒牟王이 나라를 세웠는데 (王은) 北夫餘에서 태어났으며, 天帝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河伯의 따님이다. 알을 가르고 세상에 나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성스러움이 있었다…(惟昔始祖, 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郎. 剖卵降世, 生而有聖德……)”에 대한 설명이다.

비문의 이 전설을(건국신화) 기술하면서『시경』의 “하늘이 현조에게 명하여 내려와 商을 낳았다(天命玄鳥, 降而生商).”는 (은나라 시조)전승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는 이미 고구려의 건국 전설과 중원지역 옛 전설의 연관성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후대의 연구를 위해 넓은 시각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 “太元永樂共乙未, 歲月可證非渺茫”이라고 하여, 연대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왕지수는 호태왕비문의 永樂太王 ‘乙未’를 東晉의 孝武帝 太元20년 을미(395)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長壽王 ‘甲寅’(입비 연대)이란 바로 晉의 安帝 義熙10년 갑인(414)년이다. 그는 「高句麗永樂太王碑考」에서 “이 비의 건립연대는 (晉의) 安帝가 연호를 義熙로 바꾼지 10년 되던 해임이 틀림없다.”고 확실히 지적한바 있다. 이는 아주 정확한 추론인데, 호태왕비의 입비 연대는 바로 414년이다. 왕지수는 호태왕비의 건립 시점을 정확히 밝혀낸 최초의 학자이다.

이어서 그는 시에서 “斯時威名震四國, 史雖闕略碑能詳. 逞兵首及新羅境, 用武遠控東佛桑.”이라고 하여, 호태왕 시기 동아시아 각국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른

33) 張延厚, 「跋語」역자 주.

바 ‘네 나라(四國)’란 곧 東扶餘, 新羅, 百濟 그리고 倭를 말한다. 이들 국가가 바로 호태왕이 대군을 이끌고 정벌하여 영토를 확장한 대상이었던 것이다. 호태왕비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百殘, 新羅는 옛부터 屬民으로 朝貢을 바쳤다. 그런데 왜가 辛卯年에 와서 백잔을 깨뜨리고 □□(2字缺) 신라를 臣民으로 삼았다. 6년 丙申에 왕이 친히 수군을 이끌고 殘國을 토벌하였다 (百殘, 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 每破百殘, □□新羅, 以爲臣民. 以六年丙申, 王躬率水軍, 討伐殘國).”

이 기사는 辛卯年 이래, 倭寇가 수차례 신라와 백제를 침공하자 신라가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호태왕이 친히 대군을 이끌고 신라를 구원하고 백제와 왜구를 격퇴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여러 차례 교전을 거쳐, 호태왕의 군사가 공파한 城이 64개, 村이 1,400개에 달하였으며, 결정적인 승리를 취득하였다. 왕지수의 시구에서 바로 이러한 전공에 대해 언급하였던 것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圍城三匝勢將下, 坐使肉袒降牽羊. 五尺珊瑚獻二樹, 朱紅寶石橫筆床. 四方因之貢方物, 源源小國供趨蹌.”이라는 내용인데, 이 구절에 관심을 가져온 학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 후에, 榮禧, 金毓黻은 “백잔왕이 두려워, 다시 사신을 보내 五尺이나 되는 珊瑚樹 2개, 朱紅寶石 筆床 1개를 바치고, 나머지는 앞서보다 배로 더 바쳤으며, 그 자식을 인질로 보냈다……(百殘王懼, 複(後)遣使獻五尺珊瑚樹二, 朱紅寶石筆床一, 他倍前, 質其子……)”라고 해석했을 뿐, 나머지 학자들은 건너뛰고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제는 현재 비석에서 해당 行이 이끼 소각 과정에서 훼손되어 문자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만약 왕지수가 이끼를 불태우기 전에 원문을 친견하였고, 그것을 시구에 옮긴 것이라면, 아주 귀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 외에, 「高句麗永樂太王碑考」도 함께 출간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비석의 크기나 비문의 글자 수에 관해 약간의 오류가 있으나, 비석의 건립시기, 일반 상황과 관련 역사 연구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어지는 호태왕비 논저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1896년(광서22년)에 陸心源의 「高句麗廣開土大王談德紀勳碑跋」이 발표되었다.

陸心源(1834~1894)은 浙江省 歸安(지금의 湖州) 출신이다. 字는 剛甫, 剛父이고, 號는 存齋이

며, 晩號는 潛園老人이다. 咸豐 己未(1859)에 舉人에 합격하였으며, 福建鹽運使를 지냈다. 그는 유명한 醫術家이자 藏書家였으며 금석문에 능하였다. 그가 지은 의학 서적으로는 『諸病源候論校』, 『外台秘要校』 등이 있으며, 史學 저작으로는 『宋史翼』가 있다. 圖書類 저서로는 『皕宋樓藏印』, 『十萬卷樓叢書』, 『千巒亭古專圖釋』 등이 있으며, 收藏類 저서로는 『儀顧堂集』, 『書畫書錄解題』, 『宋元明清書畫家年表』 등이 있다.

陸心源은 清代 4대 藏書家 중의 한 명으로 손꼽히는데, 명성이 자자한 皕宋樓(浙江 湖州)에 있는 陸心源의 개인 장서각(역자)의 樓主로도 유명하다. 그는 금석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京師에 전해진 호태왕비 탁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을 보내 구입했거나, 혹은 지인의 소장본을 직접 보았을 가능성이 많다. 「高句麗廣開土大王談德紀勳碑跋」은 육심원의 저서 『儀顧堂續跋』에 수록되어 있는데, 찬술 연월 표기가 없다. 1898년(광서24년) 鄭文焯의 「高麗國永樂太王碑釋文纂考」에서 “앞면 비문을 통해, 甲寅年 9월 29일 乙酉에 비문을 새겼음을 알 수 있다. 吳興(浙江 湖州 지역·역자)의 陸心源은 이를 涼의 太元16년이 라고 고증했다……(據碑前文知, 勒銘於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 吳興陸心源考爲涼太元十六年……)”라고 했는데, 이로 미루어, 육심원의 「高句麗廣開土大王談德紀勳碑跋」은 늦어도 1897년(광서23년)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호태왕비 연구 논저로 손꼽힌다.

陸心源은 「高句麗廣開土大王談德紀勳碑跋」의 첫머리에서 『後漢書』 東夷傳에 수록되어 있는 北夷 索離國 전설을 인용하여 『三國志』 주석에서 인용한 『魏略』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위략』에 따르면,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왔다. 스스로 말하길 선조는 주몽이라고 한다. 주몽의 어머니는 하백의 딸로, 부여왕에 의해 궁실 안에 갇혔는데, 햇빛이 비추어, 몸을 이끌어 이를 피했으나, 해의 그림자가 또한 쫓아와 곧 임신하였다.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나 되었다. … 한 사내아이가 알을 깨고 나왔다(高句麗出於扶餘, 自言先祖朱蒙, 母河伯女郎. 爲夫餘王閉於室中, 爲日所照, 引身避之, 日影又逐, 既而有孕, 生卵大如五升……有一男子破殼而出).”³⁴⁾고 한다. 이는 『後漢書』 東夷傳의 것과 조금 다른데, 전자는 ‘索離國’이라고 한 반면, 후자는 ‘高句麗’라고 했다. 따라서 그는 『위략』의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왔다”는 기록은 호태왕비의 기술과 일치하므로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역사사실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후대의 『魏書』, 『隋書』, 『文獻通考』, 『東國通鑑』 등 사서의 관련 기록은 모두 『위략』에 기초한 것으로 보았다.

34) 이 내용은 『魏略』이 아니라, 『魏書』 卷100 列傳 第88에 수록되어 있음. -역자 주.

이어서 글에서는 鄒牟王(東明)의 건국전설을 살피고, 비문의 ‘儒留王’이 곧 類利, 즉 瑠璃明王이라고 했다. 또 『三國史記』를 인용하여 “고구려의 담덕이 사망하자 (시)호를 광개토왕이라고 하였다. 이는 비문의 ‘廣開土境好太王’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 비를 마땅히 ‘高句麗廣開土王談德紀勳績碑’로 불러야 한다(高句麗談德薨, 號廣開土王. 與碑稱廣開土境好太王合. 則此碑應題爲高句麗廣開土王談德紀勳績碑).”고 주장했다.

더불어 『동국통감』에서 전하는 “焮의 太元17년 壬辰 3월에 고구려왕 伊連이 사망하자 太子 담덕이 왕위에 올랐다(晉太元十七年壬辰三月高句麗王伊連薨, 太子談德立).”는 내용이 비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문에서 “永樂五年歲在乙未”라고 했으므로, 담덕이 즉위한 해는 마땅히 ‘辛卯年’이어야 하지 ‘임신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호태왕이 왕위에 오른 시점은 진의 태원16년 즉 A.D.391년이다. 이 시점이 확실한 만큼, 이를 근거로 호태왕비의 건립 시기를 추론해낼 수 있다. 이어서 그는 고구려 왕계를 살펴, 담덕을 儒留王의 17세손이라고 했다.³⁵⁾

글에서는 또 “담덕이 백제, 거란을 공격한 시점은 모두 즉위 5년 뒤이므로, (부왕의) 상을 치룬지 오래되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임신년’이라고 오기한 고로, 권근이 (광개토왕에 대해) 衰經(상복)을 벗지 않은 채 다른 나라를 쳤다고 비난하게 되었다. 이 비석의 발견으로 그러한 오류를 바로잡게 되었다(談德之攻百濟, 攻契丹, 皆在即位五年之後, 免喪久矣. 自金富軾三國史誤系之壬辰年, 權近遂有衰經伐國之貶. 賴有此碑, 可以證其誤耳).”라고 하여, 일종의 正史 기록에 대한 보완으로서의 비문의 역할을 언급하기도 했다.

비문에 호태왕이 정벌한 다양한 지역명이 언급되어 있는데, 육심원은 이들 지명을 轉音에 기초하여 추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의학자, 장서가로서 동북지역에 존재한 일개 小國의 역사에 대해 이 정도로 깊이 있게 연구하였다는 점은 실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1900년(광서26년)에 鄭文焯의 「高麗國永樂太王碑釋文纂考」가 발표되었다. 鄭文焯(1856~1918)의 字는 俊臣, 叔問이고, 號는 大鶴山人, 小坡, 鶴道人이다. 奉天 鐵嶺 출신으로, 漢軍正白旗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는 高密鄭氏임을 자처하였는데, 鄭康成(鄭玄·역자)의 후손임을 내세우기 위함이었다. 부친 鄭瑛榮의 字는 蘭坡이며, 同治 초년(1862)에 陝西巡撫를

35) 발표문에서는 “담덕이 유리왕임을 확인했다(確認談德爲儒留王).”라고 했으나, 陸心源의 원문을 참조하여 ‘十七世孫’을 보완함. - 역자 주.

지냈으며 가문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정문작은 光緒乙亥(1875)에 鄉試에 합격하였으며 中書舍人을 지냈다.

1898년(광서24년), 정문작은 潘祖蔭의 초기 雙勾加墨本을 토대로 「高麗國永樂太王碑釋文纂考」를 찬술하였다. 그는 우선 호태왕의 일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이는 고구려 호태왕묘의 紀功碑이다. 지금의 盛京 압록강(변)에 있는데, 조선의 高山城 滿浦城 경내에 속해 있다. … 그 도읍을 두루 고찰한 인사의 말에 따르면, (비석) 처음에 흙속에 매몰되어 있었으나 3백 년 전부터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도 완전히 노출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땅 위에 노출된 부분의 높이는 18尺이 넘으며, 남쪽을 바라보며, 북쪽을 등지고 있다. (정면의) 넓이는 약 5尺6寸 남짓이며, 동서 측면의 두께는 4尺4寸 남짓이다. 네 면에 비문이 새겨져 있다(此高麗好太王墓上紀功碑也. 在今盛京鴨綠江屬朝鮮高山城 滿浦城境內……彼都考古之士云, 初掩土中三百年前漸掘漸露, 迄今未盡出土. 出土者高越十八尺, 面南背北, 約寬五尺六寸有奇, 東西側約寬四尺四寸有奇. 四面鐫字).”

위에서 보듯이, 정문작이 일부 소문을 전해 듣고 잘 못된 기록을 남겼다. 그가 이 글을 집필할 당시는, 懷仁縣이 설치되어 이미 20여 년이 경과하였다. 비석은 당시 봉천에 소속된 회인현 압록강 오른쪽 기슭의 通溝巡檢 경내에 위치해 있었으며, 결코 ‘조선 고산성 만포성 경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른바 “3백 년 전부터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도 완전히 노출되지는 않았다.”는 소문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석 크기에 대한 묘사에도 오류가 있다.

그는 호태왕비 건립 시기에 대해, “甲寅年 9월 29일 乙酉에 비문을 새겼다”고 보았고, 고증을 거쳐 “호태왕은 後漢 興平元年 甲戌에 출생했고, 사망한 이듬해 癸丑에서 甲寅 9월에 이르는 시기에 능으로 모셔졌다. 비석 건립도 바로 그해에 이루어졌으니, 마땅히 建興12년이다(知好太王實生於後漢興平元年甲戌, 其棄國之明年癸丑, 至甲寅九月始遷山陵. 立碑即在是歲. 實當建興之十二年也).”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호태왕의 생물 연대를 A.D.194~232년으로, 입비 시기를 234년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는 역사사실과 거리가 먼데, 고구려 및 북방지역 역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가 陸心源이 고증해낸 ‘晉 太元16年’을 ‘涼 太元16年’으로 잘

못 인용하여 비판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또 추모왕 건국전설, 호태왕의 碑麗 정벌, 왜구의 한반도 침입, 신라 구원, 백제 격파, 왜구 축출, 동부여 정벌 및 백제를 공략하여 얻은 城과 村, 수묘연호제도 등 역사 사실에 대해, 사료를 인용해 고증을 시도하였다. 비문에 언급되어 있는 地名, 國名에 대해서도 대응되는 설명을 붙였다. 또 金石學의 시각에서 호태왕비문의 서체에 대한 높이 평가하였으며, 비문의 체제나 어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高麗國永樂太王碑釋文纂考』에서 언급한 두 문단이 제법 높은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 ① “비첩 상인에 내게 말하기를, 그 무덤이 마치 거대한 언덕과 같았는데, 돌을 다듬어 쌓았으며, 햇빛을 밝히고 깊이 들어가 보니 甍椎가 깔려 있었다고 한다. 그 나라에서 후하게 장사지내며,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드는데, 무릇 그 옛 풍속이라고 한 『후한서』 高句麗傳의 기록에 부합된다. 또 말하기를, 墓隧(墓道) 네 벽에 모두 그림을 새겼던(鏤) 흔적이 남아있는데, 魯峻塚, 郭巨室, 武梁祠 등의 것과 같이 정교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곧 漢代의 遺制일 것이다. (王)廉生이 무덤에서 출토된 두 벽돌의 탁본을 얻어 나에게 증명했는데, ‘願太王陵安如山固如嶽’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서체 역시 八分體였다. 이는 祝詞류의 글귀인데, 옛 鑿文을 달리 지은 것으로서, 나름 一格을 갖추고 있다(碑估爲餘言, 其墓如巨阜, 類鑿石爲之, 篝火深入, 乃施甍椎. 證以後漢《高句麗傳》所雲, 其國厚葬, 積石爲封, 殆其舊俗也. 又言, 墓隧四壁皆畫像鏤跡, 精詭如魯峻塚, 郭巨室, 武梁祠之類. 則猶漢之遺制也. 廉生嘗得其墓磚二拓以見贈, 其文曰‘願太王陵安如山固如嶽’, 字亦八分, 文則祝詞, 古鑿文之異撰, 足備一格者).”

이는 호태왕릉에 관한 기술로서, 대체적으로 정확하다. 그 나라(고구려)에 厚葬 풍속이 있었고, 돌을 쌓아 봉분으로 삼았다는 점 또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무덤에서 ‘願太王陵安如山固如嶽’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벽돌이 출토되었다는 것도 사실인데, 후대 발굴 조사 과정에서 진일보 입증되었다. 유독 벽화에 관한 기술만 실제와 차이가 있다. 호태왕릉 묘실에는 벽화가 없으며, 무덤에서 서남쪽으로 멀지 않은 지점에 위치해 있는 五盞墳에 정교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여하튼) 이는 집안 고구려고분벽화에 관한 비교적 이른 시기 기록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② “무술년 봄에 京城에서 과거시험을 치르고, 廠肆를 둘러보던 중, 처음 정탁본을 얻었

다. 옛 친구인 왕겸생 재주의 말로는, 그의 먼 친척인 왕소려(왕지수)가 상고한바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 수 없다. 盛伯羲의 釋文이 있으나, 보지는 못했다(餘以戊戌(1898)春計偕人都, 閱廠肆, 始獲精脫本. 老友王廉生祭酒, 謂其族人少廬曾考之, 未詳. 盛伯羲有釋文, 卻未之見.)”

여기서 언급한 ‘少廬’란 곧 王志修를 말하고, ‘廉生’은 곧 ‘王懿榮’을 일컫는다. 王懿榮의 字는 廉生이고, 山東 福山 출신으로, 光緒연간에 進士에 합격하였다. 翰林院 侍讀學士를 거쳐 벼슬이 國子祭酒에 이르렀다. 金石學에 심취해 있었으며, 처음으로 胛骨文을 발견한 (1899)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吳大澂, 葉昌熾 등 금석문 학자들과 친분이 두터웠다. 庚子年 (1900)에 북경이 8국 연합군에 의해 함락되자 부인과 더불어 우물에 뛰어들어 자결했다.

王志修는 그의 먼 친척쯤 된다. 왕지수는 1895년에 글이 완성되었고 나서, 아마도 王懿榮에게 우선 보여드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 때문에 왕의영이 정문작에게 왕지수의 비문 고증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다.

이상의 두 문단에서는 초기 호태왕비 탁본 연구자와 그 주변 상황을 전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고분벽화와 문물 관련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문작 연구의 기초자료가 쌍구가목본이었기 때문에 자획상의 오류가 일부 발견되고 있다. 그의 비문 해석과 관련해, 학자들은 억지스러운 추론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문에서 ‘平安好太王’이라고 한 것은 무릇『東國志』에서 말하는 平安道와 연관이 있는데, 지금 조선에서 여전히 道の 명칭에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단순하면서도 한편으로 가소로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정문작의 「高麗國永樂太王碑釋文纂考」가 간행될 당시 江寧布政使 吳重熹가 글을 위해 「高麗永樂好太王碑釋文纂考後跋」을 지어 주었다. 吳重熹(1838~1918)는 山東 海豐(지금의 無棣) 출신이다. 字는 仲怡, 혹은 仲飴, 仲懌이라고도 하며, 號는 蓼舸, 石蓮이고, 晚號는 石蓮老人이다. 1862년(同治元年)에 舉人에 합격하였으며, 河南陳州知府, 開封知府, 福建按察使, 江寧, 直隸布政使, 護理直隸總督, 北洋大臣, 江西巡撫, 河南巡撫 등 관직을 역임하였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 天津에 거주하면서 『吳氏文存』, 『吳氏詩存』, 『世德錄』 등 저서 편찬에 몰두하였다.

吳重熹와 鄭文焯은 오래 동안 친분을 맺어왔다. 1899년 오중희가 蘇州에 부임해왔을 때 정문작과 더불어 친교를 맺게 되었다. 1900년 3월에 오중희는 정문작이 지은 「高麗國永樂

太王碑釋文纂考를 보았고, 이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실상 정문작이나 오중희 두 사람 모두 오래 동안 관리를 지낸 인물로서, 호태왕비 및 그에 관한 역사지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의 고증이나 발문에 오류들이 적지 않게 확인되는데, 이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오중희의 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처음에 탁본이 희소해 구입하기 어려웠다. 스승 潘文勤(반조음)공께서 가목본 한부를 가지고 계셨다. 기축년(광서15년/1889)에 채주 盛伯羲(盛昱)가 노지를 모아 탁공(李雲從을 지칭)을 보내 정탁본을 얻어오면서부터 (탁본이) 경사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重熹는 그 해에 도읍에서 얻었다. 성백의의 釋文이 아주 자세하다. 癸巳年(광서19년/1893)에 信陽에서 옛 친구인 日照(산동성)의 待詔(관직) 丁少山이 呵凍(언 붓을 입김으로 녹여)하여 다시 상고하려 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初拓墨罕購, 只潘文勤師有一就石上墨鈎本. 歲己丑, 伯羲祭酒盛昱鳩資遣工往精拓, 始散見於京師. 重熹是年在都獲焉. 伯羲所爲釋文, 未甚詳審. 歲癸巳(光緒十九年, 1893年)在信陽, 老友日照丁少山待詔呵凍再考釋, 未卒業而沒.)”

위에 언급된 내용은 초기 호태왕비 탁본과 비문 해석 시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1903년(광서29년)에 榮禧의 「古高句麗永樂太王墓碑譚言」이 간행되었다. 榮禧는 字가 筱峰이고, 長白兀紮部の 滿族世家 출신으로 遼沈일대의 名宦이었다. 光緒20년(1894), 中日甲午戰爭 중, 鴨綠江 방어전이 전개될 무렵에 최전방지역인 安東의 知縣에 위임되었다. 1899년 12월에 다시 寬甸 知縣으로 옮겨졌으며 이듬해 6월에 이임했다. 1901년 7월에 다시 寬甸 知縣에 부임하였다.

榮禧의 『古高句麗永樂太王墓碑文考』에는 「高句麗永樂太王墓碑文」과 「高句麗永樂太王墓碑譚言」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널리 퍼지지 않은 탓에, 오래 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에 1905년 寫本(혼마 규스케(本間九介) 사본, 東洋文庫 소장)이 있어, 일본 학자 니시카와(西川權) 등 학자들은 「譚言」을 이용해 호태왕비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중국의 경우, 1925년에 간행된 『遼東文獻征略』에서 처음으로 그에 대해 언급하였다.

榮禧가 지은 「高句麗永樂太王墓碑文」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호태왕비문 釋文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일부 관련 논저들에서는 이를 대표적 해석문으로 수록하기도 했다. 이 해석문

의 가장 큰 특징은 缺字에 대한 增補인데, 이는 그 후 金毓黻의 비문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비석 2면의 제9, 10행, 4면의 제1행 윗부분은 원래 훼손으로 인해 문자가 없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증보하였으나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그러한 문자 증보에 참조한 저본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3면의 1행에 대한 증보 작업은 왕지수의 「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영희는 금석문의 판본 연구는 사료의 진실성 입증과 보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호태왕비는 懷仁縣(환인) 설치와 밀접히 연관이 있다. 청나라 초기에 柳條邊을 설치하여 출입을 금하면서 봉금지역은 황량은 땅으로 남게 되었다. 광서연간에 奉天將軍 崇實이 조정에 상소를 올려 寬甸, 懷仁, 安東, 通化 네 지역에 縣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어 관리함으로써 황무지를 개간하여 조세 수익을 늘일 것을 주청했다.

영희는 회인현 통구지역에서 발견된 ‘高句麗永樂太王墓碑’의 현황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거대한 비석이 우뚝 솟아 있는데, 모습에 위엄이 넘친다. 비석은 장방형이며 높이가 2丈 2尺 5寸이다. 정면은 남북향이며 (정면의) 동서 가로 넓이는 6尺이다. 동서 두 측면의 남북 가로 넓이는 2尺 9寸인데, 모두 지금의 工部 營造尺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 비문은 동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북쪽으로 네 면에 環列되어 있다. 동남 두 비면에 깎인 문단이 있으며, 서북 두 면의 비문도 몇 글자 깎여있다. ‘看煙’이란 수묘 인연호를 일컫는다. 비문은 총 1799자이며, 글자 크기는 4寸 이다. 篆書와 隸書체가 섞여 있으며, 생략된 글자가 많다. 서풍이 고풍스럽고 소박하며 魏나라 시기 비석과 흡사한데, 서예 수준이 더 뛰어나니, 그 진귀함을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 비석 서쪽의 山麓에서 북쪽으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1畝 남짓 크기의 돌무덤(石塚)이 있는데, 바로 영락태왕묘이다(巨石矗立, 狀極偉岸, 長方形碑, 高二丈二尺五寸. 南北正面, 東西橫量寬六尺, 東西兩側面, 南北橫量寬二尺九寸, 均按今工部營造尺計算. 其文自東而南, 南而西, 西而北, 四面環列. 東南兩面鐫文, 西北兩面鐫數字. 看煙, 蓋記守墓之煙戶耳. 碑字千七百九十有九, 大四寸, 篆隸相孱, 兼多省文, 古朴可喜, 極似魏碑, 而書法過之, 洵足珍矣. 碑西山麓北五里許, 有石塚大畝餘, 卽永樂太王墓也).”

이상의 기록은 기술 상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鄭文焯의 글에 비해 더 자세하다. 글에서

는 또 王彦莊, 元丹山의 비문 해석과 탁본 자료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

“岔溝’를 일명 ‘통구’라고도 하는데, 전에 巡檢 설치 중에 한 자리가 비어, 王彦莊을 위임하였다. 지금은 바꾸어 輯安縣治를 설치하였다. 왕언장이 옛것을 좋아하고 또 배우기를 즐겨, 이 비석을 보고 기록으로 남겼다. 아쉽게도 고증한 내용을 서책으로 남기지 않고 대략적인 내용만 적었다. 그는 광서8년 임오(1882)에 산둥 출신의 布衣 元丹山에게 부탁하여 全壁의 탁본을 얻을 수 있었다(岔溝一名通溝, 舊設巡檢一缺, 部選王君彦莊承其乏, 今改設輯安縣治. 彦莊好古敏學, 目睹是碑, 備錄其文, 惜其考訂無書, 僅言大概. 餘於光緒八年壬午, 曾倩山東布衣元丹山往拓, 得獲完璧).”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通溝巡檢 王彦莊이 비문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그 결과물은 전해지지 않는다. 왕언장이 기단산을 파견하여 “全壁 탁본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 것은, 아마 완전한 호태왕비 탁본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는 이 탁본에 기초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通典』, 『盛京通志』 등 문헌자료를 인용하여 비문의 ‘鄒牟王’이 곧 ‘朱蒙’, ‘東明’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추모왕의 건국 연대를 漢元帝 建昭2년 甲申(B.C.37)이라고 하여 정확한 결론을 내렸다. 이어서 비문의 ‘五年乙未’에 대해, “마땅히 東晉 시기에 해당하며, 孝武帝 太元20년 을미(395)일 것이다”라고 보고, 이 연대를 기준으로 호태왕의 安葬 및 입비 시점을 義熙10년(414)이라고 했는데, 이 결론 역시 아주 정확하다.

그는 비문에 근거하여 영락태왕의 몰년을 義熙7년 辛亥(411)로 추론하였는데, 실제보다 한 해 앞당겨졌다. 이는 아마 호태왕이 22년 10월에 사망했다는 『삼국사기』 기록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사실 비문에 따라 정확히 추산해보면 호태왕의 몰년은 마땅히 임자년(412)년이어야 한다.

호태왕비 발견 직후, 비문을 著錄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저술로는 또 楊守敬의 『寰宇貞石圖』가 있다. 楊守敬(1839~1915)의 字는 惺菴이며, 號는 鄰蘇이다. 말년에는 鄰蘇老人을 자처하기도 했다. 湖北 宜都 陸城鎮 출신으로, 同治元年(1862)에 거인에 합격하였다. 동치4년(1865)에 시험을 거쳐 景山宮學(官學-역사)의 教習이 되었으며, 1874년에 國史館 謄錄이 되었다. 1880년에서 1884년 사이, 駐日欽使隨員으로 있었으며, 귀국 후에 선후하여 黃岡 教諭, 兩湖書院 教習, 勤成學堂 總教長 등 직을 역임하였다. 1909년에 禮部 顧問官에 천거되었으며, 이듬해 湖北通志局 纂修를 겸하였다.

양수경은 清末民初 시기의 뛰어난 역사·지리학자이자, 금석문학자이며, 목록판본학자, 서예가, 泉幣학자, 장서가이다. 그의 대표 저술로는 『湖北金石志』, 『日本金石志』, 『望黨金石錄』, 『水經注疏』 등이 있으며, 또 『曆代輿地沿革圖』, 『曆代輿地沿革險要圖』 및 『水經注圖』 등을 編繪하였다. 그 외, 『寰宇貞石圖』, 『三續寰宇訪碑錄』, 『日本訪書志』 등 83종에 달하는 저서를 편찬하기도 했다.

『寰宇貞石圖』는 일본에 있는 동안 저술한 저서로, 1882년(광서8년)에 책으로 펴냈는데, 일본 大藏省 印刷局을 통해 인쇄 발행하였다. 이 책은 中國의 單宣紙 拓本을 축소 영인(縮影)한 것인데, 시대 순서에 따라 다섯 책으로 엮었다. 현재 전해지는 것이 아주 적어 찾아보기 어렵다. 1909년(宣統元年)에 上海에서 인쇄하여 재발행 하였다.

『寰宇貞石圖』에서는 연대에 따라 碑刻을 선별해 정리하였는데, 晉代의 비각 목록 중에서 「高句麗好太王碑」를 찾아 볼 수 있다.

“선별하여 수록한 여러 비석의 문자와 내용을 봤을 때, 비단 역사 고증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문헌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오류를 교정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학자들이 주목해온 일부 사료가 수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高句麗好太王碑」, 「大秦景教流行中國碑」 등이 그것이다. 서예와 예술적 가치를 놓고 봤을 때, 草書를 제외한, 각종 서체의 전범이 될 만한 작품들이 두루 수록하여, 名家의 기예를 돋보이게 함과 동시에 각종 서풍과 유파를 골고루 살필 수 있게 했다. 양수경의 碑刻 선택 기준은 …… 내용이 비교적 완전하게 남아 있고, 문헌적 가치가 높으며, 또 문자와 서예 발전의 궤적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寰宇貞石圖』는 지금까지도 文史 전공자나 예술가 모두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참고도서로 지목되고 있다.”

관련 기록 상, 양수경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미 호태왕비문을 저록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필자는 일본에서 인쇄 및 발행된 판본의 『寰宇貞石圖』를 친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완전한 호태왕비 탁본이 1880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당시 양수경이 일본에 있었다는 등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당시 그는 완전한 탁본을 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1882년에 발행된 『寰宇貞石圖』에 호태왕비 釋文과 摹寫雙鉤本이 수록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필자는 1909년 상해에서 재판 발행한 『寰宇貞石圖』만을 접했을 뿐이다. 거기에는 일부 비석 탁본과 석문이 새롭게 증보되어 있다.

王健群의 『好太王碑研究』附錄2 ‘好太王碑研究年表’ ‘1882년’ 항목에 楊守敬의 『寰宇貞石圖』가 일본에서 간행되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단지 ‘1902년’항목에서 “양수

경이 曹廷傑로부터 탁본을 얻었다”고 했다. ‘1909년’ 항목에서는 “양수경이 「高麗好太王碑」(跋文과 碑文 포함), 『寰宇貞石圖』를 발표하였다”라고 했다.

徐無聞의 『寰宇貞石圖』淺說에 따르면, 1909년 상해에서 재발행하면서 일부 내용을 침삭하였다고 한다. “周秦漢魏 시기의 것을 비교적 많이 삭감하였다. 약 40여 종의 비각이 삭제되었는데, 주로 글자가 너무 많거나(예를 들어 「是吾殘碑」, 「仙人唐公碑」, 「沙南侯刻石」, 「鄭季宣碑」 등), 글자가 너무 적거나, (예를 들어 「廣陵中殿刻石」, 「朱君長」 등), 또는 僞刻, 翻刻으로 판단되는 것들이었다(예를 들어 「朱博殘碑」, 「裴岑紀功碑」, 「華山碑」 등). 뿐만 아니라, 새롭게 추가한 것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劉熊碑」, 「孟孝躄碑」 등이 새로 추가되었다. 兩晉, 南北朝 부분은 추가보다는 삭감이 좀 더 많다. 「鄧太尉祠碑」, 「鄭文公上碑」, 「鄭述祖天柱山銘」, 「韓法成造像」 등 거의 20여 종에 달하는 비각을 삭제하였으며, 대신 「高句麗好太王碑」, 「劉懷民墓志」, 「劉猛進墓志」, 「李璧墓志」, 「高慶碑」, 「程哲碑」 등 10여 종을 새로 추가하였다.”

그렇다면 1882년(광서8년)에 양수경의 『寰宇貞石圖』가 일본에서 발행되었을 당시에는 호태왕비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나, 1902년에 이르러서야 양수경은 曹廷傑로부터 호태왕비 탁본을 입수했고, 먹으로 填廓하지 않은 雙鉤本을 직접 摹寫하였던 것이다. 1909년 상해에서 재발행된 『寰宇貞石圖』에는 호태왕비 쌍구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판본은 직접 비석에서 탁본한 것이 아니라 조정걸 소장 탁본을 저본으로 하여 모사해낸 것으로서, 글자 안팎이 모두 먹으로 칠해지지 않은 摹寫雙勾本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다.

몇 가지 부연 설명

호태왕비가 발견되어서부터 이끼 소각, 완전한 탁본의 출현, 그리고 석회 도포가 이루어지기까지 20여 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 사이 호태왕비에 관한 기록과 연구는 주로 일본과 중국학자들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중·일 학자들 사이의 의견 교환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본의 비문 해석과 고증 등 연구 성과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표되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30년전인 1884년(광서10년)에 완성된 아오에 히데(靑江秀)의 「東夫餘永樂太王碑銘之解」가 최초의 연구 성과이다. 그러므로 호태왕비 연구 또한 130년이 경과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석회 도포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기는 비록 아주 짧다고는 하나, 호태왕비 연구의 기초가

마련된 중요한 시기였다. 비록 일본의 연구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우선은 호태왕비 탁본 유입에 관한 문제이다. 앞부분에서 이미 아오에 히데의 글에 첨부된 관련 내용을 언급한바 있다. 비석이 원래는 수몰되어 있었는데, 盛京將軍으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대량의 인부를 동원하여 비석을 발굴해냈다고 한다. 당시 마침 일본인이 현지에 있어, 비석을 탁본하여 일본으로 가져왔고, 그것 참모본부에 소장되었다는 것이다.

1889년 『會餘錄』第5集에 수록된 「高句麗碑出土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비석은 청나라 盛京省 懷仁縣의 洞溝라고 불리는 곳에 위치해 있다. 압록강의 북쪽에 있으며, 상류의 九連城과는 8백여 리(청나라의 리 단위를 기준으로 함. 이하 동문.) 떨어져 있다. 지세가 평탄한데, 넓이가 3, 4리, 길이는 12, 13리이다. 중앙에 옛 土城이 있는데, 둘레가 5리 남짓이 된다. 그 내부에 懷仁縣 分縣을 설치하였으며, 곧 옛 永安城이다. 비석이 위치해 있는 지점은 이 성에서 동쪽으로 약 4리 남짓이 떨어져 있고, 강변에서 3리 남짓이 떨어져 있으며, 산자락에 작은 개울이 흐른다. 현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 비석은 옛날에 땅속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3백 여 년 전부터 점차 (지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몇 해 전에 어떤 사람이 天津으로부터 인부 4명을 고용해 여기에 와서 (비석을) 세척하였다. 2년의 시간을 들여서야 비문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해졌는데, 장기간 개울물에 침식되다보니 훼손된 곳이 자못 많았다. 처음에 4尺 남짓 발굴해 비문을 보고서야 비로소 고구려비임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탁공들에게 명해 (비석의) 4면에 가목을 설치하여 비문을 탁본하게 했다. 그런데 비면이 평평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여 큰 종이를 이용해 한꺼번에 탁본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부득이 徑尺 크기의 종이를 이용하여 순서에 따라 탁본할 수밖에 없었다. 고로 작업량은 많았으나 얻은 것이 적으니, 지금까지 겨우 (탁본) 2부를 얻었다고 한다. 일본인 某氏가 마침 이 곳을 여행하다가 (탁본) 1부를 얻어 돌아갔다. 발굴된 부분의 비석 높이는 1丈 8尺이며, 전후 넓이는 5尺 6, 7寸되고, 양측 넓이는 4尺 4, 5寸이다. 흙 속에 매몰되어 있는 부분이 몇 척이나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남쪽을 향하고, 북쪽을 등지고 있으며, 네 면에 모두 비문이 새겨져 있다. 남쪽 면에 11행, 서쪽 면에 10행, 북쪽 면에 13행, 동쪽 면에 9행, 총 43행이며, 매 행에 41자씩 대략 총 1759字가 새겨져 있다. 글자의 길이는 각자 다른데, 긴 것은 5寸이고, 짧은 것은 3寸이며, 깊이는 대개 5, 6寸이다. 흠이 생겨 없어져버린 글자가 무릇 197자이다. 비석 옆에 큰 무덤이

있는데, 마치 丘陵과도 같다. 외형이 짓눌린 것처럼 기울어져 있다. 무릇 고구려시기의 것으로서, 永樂太王을 매장한 곳이다. 某氏가 그 속에서 옛 벽돌(古磚)이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현상금을 내걸고 구입고자 하여 몇 枚를 구해 돌아갔는데, 지금 그 집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아오에 히데(靑江秀), 요코이 다다나오(橫井忠直),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미야케 요네키치(三宅米吉) 등 동시기 연구자들은 모두 위에서와 같은 유형의 기록을 신뢰 및 인용하였다. 그 후, 사에키 아리키요(佐伯有清)나, 王健群 역시 자신의 글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또 사료로 인용한바 있다.³⁶⁾

아오에 히데, 요코이 다다나오 등 학자들이 인용한 호태왕비 발견 경위에 관한 이 기록에는 많은 오류들이 확인되며 사실상 신뢰하기 어렵다. (이 기록에 보면) 한편으로는 물속에 수몰되어 있었는데, 성경장군이 인부를 동원해 발굴 및 세척했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인물이 천진으로부터 인부 4명을 고용해 세척하였다고 했다. 이는 완전히 허황된 소문에 불과하다. 무릇 호태왕비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황당한 기록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또 호태왕비의 크기에 대해, 높이는 3장이고, 넓이는 1장 5, 6척이라고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높이는 1장 8척이며, 전후 넓이는 5척 6, 7촌이고, 양측 넓이는 4척 4, 5촌이라고 했다. 더 황당한 것은, 새긴 비문의 깊이가 5, 6촌이라고 한 점이다. 직접 호태왕비를 보았다면 이러한 기술이 실제와 얼마나 편차가 큰지 알 수 있을 것이다.

好太王陵에서 출토된 文字銘 벽돌(磚)에는 “願太王陵安如山固如嶽”이라는 열 글자가 적혀 있으나, 이 기록에서는 “願大王之墓安如山固如丘” 11字라고 하여 4자나 어긋나고 있다. 이 벽돌의 문자는 예서체로 씌어 있으며, 글자가 선명하여 판독하기 쉬운데, 학자가 아니라 한문 소양을 갖춘 일반인이라도 이 같이 어리석은 착오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가소로운 소문에 대한 기록을 통해 일본 첩자 사코 가케노부(酒匂景信)가 직접 호태왕비 소재지에 다녀가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만약 그가 현장을 방문해 호태왕비 탁본을 구한 것이라고 하면, 비석에 대한 기록에 이처럼 많은 오류가 나타날 수 없다. 뿐만 아

36) 楊世燦, 『楊守敬學術年譜』, 湖北人民出版社, 2004, 95~96쪽.

니라, 탁본의 순서를 일일이 표기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2면과 4면 비문 배열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호태왕비 발견 초기, 관련 연구에 참여한 일본인 학자들은 모두 가까이에서 호태왕비를 친견하지 못했고, 비석이나 탁본 상황에 대해, 잘 못된 傳聞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순서가 혼란스럽게 조합된 비문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해석하다보니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 미야케 요네키치가 고마쓰노미야(小松宮) 소장 탁본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혼란스러웠던 비문 배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이때부터 호태왕비 연구도 올바른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에 비해, 중국학자들의 연구는 훨씬 정확했다. 특히나 王志修는 호태왕비가 발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을 방문하여 고찰하였는데, 비석의 형태를 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 또 비석 발견 시점에 대해 “我皇馭宇之三載，衽席黎首開邊疆。奇文自有鬼神護，逢時不敢名山藏”；“光緒三年開邊禁以通溝設巡檢”이라 하여 두 번이나 ‘광서3년’을 언급하였다. 이는 호태왕비의 발견시점을 광서3년(1877)으로 기술한 최초의 문헌기록으로, 광서4, 5년 사이에 이끼 소각을 위해 비석을 불태운 사실과 아귀가 맞으며, 후대의 현장조사와 방문 기록과도 일치한다.

榮禧가 찬술한 호태왕비문 해석은 光緒29년(1903)에 간행된 『古高句麗永樂太王墓碑文考』에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은 책 간행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광서8년 壬午(1882)에 산둥 출신의 布衣 元丹山에게 부탁하여 全壁의 탁본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는데, 이로부터 기단산이 제작한 탁본이 완전한 탁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희는 기단산 탁본에 근거하여 3면 1행의 문자를 解讀해냈는데, 이는 여타 학자들의 판독과 일치하지 않았다. 또 일부 문자를 보완하기도 했는데, 왕지수가 지은 詩文(『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의 내용과 동일하다. 일각에서는 영희가 기만당했으므로, 근거자료로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거나, 혹은 다른 저본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 참고문헌 |

- 耿鐵華, 『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 顧燮光, 『夢碧簃石言』
- 關野貞, 「滿洲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跡(二)」, 『考古學雜誌』5-4, 1914.
- 今西龍, 「廣開土境好太王陵碑に就て」, 『訂正増補大日本時代史』古代 下卷, 1915.
- 談國桓, 「手札」
- 劉永智, 「好太王碑的發現及其他」, 『社會科學戰線』1985年第1期.
- 謝承仁, 『楊守敬集』第9冊, 湖北人民出版社, 湖北教育出版社, 1997.
- 徐建新, 「關於北京大學圖書館所藏好太王碑原石拓本」, 『世界曆史』1995年第2期.
- 楊世燦, 『楊守敬學術年譜』, 湖北人民出版社, 2004
- 楊守敬, 「高句麗廣開土好太王談德碑跋」
- 葉昌熾, 「奉天一則」
- 王健群, 「好太王碑的發現和捶拓」, 『社會科學戰線』1983年第4期.
- 王健群,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1984.
- 張慶軍, 潘千葉, 『京城玩主張伯駒』,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 張延厚, 「跋語」(『遼東文獻征略』)
- 佐伯有清, 『廣開土王碑研究史(研究史廣開土王碑)』, 吉川弘文館, 1981(2刷)
- 陳重遠, 『鑒賞述往事』, 北京出版社, 2001.

高光儀(東北亞歷史財團)

올해는 고구려 역사문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해입니다.

다름 아닌 오늘 열리는 ‘고구려 세계유산 10년 국제학술회’의 명칭이 말해주듯이 2004년 7월 1일 중국 蘇州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북한과 중국에 소재한 일부 고구려 유적이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입니다. 우연히 우리 정부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대표단의 일원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던 토론자로서는 그날의 기억들이 생생하여 오늘 이 학술회의가 더욱 뜻 깊게 다가옵니다.

또한 금년은 광개토왕비가 건립된 지 16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광개토왕비문에는 왕을 산릉에 옮겨 장사지내고 비를 세워 흔적을 기록한 날이 9월 29일(…以甲寅年九月廿九乙酉遷就山陵, 於是立碑, 銘記勳績, 以示後世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9월 윤달이어서 공교롭게도 입비 날짜가 두 번 겹치는데, 10월 22일과 11월 21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남·북한 및 중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의 연구자들이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학술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다양하고 풍성한 학술 잔치가 되어 고구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조명이 이루어지고 고구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토론할 주제는 耿鐵華 선생님의 ‘好太王碑(광개토왕비) 발견 초기 탁본작업과 연구’입니다. 선생님은 중국에서 현지에서 고구려 연구에 전력해 오신 분으로 특히 광개토왕비에 대해서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셨습니다. 본 발표문은 그간 천착해 오신 비의 발견, 이끼 제거를 위한 소각 작업, 탁본 제작 등에 대한 성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중국학계의 광개토왕비 연구사 정리¹⁾를 시도한 적이 있는 토론자로서는 이 발표문을 통해 비 발견 초기의 연구사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高光儀, 「中國學界的 廣開土太王碑 研究現況-1980年 以後를 中心으로」, 『中國의 高句麗史 研究 動向分析』, 高句麗研究財團, 2004.

그러면 미리 보내주신 발표문을 읽은 소감과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碑의 발견에 대하여

선생님은 1900년대 초기에 제기된 광개토왕비 발견 시점에 관한 주장들을 ‘同治末年說’, ‘光緒元年說’, ‘光緒3年說’, ‘光緒6年說’, ‘光緒初年說’ 등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광서3년, 즉 1877년에 발견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광서3년 7월에 懷仁縣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해를 비가 발견된 상한선으로 보았으며, 아울러 王志修의 「高句麗永樂太古碑歌」의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왕지수는 당시 저명한 금석학자들에 비하여 지명도는 비록 떨어지지만 현지에서 두루 관직을 거친 인물로서 비를 발견했던 關月山에게 직접 들은 사실을 기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자료가 詩文 형식으로 기술되다보니 학자들의 주목에서 다소 빗겨나 있던 것을 적극 검토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2. 이끼 제거를 위한 소각 작업에 대하여

광개토왕비가 훼손된 주요한 원인으로서 비면 소각 작업의 실체와 구체적인 시점을 추적하였다. 소각 작업은 회인현 설치위원인 章樾의 명을 받은 관월산의 지시로 初天富라는 현지 관리인에 의해 자행되었고, 그 시기는 “또 들으니 인묘년 사이에 비석 아래가 불에 타 훼손되었다. 又聞寅卯間, 碑下截毀於火.”(張延厚의 광개토왕비「跋語」)라는 언급을 근거로 광서4년(戊寅, 1878년)에서 5년(己卯, 1879년) 사이로 보았다.

그리고 불에 의한 비면의 박락 부위와 훼손된 글자 수를 지적하였는데, 비석의 1면에서 2면에 이르는 모퉁이 부분에서 35자 정도, 1면 11행의 중하부와 基石 가까운 부분에서 10여 글자, 2면 마지막 행의 하부와 3면 하단의 1~7행 부분과 3면의 1~3행 중간 부분에서 모두 70여자가 훼손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일부는 풍화작용 등 훼손 부위의 확대에 의한 것으로 1면과 2면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균열이 점차 커지면서 10여 자가 더 훼손되었고, 2면 상부와 3면 상부는 침식으로 인해 비문 30여 글자가 훼손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현재 비면의 상태를 보면, 제1면 1행 하단부 34~39자 부분도 탈락되었고, 또한 제2면의 마지막 행의 글자들도 일부가 결실된 상태이다. 제2면 마지막 제10행 글자의 좌측 부



그림 1 廣開土王碑 제2면

분은 대부분의 초기 원석탁본에서도 탁출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제3면과 만나는 모서리 부분이다. 원래 모서리에 일정한 규각이 있고 또한 계선을 지나 글자 좌측 결구의 일부까지 훼손된 것이라면 탈락 부위가 상당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한편 제2면 제10행의 경우 榮禧나 金毓黻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17번째 글자(十九

盡拒3-10-17~20)의 위 부분에는 원래부터 글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독하고 있다. 그 위쪽으로 좌측이 박락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약 3자(제16·15·14번째) 정도가 들어갈 공간이 남아있고 14번째 위쪽으로는 안쪽으로 탈락이 심하여 더 이상 공간이 없다.²⁾ 선생님은 또한 9행의 첫 번째 시작 글자를 ‘自2·9·8’자로 판독하고, 그 위 부분에는 원래 글자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재 비면의 상태로 보아 ‘自’자 위쪽으로 2글자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다.

이들 글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10년 庚子年 기사의 전반적인 해석문제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비문의 전체 자수 및 비의 원형 복원에도 중요하다. 특히 글자가 시작되는 위치에 따라 계선의 형태도 다시 세밀하게 관찰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제2면의 9행과 10행, 제4면 1행의 경우 계선의 형태가 어찌면 신라 진흥왕 <창녕비>처럼 비면의 刻字 상황에 맞게 그 어졌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비의 탁본에 대하여

광개토왕비의 전체 탁본은 비면의 이끼를 소각한 1878년 이후에나 가능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최초의 완전한 광개토왕비 탁본은 현전하는 이른바 ‘雙勾加墨本(墨水廓填本)’이라는 것이다. 당시 전체 탁본이 제작되지 못한 이유로는 비면의 침식이나 석치가 날카로워 젖은 선지를 대고 두드리면 찢어졌기 때문이고 당시 탁공들이 선지 외에 다른 종이를 지니고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선생님도 발표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현재 전해지는 쌍구가목본이라는 것은 글자의 외형을 따라 쌍구를 뜨고 그 안에 먹을 채워 넣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글자 이외의 부분에 먹을 칠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이다. 비면의 글자들을 모사하고 석문된 글자를 그려 넣은 느낌이 짙고, 탁본으로서 가치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편이다. 당시 금석학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또한 이끼도 제거된 상태에서 탁본 전문가라면 당연히 자형결구나 필획의 정확성이 드러나는 精拓本 방식을 선호했을 터인데, 굳이 변형된 방식으로 탁본의 생동감을 잃은 쌍구가목본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전히 잘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2) 오히려 제9행의 글자(倭背息追至2·9·9~13)들의 좌측 부분이 훼손되고 있는 상태로서 이미 10행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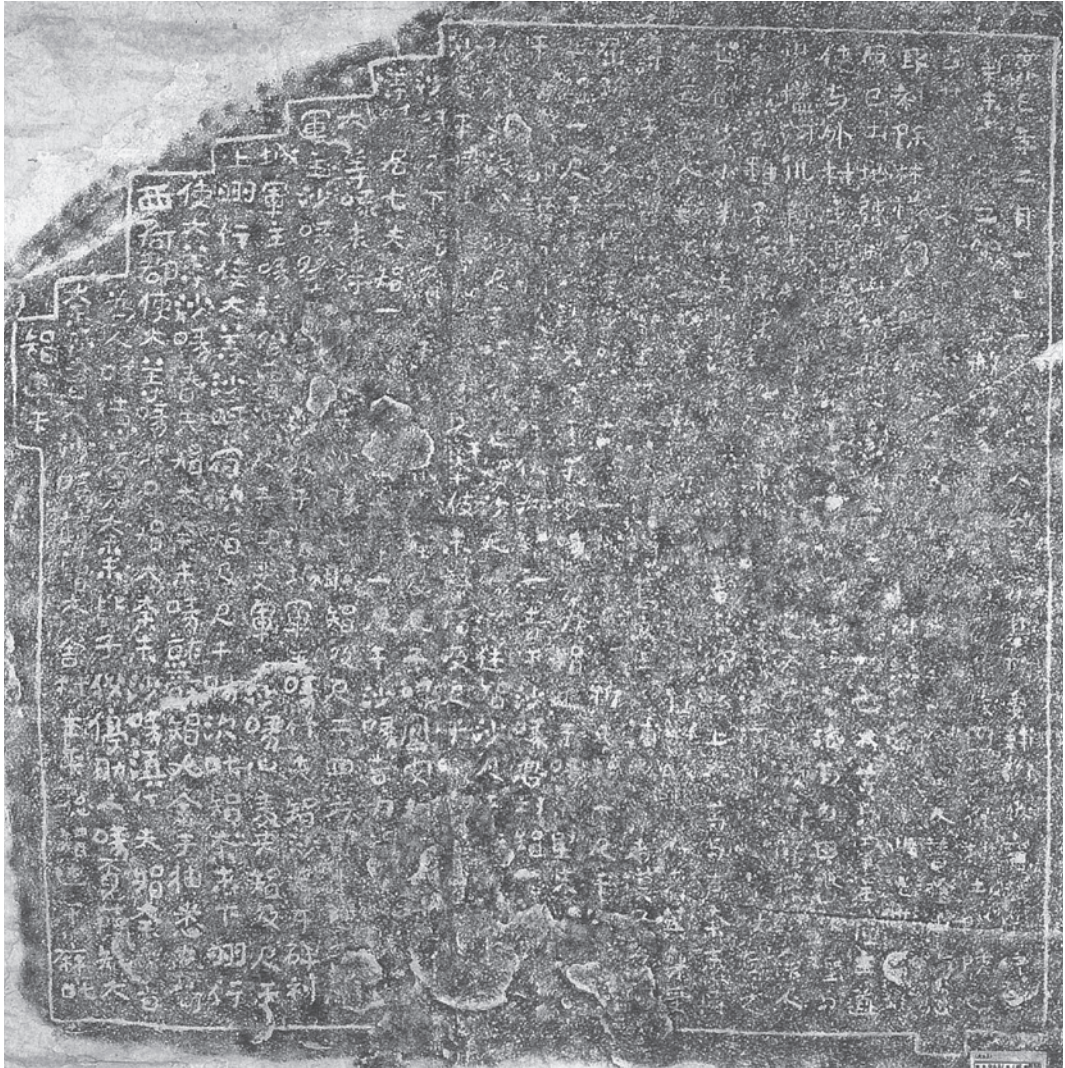


그림 2 昌寧碑 拓本

이러한 쌍구가목본은 현재 2벌이 전하고 있다. 원석정탁본으로 확인된 10여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량이다. 양자의 비율로 보면 쌍구가목본은 상대적으로 소량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당시 탁본 구매자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전하는 쌍구가목본은 광개토왕비가 발견되고 세상에 점차 알려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혹은 어떤 특수한 의도로 탁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전문가에 의해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왕건군 선생의 견해³⁾를 참고하여 토론자의 생각을 덧붙여 보면, 이른바 현전 쌍구가목본은 비가 발견된 초기, 궁벽한 지역에서 6m 이상의 巨碑 탁본이 가능한 고도의 기술을 지닌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육군참모본부 사카와 중위의 특별한 요청으로 현지의 비석 관리자였던 초천부 같은 비전문가에 의해 쌍구가목 형식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 2, 3번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 王健群,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1984, 31~32쪽. 왕건군은 초기 쌍구가목본 제작이 초천부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카와가 쌍구가목본을 입수한 시기는 1883년 경이고 당시는 李雲從 같은 최고 전문가들이 현장 방문을 하기 이전이므로 초천부는 아직 탁본의 최고 기술을 충분히 접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남한지역 고구려유적 연구현황과 과제

최종택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I. 머리말

기원전 37년 졸본에서 건국한 고구려는 국내성으로 천도한 이후 국가체제를 완비하여 4세기 대에 이르러 동북아 4강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427년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 고구려는 남진을 본격화하여 475년에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으며, 오늘날 만주지역과 한반도 중부 및 남부지역 일부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평양천도 이후 고구려의 남진과정에 대해서는 문헌기록을 통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으나 사료의 불충분으로 인해 구체적인 남진과정이나 경영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1980년대 이후 남한지역에서 고구려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어 사료의 불충분으로 인한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1979년 증원고구려비가 발견되어 고구려의 남진과정 연구의 기폭제가 되었다. 증원고구려비의 발견으로 5세기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및 고구려의 충주지역 진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후 1980년대부터 남한지역에서 구조적으로 고구려 고분과 유사한 고분이 간헐적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를 고구려 고분으로 특정할 자료가 없어 ‘고구려계’ 고분으로 인식하였을 뿐 더 이상 진전된 논의는 불가능하였다.

1988년 백제의 도성으로 추정되는 몽촌토성에서 고구려 유적과 유물이 조사되면서 남한지역 고구려 유적에 대한 조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994년에는 한강북안의 아차산 일원에서 20여개소의 고구려 보루가 확인되었고, 1997년부터는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1999년에는 임진·한탄강유역과 양주분지에서 다수의 고구려 관방유적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금강유역에서도 고구려 산성이 발굴되었다.

최근 2000년대 이후 고구려 토기가 부장된 고분의 조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간헐적으로 조사된 ‘고구려계’ 고분들을 고구려 고분으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부 고구려 고분군의 주변에서는 취락유적이 조사되고 있다(그림 1). 이 글에서는 1980년대 이후 남한지역에서 조사된 고구려유적의 조사현황을 살펴보고, 고구려 남진의 물적 증거인 고분과 관방유적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검토한 후 향후의 연구를 전망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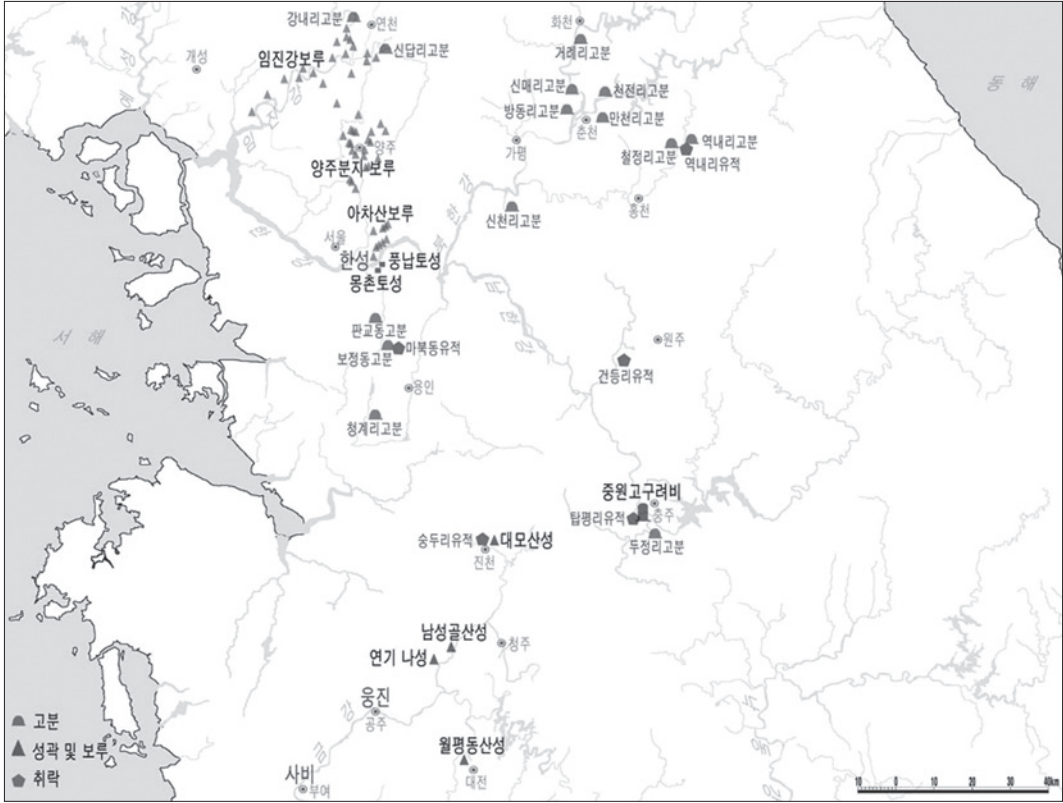


그림 1 남한지역 고구려유적 분포도

II. 남한지역 고구려유적 조사현황

1. 고구려 고분 조사현황

남한지역에서 고구려계(高句麗系) 황혈식석실분이 처음 확인된 것은 1916년의 일이지만 간단한 현지조사를 통해 존재가 확인된 것으로 별 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이후 1981년 춘천 방동리에서 2기의 고구려계 석실분이 보고되었고(金元龍 1981), 이듬해에는 춘천 신매리에서도 유사한 석실분이 조사되었다(趙由典 1987). 그러나 고분 내부에서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이를 고구려 고분으로 특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더 이상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1990년대 들어와 방동리고분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고(盧燮眞, 沈載淵 1993), 춘천 만천리에서도 유사한 구조의 석실분이 조사되었다(翰林大學校博物館 2000). 이를 통해 남한지역 고

구려 고분의 존재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지만 확실한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상황에서 논의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어 2001년에는 연천 신답리(김상익·김충배 2003)에서 고구려계 석실분이 발굴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춘천 천전리(江原文化財研究所 2008), 홍천 역내리(강원문화재연구소 2005b), 가평 신천리(이재철외 2009)에서도 고구려계 석실분이 잇달아 발굴되었으나 역시 고구려 고분으로 특정할만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아 연구는 답보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2007년 봄 용인 보정동에서 2기의 석실분이 발굴되었는데, 각 고분에서 철제 관정(棺釘) 및 관고리와 함께 확실한 고구려 토기 심발(深鉢)과 흑색마연토기 구형호(球形壺)가 1점씩 출토되었다(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7; 이희수 외 2009). 같은 해 성남 관교동(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홍천 철정리(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충주 두정리고분군(김병희 외 2010)이 발굴되었으며, 두정리고분군에서도 확실한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었다. 2008년에는 화성 청계리 고분(한백문화재연구원 2008)이 조사되었으며, 역시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었다. 2010년에는 연천 강내리에서 9기의 고분이 3기씩 열상으로 배치되어 발굴되었으며, 고구려 토기와 함께 관정, 관고리, 금동제품 등이 출토되었다(高麗文化財研究院 2010). 최근 2011년에는 화천 거례리에서도 1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한백문화재연구원 2011).

이처럼 2007년 이후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는 고분의 발굴사례가 증가하면서 남한지역 고구려 고분의 존재가 명확해졌다. 또한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는 모든 고분이 장방형 묘실에 우편재 연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고분에서는 삼각고임방식의 천정가구와 회칠로 마감한 묘실벽체 등 전형적인 고구려 고분의 특징적인 속성을 공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고분도 이러한 고구려 고분의 특징을 모두 또는 일부를 공유하고 있으며, 백제나 신라의 석실분과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고구려 관방유적 조사현황

남한지역에서 고구려 유적의 존재가 처음 확인된 것은 1988년 몽촌토성 동남지구의 발굴 조사를 통해서이다. 그 해 겨울 보고서 작성을 위한 유물 정리과정에서 고구려 토기 廣口長頸四耳甕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물론 이전의 조사에서도 고운 점토질의 흑색마연토기들이 확인된 바 있으나 고구려 토기의 영향을 받은 백제 토기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전형적인 고구려 토기로 알려진 광구장경사이용의 확인으로 인해 같은 제작전통을 가진 일련의 토기류

를 백제 토기와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몽촌토성에서 고구려 토기의 존재가 확인되기 이전에도 남한지역에서 간헐적으로 고구려 유물이 발견되었다. 1963년 7월 경남 의령에서 延嘉七年銘金銅如來立像이 발견되어 이듬해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1979년에는 충주에서 中原高句麗碑가 발견되어 역시 국보로 지정되었다. 그밖에 경주의 壺杆塚을 비롯한 신라 고분에서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충청도 일원에서 금제귀걸이 등 고구려 유물이 채집되기도 하였다. 또한 1981년 춘천 방동리에서 고구려계 고분이 발굴된 이후 유사한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적과 유리된 채 유물만 확인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고분의 경우도 고구려 고분으로 특정할만한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아무튼 1988년 몽촌토성 발굴조사를 통해 고구려 토기의 존재가 확인됨에 따라 남한지역 특히 한강유역에서 고구려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몽촌토성 출토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977년 한강 북안의 구의동에서 발굴되어 서울대학교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토기류에 대한 재분석이 이루어졌다. 구의동유적은 발굴 당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특이한 구조의 백제 고분으로 결론짓고 행정보고문을 간행하였으나, 이후 출토 토기류가 백제 토기와는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다. 분석과정에서 몽촌토성 출토 고구려 토기류와 구의동유적 출토 토기류가 같은 제작전통임을 확인하고 구의동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그 시기는 475년 이후로 분류하였다(金元龍 외 1988).

1989년에는 몽촌토성 서남지구 고지대의 지상건물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ㄱ’자형 온돌을 갖춘 지상건물지가 확인되었다. 남북 3.1m, 동서 3.7m 규모의 온돌유구는 중국 集安市 東台子遺蹟 건물지와 구조가 유사한 점이나 층위상의 증거 등으로 보아 고구려에 의해 축조된 것이며, 그 연대는 475년 이후에서 551년 사이로 추정하였다(金元龍 외 1989). 또한 1988년에 구의동유형으로 명명된 토기류를 고구려 토기류로 보고함으로써 이를 고구려 토기로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상의 몽촌토성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1991년에는 1977년 발굴 당시 백제 고분으로 보고되었던 구의동유적을 고구려 군사시설로 재인식하고 출토된 철기류 15종 1,353점(철촉이 1,300여점)에 대한 재분석이 이루어졌으며, 1993년에는 구의동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류 19개 기종 369개체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어 1995년에는 한강유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1997년에는 구의동유적에 대한 종합보고서가 간행되었다.

1994년에는 구리문화원에서 실시한 아차산 일원의 지표조사를 통하여 15개소에 달하는 고구려 군사시설을 확인하였으며(강진갑 외 1994), 이러한 군사시설들은 堡壘城으로 명명되었다(金致秀 1994). 이후 보루성이라는 명칭은 堡壘에 이미 방어시설로서 城의 개념이 포함되어있음을 이유로 보루로 칭하고 있다.

1997년에는 아차산 4보루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작되어 1998년에 마무리 되었다. 이 발굴조사에서는 둘레 210m 가량의 성벽과 두 개의 치, 그리고 내부에서는 7기의 건물지와 간이 대장간시설 등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26개 기종 538개체의 토기류와 복발형 투구를 포함한 203점의 철기류가 확인되었다(임효재 외 2000). 이 발굴을 통해서 아차산 일원 고구려 보루의 구조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밝혀졌으며, 구의동보루와의 비교를 통하여 당시 보루에 주둔하였던 군사의 수를 추정하는 등 향후 연구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아차산 4보루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에 힘입어 1999년에는 아차산 시루봉보루 발굴조사가 시작되었으며, 2000년에 마무리되었다(임효재 외 2002), 시루봉보루는 왕속천변의 평지를 강제하기 유리한 작은 봉우리에 입지하고 있는데, 보루 전면에 페타이어를 이용한 현대의 참호가 구축되어 있었다. 발굴결과 시루봉보루는 지형에 따라 활처럼 흰 타원형 평면을 하고 있으며, 치가 설치된 성벽 내부에 건물지와 저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이 구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루봉보루의 발굴을 통해 기존에 발굴된 아차산 4보루와 유사한 구조가 확인됨에 따라 아차산 일원의 보루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아차산 4보루에는 2기의 저수시설이 설치된 반면에 시루봉보루에는 규모가 큰 저수시설이 1기만 설치되어 있는 등 세부적인 차이도 있어서 각 보루의 구조와 축조시점 및 존속기간 등에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다.

2002년 중국의 ‘동북공정’여파로 국내에 고구려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였고, 아차산 고구려 보루도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2004년에는 흥련봉 1보루가 발굴되었으며, 2005년에는 흥련봉 2보루와 아차산 3보루의 일부가 발굴되었다. 흥련봉 1보루의 발굴에서는 아차산 보루 중 유일하게 고구려 기와와 와당이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으며, 아차산일원의 보루 중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인물이 기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밖에 성벽 내부에 목책열이 확인되어 성벽을 축조하기 전 목책을 세우고 내부에 건물지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으며, 성벽 외부에 기둥을 세웠던 흔적도 새롭게 확인되었다.

흥련봉 2보루는 북쪽의 평탄면과 남쪽의 함몰부로 구분되는데, 북쪽의 평탄면에 대한 전면조사와 남쪽 함몰부에 대한 탐색조사가 실시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북쪽 평탄면에서

소성시설과 더불어 내부를 석재로 마감한 저장시설이 새로 조사되었으며, 남쪽 함몰부는 석축을 쌓은 장방형의 구조로 확인되었다. 소성시설과 더불어 단야집게 등의 생산관련 유물이 출토되어 홍련봉 2보루가 군수물자를 조달하던 병참과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서기 520년에 해당하는『庚子』銘 토기접시가 출토되어 아차산 보루에 대한 연대관이 더욱 명확해지게 되었다.

아차산 3보루는 아차산 일대의 보루 중 가장 규모가 큰데, 발굴조사는 보루의 남쪽 일부 지점에 국한하여 실시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보루 남쪽으로 치와 같은 구조의 계단식 출입시설이 확인되었으며, 단야시설과 디딜방앗간 등의 시설물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발굴도중 아차산 3보루 남쪽 등산로 상에서도 방앗간 시설이 노출된 것이 확인되어 일대를 아차산 6보루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2005년 홍련봉 2보루와 아차산 3보루의 1차 발굴조사가 마무리되고 2006년 2차 발굴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문화재청의 발굴 불허로 인해 복토하여 보존되었다. 2012년에는 홍련봉 1·2보루에 대한 추가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아차산 3보루는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한편,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용마산 2보루가 발굴되었다(양시은 외 2009). 용마산 2보루는 용마산 능선의 남쪽 봉우리에 위치해있는데, 다른 보루들에 비해 주위가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정상부 평탄면보다 훨씬 아래 지점에 성벽이 구축되었다. 보루의 구조와 시설물은 이미 발굴된 다른 보루와 유사하지만 성벽 안쪽의 급한 경사면을 따라 여러 겹의 석축시설을 구축한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또한 보루 북쪽으로는 길게 튀어나온 삼중구조의 치가 확인되었으며, 남동쪽 사면에서는 출입시설로 사용된 목제 사다리가 확인되었다.

2007년에는 아차산 4보루의 정비를 위한 성벽 추가발굴이 이루어졌다(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2009). 이 조사를 통해 2기의 치가 새로 확인되었고, 남쪽으로는 용마산 2보루에서 확인된 것과 유사한 복합구조의 치가 확인되었다. 또한 성벽 내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목책시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시루봉보루의 정비복원을 위해 시루봉보루 외곽의 성벽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이선복 외 2013). 추가발굴을 통해 성벽에 대한 전면 조사가 이루어져, 4기의 치와 성벽 내부에 설치한 목책시설 등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루 서쪽의 곡부에서는 성벽 외곽에서 이중구조의 석축이 확인되었는데, 2013년에 홍련봉 2보루에서 조사된 외황의 일부로 추정된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정비복원을 위해 홍련봉 1·2보루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홍련봉 1보루는 2004년의 조사를 통해 내부시설에 대한 조사는 완료되었으며, 2012

년에 성벽 전체에 대한 추가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다른 보루에서 확인되는 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보루 북쪽에 치와 같이 튀어나온 출입시설이 확인되었다. 또한 성벽 외곽에 기둥을 세웠던 흔적과 함께 성벽 중간에 세웠던 柱棟의 흔적이 자세히 조사되었으며, 축조 당시부터 2중으로 구축한 성벽의 구조도 새롭게 확인되었다.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홍련봉 2보루의 성벽에 대한 전면조사와 남쪽 함몰부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다. 남쪽 함몰부에서 2기의 저수시설과 벽체건물지, 집수정 등이 추가로 조사되었으며, 벽체건물지는 소성시설로 재사용된 흔적도 확인되었다. 성벽에는 7기의 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성벽 내부의 뒷채움 층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정주의 흔적이 자세히 확인되었다. 또한 성벽 외곽에서 보루 전체를 둘러싼 외황이 확인되었는데, 외황 내부의 물을 밖으로 빼내기 위한 배수시설이 설치된 점으로 보아 당초부터 물이 없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다. 홍련봉 2보루의 추가발굴은 복원과 정비를 위한 조사로서 성벽은 물론 외곽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어 보루의 내부는 물론 외곽시설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로써 아차산 보루의 내부는 물론 외부 구조가 자세히 밝혀지게 되었으며, 각 보루의 발굴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각 보루를 구축하는데 일정한 규칙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Ⅲ.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유적

1. 관방유적의 입지와 분포

남한지역에서 조사된 고구려 관방유적은 대략 50여개 소에 이르며, 향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유적의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방유적은 평지성과 산성 및 보루로 구분되며, 임진·한탄강유역과 양주분지 일원, 한강하류역의 아차산 일원, 금강유역 등 4개 지역에 나뉘어 분포하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과 파주군 일대를 동서로 관통하는 임진강과 한탄강유역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간 지점으로 강을 경계로 20여개소의 고구려 관방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임진강유역의 관방유적은 강의 남안과 북안의 평지에 마주보고 배치된 것이 많으며, 평지성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호로고루, 은대리성, 당포성이 대표적인 평지성인데, 임진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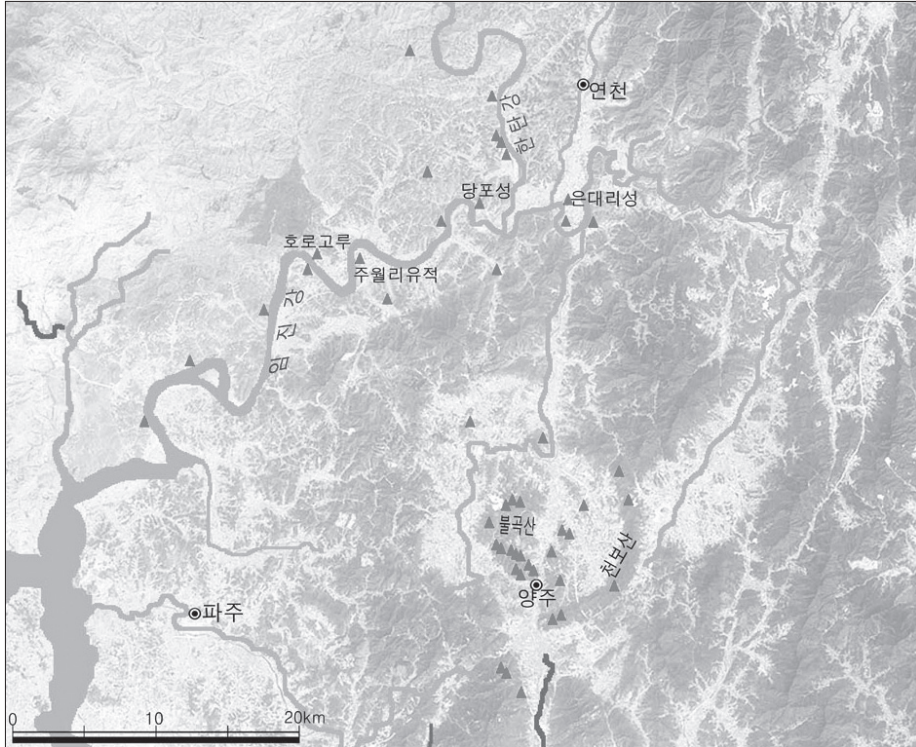


그림 2 임진·한탄강유역 및 양주분지 고구려 관방유적 분포도

흘러드는 셋강과 임진강 사이에 형성된 삼각형의 강안대지상에 축조하였다. 강에 연한 두 면은 높은 현무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견고한 방어시설이 필요치 않으며, 나머지 한 면에만 견고한 성벽을 쌓았다.

양주분지는 지리적으로 임진강유역과 한강 하류역의 가운데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28개소의 보루가 분포하고 있다. 보루들은 산 능선을 따라 남북으로 열을 지으며 배치되어 있다. 각각의 보루는 평지의 길목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능선상의 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루는 단독으로 입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능선을 따라 몇 개씩 연결되어 축조되어 있는데, 대략 50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선형으로 배치되어 있다(그림 2).

한강유역은 한반도의 중심부로 남북 간 왕래의 통로인 동시에 넓은 들이 있고 서해로의 진출이 용이하여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한강 북안의 아차산 일원에는 모두 21개소의 보루가 분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7개의 보루가 발굴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각각의 보루들은 400~500m 가량 떨어져 있는데, 각 보루는 목책이나 석축 등



그림 3 아차산일원 고구려 관방유적 분포도(배경지도는 1966년 항공사진)

의 시설로 서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그림 3)

금강유역에는 진천의 대모산성, 청원의 남성골산성, 연기 나성 및 대전의 월평동유적이 조사되었는데, 남성골산성의 일부가 발굴되어 비교적 자세한 내용이 알려져 있다. 남성골산성이 위치한 곳은 금강 뱃길의 최상류에 해당하며, 고대는 물론 조선시대까지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역할을 하였다. 금강유역의 관방유적들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규모가 큰 산성이라는 점과 유적이 밀집분포하지 않고 단독으로 분포한다는 점에서 분포상의 차이가 있다.

2. 관방유적의 구조

금강유역에 위치한 대모산성과 남성골산성을 제외한 나머지 관방유적은 둘레 500m 미만의 소형으로 성벽과 내부의 건물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벽은 목책시설과 석성으로 구성되는데, 대체로 고구려 군이 주둔한 초기에는 목책을 세워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목책의 바깥쪽에 석성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별 성벽의 축조방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임진강유역의 호로고루, 은대리성, 당포성 등 평지성의 경우는 점토를 다져쌓은 후 외면에 다듬은 석재를 붙여쌓았다(그림 4). 한강유역의 보루들은 목책 외곽으로 3~5m의 거리를 두고 1~2겹의 석축성벽을 쌓았으며, 그 내부는 마사토와 점토를 교대로 다져 관축하였다(그림 5). 금강유역의 남성골산성은 목책을 2줄로 쌓고 그 내부에 점토

를 채워 성벽을 구축하였으며, 문지 주변만 석축으로 보강하였다. 평지성과 산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루들은 성벽에 여러 개의 치를 설치하여 방어력을 보강하였으며, 일부 치는 구조를 달리하여 출입시설로 활용하였다. 남성골산성의 성벽 외곽에는 해자를 설치하였으며, 흥련봉 2보루에도 성벽 외곽에 해자를 설치하여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관방시설의 내부에는 여러 기의 건물과 저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이 설치되었다(그림 6). 병사들의 막사로 사용된 건물들은 일부 움집형태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상건물이다. 방형이나 장방형으로 돌과 점토를 섞어 쌓은 담장식 벽체에 맞배식 지붕을 덮은 구조로 대부분 5×7m 내외의 크기이다. 건물지 내부에는 온돌이 설치되어 있는데, 온돌은 고래가 하나뿐인 이른바 ‘쪽구들’로서 판석을 세워서 벽체를 만들고, 그 위에는 납작하고 긴 판석으로 뚜껑을 덮은 뒤 짚을 섞은 흙으로 미장한 형태이다.

모든 보루의 내부에는 1~2기의 저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저수시설은 풍화암반토를 네모나게 굴토하여 만들었으며, 벽체와 바닥에는 뽕을 채워 방수처리를 하였다. 벽체에는 통나무를 쌓아가며 뽕을 채웠으므로 사용할 당시에는 통나무가 노출되어 벽체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저수시설의 규모는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저수용량은 비교적 일정한 것으로 보아 보루의 규모에 따라 확보해야 할 저수 용량이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보루의 특징에 따라 여러 가지 시설물이 설치되었다(그림 7). 아차산 4보루와 용



그림 4 호로고루 성벽 전경

마산 2보루 및 아차산 3보루의 경우 단야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철기류에 대한 간단한 수리 정도는 직접 수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흥련봉 2보루에서는 토기 소성과 관련된 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아차산 3보루와 흥련봉 2보루에서는 지하식 저장고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또한 아차산 3보루에서는 방앗간이 확인되었는데, 방아확과 불씨가 함께 배치된 상태로 발굴되었다. 이러한 각종 시설물들로 보아 이들 보루에 주둔한 고구려 군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출토된 철제 농공구들은 이들이 평상시에는 농사와 같은 생업에도 종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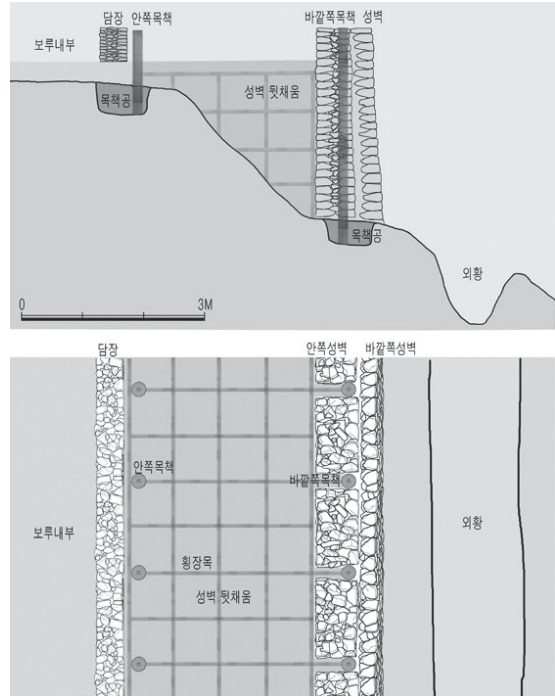


그림 5 아차산 고구려 보루 성벽구조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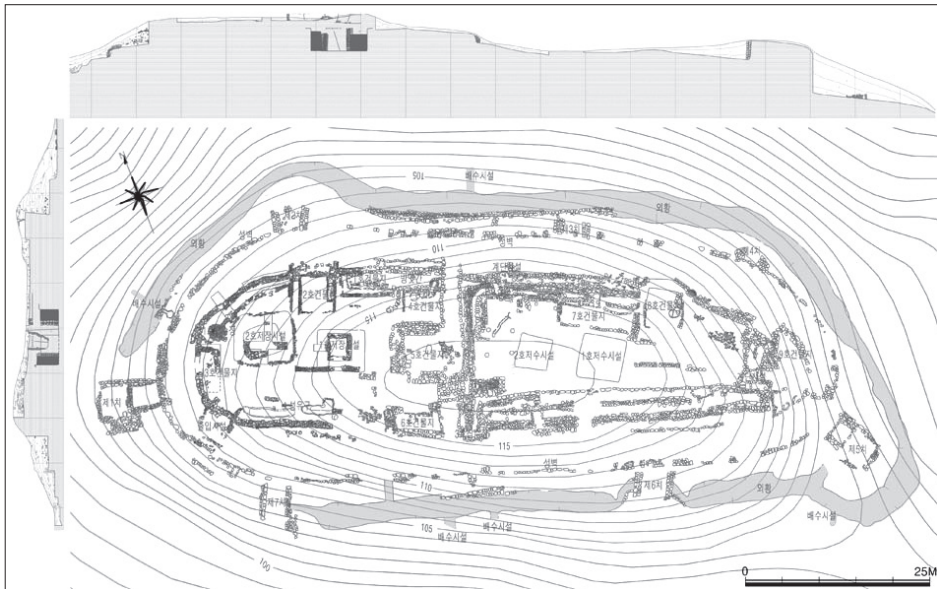


그림 6 흥련봉 2보루 유구배치도



그림 7 아차산 고구려보루 내부 시설물 각종
 (① 건물지, ② 온돌, ③ 저수시설, ④ 배수시설, ⑤ 방앗간, ⑥ 단야로, ⑦ 소성유구)

3. 관방유적 출토유물

발굴조사를 통해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토기류와 철기류가 주를 이룬다. 토기류는 대략 24개 기종으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저장용, 조리용, 배식용, 운반용 등으로 일상 생활에서 사용된 실용기이다. 아차산일원의 보루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는 주로 6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점토띠를 만들어 테쌓기 방식으로 기형을 갖춘 다음 회전대나 물레를 이용하여 토기의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었다. 표면 색조로는 황색, 회색, 흑색 계통이 주를 이룬다(그림 8-①).

토기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철기류인데, 기능에 따라 무기류, 마구류, 농기구류, 공구류, 용기류 등으로 구분된다. 무기류는 공격용과 방어용으로 나뉘며, 공격용 무기

는 활과 화살, 칼, 창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아차산 보루에서는 이들 기본적인 무기 외에도 다양한 무기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10여명의 병사들이 주둔하였던 구의동보루에서는 2자루의 칼과 10자루의 창, 네 자루의 도끼와 함께 3천여발의 화살이 확인되어 당시 고구려군의 부대편제와 무기 보유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방어용무기로는 투구와 찰갑이 있는데, 아차산 4보루에서는 철제 투구가 1점 출토되었으며, 무등리 2보루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찰갑 상의가 1벌 출토되었다(그림 8③, ④).

그밖에 보습과 삼낱, 살포, 낫, 단조철부와 끌 및 정 등의 철제 농공구류와 철슬과 철제 향아리 등의 다양한 그릇들이 출토되었다. 철제 무기류나 농공구류들 뿐만 아니라 재갈과 재갈멈추개, 등자, 교구 등의 마구류도 소량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각 보루에 주둔하고 있는 고구려의 지휘관급들 정도는 말을 타고 산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그밖에 호로그루와 흥련봉 1보루에서는 다량의 기와와 함께 연화문와당이 출토되었다(그림 8②). 이러한 와당은 남한지역에서는 처음 출토되는 것으로 고구려에서 기와나 와당은 왕궁이나 사찰 및 관청 등 공공건물에만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 그 위상을 짐작하게 해준다. 또한 호로그루에서는 「상고(相鼓)」라는 명문이 새겨진 토제 북이 출토되었으며, 천보산 2보루에서도 같은 형태의 토제 북이 출토되었다. 또한 남성골산성에서는 금제이식이 출토되었는데, 역시 이 유적의 위상이 상당히 높았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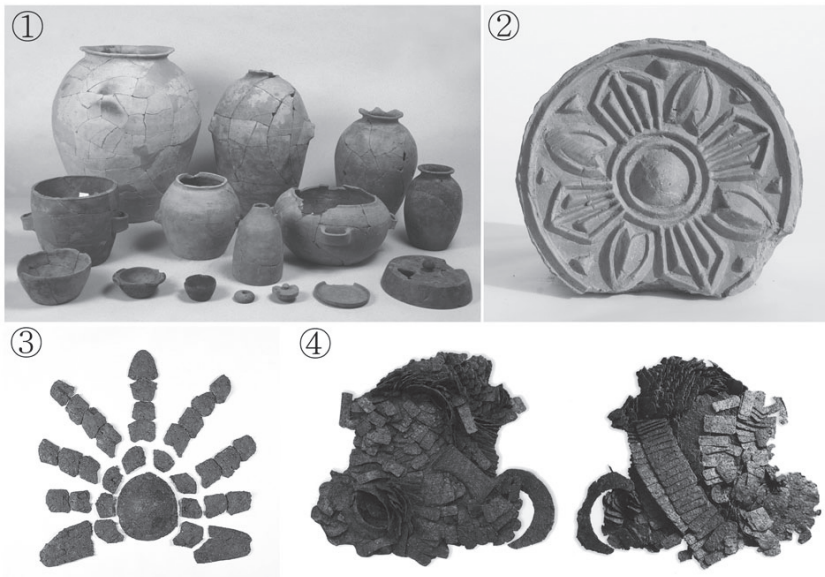


그림 8 남한지역 고구려 보루 출토유물 각종(① 아차산 4보루 출토 토기류, ② 흥련봉 1보루 출토 연화문와당, ③ 아차산 4보루 출토 철제투구, ④ 무등리 2보루 출토 철제 찰갑)

4. 관방유적의 연대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유적은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남진을 시도한 4세기 말 이후에 축조된 것이다. 그러나 출토된 토기류의 제작기법과 형태적인 특징을 고려할 때 지역별 또는 유적별로 축조시점과 사용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한강유역의 경우 고구려 토기의 대표적인 기종인 구형호류에 대한 형식변천에 따르면 아차산일원 보루에서 출토된 구형호류는 6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반면에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사이장경옹의 경우 형태적 특징으로 보아 5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또한 흥련봉 2보루에서는 520년에 해당하는「경자(庚子)」명 토기가 출토되어 이러한 연대관의 명확한 근거가 되고 있다(그림 9). 이러한 토기류의 편년에 의하면 475년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함한 고구려 군은 500년 무렵까지 한강 이남의 몽촌토성에 주둔하였으며, 한강 북안의 아차산일원 보루는 500년 무렵에 축조되어 551년까지 존속한 것으로 편년된다.

이러한 연대관을 바탕으로 남한지역 관방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류는 제작기법과 형태적 특징을 기준으로 크게 두 유형을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표면이 흑색이 많고, 태토에 모래가 섞여있으며, 표면에 점열문이나 중호문 등이 시문된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은 표면이 황색이고, 태토는 모래가 섞이지 않은 니질이며, 문양이 시문되지 않는 것이다. 한강유역 고구려 토기의 편년에 따르면 전자는 5세기 중엽 이후 500년 무렵까지로 편년되며, 후자는



그림 9 흥련봉 2보루 출토 경자명 토기 각종

500년 이후 6세기 중엽까지로 편년된다.

임진강과 한탄강유역의 관방시설들은 두 유형이 모두 있으며, 일부 유적에서는 더 늦은 시기의 토기류가 출토되고 있으므로 5세기 중엽이후 축조되어 일부는 7세기 중엽까지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양주분지의 관방유적은 발굴된 사례가 부족하여 자세히 알기 어려우나 천보산 2보루 출토 토기류를 통해볼 때 5세기 중엽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남성골산성을 비롯한 금강유역의 관방유적에서는 첫 번째 유형의 토기류만 출토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존속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토기류의 연대관과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475년 이후 축조되어 500년 무렵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IV. 남한지역 고구려 고분

1. 고분의 입지와 분포

지금까지 남한지역에서 조사된 고구려 고분은 모두 35기로 임진·한탄강, 북한강 상류, 남한강 상류 등 큰 강가에 위치하거나 성남, 용인, 화성일대의 내륙에 분포하고 있다. 내륙에 분포하는 경우도 하천에 인접해 있어서 강가의 저평한 지역에 입지하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고분은 1기 또는 2~3기가 분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충주 두정리고분군은 5기가 한 줄로 배치되어 있으며, 연천 강내리고분군은 9기의 고분이 3기씩 열을 지어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나지막한 강안 대지에 고분이 입지하는 점과 여러 기의 고분이 열상으로 배치되는 점은 고구려 고분의 일반적인 특징과 동일하다. 이는 남한지역의 고구려 고분이 비교적 넓은 지역에 걸쳐 소수로 분포하기는 하지만 입지와 분포에 있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축조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그림 10).

2. 고분의 구조와 축조기법

고분의 봉분형태는 잔존형태를 근거로 할 때 대체로 방대형으로 추정된다(그림 11). 묘실 위치는 지상식과 반지하식이 있으며, 반지하식이 많다. 지상식은 지면을 정지하고 바로 묘실을 구축한 것과 경사면을 ‘ㄴ’자 형태로 파내고 묘실을 축조한 것으로 구분된다. 대체로 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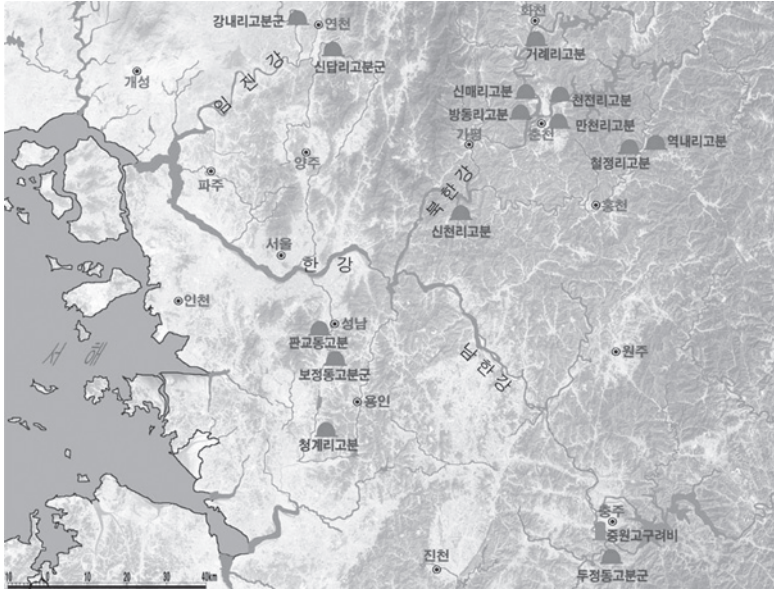


그림 10 남한지역 고구려 고분 분포도



그림 11 연천 신담리고분 전경

곡이 있는 기반토 위에 입자가 고운 점토를 얇게 펴서 다진 후 묘실을 축조하였으며, 벽석을 놓은 후 벽석 뒷면의 공간을 동시에 점토로 채우며 벽체를 구축하였다. 반지하식은 벽체의 일정 높이까지만 굴광을 한 후 축조한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그림 12).

묘실의 축조재료는 크기나 형태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판석형 할석을 사용하였다. 묘실 벽체는 장방형의 석재를 횡으로 눕혀서 쌓았으며, 석재 사이에 생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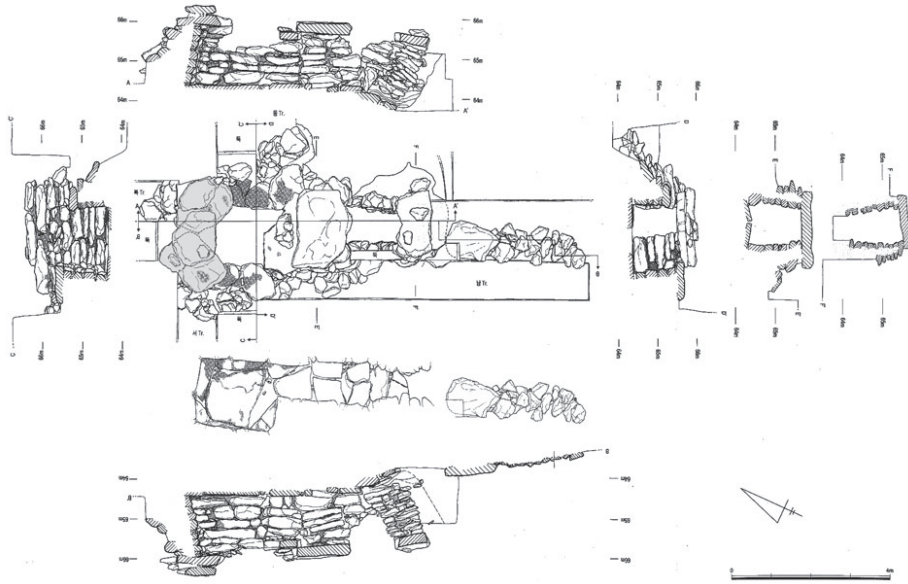


그림 12 연천 신답리고분 평면, 단면, 입면도

공간에는 작은 돌을 채워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고분은 벽체에 회반죽을 발라서 마감하였다.

천장구조가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는 모두 삼각고임 방식의 천정이다. 묘실 벽체의 마지막 단은 편평한 석재를 이용해 정연하게 쌓고, 모서리에 각각 1매씩의 판석을 놓아 삼각형으로 모를 줄여쌓는다. 삼각고임 천정이라도 형태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삼각고임과 평행고임 방식이 섞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연도부 쪽의 천정은 대체로 여러 매의 판석을 이용해 바로 덮는 평천정 형태이며, 묘실과 연결되는 부분은 대부분 커다란 장방형 석재를 이용해 덮음으로서 문미(門楣)의 효과를 내고 있다. 연도는 묘실 단벽의 우측에 치우쳐 위치하는 우편재연도가 대부분이다.

고분의 바닥에 특별한 시설을 한 것이 상당수에 달하는데, 바닥 전면 또는 일부에 불을 놓아 다짐한 것과 회다짐을 한 것 등이 있다. 그 외에 수적으로는 적지만 바닥 전면에 할석이나 판석을 깔아 마감한 예도 확인된다. 바닥처리와는 별도로 관대를 설치한 고분도 확인이 되는데, 바닥처리를 한 고분의 경우는 관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관대는 묘실의 좌측에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천전리고분만 묘실 양측에 관대가 설치되어있다. 관대는 대체로 천석이나 할석을 이용해 쌓았으며, 관대의 높이는 대략 10cm 내외로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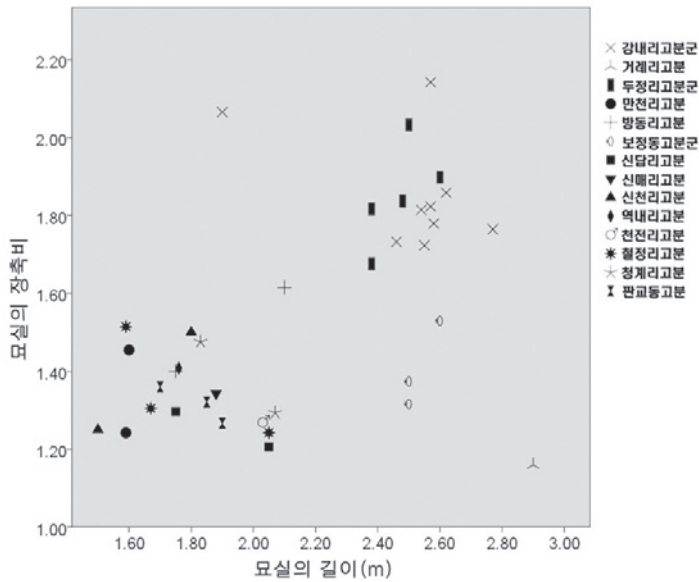


그림 13 남한지역 고구려고분 장축비와 묘실 크기의 상관관계

묘실의 평면형태는 기본적으로 장방형이다. 묘실의 규모는 대체로 묘실의 장축길이와 비례하는데, 길이 2.2m 미만의 소형과 2.2m 이상의 중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묘실의 평면 형태는 일반적으로 장방형이지만 장축비(길이를 폭으로 나눈 값)에서 차이가 있으며, 장축비 1.6 미만의 장방형과 1.6 이상의 세장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3).

3. 고분 출토유물

남한지역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은 종류와 수량에서 매우 빈약하다. 출토유물 중에서 관정과 관고리 등의 葬具類가 가장 많고, 토기류와 금제구슬과 유리구슬, 은제팔찌, 은제지환 등의 장신구류 및 철못, 철도자, 철환 등이 있다.

장구류로는 관정과 관고리가 있다. 관정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9기에서 모두 189점의 관정이 출토되었다. 관정은 머리의 모양에 따라 원두정(圓頭釘)과 방두정(方頭釘)으로 구분되며, 못 머리가 없는 ‘ㄱ’자형도 있다. 원두정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방두정과 ‘ㄱ’자형은 은 소량에 불과하다. 관고리는 강내리 2·4·7·8호분과 보정리 1·2호분에서 출토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좌판과 이음쇠 고리 및 원형의 손잡이로 구성되어있다. 보정리고분군 출토품은 좌판이 원형이지만 강내리고분군 출토품은 화판형 좌판으로 훨씬 더 장식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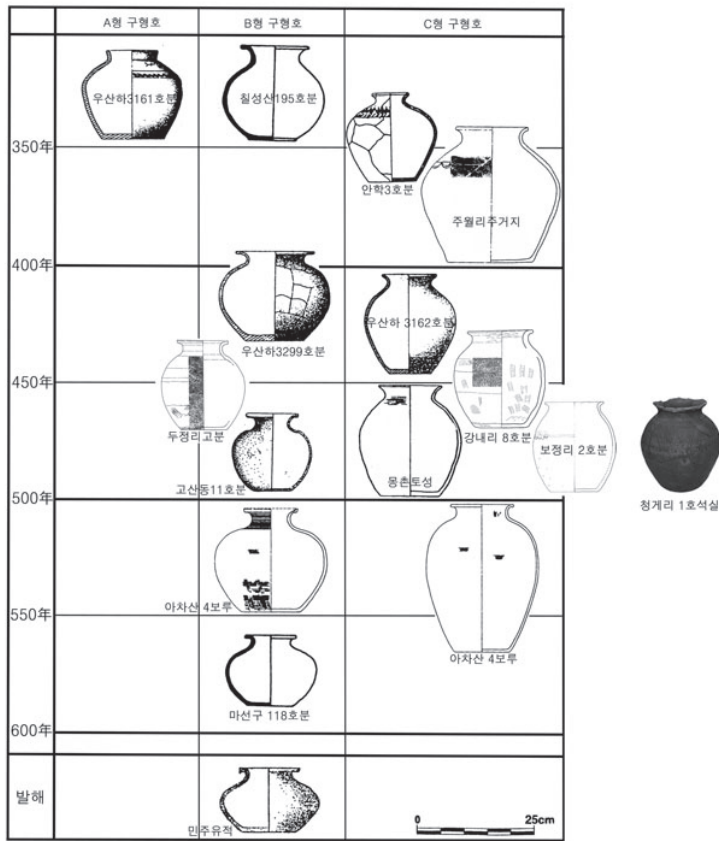


그림 14 남한지역 고구려고분 출토 구형호류의 편년적 위치

토기류는 구형호류(球形壺類), 장동호류(長胴壺類), 심발류(深鉢類), 병류(瓶類) 등 4개 기종 7점이 출토되었다. 구형호가 4점으로 가장 많이 출토되었으며, 나머지는 1점씩 출토되었다. 구형호류는 약간 늘린 공 모양의 편구형(扁球形) 동체에 짧게 외반하는 목을 가진 B형이 1점, 아래위로 약간 긴 구형의 동체부에 짧게 외반하는 목이 달린 C형이 3점이다. 두정리 2호분에서 출토된 B형 구형호는 고산동 11호분 출토품과 형태적으로 유사한데, 두정리 2호분 출토품이 몸통이 약간 길고 최대경이 동체부 중앙에 있어 고산동 11호분 출토품보다는 다소 이른 형태이며, 대략 5세기 중엽경으로 편년할 수 있다(그림 14).

C형 구형호 중 보정동 2호분과 청계리고분 1호 석실 출토품은 형태상으로 몽촌토성 출토품과 거의 같다. 이 두 점의 구형호에는 동일한 패턴의 문양이 시문되어있는데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구형호류에서 유사한 문양이 다수 확인된다. 따라서 이 두 점의 구형호는 몽촌토성 출토품과 같이 5세기 후엽으로 편년할 수 있으며, 몽촌토성의 연대관에 따르면 475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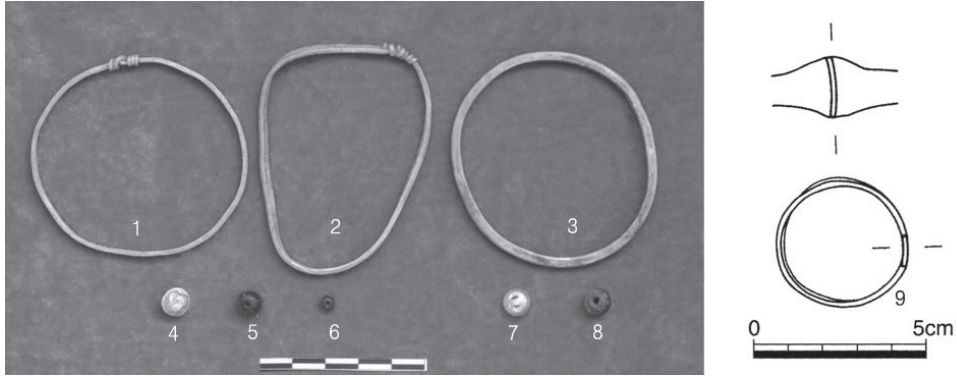


그림 15 남한지역 고구려고분 출토 장신구류 각종

서 500년 사이로 추정된다. 또한 강내리 8호분 출토 구형호는 동최대경이 동체 중앙에 있어 형태상으로 앞의 2점보다 다소 이른 시기로 판단되며, 5세기 중엽경에 해당한다.

강내리고분군에서 여러 점의 장신구류가 출토되었는데, 2호분과 8호분에서는 은제 팔찌와 금제 구슬 및 유리구슬이 함께 출토되었다. 두정리 4호분에서는 은제 지환이 1점 출토되었다. 금제 구슬은 속이 빈 주판알 모양이며, 매달아 장식할 수 있도록 가운데나 양 측면으로 구멍이 뚫려있다(그림 15).

4. 남한지역 고구려 고분의 편년과 의미

남한지역 고구려 고분은 묘실 길이 2.2m를 기준으로 소형과 중형으로 구분되고, 장축비 1.6을 기준으로 장방형과 세장방형으로 나뉜다(<그림 13> 참조). <그림 13>을 보면 강내리고분군 9기와 두정리고분 5기 모두 세장방형이며, 방동리 2호분도 세장방형에 속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두정리 2호분 출토 B형 구형호와 강내리 8호분 출토 C형 구형호는 형태상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며, 이 고분들은 세장방형에 속한다.

반면에 장방형으로 구분되는 보정동 2호분과 청계리고분 1호석실에서 출토된 C형 구형호는 5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그림 14> 참조). 출토유물상의 이러한 차이와 일반적으로 고구려 황혈식석실분이 장방형 묘실에서 방형 묘실로 변화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세장방형 묘실의 고분은 5세기 중엽경으로 편년할 수 있으며, 장방형 묘실의 고분은 5세기 후엽으로 편년이 가능하다.

묘실의 평면 형태와 바닥처리, 관대의 유무 및 장구류 출토여부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



1:역내리유적, 2,9,10:건등리유적, 3: 송두리유적,
4~7: 마북동유적, 8:철정리유적, 11:탑평리유적

그림 16 남한지역 취락유적 출토 고구려토기 각종

지고 있는데, 세장방형 묘실은 바닥처리를 하고, 관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반면에 장방형 묘실은 바닥처리를 하지 않고 관대를 설치한 예가 많다. 또 바닥처리를 한 경우라도 세장방형 묘실은 모두 불을 놓아 다짐 처리를 하였으나, 장방형 묘실의 경우 바닥처리 방식은 다양하다. 정리하면 5세기 중엽 경에는 불을 놓아 다진 묘실 바닥에 관을 안치한 경우가 많고, 5세기 후엽 경에는 관대를 설치하고 관이 없이 시신을 직접 안치한 예가 많다.

남한지역 고구려 고분은 비교적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나 구조적인 특징에 있어서 강한 정형성을 보이고 있다.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로 보아 5세기 중엽에서 후엽에 이르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고구려인들에 의해 축조된 고분임이 분명하다. 고분의 피장자에 대한 자료는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지만 연천 강내리 2호분과 8호분에서는 금제구슬과 은제팔찌, 유리구슬 등이 출토되었으며, 충주 두정리 4호분에서는 은제 지환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장신구류가 출토된 고분은 비교적 규모가 큰 고분에 해당하며, 남한지역 고구려 고분의 피장자는 상위 신분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굴조사가 확대됨에 따라 관방유적과 고분 외에도 곳곳에서 고구려 취락유적이나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이 조사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유적들은 모두 신라에 의해 다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고구려 시기의 유구나 문화층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특징적인 고구려 토기가 출토된다. 이러한 취락유적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는 기형이나 문양에 있어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5세기 후엽 경으로 편년된다(그림 16).

그런데 이들 취락유적의 분포를 보면 춘천 우두동유적은 만천리고분과 인접해 있으며, 홍천 철정리유적과 역내리유적은 철정리고분 및 역내리고분과 바로 인접해 있다. 또, 충주 탑평리유적은 두정동고분군 및 증원고구려비와 인접해 있으며, 용인 마북동유적은 보정리 고분군과 인접해 있다. 한편 신답리고분군과 강내리고분군 주변에는 파주 주월리유적 외에도 많은 수의 관방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상의 특징을 근거로 할 때 고분의 피장자는 인접한 취락유적이나 관방유적에 거주하던 고구려인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따라서 남한지역의 고구려 고분의 피장자는 단기간의 전투 중에 전사한 지휘관 등이 아니라 일정기간 체류하던 집단의 상위 계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추론과 관방유적의 분포를 연계해볼 때 475년 한성을 공함한 고구려는 장수왕은 귀환하였으나, 이후 점령지에 대한 영역화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V. 맺음말

이상에서 남한지역 고구려유적의 조사현황 및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는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상당한 연구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남한지역에서 조사된 가장 이른 시기의 고구려 유물은 파주 주월리유적에서 출토된 구형호 등으로 4세기 후엽 또는 4세기말로 편년된다. 그 다음으로는 세장방형묘실의 황혈식석실분으로 5세기 중엽 경에 해당된다. 5세기 후엽에는 장방형 묘실의 황혈식석실분이 축조되었으며, 아울러 몽촌토성과 대모산성, 남성골산성, 월평동유적, 은대리산성, 당포성 등도 이 시기에 해당된다. 이후 6세기 전반에는 한강 북안의 아차산일원에 고구려 보루가 축조되어 551년까지 존속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양주분지와 임진·한탄강유역의 대부분의 보루들도 대체로 5세기 중반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이해되나 폐기시점에 대해서는 추가의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통해 볼 때 고구려는 4세기 후반 이후 북한강 상류와 남한강상

류를 통해 충주지역으로 진출하였는데, 연천 강내리고분군과 춘천 방동리 2호분 및 충주 두정리고분군과 같은 세장방형 고분은 고구려의 충주지역 진출 및 영역화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475년 한성공함이후 고구려군은 몽촌토성에 주둔하고 진천과 청원, 대전으로 진출하였으며, 점령지에 대한 영역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이해되는데, 나머지 5세기 후엽 이후의 장방형고분들은 이러한 영역화 과정에서 축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고분들 인근에서 고구려의 취락유적이 속속 조사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구려가 남한지역에 대한 영역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으며, 일정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 참고문헌 |

- 江原文化財研究所, 2005a, 『下花溪里·哲亭里·驛內里 遺蹟(I)-國道 44號線(구성포-어른간) 道路 擴·鋪裝工事區間內 遺蹟發掘調查報告書』,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33冊.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b, 『洪川 驛內里 古墳群-國道 44號線(구성포-어른간) 道路 擴·鋪裝工事區間內 遺蹟發掘調查報告書 II』,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33冊.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춘천 우두동 직업훈련원 진입도로 확장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중간 지도위원 회의의 자료』.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洪川 哲亭里 II 遺蹟-홍천 구성포-두촌간 도로 확·포장공사내 유적발굴조사 약보고서』.
- 江原文化財研究所, 2008, 『泉田里 B지역』,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80冊.
- 江原文化財研究所, 2010, 『洪川 哲亭里 II 遺蹟 B·C地區』,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103冊.
- 江原文化財研究所, 2011, 『春川 牛頭洞遺蹟 I-직업훈련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112冊.
- 강진갑·류기선·손명원·심광주·윤우준·이달호·이도학·주강현 1994, 『아차산의 역사와 문화유산』, 구리문화원학술총서 1, 구리시·구리문화원.
- 강현숙, 1994, 「고구려 봉토 석실분의 변천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31, 韓國考古學會.
- 姜賢淑, 2000, 『高句麗 古墳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請求論文.
- 京畿文化財研究院, 2009, 『龍仁 麻北洞 聚落遺蹟-삼막곡~연수원간 도로개설구간내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 學術調查報告 第109冊.
- 高麗文化財研究院, 2010,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 문화재 시·발굴조사(I 지점) 제3차 지도위원회의 자료』.
- 구의동보고서간행위원회, 1997, 『한강유역의 고구려 요새』, 도서출판 소화.
-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2009, 『아차산 4보루 발굴조사보고서』.
-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10, 『충주 탑평리유적 제3차년도 시굴조사 제 2차 자문회의 자료』.
- 금경숙, 2001, 「高句麗 領域으로서의 北漢江 流域 - 靺鞨문제와 관련하여-」, 『韓國史學報』 第11號, 高麗史學會, 41~63쪽.
- 金玟秀, 1994, 『漢江流域에서의 三國史의 諸問題』, 九里文化院.
- 金元龍·任孝宰·朴淳發 1988, 『夢村土城 - 東南地區發掘調查報告』, 서울大學校博物館.

- 金元龍·任孝宰·朴淳發·崔鍾澤 1989, 『夢村土城 - 西南地區發掘調查報告』, 서울大學校博物館.
- 畿甸文化財研究院, 2005, 『龍仁 寶亭里 소실遺蹟 試發掘調查報告書-본문·도면-』, 畿甸文化財研究院 學術調查報告 第75冊.
- 김병희·유용수·김정인·오운석, 2010, 『忠州 豆井里遺蹟-충주 클린에너지파크 조성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중원문화재연구원.
- 김상익·김충배, 2003, 『연천 신답리고분 발굴조사보고서』, 토지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16집,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金元龍, 1981, 「春城郡 芳洞里的 高句麗系 石室墳 二基」, 『考古美術』149號, 韓國美術史學會, 1~5쪽.
- 盧焯眞·沈載淵, 1993, 「江原道 春城郡 芳洞里的 特異構造 石室墳」, 『古文化』第42·43合輯, 韓國大學博物館協會, 79~103쪽.
- 白種伍, 2009, 「南韓內 高句麗 古墳의 檢討」, 『高句麗渤海研究』第35輯, 高句麗渤海學會, 221~250쪽.
- 白種伍, 2009, 「南韓內 高句麗 古墳의 檢討」, 『高句麗渤海研究』第35輯, 高句麗渤海學會.
- 徐榮一, 2002,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堡壘 考察」, 『文化史學』第17號, 63~80쪽.
- 서울대학교박물관, 2006, 『용마산 2보루 발굴조사 약보고』.
- 심광주, 2007, 「南韓地域 出土 高句麗 기와의 特徵」,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 163~212쪽.
- 沈光注, 2001, 「南韓地域의 高句麗遺蹟」, 『고구려연구』12, 고구려연구회, 453~452쪽.
- 沈光注, 2005, 『南韓地域의 高句麗 城郭研究』, 祥明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請求論文.
- 안신원, 2010, 「최근 한강 이남에서 발견된 고구려계 고분」, 『高句麗渤海研究』第36輯, 高句麗渤海學會.
- 梁時恩, 2003, 『漢江流域 高句麗土器의 製作技法에 대하여』,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양시은, 2009, 「최신 고고 자료를 통해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 경영」,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한강Ⅱ -2009년도 서울경기고고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서울경기고고학회, 1~28쪽.
- 양시은·김진경·조가영·이정은·이선복, 2009, 『용마산 제2보루 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原州 建登里遺蹟-원주 건등리 아파트신축부지 발굴조사보고서』, 學術調查報告書 第7冊.
- 이선복·양시은·남은실·조가영·김준규, 2013, 『시루봉보루Ⅱ』, 서울대학교박물관.
- 李印學·李秀珍, 2009, 『龍仁 麻北洞 遺蹟』, 韓國考古環境研究所.
- 이재설·신승주·박지영·조충현, 2009, 『서울-춘천고속도로 5공구 I·J·K지구내 가평 신천리유적』, 한백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총서 제 13책, 한백문화재연구원.

- 이희수 · 배기동 · 이한용 · 김기룡, 2009, 『용인 보정동 고분』,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총서 제16집.
- 임효재 · 최종택 · 박순 · 허용호 · 윤상덕 · 양시은, 2000b,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산』, 서울대학교박물관.
- 임효재 · 최종택 · 양성혁 · 윤상덕 · 장은정, 2000a, 『아차산 제4보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 임효재 · 최종택 · 임상택 · 윤상덕 · 양시은 · 장은정, 2002, 『아차산 시루봉보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 朝鮮總督府, 1916,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 趙由典, 1987, 「春城郡 新梅里 高句麗式 石室墳 一例」,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考古學編』,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委員會, 450~466쪽.
- 차용길 · 박중균 · 한신경 · 박은연, 2004, 『清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忠北大學校博物館.
- 최병현, 2008, 「중원문화권 고분 연구의 성과와 과제」, 『중원문화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방향』,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개소 기념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63~90쪽.
- 최병현, 2011, 「중부지방 고분문화의 전개」, 『중부지역 고고학의 시·공간적 정체성(Ⅱ)』, 2011년 중부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중부고고학회, 9~19쪽.
- 崔章烈, 2001, 「漢江 北岸 高句麗堡壘의 築造時期와 그 性格」, 『韓國史論』第47輯, 서울大學校國史學科.
- 崔鍾澤, 1991, 「九宜洞遺蹟出土 鐵器에 對-하여」, 『서울大學校博物年報』3, 서울大學校博物館.
- 崔鍾澤, 1993, 『九宜洞-土器類에 대한 考察』, 서울大學校博物館學術叢書 2, 서울大學校博物館.
- 崔鍾澤, 1995, 「漢江流域 高句麗土器 研究」, 『韓國考古學報』第33輯, 韓國考古學會, 29~89쪽.
- 崔鍾澤, 1998, 「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과 백제」, 『百濟研究』第28輯,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135~17쪽.
- 崔鍾澤, 1999a, 『高句麗土器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請求論文.
- 崔鍾澤, 1999b, 「京畿北部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高句麗研究』8, 고구려연구회, 257~283쪽.
- 崔鍾澤, 2002, 「夢村土城 內 高句麗遺蹟 再考」, 『韓國史學報』제12호, 高麗史學會, 9~40쪽.
- 최종택, 2004a, 「아차산 고구려 보루의 역사적 성격」, 『향토서울』64, 서울시사편찬위원회, 87~128쪽.
- 崔鍾澤, 2004b, 「남한지역출토 고구려 토기 연구의 몇 가지 문제」, 『白山學報』第69輯, 白山學會, 43~69쪽.

- 崔鍾澤, 2006, 「南韓地域 高句麗 土器의 編年 研究」, 『先史와 古代』 24, 韓國古代學會, 242~299쪽.
- 崔鍾澤, 2008, 「고고자료를 통해 본 백제 웅진도읍기 한강유역 영유설 재고」, 『百濟研究』 第47輯,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127~160쪽.
- 崔鍾澤, 2011, 「南韓地域 高句麗古墳의 構造特徵과 歷史的 意味」, 『한국고고학보』 81집, 한국고고학회.
- 최종택, 2013,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출판사.
- 崔鍾澤 · 吳珍錫 · 李廷範 · 趙晟允, 2007, 『峨嵯山 第1堡壘 1次 發掘調査報告書』, 高麗大學校考古環境研究所.
- 崔鍾澤 · 李秀珍 · 吳恩姪 · 吳珍錫 · 李廷範 · 趙晟允, 2007, 『紅蓮峰 第1堡壘 發掘調査 綜合報告書』, 高麗大學校考古環境研究所.
- 崔鍾澤 · 李秀珍 · 吳恩姪 · 趙晟允, 2007, 『紅蓮峰 第2堡壘 1次 發掘調査報告書』, 高麗大學校考古環境研究所.
- 崔鍾澤 · 張恩晶 · 朴長植, 2001, 『三國時代 鐵器 研究 -微細組織分析을 통해 본 鐵器 製作技術體系-』, 서울大學校博物館學術叢書 10, 서울大學校博物館.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5, 『鎭川-鎭川 I-C間 道路 擴鋪裝工事區間 內 松斗里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學術調査報告書 第163冊.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성남 판교지구 문화유적 2차 발굴조사 -5차 지도위원회의 자료-』
- 翰林大學校博物館, 2000, 『春川市 東面 萬泉里古墳 發掘調査報告書』, 翰林大學校博物館研究叢書 13.
- 한백문화재연구원, 2008, 『화성 청계 택지개발지구발굴조사 3차 지도위원회 회의자료(가지구)』
- 한백문화재연구원, 2011, 『4대강(북한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화천 거례리 1지구 유물산포지 4구간 발굴조사 완료 약보고서』.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901-3번지 신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 華陽地區發掘調査團, 1977a, 『華陽地區 遺蹟發掘 調査報告』.
- 華陽地區發掘調査團, 1977b, 『華陽地區 遺蹟發掘 調査報告(第二次)』.

토론 | 남한지역 고구려유적 연구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심광주(토지주택박물관 관장)

발표자인 최종택교수는 다수의 고구려 보루를 직접 발굴해 왔으며, 유적과 유물에 대한 다년간의 穿鑿을 통하여 고구려 고고학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하는데 누구보다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는 이번 발표 주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논문도 이미 여러 편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기왕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이라는 단행본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발표는 관방유적과 고분을 중심으로 남한지역 고구려 유적의 조사와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연구사적인 측면에서의 서술이므로 구체적인 논지와 근거가 소략하여 발표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의 논지를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질의에 앞서 발표자의 주요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구려는 4세기 후반 이후 북한강 상류와 남한강 상류를 통해 충주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연천 강매리고분군과 춘천 방동리2호분, 충주 두정리고분 등 세장방향 고분은 이시기 고구려의 충주지역 진출 및 영역화와 관련된 것이다.

둘째,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한성 攻陷 이후 고구려군은 몽촌토성에 주둔하고 진천과 청원, 대전으로 진출하며 점령지에 대한 영역화를 시도하였다. 평면 장방향고분들은 이 과정에서 축조된 것이다.

셋째,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유적은 4세기말 이후부터 축조되기 시작했다. 남성골산성과 금강유역 관방유적은 475년 이후부터 500년 무렵까지, 한강 북안 아차산 일원 보루는 500년부렵부터 551년까지 존속하였다.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의 관방유적은 5세기 중엽이후 축조되어 7세기 중엽까지 사용되었다.

넷째, 고구려는 남한지역에 대한 영역화를 적극 시도하였으며, 영역화가 일정기간 지속

되었다.

발표자의 논지의 핵심은 고구려는 4세기 말부터 남한지역에 대한 영역화를 시도하였으며 각지에 분포하는 관방유적과 고분유적이 그러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직 해당 유적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발표자와 다른 견해와 그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삼국시대의 영역화 과정은 전쟁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영역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곽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된 고구려 유적을 보면 고분과 성곽의 분포지역이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성곽의 분포양상은 신라성곽이나 백제성곽처럼 군현단위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교통로를 따라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점령지역에 대한 영역화의 주 목적은 인적·물적자원의 확보와 통제였을텐데, 이러한 고구려유적의 분포양상은 고구려가 점령지역을 영역화 하였다는 증거로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보완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고구려 성곽의 축성기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구려 성곽의 축성기법에 대해서는 본 발표문 보다는 최근 발간된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발표자는 그동안 일관되게 고구려보루가 초기에는 목책이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목책 바깥쪽에 석성을 쌓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남성 골산성에서 발굴된 목책유구와 함께, 지금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구려 보루에서 공통적으로 정상부에서 柱孔列이 확인되고 얇은 석축성벽 기저부나 안쪽에서도 柱孔列이 확인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보루를 일단 목책으로 구축하였다가 석축으로 개축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발표자도 이것을 고구려의 남진 기간 동안 고구려의 축성기법이 목책에서 석축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한지역 고구려 보루들을 모두 목책으로 먼저 구축하고 석축으로 개축한 이유는 전략적인 이유 때문인지, 남진경영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인지 등 발표자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선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과연 석축으로 개축되었다고 하는 고구려 보루에서 확인되는 주혈들이 과연 목책 공인가 하는 점입니다.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무등리2보루나 흥련봉1,2보루에서 확인되는 양상을 보면 목책공이라고 보아온 정상부의 주공열은 굴광선이 확인되지 않는 성토층에 기둥흔적만이 있고 성벽 하단부의 주공열은 암반이나 생토면을 넓고 깊게 굴착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잔존양상을 보면 이것은 목책공이라기 보다는 성벽의 토축부를 조성하기 위한 영정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루를 쌓기 위해서는 배수와 성토, 지반 정지와 보강 판축기법에 의한 토축부 조성, 석축마감 등 다양한 토목공사가 선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목책열로 본 주공들은 바로 이러한 선행된 토목공사의 증거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러한 토축부에 대한 조성을 배제할 경우 과연 목책만으로 과연 존재 할 수 있었을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축부를 석축부의 뒤체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는 석축부를 먼저 쌓고 뒷부분을 채우듯이 토축부를 조성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분명한 것은 석축부 먼저 쌓고 토축부를 쌓건, 석축부와 토축부를 동시에 쌓아 올라갈 경우 석축부는 토압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자는 남한지역의 고구려 보루중 석축으로 마감된 성벽은 목책에서 석축으로 개축된 것의 아니라 영정주와 횡장목을 포함한 견고한 목가구 구조를 바탕으로 판축하여 토축부를 먼저 조성하고 석축으로 성벽을 마감함으로써 축성과 방어의 효율성을 추구한 고구려의 전형적인 축성공법인 ‘土芯石築工法’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유물의 편년과 관련한 기준설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발표자가 그동안 고구려 토기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기틀을 닦아 놓았으며, 고구려 토기와 관련한 최 교수님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연구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하겠지만 유물의 편년 기준이 아직 기대만큼 진전되거나 정교하게 체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의 견해대로 하면 6세기 중엽 이후 7세기 후반까지 고구려토기의 특징과 그 변화양상은 어떻게 보아야 할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로그루를 포함한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보루는 고구려 멸망시까지 존속했던 유적들이므로 여기서 확인되는 고구려 토기들은 오히려 7세기대의 토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편년 설정한 5~6세기의 고구려토기에 대한 편년도 좀 더 늦은 시기로 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구려 토기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발표자의 보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